

연구보고 2013-41

한국아동패널 2013

도남희 민정원 왕영희 이예진 김소아 엄지민

머 리 말

최근 OECD는 데이터 수집과, 연구가 정책을 모니터링 하는데 중요하다는 것과 중단연구는 정책과 현실을 연결하는 영향력 있는 도구로서 정책 입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OECD는 이러한 인식하에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가 프로그램과 중단연구 등에 관심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으며 중단연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아동패널연구도 소개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중단연구로서 아동발달 생태이론(Bronfenbrenner, 1979)에 근거하여 2006년에 개발된 아동패널 모형에 따라 아동, 부모, 가족, 육아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및 육아지원정책 등 우리나라 아동발달과 양육에 대한 총괄적 기초 자료를 생산해 오고 있다.

본 보고서는 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6차년도 연구사업의 목적, 내용과 방법, 경과를 제시하였고, 두 번째는 6차년도 연구사업의 변인들과 심층조사에 대한 개요를, 세 번째는 2012년도 5차년도 조사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초분석은 패널의 아동발달 특성, 부모특성, 가구 특성,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거주지역 특성, 육아지원정책 특성의 6가지의 특성을 제시하였고 네 번째는 국정과제 주제 관련 중단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연구가 올해 6차년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7차년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중단연구의 진행을 위해 매해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패널 가족분들과 도움을 주신 관련분야 전문가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연구가 이 땅의 행복한 아동을 위한 육아정책 수립에 반영되기를 기원한다.

2013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차 례

요약	1
I.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17
3. 연구방법	24
4. 외국패널 및 코호트 연구	31
II. 6차년도 패널조사 및 심층조사	37
1. 6차년도 조사	37
2. 심층조사	47
III. 5차년도(2012) 자료의 기초분석	52
1. 조사의 개요	52
2. 가중치 작성 및 추정	57
3. 아동 특성	64
4. 부모 특성	91
5. 가구 특성	114
6.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121
7. 지역사회 특성	134
8. 육아 정책 특성	143
9. 요약	150
IV. 국정과제 관련 주제별 중단분석	152
1. 아동의 보육·교육 기관 이용과 생활시간 사용	152
2. 아버지의 양육태도 변화와 그 영향	165
3. 어머니의 취업 변화 양상 및 결정요인 탐색	173
4. 중단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	181
참 고 문 헌	185

Abstract	189
부 록	191
부록 1. 6차년도(2013) 조사 안내문	193
부록 2. 제4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표지 및 일정	195
부록 3. 5차년도(2012) 면접조사용 질문지	201
부록 4. 5차년도(2012) 어머니대상 질문지	222
부록 5. 5차년도(2012) 아버지대상 질문지	234
부록 6. 5차년도(2012) 어린이집용 질문지	242
부록 7. 5차년도(2012) 유치원용 질문지	251
부록 8. 5차년도(2012) 반일제이상 학원용 질문지	260

표 차례

〈표 I-2-1〉 연도별 조사 실시 계획	17
〈표 I-2-2〉 차수별 아동 특성 변인	18
〈표 I-2-3〉 부모 특성 변인 변화	19
〈표 I-2-4〉 차수별 가구 특성 변인	21
〈표 I-2-5〉 차수별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변인	22
〈표 I-2-6〉 차수별 지역사회 특성 변인	22
〈표 I-2-7〉 차수별 육아 정책 특성 변인	23
〈표 I-3-1〉 2013년 전문가 회의 개최 현황	25
〈표 I-3-2〉 권역별 표본 수	26
〈표 I-3-3〉 아동조사의 유형과 내용	27
〈표 I-3-4〉 부모조사의 유형과 내용	28
〈표 I-3-5〉 기관조사의 유형과 내용	29
〈표 II-1-1〉 6차년도 질문지 예비조사 일정	40
〈표 II-1-2〉 2013년 조사원 교육 일정	40
〈표 II-1-3〉 2013년 조사원 교육 내용	41
〈표 II-1-4〉 질문지별 조사 일정	42
〈표 II-1-5〉 조사원 중간 점검 실시 일정	43
〈표 II-1-6〉 한국아동패널 2008~2013년 조사 참여율	43
〈표 II-1-7〉 한국아동패널 2013년 조사별 성공률	44
〈표 II-1-8〉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주제	45
〈표 II-1-9〉 한국아동패널 자료 활용 현황	46
〈표 II-2-1〉 심층조사의 내용	47
〈표 II-2-2〉 심층조사 전문가 네트워크 및 표본 배분	48
〈표 II-2-3〉 심층조사 조사원 교육	49
〈표 III-1-1〉 한국아동패널 2012년 조사별 성공률	52
〈표 III-1-2〉 아동 특성	53
〈표 III-1-3〉 부모 특성	54
〈표 III-1-4〉 가족 특성	55

〈표 III-1-5〉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56
〈표 III-1-6〉 지역사회 특성	56
〈표 III-1-7〉 육아 정책 특성	57
〈표 III-2-1〉 연도별 아동패널가구 응답가구 분포	59
〈표 III-2-2〉 5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무응답 로지스틱 모형 분석결과	60
〈표 III-2-3〉 5차년도 최종 횡단면 가중치 부여결과(2012년 자료 기준)	61
〈표 III-2-4〉 5차년도 최종 종단면 가중치 부여결과(2012년 자료 기준)	62
〈표 III-2-5〉 한국아동패널 조사 연도별 가구 수 및 가중치 적용	63
〈표 III-3-1〉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64
〈표 III-3-2〉 아동의 수면 시간	65
〈표 III-3-3〉 아동의 숙면 유무	65
〈표 III-3-4〉 아동의 낮잠 여부	66
〈표 III-3-5〉 아동의 낮잠 시간	66
〈표 III-3-6〉 가정에서의 아동의 식사시간 규칙성(어머니 응답)	67
〈표 III-3-7〉 기관에서의 또래와 비교한 아동의 식사량(교사 응답)	68
〈표 III-3-8〉 가정에서의 아동의 식사량 일정성(어머니 응답)	68
〈표 III-3-9〉 가정에서의 아동의 식사 속도(어머니 응답)	69
〈표 III-3-10〉 기관에서의 또래와 비교한 아동의 식사 속도(교사 응답)	70
〈표 III-3-11〉 가정에서의 아동의 식습관 자립도(어머니 응답)	70
〈표 III-3-12〉 아침식사 횟수	71
〈표 III-3-13〉 간식 횟수	71
〈표 III-3-14〉 외식 횟수	71
〈표 III-3-15〉 가정에서의 아동의 편식(어머니 응답)	72
〈표 III-3-16〉 기관에서의 또래와 비교한 아동의 편식 정도(교사 응답)	73
〈표 III-3-17〉 교육·보육기관 이용 시간	73
〈표 III-3-18〉 학습활동 시간	74
〈표 III-3-19〉 시청각 프로그램 및 전자제품 이용 시간	74
〈표 III-3-20〉 놀이 시간	75
〈표 III-3-21〉 기본생활 및 기타 시간	76
〈표 III-3-22〉 아동의 미디어 최초 이용 시작 연령	76
〈표 III-3-23〉 아동의 미디어 이용 정도: 컴퓨터	77

〈표 III-3-24〉 아동의 미디어 이용 정도: 개인 게임기	77
〈표 III-3-25〉 아동의 미디어 이용 정도: 휴대폰	78
〈표 III-3-26〉 아동 체중 및 신장	78
〈표 III-3-27〉 아동의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한 치료	79
〈표 III-3-28〉 아동의 입원 치료	79
〈표 III-3-29〉 아동의 입원 이유(중복응답)	80
〈표 III-3-30〉 아동의 한 달 간 통원 치료	80
〈표 III-3-31〉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아동의 질환(중복응답)	81
〈표 III-3-32〉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아동의 질환의 진단 시기	81
〈표 III-3-33〉 아동의 인지발달	82
〈표 III-3-34〉 아동의 창의성발달	83
〈표 III-3-35〉 아동의 언어발달	83
〈표 III-3-36〉 아동의 기질	84
〈표 III-3-37〉 기관에서 선호하는 놀이 영역: 1순위	85
〈표 III-3-38〉 기관에서 선호하는 놀이 영역: 2순위	85
〈표 III-3-39〉 어머니가 인식한 아동의 기관 선호 정도	86
〈표 III-3-40〉 교사가 인식한 아동의 기관 선호 정도	86
〈표 III-3-41〉 어머니가 인식한 아동의 교사 선호 정도	87
〈표 III-3-42〉 교사가 인식한 아동의 교사 선호 정도	87
〈표 III-3-43〉 또래 놀이 상호작용	88
〈표 III-3-44〉 문제행동 증후군	88
〈표 III-3-45〉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	89
〈표 III-3-46〉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 및 기타 문제	90
〈표 III-3-47〉 DSM 진단	90
〈표 III-4-1〉 부모의 연령	91
〈표 III-4-2〉 부모의 최종학력	91
〈표 III-4-3〉 부모의 결혼상태 및 기간	92
〈표 III-4-4〉 아동과의 동거 여부	92
〈표 III-4-5〉 부모의 1·2급 장애 및 희귀난치성 유전병 유무	93
〈표 III-4-6〉 부모의 음주 횟수	93
〈표 III-4-7〉 부모의 음주량	93

〈표 III-4-8〉 부모의 과음 횟수	94
〈표 III-4-9〉 흡연	94
〈표 III-4-10〉 취업/학업 상태	95
〈표 III-4-11〉 어머니의 미취업/취업 이유	95
〈표 III-4-12〉 어머니의 경력 단절 이유	95
〈표 III-4-13〉 어머니의 경력단절 시기	96
〈표 III-4-14〉 어머니의 향후 취/학업 계획	97
〈표 III-4-15〉 어머니의 구직활동 여부, 희망 근로 형태 및 희망 이유	97
〈표 III-4-16〉 어머니의 이직사유	97
〈표 III-4-17〉 부모의 직장/직위 변동여부	98
〈표 III-4-18〉 부모의 종사상 지위	98
〈표 III-4-19〉 부모의 직업군	98
〈표 III-4-20〉 어머니 직장의 종사자 수	99
〈표 III-4-21〉 어머니 평균 근무일 및 시간	99
〈표 III-4-22〉 어머니의 40시간 미만 근무 이유	99
〈표 III-4-23〉 어머니의 활동시간	100
〈표 III-4-24〉 (부정적) 자기효능감	101
〈표 III-4-25〉 자아존중감	101
〈표 III-4-26〉 우울	101
〈표 III-4-27〉 결혼만족도	102
〈표 III-4-28〉 부부갈등	102
〈표 III-4-29〉 후속출산 계획 여부	102
〈표 III-4-30〉 후속출산 미계획 사유	103
〈표 III-4-31〉 후속출산 계획 자녀 수	103
〈표 III-4-32〉 부모의 이상 자녀 수	104
〈표 III-4-33〉 부모의 이상적인 자녀의 기대성별	104
〈표 III-4-34〉 부모의 이상적인 자녀의 기대성별 구성	104
〈표 III-4-35〉 부모의 책임	105
〈표 III-4-36〉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자질과 특성(중복응답)	105
〈표 III-4-37〉 양육행동	106
〈표 III-4-38〉 양육스트레스	106

〈표 III-4-39〉 아버지의 양육참여	107
〈표 III-4-40〉 아버지의 양육참여 시간	107
〈표 III-4-41〉 교사가 인식한 부모의 기관 관심 정도	107
〈표 III-4-42〉 부모의 육아지원기관 방문 빈도	108
〈표 III-4-43〉 부모참여 행사 참석 여부와 종류(어머니 응답)	108
〈표 III-4-44〉 부모참여 행사 참석 종류(교사 중복 응답)	108
〈표 III-4-45〉 지난 1년 간 육아지원 서비스	109
〈표 III-4-46〉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이유	110
〈표 III-4-47〉 육아지원서비스 미이용 이유	110
〈표 III-4-48〉 육아지원기관 및 대리양육 중복이용 이유	111
〈표 III-4-49〉 육아지원기관 이용 시작 시기 및 이용 빈도	111
〈표 III-4-50〉 등·하원 수단	111
〈표 III-4-51〉 등·하원 시 동반하는 사람	112
〈표 III-4-52〉 등·하원 시간	112
〈표 III-4-53〉 현 육아지원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112
〈표 III-4-54〉 대리양육 및 육아지원기관 변경 횟수	113
〈표 III-4-55〉 대리양육 및 육아지원기관 변경 이유	113
〈표 III-4-56〉 육아지원기관 총 비용	113
〈표 III-4-57〉 육아지원기관 이용비용 부담도	114
〈표 III-4-58〉 육아지원기관 이용비용 전반적 만족도	114
〈표 III-5-1〉 가구 구성원 수 및 구성	114
〈표 III-5-2〉 월평균 가구 소득	115
〈표 III-5-3〉 월평균 가구 지출	115
〈표 III-5-4〉 가구 자산	116
〈표 III-5-5〉 가구 부채 및 월상환금	116
〈표 III-5-6〉 사회보장 지원	116
〈표 III-5-7〉 가족생활사건	117
〈표 III-5-8〉 HOME의 하위척도 및 문항수	117
〈표 III-5-9〉 HOME: 가정환경 총점	118
〈표 III-5-10〉 HOME: 학습자료	118
〈표 III-5-11〉 HOME: 언어자극	119

〈표 III-5-12〉 HOME: 물리적 환경	119
〈표 III-5-13〉 HOME: 반응성	119
〈표 III-5-14〉 HOME: 학습자극	120
〈표 III-5-15〉 HOME: 모방학습	120
〈표 III-5-16〉 HOME: 다양성	120
〈표 III-5-17〉 HOME: 수용성	121
〈표 III-6-1〉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 유형	121
〈표 III-6-2〉 육아지원기관 시설유형	122
〈표 III-6-3〉 육아지원기관 평가 여부	123
〈표 III-6-4〉 육아지원기관의 규모	123
〈표 III-6-5〉 육아지원기관의 연령 구성	124
〈표 III-6-6〉 학급 규모	124
〈표 III-6-7〉 교실 환경	125
〈표 III-6-8〉 육아지원기관 내 공간 특성	125
〈표 III-6-9〉 교사의 성별 및 연령	126
〈표 III-6-10〉 교사의 근무 시간	126
〈표 III-6-11〉 교사의 경력	127
〈표 III-6-12〉 교사의 자격(중복응답)	127
〈표 III-6-13〉 교사의 학력	128
〈표 III-6-14〉 교사의 전공	128
〈표 III-6-15〉 교사의 교수 특성	129
〈표 III-6-16〉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여부	129
〈표 III-6-17〉 특별활동 프로그램 종류(중복응답)	130
〈표 III-6-18〉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	130
〈표 III-6-19〉 특별활동 프로그램 주당 이용 횟수	131
〈표 III-6-20〉 특별활동 프로그램 주당 이용 시간	131
〈표 III-6-21〉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비용	132
〈표 III-6-22〉 개인대리양육자의 인구학적 특성	132
〈표 III-6-23〉 개인대리양육 이용 특성	133
〈표 III-6-24〉 개인대리양육 이용 시간	133
〈표 III-6-25〉 개인대리양육 이용 비용	133

〈표 III-6-26〉 개인대리양육 이용 비용 부담도	134
〈표 III-6-27〉 개인대리양육 전반적 만족도	134
〈표 III-6-28〉 비급여 양육 도우미 여부	134
〈표 III-7-1〉 거주 지역	135
〈표 III-7-2〉 양육 적절성	135
〈표 III-7-3〉 가용 육아지원기관	136
〈표 III-7-4〉 가용 사교육기관	137
〈표 III-7-5〉 시설 이용 편리성: 놀이터	137
〈표 III-7-6〉 시설 이용 편리성: 공원	138
〈표 III-7-7〉 시설 이용 편리성: 산책로	138
〈표 III-7-8〉 시설 이용 편리성: 박물관	139
〈표 III-7-9〉 시설 이용 편리성: 미술관	140
〈표 III-7-10〉 시설 이용 편리성: 공연시설(음악회, 연극 등)	140
〈표 III-7-11〉 시설 이용 편리성: 영화관	141
〈표 III-7-12〉 시설 이용 편리성: 장난감 대여센터	141
〈표 III-7-13〉 시설 이용 편리성: 도서관	142
〈표 III-8-1〉 육아지원제도 수혜여부(중복 응답)	143
〈표 III-8-2〉 육아지원제도 지원유형	143
〈표 III-8-3〉 육아지원제도 지원 만족도	144
〈표 III-8-4〉 보육·교육 무상 지원에 따른 후속출산 의사 정도	145
〈표 III-8-5〉 양육비용 지급에 따른 후속출산 의사 여부 및 걱정 금액	145
〈표 III-8-6〉 직장에서 시행 가능한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	146
〈표 III-8-7〉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방식 필요성	146
〈표 III-8-8〉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방식 필요 순위	147
〈표 III-8-9〉 보육·교육 정책 인지 여부	148
〈표 III-8-10〉 보육·교육 정책의 출산계획 영향 여부: 만 0~2세 지원	148
〈표 III-8-11〉 보육·교육 정책의 출산계획 영향 여부: 만 3~5세 지원	149
〈표 IV-1-1〉 연령별 관련 문항 응답자 수	154
〈표 IV-1-2〉 연령별 응답 값 분포	155
〈표 IV-1-3〉 어머니 취업 및 종사상 지위에 따른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률 ...	157
〈표 IV-1-4〉 부모의 학력 및 가구소득에 따른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률	159

〈표 IV-1-5〉 아동 연령 및 출생 시 가구특성별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률 비교 ..	160
〈표 IV-1-6〉 출생 시 가구 특성에 따른 아동의 연령별 기관이용 시간	161
〈표 IV-1-7〉 출생 시 가구 특성에 따른 아동의 연령별 취침시각	162
〈표 IV-1-8〉 출생 시 가구 특성에 따른 아동의 연령별 수면시간	163
〈표 IV-1-9〉 출생 시 가구 특성에 따른 아동의 연령별 미디어 노출시간 ..	163
〈표 IV-2-1〉 만 3세 시기 자녀의 또래상호작용 점수 분포	167
〈표 IV-2-2〉 만 4세 시기 자녀 문제행동 점수 분포	167
〈표 IV-2-3〉 아버지의 양육협조 변화	168
〈표 IV-2-4〉 5년 간 아버지 양육협조의 지속성	169
〈표 IV-2-5〉 아버지 양육협조 상중하 군의 분포	170
〈표 IV-2-6〉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 양육협조 비교	170
〈표 IV-2-7〉 아버지의 양육협조 수준에 따른 자녀의 또래상호작용 비교 ..	171
〈표 IV-2-8〉 아버지의 양육협조 수준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비교	172
〈표 IV-3-1〉 연도별 응답자 수	175
〈표 IV-3-2〉 연도별 응답 값 분포	175
〈표 IV-3-3〉 5년 간 어머니의 취업 변화	176
〈표 IV-3-4〉 5년 간 어머니 취업의 지속성	176
〈표 IV-3-5〉 아동 연령 및 출산 시 가구특성별 어머니 취업률 비교	177
〈표 IV-3-6〉 어머니의 5년 간 학력과 가구 소득수준 변화에 따른 어머니 취업률 비교	179
〈표 IV-3-7〉 출산 시 학력 및 가구소득별 어머니의 정규직 취업률 비교 ..	179

그림 차례

[그림 II-1-1] 한국아동패널 2008~2013년 조사 참여율	44
[그림 II-2-1] 심층조사 진행절차	50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생태이론(Bronfenbrenner, 1979)에 근거하여 개발된 아동패널 모형(장명림·신나리·박수연, 2006)에 따라 아동, 부모, 가족, 육아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및 육아지원정책 등 우리나라 아동발달과 양육에 대한 총괄적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 횡단적·종단적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 2013년 현재 우리나라 만 5세 아동 가구의 아동 및 부모, 가족, 지역사회, 육아지원 서비스, 국가정책의 특성에 대한 기본 변인들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 만 5세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통해 6차년도 조사에 필요한 발달수행검사를 선정하였음.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간 0~4세 영유아의 발달 요인을 비교하여 종단적 분석을 통해 학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제2차 심층조사를 실시하였음.
- 4차년도 자료 에디팅 완료 및 일반 공개를 진행하였음.

□ 연구 방법

- 조사 문항 및 도구 선정, 국내·외 유사 패널 및 코호트 연구 추이를 위해 문헌자료를 검토하였음.

- 도구 선정, 설문지 검토 등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음.
- 대상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부모 대상 조사로 부모의 심리적 특성, 부모됨, 양육 특성 및 아동 발달 등을 CAPI와 설문지로 조사하였음.
 - 아동 대상 조사로 REVT 수용어휘력 검사와 자아개념 검사를 실시하였음.
 - 아동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이상 학원 등 육아지원기관의 담임교사(또는 강사)를 대상으로 기관 환경, 아동의 행동 특성, 교사 특성 등을 조사하였음.
- 제 2차 심층조사로 REVT 표현어휘력 검사와 K-WPPSI 인지능력 검사를 실시하였음.
- 5차년도 자료 정리와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기초분석 보고를 제시하였음.
-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개최하였음.
- 패널 관리 업무 및 데이터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

2. 6차년도(2013) 사업 진행

가. 6차년도 조사의 특징

- 만 5세 연령에 맞는 발달 검사로서, 일반조사에는 REVT 수용어휘력 검사와 자아개념 검사(JPPSST), 가족상호작용과 신체관련 질문을 추가하였고, 심층조사로는 K-WPPSI 지능검사와 REVT 표현어휘력 검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의 효율성으로 높이기 위해 발달검사를 CAPI로 구성하였고, 종단연구로서 반복되는 질문이나 핵심적이지 않은 질문내용을 파악하여 질문지를 수정하였음.
- 패널 자료의 일관성 유지를 검토하고 조사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대규모 자문회의와 패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를 강화하였음.
- 아산병원의 호흡기내과의 연계로 알레르기 질환 등 건강문항을 보완하였음.

나. 6차년도 조사의 절차

- 6차년도 아동의 발달 특성과 5차년도 질문지 분석, 1~5차년도 데이터 에디팅 과정의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6차년도 질문지와 CAPI를 구축하였음.
- 세 지역으로 나누어 조사원 교육을 실시한 후,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중간 점검을 위한 조사원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 2013년에 실시한 6차년도 조사 참여 가구는 1,662가구로 전체 2,150가구 기준 77.3%의 유지율을 보였으며 이는 2012년에 실시한 5차년도 조사 대상의 97.6%에 해당됨.
- 육아지원기관조사에는 1,215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전체 조사가구 대비 성공률 73.5%로서 5차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음.

3. 심층조사

가. 심층조사의 특징 및 내용

- 2차 심층조사는 만 5세 아동의 인지발달과 언어발달 관련 자료를 수집함.
- K-WPPSI 지능검사와 REVT 표현어휘력 검사를 실시하였음.

나. 심층조사의 절차

- 참여를 원하는 패널가구의 신청을 토대로 전체 패널의 20%를 선정하였음.
- 6개 권역의 13개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2회에 걸친 조사원 교육을 통해 2개월에 걸쳐 약 489명을 표본으로 실시하여 총 415가구의 자료를 수집하였음.

4. 5차년도(2012) 기초분석

가. 조사의 개요

- 5차년도에 일반조사의 조사 참여율은 1,703명으로 전체 패널 기준 79.2%이고 육아지원기관의 교사 대상 조사는 1,018명으로 61.4%가 조사에 참여함.

- 5차년도 조사 분석은 조사 대상자의 아동 특성, 부모 특성, 가구 특성, 육아 지원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특성, 육아정책으로 구분하여 총 6개 주제로 이루어졌음.

나. 가중치 작성 및 추정

- 5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작성
 - 패널 마모에 의한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4차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2012년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한 벤치마킹 가중치 보정과정을 통해 최종 횡단면 가중치를 산출하였음.
- 5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작성
 - 종단면 가중치 작성을 위해 초기 원 표본 가구로부터 5차년도까지 무응답 패턴을 분석, 응답여부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무응답 조정 계급(non-response adjustment class)을 설정하였음.

다. 아동 특성

- 인구학적 특성
 -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870명(51.1%), 여아가 833명(48.9%)이었음.
 - 출생순위는 첫째아 45.9%, 둘째아 42.6%, 셋째아 10.4%였음.
 - 아동의 월령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52개월이 30.1%로 가장 많았고, 53개월 24.3%, 51개월 22.9% 순이었음.
- 일상생활
 - 수면 습관
 - 아동의 평균 기상 시각은 7시 29분, 취침 시각은 21시 31분이며, 평균 수면 시간은 9시간 56분이었음.
 - 가정 또는 기관에서 낮잠을 자는 아동은 각각 12.1%와 28.4%, 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은 각각 87.9%와 33.2%이었고, 평균 낮잠 시간은 가정에서 76.46분, 기관에서 59.63분이었음.

○ 식습관

- 가정에서 아동의 식사 시간의 규칙성에 대해 '그렇다' 이상이 66.5%였음.
- 식습관 자립도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상에 44.6%, '보통이다'에 37.2%, '그렇지 않다' 이하에 18.3%였음.
- 집에서 아침식사를 '거의 매일 먹음'이 60.9%, '1일 1회'의 간식 42.4%, 외식 '주 1-2회' 61.4%이었음.
- 편식의 경우 어머니들은 '보통'에 34.9%, '그렇다' 이상에 38.9% 응답하였음. 교사가 또래아동들과 비교한 경우, '골고루 먹는 편임'이 41.6%, '편식하는 편임' 이상이 26.4%였음.

○ 활동시간과 미디어 이용

- 아동의 교육·보육기관 이용 시간은 1일 평균 6시간 53분, 기타 학원 이용이나 개인레슨 시간은 1일 평균 10분, 집에서 하는 학습활동 시간은 1일 평균 19분이었음.
- 시청각 프로그램 1일 평균 시청 시간은 1시간 22분, 게임 및 인터넷은 일일 평균 14분 이용하고 있었음.
- 바깥놀이 및 활동에 1일 평균 1시간 10분, 장난감과 책 보기 등 실내놀이 활동에 평균 2시간 5분, 세면 및 외모 관리 등 기본생활 유지에 평균 1시간 19분을 사용하고 있었음.
- 컴퓨터를 최초로 이용하기 시작한 연령은 평균 3.40세, 개인 게임기는 3.32세, 휴대폰은 3.58세였음.

□ 신체발달

- 아동의 체중은 평균 16.97kg이었으며, 신장은 평균 103.79cm이었음.
- 사고나 중독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13.9%, 치료 횟수는 평균 1.38회이었음.
- 아동 중 9.1%가 질병, 사고 등으로 입원 경험이 있었으며, 횟수는 평균 1.24회, 입원기간은 평균 8.02일로 조사되었음.

□ 인지발달

- 교사가 평정한 「영유아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평가」 결과, 만 4세 시기 아동의 인지발달의 표준 점수 평균은 102.88점이었음.
- 「유아 도형 창의성 검사」 결과, 창의성 평균은 49.93점, 유창성은 52.66점, 독창성은 57.97점, 개방성은 54.16점, 민감성은 34.93점이었음.

□ 언어발달

- 교사가 평정한 「영유아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평가」 결과, 만 4세 시기 아동의 언어발달의 표준 점수 평균은 105.51점이었음.

□ 사회·정서발달

- 아동의 기질 중 정서성은 평균 2.80점, 활동성은 평균 3.76점, 사회성은 평균 3.48점이었음.
- 아동이 선호하는 놀이영역 1순위는 쌓기 45.8%, 역할 26.2%, 미술 16.4%이었음.
- 어머니들이 평정한 아동의 기관 선호도 평균 점수는 4.03점, 아동의 담임 교사가 평정한 아동의 기관 선호도 평균 점수는 4.13점이었음.
- 어머니가 평정한 아동의 담임교사 선호도는 평균 4.11점이었고, 교사가 평정한 교사 선호도의 평균 점수는 4.18점이었음.
-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에서 놀이방해의 평균 점수는 2.04점, 놀이 상호작용의 평균 점수는 3.11점, 놀이단절의 평균 점수는 1.56점이었음.
- 「CBCL 1.5-5」에서 문제행동 총점의 평균 T점수는 49.31점, 내재화 문제행동의 평균은 49.85점, 외현화 문제행동의 평균은 49.41점이었음.

라. 부모 특성

□ 인구학적 특성

- 어머니와 아버지 연령은 30~39세가 각각 83.5%와 71.5%로 가장 많았음. 부모의 학력은 어머니의 경우 전문대 졸 이상이 70.4%, 아버지는 72.8%이었음. 부모의 결혼 상태는 98.6%가 현재 유배우자 초혼이며, 평균 결혼기간은 7.97년이었음.

- 부모 각각으로 나누어 조사한 아동과의 동거여부에서, 아동과 어머니가 동거하는 경우가 99.5%, 아버지와 동거하는 경우는 96.3%였음.

□ 건강 특성

- 1, 2급 이상의 중증도 장애가 있는 경우는 어머니가 0.3%, 아버지가 0.4%이었음.
- 어머니의 36.1%는 월 1회 이하, 아버지의 37.2%는 월 2~4회 음주를 하고, 어머니의 98.3%와 아버지의 49.1%가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음.

□ 직업 특성

- 아버지의 94.7%가 취업 중이며, 사무 종사자가 26.0%이고 74.1%가 '정규직/상용직'임. 어머니의 경우, 43.0%가 취업 중이며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43.7%이고, 61.0%가 '정규직/상용직'임.
- 어머니의 73.3%, 아버지의 77.0%가 직장 또는 직위에 변동이 없었음.
- 어머니의 평균 근무일수는 주중 4.81일, 주말 1.16일이었으며, 1일 평균 근무 시간은 주중 7시간 50분, 주말 6시간 47분이었음.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주중 53.32분, 주말 49.29분임.

□ 부모의 개인 특성

- 어머니들의 수면시간은 주중 평균 7시간 8분, 주말 평균 7시간 56분이었으며, 가사노동 시간은 주중 평균 3시간 44분, 주말 평균 4시간 14분이었음. 자녀와의 놀이 및 학습시간은 주중 평균 2시간 44분, 주말 평균 4시간 17분이었으며,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주중 평균 1시간 52분, 주말 평균 2시간 9분이었음. 기본생활 시간은 주중 평균 1시간 26분, 주말 평균 1시간 34분으로 나타났음.
-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정적 자기효능감 평균점수는 5점 척도에서 각각 2.24점과 2.12점이었음.
-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평균점수는 4점 척도에서 각각 3.67점과 3.77점이었음.
-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울 평균점수는 5점 척도에서 각각 1.96점과 1.86점임.

부부 특성

- 5점 척도상에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평균점수는 3.68점, 아버지는 평균 4.01점이었음.
-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 평균점수는 5점 척도에서 각각 2.12점과 2.09점이었음.
- 후속출산
 - 전체 어머니의 9.1%가 후속 출산계획이 있으며, 80.5%는 후속 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함. 후속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는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가 29.7%이었고, ‘자녀교육비용 때문’이 23.1%이었음.
 - 후속 출산을 계획하는 경우의 계획 자녀수는 1명이 90.1%이며, 후속 출산 시기는 1년 이내 출산할 계획이 57.2%이었음.

어머니 58.9%와 아버지 58.4%가 2명을 이상 자녀수로 선택하였음. 이상 자녀수의 기대성별에 대해 어머니 59.6%와 아버지 56.8%가 ‘아들·딸 구분없이’라고 응답하였음.

어머니 51.6%와 아버지 56.8%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에 동의하였음.

부모 모두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자질과 특성에서 ‘예의 바른 생활 습관’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이어서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을 선택하였음. 가장 낮게 선택한 자질과 특성은 ‘이타심’이었음.

부모의 양육 특성

- 5점 척도 상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유형의 평균점수는 3.66점, 아버지의 평균점수는 3.55점이었음. 어머니의 경우 한계설정 양육유형의 평균점수는 3.37점, 아버지의 평균점수는 3.25점이었음.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평균은 2.74점이었고, 아버지는 평균 2.40점이었음.
- 어머니가 평정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아버지가 평정한 자신의 양육 참여는 5점 척도에서 각각 평균 3.57점과 3.56점이었음.
- 어머니가 응답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 시간은 주중에는 평균 1시간 22분, 휴무일에는 평균 4시간 28분이었음.

부모의 육아지원 서비스 참여

- 담임교사(또는 강사)는 아동의 부모가 기관에 관심을 가지는 편(46.5%)이거나 매우 관심이 크다(31.5%)고 응답하였음.
- 어머니의 기관 방문 횟수는 6개월에 1~2회가 29.2%로 가장 많았음.
- 어머니의 85.9%가 부모참여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어머니와 담임교사(또는 강사) 모두 담임과의 상담(33.7%, 21.1%)에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음.

마. 가구 특성

- 아동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 수는 평균 4.06명으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구성이 89.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가계경제 요소

- 월평균 가구 총 소득은 484.92만원, 근로(사업) 소득은 월평균 445.15만원, 어머니의 근로소득은 월평균 203.94만원, 가구 재산 및 금융 소득은 월평균 26.67만원, 가구 공적 소득은 월평균 5.10만원, 이전 소득은 월평균 8.01만원이었음.
- 가구 전체의 총 지출은 월평균 348.48만원, 전체 자녀에 대한 지출은 월평균은 121.85만원, 패널 아동에 대한 지출은 월평균 63.60만원이었음. 가구 전체의 소비성 지출은 월평균 228.66만원, 전체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출은 월평균 96.56만원, 패널 아동에 대한 소비성 지출은 월평균 47.07만원으로 조사되었음. 가구 전체의 비소비성 지출은 월평균 121.53만원, 전체 자녀에 대한 비소비성 지출은 월평균 25.41만원, 패널 아동에 대한 비소비성 지출은 11.82만원으로 나타났음.

- 가족생활사건에서는 지난 1년 간 한 번도 규범적 사건을 격지 않은 가정부터 최대 13회까지 겪은 가정이 있었으면 평균은 3.50건이었음. 비규범적 사건은 평균 0.59건을 겪은 것으로 응답되었음.

- 가정환경검사의 전체 평균은 49.13점이었음. 하위영역별로 학습자료의 평균은 9.06점, 언어자극은 6.70점, 물리적 환경은 6.58점, 반응성 6.34점, 학습자극 4.73점, 모방학습 4.02점, 다양성 8.17점, 수용성 3.51점이었음.

바.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 만 4세 시기에 패널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으로 어린이집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60.7%),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순으로 나타났음.
- 패널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의 학급은 88.9%이상이 단일연령 형태였으며, 교사 1인당 평균 아동비율이 어린이집에서 13.8, 유치원에서 13.6,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 9.9로 나타났음.
- 육아지원기관의 교실 환경에 대해 공간배치, 발달적합성, 다양성, 충분성을 교사가 5점 척도로 평정한 결과 평균 4.16점, 세부 항목 모두 4점 이상이었음.
- 패널 아동의 담당 교사는 대부분 여성이며 20대가 60.4%였음.
 - 교사는 하루 평균 13시간 19분을 근무하며, 교사의 총 재직 경력은 어린이집 52.2개월, 유치원 51.3개월, 반일제 이상 학원 45.2개월이었음.
- 육아지원 기관에서 기관 내 특별활동 이용률은 73.2%, 이용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 56분이었으며 기관 외 특별활동 이용률은 47.3%이며 일주일에 1시간 11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 지역사회 특성

- 거주 지역 유형은 일반아파트 지역 71.0%, 일반주택 지역 22.8%로, 전체 패널 아동의 93.8%가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음.
- 지역사회의 양육 적절성
 - 거주지역의 전반적인 양육 적절성에 대한 5점 척도 평정 결과 평균은 3.29점으로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거주지역의 양육 적절성을 높게 평가하였음.
 - 지역사회의 육아지원기관의 충분성은 5점 척도 상에서 3.13점, 사교육기관의 충분성은 2.88점이었음.
 - 공공여가시설의 이용 편리성은 공원과 산책로가 3.07점, 3.10점으로 가장 높았고, 미술관이 2.06점으로 가장 낮았음.

아. 육아 정책 특성

- 육아지원제도의 수혜를 받았는지 조사한 결과 보육·교육료를 지원 받은 경험이 40.4%로 가장 높았음. 그 밖에 건강검진 지원 27.9%, 필수예방접종 지원 27.3%의 순으로 나타났음.
- 패널 아동 부모의 국가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각 항목별로 '만족한다' 이상의 비율이 48.3%에서 75.5%까지로 가장 높았음.
- 국가가 미취학 아동에게 무상으로 보·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자녀를 더 낳을 것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43.6%가 더 낳을 생각이 '조금 있다'로 답하였으며, 이어서 '잘 모름'(33.9%), '거의 없음'(10.3%), '매우 많음'(8.5%), '전혀 없음'(3.6%)순으로 나타났음.
- 직장에서의 지원을 분석한 결과,
 - 패널 부모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시행하는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는 여성의 출산휴가가 24.3%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육아휴직 19.8%, 남성의 출산휴가 11.3% 순이었으며 그 이외의 제도의 실시율은 10% 미만이었음.
 -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중 가장 필요한 세 가지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여성의 출산휴가'가 1순위, '여성의 육아휴직'이 2순위, '보육비 지원'이 3순위이었음.
- 보육·교육 정책
 - 만 0~2세 시기 양육수당과 무상보육에 대해서 어머니의 84.7%와 92.2%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필요하다'라는 견해가 각각 53.1%와 46.1%로 가장 높았음.
 - 조사시점인 2012년을 기준으로 시행 중인 만 5세 누리과정과 시행 계획 중인 만 3~4세 누리과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어머니의 88.0%와 71.6%였으며, '매우 필요하다'는 견해는 69.6%와 64.4%로 높게 나타났다.

5. 국정과제 관련 주제별 종단분석

가. 아동의 보·교육 기관 이용과 생활 시간 사용

- 과반수의 패널 아동이 육아지원 서비스에 노출되는 시기는 만 2세이었음.
- 만 3세시기부터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79.4%가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였음.
 - 영아기에는 가구 특성에 따라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이 차이 나지만, 3세 부터는 취업모, 가구소득 등 가구특성에 따라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큰 차이가 없었음.
- 3세 기준으로 하루 생활시간 분석에서 아동은 평균 21시 42분에 취침하기 시작하여 9시간 54분 동안 잠을 자고, 보육·교육기관을 6시간 54분 이용하며, 미디어에는 1시간 36분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나. 아버지의 양육 태도 변화와 그 영향

-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자녀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고 영아기때의 양상이 이후에도 지속되는 양상이었음.
 - 5년 동안 아버지의 양육협조가 상군 또는 하군을 유지할 확률이 64-79%로 바뀔 확률 21-36%보다 높아 자녀의 연령에 따른 큰 차이가 없었음.
- 아버지의 양육협조 수준은 아버지의 학력 및 근로 특성과 어머니의 취업여부, 가구소득과 연관이 있었음.
-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사회성 발달이 관련이 있었음.
 - 아버지의 양육 협조 수준이 높을 때 자녀의 만 3세 시기 놀이단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놀이상호작용 점수가 높았음.
 - 아버지 양육협조 수준이 상집단에 속할 때 자녀의 문제행동 총합,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가 가장 낮았음.

다. 어머니의 취업 변화 양상 및 결정요인 탐색

- 어머니의 출산 후 5년 간 취업상태는 29.4%, 31.4%, 33.3%, 39.9%, 42.5%로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

- 취업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는 과반수 이지만(52.2%), 출산 후 5년 동안 취업모가 취업을 포기한 경우는 14.5%, 미취업상태였다가 취업한 경우는 12.4%로 유동적이었음.
- 모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최종 학력, 종사상 지위, 직종, 가구소득, 자녀수가 있었음.
 -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그리고 출산 시 가구소득, 어머니 학력, 어머니 근로소득, 가구소득 대비 어머니의 근로소득의 비율, 종사상 지위가 높을수록 어머니 취업률이 상승하였음.
 - 자녀가 1명 늘어날 때 어머니의 취업위험(확률)은 0.83배로 감소하였음.
- 출산 후 어머니의 비정규직 취업률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음.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이 출생 이후 성장하면서 어떤 발달 특성을 보이는지, 가정에서의 양육과정과 기관에서의 육아지원서비스를 통해 어떤 경험을 하며, 지역사회와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지원정책에는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2,150명을 패널로 구축하고 이들의 양육과 발달, 성장을 장기적으로 추적·조사해 오고 있으며 패널 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2020년까지 진행될 계획에 있다.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효과적인 양육 및 육아지원에 대한 횡단적·종단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학계 연구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볼 때 육아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 현황, 아동의 발달 상태, 가정환경, 육아지원서비스 및 정책에 관한 의견 등을 주요 조사 내용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해마다 달라지는 아동의 발달 상태를 고려하여 패널 질문 문항과 발달 검사 등에 조금씩 변화를 두어 왔다(표 I-2-2 ~ 표 I-2-7 참조). 예를 들면, 2008년에는 아동의 건강특성과 임신, 출산 관련 문항, 영아 발달 선별 검사 등이 포함되었으나, 2011년에는 임신, 출산 관련 문항이 축소되고 발달 검사 도구로 수용·표현어휘력 검사(REVT)와 또래상호작용 검사(PIPPS)를 도입하고 가정환경 검사(EC-HOME)를 추가하였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교육기관 이용에 관한 질문지를 별도로 마련하여 패널 아동이 재원하고 있는 보육·교육기관의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012년에는 아동의 발달 검사로 유아도형 창의성 검사(K-FCTYC)와 영유아 언어·인지·사회정서 발달 평가도구가 포함되었으며, 아동의 사회적 적응 및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행동평가척도(CBCL 1.5-5)를 실시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아동이 만 5세가 되는 2013년은 아동이 누리과정의 실질적 수혜자가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이미 아동이 만 3세가 되는 4차년도(2011년)조

사 시에 84.4%가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도 많은 아동이 하루 중 긴 시간을 기관에서 보낼 것으로 예상하였다. 만 5세는 신체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던 영아기와 초기 유아기를 지나 성인과 같은 신체 비율을 보이며 뇌는 성인의 95%정도로 성숙되어 있고, 사회·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사회화와 도덕적 내면화가 시작되는 전 생애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한국아동패널 2013 연구는 패널 아동의 성장과 발달 내용을 반영하여 자아개념, 어휘력 및 아동의 인지 기능 및 발달 검사를 선정하였다. 자아개념 검사는 Joseph(1992)이 제작한 JPPSST(Joseph Pre-School and Primary Self-concept Screening)로서 만 3세 6개월에서 만 9세 11개월 사이 아동들의 자아개념을 개별 면담을 통하여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 어휘력은 4차년도에 실시하였던 수용·표현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인지발달은 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K-WPPSI)의 언어성과 동작성 수행 검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2013년 조사에서는 패널 아동이 유아기 말기에 접어들면서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Olson(2011)이 제작한 FACES IV(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V)를 추가하여 가정 내의 응집성과 유연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전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과 연령에 따른 가정양육비 지원이 실시되고 교육·보육 공통 과정인 누리과정이 3·4세까지 확대 실시되는 등 새로운 육아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노력에 관하여 패널 대상 부모의 인식과 영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 외에도 일부 조사내용과 문항의 재구성이 필요한 경우, 문항을 제외하거나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생태이론(Bronfenbrenner, 1979)에 근거하여 개발된 아동패널 모형(장명림·신나리·박수연, 2006)에 따라 아동, 부모, 가족, 육아지원서비스, 지역사회 및 육아지원정책 등 아동을 중심으로 둘러싼 주변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발달과 양육에 대한 총괄적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한국아동패널 2013 연구는 연구의 모형과 목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2012년도에 조사가 이루어진 5차년도 자료에 대한 패널 조사 기초분석 연구와 6차년도 조사 실시를 통해 국가적인 데이터 생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2013년 한국아동패널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아동패널이 지속적으로 조사해 온 주요 변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13년 현재 우리나라 만 5세 아동이 가진 아동 및 부모, 가족, 지역사회, 국가정책의 특성을 밝히고, 이들 사이의 상호관계와 아동발달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요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1-2-1〉 연도별 조사 실시 계획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초1)	9세 (초3)	12세 (초6)	심층조사	주요 연구 활동
1차년도 (2008년)												1차년도 조사 실시
2차년도 (2009년)											1차	2차년도 조사 실시
3차년도 (2010년)											부가조사 ^{주)}	3차년도 조사 실시 1차 학술대회
4차년도 (2011년)												4차년도 조사 실시 2차 국제 학술대회
5차년도 (2012년)												5차년도 조사 실시 3차 학술대회
6차년도 (2013년)											2차	6차년도 조사 실시 4차 국제 학술대회
7차년도 (2014년)												
8차년도 (2015년)											3차	
9차년도 (2017년)												
10차년도 (2020년)												

주: 한국아동패널2010 일반조사 외에 2010년에 출생한 신생아가구 1,000사례 대상으로 횡단적인 자료를 구축함.

둘째, 2013년도에는 만 5세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통해 6차년도 조사에 필요한 발달수행검사를 선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조사 문항을 검토하여 아동의 연령과 발달에 적절한 조사 내용이 되도록 추가, 삭제를 통한 문항 수정을 진행하였다. 차수별 조사 내용은 <표 I-2-2>에서 <표 I-2-7>과 같다.

〈표 1-2-2〉 차수별 아동 특성 변인

구분	하위변인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인구 학적 특성	성별	○	○	○	○	-	-
	연령(월령)	○	○	○	○	-	-
	출생순위	○	○	○	○	○	○
	출생순위 변동 사유	-	○	○	○	○	○
건강 특성	재태 기간	○	-	-	-	-	-
	출산: 분만형태, 출산 후 접촉,	○	-	-	-	-	-
	신생아의 건강 상태	○	-	-	-	-	-
	병력(상해포함): 여부, 횟수	-	○	○	○	○	○
	입원: 여부, 횟수, 기간, 이유	○	○	○	○	○	○
	통원치료: 여부, 횟수	-	○	○	○	○	○
	예방접종	○	○	○	○	○	-
안경 착용: 여부, 시기	-	-	-	-	-	○	
신체 발달	우세 손	-	-	-	-	-	○
	소근육 운동 발달	○	○	○	-	-	○
	대근육 운동 발달	○	○	○	-	-	○
인지 발달	문제해결	○	○	○	-	-	-
	지각, 기억, 상징적 사고/표상, 논리적 추론, 문제해결, 공간개념, 분류, 정보수집 및 조작, 분류, 서열화, 수리적 책략 사용, 패턴 만들기	-	-	-	-	○	○
	창의성발달: 유창성, 독창성, 개방성, 민감성	-	-	-	-	○	-
	지능: 언어성, 동작성	-	-	-	-	-	○
언어 발달	의사소통	○	○	○	-	-	-
	언어발달	○	○	○	-	-	-
	표현어휘력	-	-	-	○	-	○
	수용어휘력	-	-	-	○	-	○
	지시문, 부정표현, 의문사, 질문 반응, 수식어, 위치 부사어, 글자 인식, 간접 표현	-	-	-	-	○	○

(표 1-2-2 계속)

구분	하위변인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사회 · 정서 발달	기질: 활동성, 사회성, (부정적) 정서성		○	○	○	○	○	-
	애착		-	○	-	-	-	-
	개인-사회성		○	○	○	-	-	-
	사회 발달		○	○	○	-	-	-
	놀이, 사회적 활동		-	○	○	○	○	-
	선호하는 놀이 영역		-	-	-	○	○	○
	또래 상호작용: 놀이 상호작용, 방해, 단절		-	-	-	○	○	○
	문제 행동		-	-	-	-	○	○
	기관 선호도		-	-	-	○	○	○
	교사 선호도		-	-	-	○	○	○
자아개념		-	-	-	-	-	○	
일상 생활	식습관 관련	모유수유: 여부, 기간, 중단 이유	○	○	○	○	-	-
		수유 및 식습관 특성	○	○	○	-	-	-
		식습관: 규칙성, 양, 편식, 속도, 자립도	-	-	-	-	○	○
		아침식사 횟수	-	-	-	-	○	○
		간식: 가정, 기관	-	-	-	-	○	○
		외식 횟수	-	-	-	-	○	○
		가족과의 식사	-	-	-	-	-	○
	수면 관련	수면 습관 특성	○	○	○	-	-	-
		밤잠: 시간, 숙면 여부	-	-	○	○	○	○
		낮잠: 여부, 시간	-	-	○	○	○	○
	일과 관련	배변/씻기 습관 특성	○	○	○	-	-	-
		일과 활동 시간	-	-	○	○	○	○
		미팅어 이용: 시작 시기, 시간, 정도	-	-	-	-	○	○

<표 1-2-3> 부모 특성 변인 변화

구분	하위변인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인구학적 특성	연령		○	○	○	○	○	○
	국적, 귀화여부, 귀화 전 국적		○	○	○	○	○	○
	결혼 상태 및 기간		○	○	○	○	○	○
	최종학력		○	○	○	○	○	○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	○	○	○	○	○
건강 특성	1·2급 장애 유무		○	○	○	○	○	○
	만성질환 유무		○	○	○	○	○	-
	회귀 난치성 질환 유무		○	○	○	○	○	-
	음주: 횟수, 음주 양, 과음 횟수		○	○	○	○	○	○
흡연		○	○	○	○	○	○	

(표 1-2-3 계속)

구분	하위변인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직업 특성	취업/학업 상태, 취업 상태, 학업 상태	○	○	○	○	○	○	
	미취업 이유, 취업 이유	○	○	○	○	○	○	
	경력 단절 이유, 경력 단절 시기, 향후 취/학업 계획	○	○	○	○	○	○	
	구직활동 여부, 희망 근로 형태, 이유	-	-	-	-	○	○	
	직장 변동 여부, 이유	○	○	○	○	○	○	
	직업 군, 종사상 지위, 직장의 종사자 수	○	○	○	○	○	○	
	근무 일 수, 시간, 출퇴근 소요 시간, 40시간 미만 근로 이유	○	○	○	○	○	○	
급여	-	-	-	○	○	○		
개인 특성	하루 일과 활동 시간	-	-	-	-	○	○	
	우울,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	○	○	○	○	○	
	성격	-	-	-	-	-	-	
부부 특성	결혼 만족도	○	○	○	○	○	○	
	부부 갈등	○	○	○	○	○	○	
부모됨	임신 계획 여부	○	-	-	-	-	-	
	임신 관련 느낌, 출산 관련 느낌	○	-	-	-	-	-	
	후속 출산 계획 여부, 미계획 사유	○	○	○	○	○	○	
	계획 자녀 수, 계획 시기	○	○	○	○	○	○	
	이상 자녀 수, 성별, 기대 성별 구성	○	○	○	○	○	○	
	신념: 부모의 책임,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	○	○	○	-	○	-	
	자녀 가치	○	○	○	○	-	○	
자녀의 미래 기대	○	○	○	○	-	○		
양육 특성	양육 행동	○	○	○	○	○	○	
	양육 스트레스	○	○	○	○	○	○	
	아버지의 양육 참여	○	○	○	○	○	-	
	양육 시간	-	-	-	○	○	○	
	양육 지식	○	○	○	-	-	-	
	양육 분담	-	-	-	-	-	○	
	부모-자녀 상호작용	-	-	-	-	-	○	
지원 특성	사회적지지 인원, 관계	-	-	-	-	-	○	
	사회적지지: 정서적, 정보적, 도구적, 여가적	○	○	○	○	○	○	
육아 지원 서비스	참여	기관 생활 관심 정도	-	-	-	○	○	○
		육아지원 기관 방문 횟수	-	-	-	○	○	○
		부모 참여 행사 참여	-	-	-	○	○	○

(표 1-2-3 계속)

구분	하위변인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육아 지원 서비스	이용	지난 1년 간 육아지원 서비스	-	○	○	○	○	-
		서비스 이용 여부	○	○	○	○	○	○
		서비스 이용 이유, 미이용 이유	○	○	○	○	○	○
		서비스 이용 빈도, 이용 시작 시기	○	○	○	○	○	○
		등·하원 시간, 수단, 동반자	-	-	-	○	○	○
		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	-	-	○	○	○
		기관 변경 여부, 변경 이유	-	-	-	○	○	○
		이용 비용, 비용 부담도	-	-	-	○	○	○
		전반적 만족도	-	-	-	○	○	○
대리양육자 추가 이용 이유	-	-	○	○	○	○		

〈표 1-2-4〉 차수별 가구 특성 변인

구분	하위변인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인구학 적 특성	가구 구성, 가구원 수	○	○	○	○	○	○
	구성원 특성: 관계,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학업 상태, 학력, 장애 유무, 희귀난치성 유전병 유무	○	○	○	○	○	-
가계 경제 요소	가구 소득: 근로(사업) 소득, 재산 및 금융 소득, 공적 소득, 사적 이전 소득, 어머니의 근로 소득	○	○	○	○	○	○
	가구 지출: 소비성, 비소비성, 자녀에 대한 지출	○	○	○	○	○	○
	부동산, 금융자산	○	○	○	○	○	○
	부채: 여부, 부채액, 월 상환금	○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 여부	○	○	○	○	○	○
역사적 특성	가족생활 사건: 규범적, 비규범적	○	○	○	○	○	-
가정 환경	가정환경의 질	-	-	-	○	○	○
	가족 상호작용	-	-	-	-	-	○

〈표 1-2-5〉 차수별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변인

구분	하위변인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기관 특성	기관 유형, 시설 유형	○	○	○	○	○	○	
	평가 여부	○	○	○	○	○	○	
	학급 수, 재원 아동 수	-	-	-	○	○	○	
학급 특성	연령 구성	-	-	-	○	○	○	
	학급 규모	-	-	-	○	○	○	
	교실 환경	-	-	-	○	○	○	
	기관의 휴식 공간	-	-	-	○	○	○	
	실외 놀이 공간	-	-	-	○	○	○	
	실내 대근육 활동 공간	-	-	-	-	-	○	
교사 특성	성별, 연령, 자격, 학력, 전공	-	-	-	○	○	○	
	경력, 근무 시간, 아동의 담임 기간	-	-	-	○	○	○	
	교수 효능감	-	-	-	○	○	○	
	아동과의 상호작용	-	-	-	○	○	○	
특별 활동 특성	기 관 내	특별활동 유무, 종류	-	-	-	○	○	○
		특별활동 수, 이용 횟수, 시간	-	-	-	○	○	○
		이용 비용	-	-	-	○	○	○
	기 관 외	특별활동 유무, 종류, 추가 이용 이유	○	○	○	○	○	○
		특별활동 수, 이용 횟수, 시간	○	○	○	○	○	○
		이용 비용	○	○	○	○	○	○
대리 양육자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자녀양육 경험	○	○	○	○	○	-	
	이용 기간, 이용 횟수, 이용 시간	○	○	○	○	○	-	
	이용 비용	○	○	○	○	○	-	
	비용 부담도	○	○	○	○	○	-	
	전반적 만족도	○	○	○	○	○	-	
비급여 양육 도우미	비급여 양육 도우미 이용 여부	-	-	-	○	○	○	
	비급여 양육 도우미 수, 아동과의 관계	-	-	-	○	○	○	
일시 보육	이용 횟수, 시간	-	-	-	-	-	○	
	이용 비용	-	-	-	-	-	○	

〈표 1-2-6〉 차수별 지역사회 특성 변인

구분	하위변인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일반적 특성	현 거주지	○	○	○	○	○	○
	이사 횟수	-	-	-	-	-	○
물리적 특성	거주 지역	○	○	○	○	○	○
	가용 육아지원 기관, 사교육 기관	○	○	○	○	○	○
	시설 이용 편리성	○	○	○	○	○	○
	양육 적절성	○	○	○	○	○	○
	치안 안정성, 안전사고 안정성	○	○	○	○	○	○

〈표 1-2-7〉 차수별 육아 정책 특성 변인

구분	하위변인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국가 지원	수혜 경험 여부, 지원 유형	○	○	○	○	○	○
	지원 만족도	○	○	○	○	○	○
	지원의 도움 정도	○	○	○	○	○	○
	보육·교육 무상 이용에 따른 후속출산 의사 정도	-	-	-	○	○	○
	양육 비용 지급에 따른 후속출산 의사 여부, 적정 금액	-	-	-	○	○	○
	향후 개선 방안	-	-	-	-	-	○
	정책의 방향	-	-	-	-	-	○
직장에서의 지원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시행 여부, 이용 여부	○	○	○	○	○	○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미이용 이유	-	-	-	○	-	-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이용 만족도	○	○	○	○	○	○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양육 도움도	-	-	-	○	-	-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필요성	○	○	○	○	○	○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필요 순위	○	○	○	○	○	○	
보육·교육 정책	보육·교육 정책 인식 여부	-	-	-	○	○	○
	보육·교육 정책 필요성 인식	-	○	○	○	○	○
	보육·교육 정책의 출산계획 영향 여부	-	○	○	○	○	○

셋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간 0~4세 영유아의 발달 요인을 비교하여 종단적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아동발달 및 양육환경과 관련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의 종단분석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자녀의 일상생활 시간사용, 아버지의 양육 참여 및 어머니의 취업 등이 아동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학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넷째, 제2차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제2차 심층조사에서는 2009년도에 실시된 제1차 심층조사 참여 가구인 206 가구에(전체 패널의 약 10%에 해당), 약 13% 표본이 추가되어 전체 23%에 해당하는 489명이 참여를 수락하였으며 최종 수집된 자료는 415명에 그쳤다.

다섯째, 4차년도 자료 클리닝 완료 및 일반 공개를 진행하였다. 2011년에 조

사가 완료된 4차년도 패널 자료를 활용한 학술대회와 중단분석 등을 통해 데이터 클리닝을 완료한 후 2013년 12월에 자료의 일반인 대상 공개를 실시하였다.

여섯째, 패널 유지와 자료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사 등 변동 사항이 있을 시 정보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패널을 위한 선물, 생일 카드 및 연말 연하장 등을 발송하였고 경품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패널을 추적·관리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 검토

국내외 관련 문헌과 웹사이트,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조사문항을 선정하였다. 또한 해외의 유사 패널이나 코호트 연구의 추이를 탐색하면서 국제적인 자료 공유를 모색하였다.

나. 전문가 회의 실시

6차년도 조사 문항 개선, 발달 검사 선정과 심층조사를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5회에 걸쳐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1회 회의에서는 패널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위원 2명과 교수 1명에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 및 패널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회 회의에서는 아동 및 유아교육 관련 분야의 교수 4명에게 6차년도 설문지 검토와 아동 발달검사 선택에 대한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3회에는 한국아동패널의 초기모형을 검토하고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여 다가오는 7차년도 이후의 발달 변인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6차년도 조사의 발달 검사 선정과 문항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4회 전문가 회의에서는 올해 진행되는 심층조사를 위해 네 명의 교수와 함께 만 5세 아동에 맞는 심층조사 변인과 내용을 검토하면서 조사 내용을 구상하였다. 그 후 원내협의를 통하여 심층조사의 내용을 확정하였다. 5회 회의에서는 심층조사 구성을 토대로 거점대학과 지역 전문가를 선정하고 조사원을 구성하는 심층조사 준비회의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조사일정과 기타사항들에 대해 논

의를 하였다. 그 외에도 한국아동패널 조사와 학술대회를 위한 원내 회의가 수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표 1-3-1> 2013년 전문가 회의 개최 현황

구분	일시	참석자	안건
1회	3월 7일 (목)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미리(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이택면(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데이터 관리 -패널 자료 활용 방안
2회	3월 28일 (목)	김수진(나사렛대학교 교수) 박경자(연세대학교 교수) 박혜원(울산대학교 교수) 이경옥(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설문지 검토 -발달검사 탐색
3회	4월 26일 (금)	김수진(나사렛대 교수), 권희경(건국대 교수) 류재우(국민대 교수), 박경자(연세대 교수) 박혜원(울산대 교수), 신나리(충북대 교수) 양옥승(덕성여대 교수), 우남희(동덕여대 교수) 이경옥(덕성여대 교수), 이기숙(이화여대 교수) 이정옥(덕성여대 교수), 정미라(가천대 교수) 전혜정(연세대 교수), 황해익(부산대 교수)	-향후 아동패널 발전계획 -모형 검토 -발달변인 검토
4회	5월 27일 (월)	강지현(동덕여대 교수), 김수진(나사렛대 교수) 김진영(서울여대 교수), 신혜영(한양사이버대 교수)	-심층조사 논의
5회	9월 23일 (월)	김수진(나사렛대), 이주연(전남대), 이진숙(전북대) 정미라(가천대), 신유림(가톨릭대), 이경옥(덕성여대) 김은정(아주대), 박주희(연세대), 박찬옥(중앙대) 이완정(인하대), 신나리(충북대), 정정희(경북대) 박혜원(울산대), 정계숙(부산대), 이주연(전남대)	-심층조사 준비

다. 설문조사

1) 설문 대상

조사 대상은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였던 5개 권역 2,150명의 패널 아동과 부모, 그리고 아동을 담당하는 육아지원기관의 교사이다. 각 지역별로 분포 된 패널은 다음의 <표 1-3-2>와 같다.

〈표 1-3-2〉 권역별 표본 수

			단위: 가구, %
권역	지역	사례 수	비율
서울/경인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1,019	47.3
충청/강원권	대전, 충청북도, 충청남도	280	13.0
경북권	대구, 경상북도	246	11.4
경남권	부산, 울산, 경상남도	373	17.3
전라권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232	10.7
계		2,150	100.0

한국아동패널 2013의 설문조사는 조사 대상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아동 대상 조사로 6차년도에는 자아개념 검사와 수용어휘력 검사를 아동발달수행 검사로 실시하였다. 두 번째는 부모 대상 조사로 가구 특성, 양육 특성, 부모의 심리적 특성 및 아동 발달에 대한 부모보고식 검사 등이 포함되며 6차년도에는 가족 상호작용 검사를 추가하여 가족의 유연성과 응집성 등을 알아보았다. 세 번째는 패널 아동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등 육아지원기관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서 기관의 환경, 아동의 행동 특성과 교사 특성 등을 측정하였다.

2) 설문 내용

가) 조사 형태

아동패널의 조사는 4가지 형태의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아동발달 검사,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s) 방식 조사, 지필식(PAPI: Paper and Pencil) 조사, 그리고 CAWI(Computer-assisted Web Interviews) 조사이다.

나) 조사 내용

(1) 아동조사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아동 조사는 부모에게 질문하는 방식과 아동에게 개별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조사된다. 2013년도에는 아동의 개별검사로서 자아개념 검사와 수용어휘력 검사를 CAPI로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첫째, 자아개념검사는 Joseph(1992)이 제작한 JPPSST로 측정되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어 아동기까지 형성되는 자아개념은 유아기가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시기로 알려져 있다(Craven, McInerney, & Marsh, 2000). Joseph(1992)이 제작한 자아개념검사 도구인 JPPSST는, 만 3세 6개월에서 만 9세 11개월 사이 아동들의 자아개념을 개별 면담을 통하여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JPPSST는 중요성(significance), 유능성(competence), 영향력(power), 일반적 평가(general evaluative contentment) 및 덕목(virtue)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문항의 31장의 그림카드를 구성된다. 실시 소요 시간은 아동 당 5~7분이었다.

둘째, 수용어휘력 검사는 REVT로 측정되었다. REVT는 만 2세 6개월부터 만 16세 이상 성인의 수용어휘능력과 표현어휘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도구로서, 해당 연령대의 어휘능력과 발달정도를 측정 및 해석하고, 정상성과 이탈정도를 해석할 수 있는 평균 및 표준편차 기준, 등가연령 기준, 백분위 기준이 제공되는 도구이다(김영태·홍경훈·장혜성·이주연, 2009). 2013년도 조사에서는 조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REVT 개발자의 자문 하에 수용어휘력 검사의 시작 문항을 협의 하에 결정하였다.

〈표 1-3-3〉 아동조사의 유형과 내용

조사유형	조사 내용	조사도구	주요변인
CAPI 면접조사	자아 개념	Joseph 자아개념 검사 (JPPST)	중요성: 중요한 타인들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인정하고 있음을 지각 유능성: 자신이 환경의 요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익숙해진 존재로 지각 영향력: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능력 지각 일반적 평가: 자신의 현재 환경에 대한 만족감 덕목: 도덕 기준 준수
	언어 발달	REVT 중 수용어휘력 검사	명사, 동사, 형용사 및 부사로 구성된 아동의 어휘 인식 능력

(2) 부모조사

부모조사는 크게 면접 조사(CAPI)와 지필식 조사로 이루어진다. 부모조사에서는 아동에 대한 미시적·거시적 환경에 대한 질문을 실시한다.

아동패널 1차년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포괄적 조사로 설문지

가 장착된 노트북 컴퓨터를 조사원이 가지고 패널 참여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 조사(CAPI)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현장에서 직접 입력한다. 이 조사는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문항 경로가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취업모, 휴직자, 육아지원기관 이용/미이용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문항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표 1-3-4〉 부모조사의 유형과 내용

조사유형	조사내용	주요변인
CAPI 면접조사	아동 특성	○인구학적 특성 ○일과활동 ○건강 및 기본생활습관
	부모 특성	○인구학적 특성 ○근로특성(취업모/미취업모) ○건강특성
	가족 특성	○일반적 특성 ○물리적 환경 ○경제적, 역사적, 사회적 특성 ○가족 상호작용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보육·교육 기관 및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사교육 이용
	지역사회 특성	○가용 육아지원기관 ○양육적절성
	육아지원정책 특성	○사회보장지원 ○돌봄 및 발달 지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가정환경 (EC-HOME)	○학습자료 ○반응성 ○다양성 ○언어자극 ○학습 자극 ○수용성 ○물리적 환경 ○모방 학습
어머니· 아버지 대상 조사 (PAPI)	부모 특성	○자기효능감 ○우울 ○자아존중감
	부모됨	○향후 출산계획
	부부 특성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 특성	○자녀양육 참여 ○양육실제 ○자녀기대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대상 조사 (PAPI)	아동 특성	○알레르기 질환
	아동의 문제행동 (CBCL)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수면문제 ○기타문제

조사원이 CAPI 면접을 위해 방문 시 우편으로 각 패널 가정에 미리 송부한 부모 설문지를 회수한다. 지필식 조사로 이루어지는 부모 설문지는 패널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특성, 부모됨, 양육 특성 등을 조사하며 부모가 자율적으로 완성하게 하며, 질문지 수거 시 조사원이 일차적으로 설문지 검토를 할 수 있다.

2013년 조사에서는 아동의 가족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족 상호작용 검사가 추가되었다. Olson(2011)이 제작한 FACES IV를 일반조사에 포함하였다. FACES IV는 모두 62문항이며, 균형 있는 응집성, 균형 있는 유연성, 단절, 결속, 밀착, 혼란, 의사소통의 8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아동패널 2013연구에서는 균형 있는 응집성과 유연성의 두 개 하위척도 14문항을 일반조사에 포함시켜 실시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실시하는 검사로는 유아행동평가척도 1.5-5(Child Behavior Checklist 1.5-5, CBCL 1.5-5)가 있다. 오경자와 김영아(2009)가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발한 유아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preschool 1.5-5)를 2009년도에 표준화한 검사이다. CBCL 1.5-5는 총 99문항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가 0~2점으로 평가하는 3점 평정척도이며 완성하는데 보통 15분-25분 정도 소요된다. 이 검사는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주의집중 문제, 공격행동, 수면문제의 7개 하위척도와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의 2개 요인 점수, 총 문제행동척도와 같은 10개의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를 얻을 수 있다.

(3) 기관조사

아동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담임교사 혹은 반일제 이상 학원의 강사를 대상으로 기관의 환경, 교사가 인식하는 아동의 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부모와 기관의 원장으로부터 교사의 조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교사는 설문이 장착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질문에 응답하였다. 교사 대상 조사는 교사의 일반적인 사항과 아동의 발달 및 환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표 1-3-5〉 기관조사의 유형과 내용

조사유형	조사내용	주요변인
교사 일반조사 (Web방식)	교사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자격 및 경력 ○교수 효능감 ○교사-아동 상호작용
	아동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래와의 상호작용: 놀이 방해, 놀이 상호작용, 놀이 단절 ○활동영역 ○기관에서의 일과 ○언어: 지시문, 부정표현, 의문사, 질문 반응, 수식어, 위치부사어, 글자인식, 간접표현 등 ○인지: 지각, 기억, 상징적 사고/표상, 논리적 추론, 문제해결, 공간개념, 분류, 서열화 등

(표 I-3-5) 계속

조사유형	조사내용	주요변인
교사		○ 학급형태
일반조사 (Web방식)	기관 특성	○ 물리적 환경 및 프로그램 ○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

라. 심층조사 실시

한국아동패널 연구기간(2008~2020년) 중 심층조사는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 실시된 제 2차 심층조사는, 제 1차 심층조사 시에 참여한 표본 10%에 해당하는 206가구에 더해, 약 13%의 표본을 추가하여 총 23% 가량의 패널에게 실시하였다.

심층조사 자료 수집은 전국의 각 권역별로 거점대학을 선정하고 해당 대학의 아동학 및 유아교육 관련학과 교수들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협력 연구진으로 위촉하여 진행되었다. 심층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3장 심층조사에서 기술하였다.

마. 국제 학술대회 개최

2008년~2011년에 수집된 바 있는 한국아동패널 1차~4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학계 전문가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특히, 패널 연구와 코호트 연구 등과 관련 있는 국외의 저명학자를 기조연설자로 초대하여 패널 데이터를 홍보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매뉴얼, 코드북 및 도구 프로파일을 제작, 배포하고 데이터를 학술대회 활용용으로 제한하여 배포하였다.

기조연설자로서 그동안 부모양육 행동과 관련 환경 변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온 J. Belsky를 초빙하고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environmental influences에 관한 기조 강연을 개최하였다. 또한 통계 워크숍을 개최하여 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방법에 대해 대외적으로 홍보하였다. 발표 및 토론회는 관련 학계에서 연구 활동이 활발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연구결과는 자료집으로 발행되었으며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바. 패널 홍보 및 데이터 관리

한국아동패널을 국내·외에 소개할 수 있고 패널에 대한 자료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를 새로 구성하였다. 또한 중단연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패널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연구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이사 및 생일, 연말연시 등에 선물이나 카드를 발송하고, 경품을 실시하며 패널 정보의 변경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수집하고 확인하였다.

4차년도 및 5차년도 자료의 인적사항 등이 이전의 응답과 차이, 수집된 자료의 정확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데이터가 변형,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또한 패널 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언론에 홍보하여 아동패널을 널리 알리고 패널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4. 외국패널 및 코호트 연구

본 절에서는 아동패널 조사내용의 변화와 보안을 위하여 외국패널 및 코호트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가. 밀레니엄 코호트 스터디(Millennium Cohort Study, MCS)¹⁾

1) 조사배경 및 목적

MCS는 영국에서 전국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네 번째 출생 코호트이다. 영국에는 전국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대규모 출생 코호트가 여러 개 있으며, 영국 정부는 그 동안의 코호트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다가올 천년을 준비하기 위해 1999년과 2000년에 출생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출생 코호트 연구를 새로이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동들이 생후 9개월경에 첫 조사를 수행한 MCS는 이전 코호트 연구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MSC만이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기존 코호트 연구에서는 한 주에 걸쳐서 표본을 추출하였으나 MCS는 사계절에

1) http://survey.net.ac.uk/index/_search1099%5cMcs%5c6411_2008_guide.pdf
<http://www.cls.ioe.ac.uk/page.aspx?&sitesectionid=851&sitesectiontitle=Welcome+to+the+Millennium+Cohort+Study> 2013년 5월 27일(월) 인출.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표집하기 위하여 1년에 걸쳐, 영국 전역에서 표본을 추출하였다. 연구 내용에 가족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강조하였고 소수 민족을 과대표집 하도록 표본 설계를 하였다.

MCS는 새 천년을 살아가는 아동들이 처할 사회적, 경제적 상태가 인생 초기의 삶의 환경과 배경 등 여러 조건들과 어떤 관계인지를 밝히는 것, 기존 코호트와 비교할 수 있는 발달 패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이전에 조사되지 않았던 아버지의 양육과 발달 참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여 각 조사년도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각 조사년도 목표 중에는 부모와 형제들이 신생아에게 어떻게 적응하는지, 부모 자신의 어린 시절을 포함하여 세대 간의 연결이 어떠한지, 코호트 대상 아동의 형제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2) 조사대상 및 기간

MCS는 새 천년이 시작되는 해인 2000년과 2001년에 영국의 네 지역에서 출생한 아동 약 19,000명의 삶을 아동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추적 조사하는 다학제간 연구 프로젝트이다. MCS의 표집은 선거구를 표집 틀로 사용하여 지역적으로 균집화 하였다. 불균형 계층 표집을 하여 잉글랜드에서는 소수인종의 비율이 높은 지역과 아동 빈곤이 높은 지역에서 과대표집하였다.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and HM Revenue and Customs)에서 제공한 아동 수혜 기록을 사용하여 코호트 아동들을 표집 하였다. 아동이 사망한 가정과 위장으로 수혜를 받는 가정 및 다른 코호트 연구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가정은 제외되었다.

3) 조사방법

현재까지 생후 9개월, 3세, 5세, 7세와 11세 때 조사가 이루어져 총 5번 실시되었다. 11세 조사는 2012년에 시행되었으며 13,287번의 면접이 실시되었다. 조사내용에 따라 CAPI를 이용한 면접, 관찰, 질문지, 개별 수행 검사 등이 시행되었다.

4) 조사내용

부모의 양육, 보육, 윗형제, 조부모, 학교의 선택, 아동의 행동과 인지 발달,

아동과 부모의 건강, 부모의 직업과 학력, 부모의 정신 건강과 약물 복용, 인종 차별, 수입과 빈곤 정도, 주택과 주거환경, 이사, 주변 환경과 이웃, 사회 자본과 민족성 등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다.

5) 조사의 특징

새 천년이 시작하는 해에 태어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 아동과 부모뿐만 아니라 대상 아동의 형제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였다. 사계절에 태어난 아동들을 모두 표집하기 위해 표집에만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6) 시사점

MCS가 한국아동패널 연구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새로운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처 간의 칸막이 허물기를 연구에 적용해 볼 수 있겠다. MCS에서는 표집 시에 부처 간의 협조가 이루어져 DSS와 DWP가 제공한 아동 수혜 기록을 이용하여 표본을 구축하였다.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의 경우에는 유관 부처로부터 패널 대상 아동이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 인증의 점수, 유치원 평가 점수 및 부모의 건강보험료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면, 보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육아지원기관의 장기 효과 분석이 가능할 것이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연구 대상의 범위를 패널 대상 아동과 부모뿐만 아니라 대상 아동의 형제까지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는 전세계적으로 출생 패널과 코호트 연구는 조사 시기를 성인기까지로 연장하고 있다.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대상 아동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이므로, 한국아동패널도 조사 시기의 연장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나. Growing Up in New Zealand²⁾

1) 조사배경 및 목적

뉴질랜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아동에 관한 종단 연구는 1970년대에 시작되었고 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지금 30대가 되었다. 그 연구가 시작된 이후 뉴질랜드

2) <http://www.growingup.co.nz/> 2013년 8월 23일(금) 인출

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뉴질랜드 아동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새로운 종단 연구인 Growing Up in New Zealand를 시작하게 되었다.

뉴질랜드는 다른 선진국가에 비교하여 사고와 상해로 인해 아동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며, 예방 접종률이 두 번째로 낮고 상대 빈곤 속에서 자라는 아동들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므로 Growing Up in New Zealand는 모든 아동들을 위한 지출 부문에서 비효율적인 전략을 중점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새로운 세대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적 결과를 밝혀낼 뿐만 아니라 현재에는 “무엇이 작용하는 지”를 이해하고, 뉴질랜드의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초기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을 보다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Growing Up in New Zealand 연구는 이 연구에 참여한 세대의 삶을 개선하고 ‘무엇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다음의 4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세대간, 가족 및 개인적 등 여러 수준에 걸쳐 있는 영향의 주요 인과 경로와 경로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뉴질랜드 아동들에 대한 발달 궤적을 그린다.

둘째, 인종을 포함하여 하위집단 간 비교, 하위집단 내 비교 및 국제 비교를 위해 주요 영역에 대한 횡단적 결과를 기술한다.

셋째,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여러 수준의 영향에 걸쳐 탄력성과 최적 발달을 위한 요인 및 궤적에 초점을 둔다.

넷째,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최적화된 생애 발달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발달의 결정적 시기 및 영향의 수준을 밝힌다.

2) 조사대상 및 기간

‘Growing Up in New Zealand’은 2004년부터 준비하여 공식적으로 2009년 2월 1일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 Auckland, Counties Manukau 및 Waikato 구역에 거주하며 2009년 4월 25일부터 2010년 3월 25일 사이에 출산 예정인 어머니들이 등록하여 아동이 21세 될 때가 계속되는 종단연구이다. 연구에는 실제로 2009년 3월과 2010년 10월 사이에 태어난 6,846명의 아동들이 코호트로 참여하

고 있다. Growing Up in New Zealand에 참여하는 아기들은 현재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동들의 다양성을 대표한다. 초산과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어머니, 젊은 어머니와 노산 어머니, 아이가 하나 있는 어머니와 아이가 많은 어머니들이 등록하였고, 모든 사회경제적 계층 및 시골 또는 도시에 거주하는 여자들 및 Māori, 유럽인, 아시아인, 태평양인 등 여러 인종이 포함되어 있다.

3) 조사방법

현재까지 아동이 출생하기 전과 생후 9개월에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CAPI)로 부모 면접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면접은 임신 28주와 35주 사이에 이루어졌다. 매 12-18개월에 한 번씩 동일 집단의 아동과 부모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할 것이며 아동들은 어른이 될 때까지 조사를 할 것이다. 면접원이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참여자들을 방문하여 참여자들과 아동에 대해 질문을 한다. 방문 면접 사이에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전화 면접(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s, CATI)을 짧게 실시할 것이다. 2009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CAPI를 이용한 면접이 5번, CATI 면접이 3번 이루어졌고, 보고서가 두 번 출판되었다.

4) 조사내용

약 5년 전에 일단의 정책 입안자들이 뉴질랜드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21세기 뉴질랜드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의 모든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Growing Up in New Zealand는 면접을 통해 아동의 건강과 안녕, 가족, 가문과 지역공동체 생활, 교육, 심리 발달, 이웃과 환경,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 가족의 인구학적 정보, 부모됨, 교육과 취업, 학습 환경, 건강, 식이와 운동, 주거 환경, 재정 상태 등이 조사 내용에 포함된다. 이 정보들은 정책을 계획하고 입안하는 사람들의 원천이 되어 모든 뉴질랜드 아동들과 가족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는 데 사용될 것이다.

5) 조사의 특징

Growing Up in New Zealand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Growing Up in New Zealand은 전집 연구이며, 이는 아동의 삶의 어

면 한 영역만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이다. 아동의 가족이나 친족, 이웃, 건강과 안녕, 교육, 아동 발달 및 뉴질랜드에서의 생활에 관한 질문이 포함된다.

둘째, *Growing Up in New Zealand*는 아동이 출생 전에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 첫 번째 종단 연구이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와도 아동 출생 전에 면접을 실시한 첫 번째 종단 연구이다. 아버지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은 어머니의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뉴질랜드 아동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일반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 전부터 아버지들을 전향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뉴질랜드 맥락에서 독특한 것이다.

셋째, 뉴질랜드 아동들과 가족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대표하기 위해 유럽, Māori, Pasifika, 아시아 및 다른 인종 집단의 비율을 반영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다양성을 반영하였다.

넷째, *Growing Up in New Zealand*는 연구 설계 단계부터 다학문간 접근방법과 및 생애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다섯째, 연구 결과를 실제화하고 연구 결과의 정책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든 단계에서 정책 입안자들과 팀워크를 형성하고 정책 입안자들과 강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

6) 시사점

*Growing Up in New Zealand*가 한국아동패널 연구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현재 한국아동패널에서 어머니에게만 실시하고 있는 CAPI를 통한 면접을 아버지에게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육·유아교육, 직장으로의 복귀 등에 대한 이유에 대해 양쪽 부모 모두의 관점을 묻는다. 둘째는 *Growing Up in New Zealand*의 특징 중 하나는 연구의 모든 단계에 정책 입안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과의 팀워크 구축은 연구 결과를 실제화하고 정책화하기에 용이하므로, 한국아동패널에서도 정책 입안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매해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실사에 반영한다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실용적인 정책적 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는 *Growing Up in New Zealand* 역시 전세계적인 경향과 마찬가지로 조사 시기가 아동이 21세가 될 때까지이다. 한국아동패널 조사 시기의 연장에 대하여는 *Growing Up in New Zealand* 연구를 통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II. 6차년도 패널조사 및 심층조사

본 장에서는 2013년 한국아동패널 연구 사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연구 사업의 핵심인 당해 연도 조사 진행의 특징, 진행 경과, 향후 계획 등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와 함께 그간의 한국아동패널 연구 자료의 활용을 활성화와 연구 결과 확산 노력에 대해 기술하였다.

1. 6차년도 조사

가. 6차년도 조사의 특징

한국아동패널은 초기 모형에 의해 연구의 전체적인 틀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해마다 일정하지만, 연구 대상 아동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고려하여 조사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 조금씩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6차년도 조사에서도 2013년 4월을 기점으로 만 5세가 되는 패널 아동의 발달 특성을 반영하여 조사 내용과 특징이 조정되었다. 이러한 연구 대상의 고려와 조정을 통한 2013년 조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에 맞는 발달검사 선정

패널 아동이 만 5세임을 고려하여 유아기 말에 발달의 측정이 필요한 영역을 강화하였다. 즉, 대뇌성숙에 따른 인지영역과 언어영역의 발달이 완숙기에 이르렀다고 보고 아동의 인지 발달과 자아개념 및 어휘력검사를 선정하였다. 인지 발달은 심층조사에서 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K-WPPSI)를 사용하여 인지 기능을 측정하였다.

또한 이 시기는 인지 능력의 발달로 사회적 자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신과 남을 비교하여 인식하게 되면서 자아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되므로 이에 대한 검사로서 자아개념 검사를 실시하였다. 자아개념 검사는 Joseph(1992)이 제작한 JPPSST(Joseph Pre-School and Primary Self-concept Screening)로서 만 3세 6개월에서 만 9세 11개월 사이 아동들의 자아개념을 측정한다.

한편, 5세는 언어 능력도 향상되며 말소리 습득에 있어 목록의 확장이 마무리 되는 동시에 타이밍의 정교화, 운율, 다음절 낱말의 정확한 산출 등이 숙달 되는 시기이며 또한 말소리가 쓰기(읽기와 철자법)로 전달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한층 성숙된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수용·표현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를 사용하여, 수용어휘력 검사는 일반조사에서 실시하고 심층조사에서는 표현어휘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2) 질문지 구조화와 효율성 확대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종단연구로서 패널의 주양육자는 매년 유사한 질문지에 응답해야 하므로 반복되는 질문이나 핵심적이지 않은 질문은 패널 유지에 장애가 된다. 따라서 2013년 한국아동패널 질문지는 그동안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거의 변화가 없거나 지속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문항을 제외하고,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문항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질문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자아개념 검사(JPPSST)와 수용·표현어휘력 검사(REVT-R) 중 수용어휘력 검사를 전문 지식이 없는 조사원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CAPI로 구성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3) 패널 자료의 일관성과 관리 강화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2007년 초기모형 개발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지속되는 종단연구이다. 이러한 종단연구의 설계와 변인 선정은 연구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연구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필요하며 그러한 운영체계를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점검할 수 있다. 2013년에는 아동패널의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해 연구모형 검토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대규모 전문가 자문회의가 있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초기모형을 검토하여 지속해야할 변인들과 추가되어야 할 변인의 논의가 있었고 지금까지의 아동패널연구를 중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전·현직 아동패널 연구자와 원내 선임연구위원을 주축으로 패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패널 연구가 연계성을 가지고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변인 선정과 조사의 진행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향후 패널연구에서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의 선정과 향후 계획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4) 신체건강 관련 문항 연계

아동패널 조사의 질문지 내용 중 아동발달 영역의 신체발달 관련 문항은 아동의 성장 발달에 맞추어 변화되고 있다. 즉, 출생 후 건강상태, 예방접종, 두위, 모유수유 등의 문항은 삭제되고, 신장, 체중, 병력, 장애,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유전병 등의 문항은 지속적으로 조사되고 있다. 올해에는 우세손, 안경 착용 여부, 대소근육 발달 등의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더불어 아산병원 소아과와의 협의 하에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알레르기 질환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패널 데이터 활용의 범위를 확장하고 다른 학문과 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 6차년도 조사 절차

1) 질문지 확정 및 CAPI 구축

6차년도 질문지 구성을 위해 패널아동의 발달 연령에 따른 특성, 5차년도 질문지 분석, 1~5차년도 데이터 에디팅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CAPI 구현방식 및 종단 자료 구축의 구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6차년도 CAPI(주 양육자용, 아동용), 어머니 대상, 아버지 대상, 육아지원기관용 질문지를 재구성하였다. 6차년도 조사에서는 CAPI 조사의 장점을 활용하여 기존에 실시되던 주 양육자용 질문지와 더불어 아동용 발달검사인 REVT(수용어휘력 검사)와 자아개념 검사(JPPSST)를 CAPI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진행하였다. 재구성된 질문지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비조사를 거쳐 질문지 확정 및 검사 도구 선정을 완료하였다.

CAPI 구축의 경우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질문의 형식 및 구현 형태를 결정하고, 문항 간 횡단 및 종단 로직을 결정하여 면접조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5차년도 데이터 에디팅 과정을 통하여 구축된 종단 데이터를 CAPI 프로그램에 삽입하고 관련 문항 간 로직 연결 및 확인 문항 구현을 통해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응답자의 응답 편이성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구축된 CAPI 프로그램은 세 차례의 디버깅 과정 및 예비조사를 거쳐 전체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확립하였다. 연이어 기존의 패널 아동의 담임교사(또는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웹 질문지를 구축하고, 이에 관한 문항 간 로직을 구성하

였다.

6차년도 질문지 확정 및 CAPI 구축을 위한 예비조사 진행 일정은 <표 II-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1-1> 6차년도 질문지 예비조사 일정

구분	기간	대상	비고
CAPI(주 양육자용)	2013년 4월 30일 ~ 5월 12일	36명	-
CAPI(아동용)	2013년 6월 10일	10명	조사원 교육용 자료로 녹화

주: 예비조사 대상은 6차년도 조사 대상자와 동일한 만 5세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남아와 여아의 비율이 동일하게 진행됨.

2) 조사원 교육

한국아동패널은 연구의 특성상 질문지법, 면접법, 관찰법, 개별검사 수행 및 웹 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조사방법의 절차와 내용을 이해하는 일은 조사 결과의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올해에도 신뢰로운 데이터의 수집을 위하여 조사원 교육을 엄격히 실시하였다.

본 조사 시작에 앞서 전 지역별 면접 조사원을 대상으로 질문지 문항 및 구성 설명, CAPI 활용, 아동 신체 측정용 도구(줄자, 체중계) 이용, 아동 발달검사(자아개념 검사, REVT 수용어휘력 검사), CBCL 1.5-5 및 EC-HOME 검사 실시, 건강관련 질문지에 대한 교육 및 실습을 서울, 대전, 대구의 세 개 지역으로 나뉘어 각각 진행하였다. 또한 조사 관련 윤리교육과 조사 진행시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이나 실수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하였다. 조사원 교육의 상세한 일정과 내용은 <표 II-1-2>와 <표 II-1-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1-2> 2013년 조사원 교육 일정

차수	일시	장소	참석 대상자
제1차	2012. 6. 19(수)	서울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조사원 20명
제2차	2012. 6. 20(목)	대구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지역 조사원 18명
제3차	2012. 6. 20(목)	대전	대전, 광주, 충청, 강원, 전라 지역 조사원 9명

주: 수도권외의 경우 일정 조율이 어려운 3명에 대하여 추가 개별교육이 실시됨.

〈표 II-1-3〉 2013년 조사원 교육 내용

시 간	내용	세부내용
1:00 - 1:20	○연구진 소개 및 인사	
1:20 - 1:50	○6차년도 조사 소개	○신규 조사내용 소개, 조사 독려
1:50 - 2:20	○HOME, CBCL 질문지 교육	○HOME, CBCL 조사 주의사항
2:20 - 2:40	○휴식	
2:40 - 3:10	○CAPI 질문지 서면 교육	○질문지 흐름 및 내용 설명
3:10 - 3:40	○CAPI 서면 실습 + 질의응답	○주의사항 확인
3:40 - 4:00	○노트북 사용 교육	
4:00 - 4:20	○CAPI 실습 + 질의응답	○CAPI 구동하며 설명과 실습
4:20 - 4:40	○휴식	
4:40 - 5:10	○아동대상 서면 교육	○자아개념검사와 REVT검사 개요
5:10 - 5:40	○아동대상 실습 + 질의응답	○검사 실시 시 주의사항 전달
5:40 - 6:00	○조사원 대상 윤리교육	○조사원으로서의 기본 상식

3) 조사일정과 진행

한국아동패널 6차년도 조사는 예년과 동일한 절차를 걸쳐 진행되었다. 면접 조사 시작 시점 2주 전에 어머니 대상, 아버지 대상 질문지 및 한국아동패널 조사 안내문³⁾과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관련 기사 등을 동봉하여 패널 거주지로 우편 발송하였다. 우편조사용 질문지 발송 1주일 후 질문지 수령 여부 및 방문일정 협의를 위해 조사원이 패널 아동의 주 양육자와 개별연락을 취하여 일정을 조율하고, 방문 조사 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CBCL과 건강관련 질문지의 경우 아동이 패널 조사원과 개별 발달 검사를 실시하는 중에 주양육자에 의해 작성되도록 하였으며, 조사 완료 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아동패널 6차년도 면접 조사는 2013년 6월 25일에 시작되어 11월 6일에 완료하였다.

패널 아동이 이용하는 보육·교육기관 조사의 경우는 패널 아동의 주양육자와 아동의 담임교사(또는 강사)가 모두 동의한 후에 진행되기에, 조사의 시점이 면접 조사보다 보름가량이 더 소요되었다. 면접원이 면접 조사를 위해 각 가정 방문 시 기관을 이용 중인 아동의 주양육자에게 기관 조사를 소개하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담임교사(또는 강사)에 대한 연락이 진행

3) 조사 안내문은 부록 1에 제시하였음.

되었다.⁴⁾ 한국아동패널 6차년도 육아지원기관 조사는 참여를 동의한 경우 교사의 개별 E-mail로 발송하여 작성하는 Web기반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2013년 7월 8일에 시작되어 11월 30일에 완료하였다. 각 조사별 일정은 다음 <표 II-1-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1-4> 질문지별 조사 일정

질문지	조사 방법	일정
어머니, 아버지 대상	우편 발송 및 수거	6월 12일 ~ 11월 6일
CAPI(주양육자용, 아동용), CBCL, HOME, 알리지 질환 질문지	가정 방문 및 면접	6월 25일 ~ 11월 6일
육아지원기관용	Web 조사	7월 8일 ~ 11월 30일

4) 중간 점검 실시

6차년도 조사에서는 실사가 약 10%정도 이루어진 시점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점검한 후, 조사원 간담회를 7월에 세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조사원 간담회에서는 조사 진행시의 어려운 점을 들으면서 조사원을 격려하고, 조사원들 간에 효율적인 조사 방법을 공유하였다. 또한 데이터 수집상의 오류와 실수 등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간 점검에서 확인된 오류는 전화 조사 등 추가 확인 절차를 걸쳐 정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원들 간에 효율적인 조사 방법을 공유했을 뿐 아니라,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다.

올해 새로이 추가된 아동용 발달검사인 JPPSST와 REVT 수용어휘력 검사를 CAPI로 개발하여 진행하였는데, 아동발달 검사의 CAPI 진행은 아동이 조사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흥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조사를 실시하는 조사원들에게도 조사 진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올해 아동 선물로 준비한 블록형 색연필 및 스탬프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기관에 따라 주양육자의 동의 후, 패널아동이 이용하는 기관장의 동의를 거쳐 담임교사(또는 강사)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표 II-1-5〉 조사원 중간 점검 실시 일정

차수	일시	장소	참석 대상자
제1차	2013. 7. 16(화)	서울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조사원
제2차	2013. 7. 17(수)	부산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지역 조사원
제3차	2013. 7. 17(수)	광주	대전, 광주, 충청, 강원, 전라 지역 조사원

주: 수도권외의 경우 일정 조율이 어려운 3명에 대하여 추가 개별교육이 실시됨.

라. 조사 성공률 및 표본 유지율

전체 패널의 연차별 표본 유지율은 <표 II-1-6> 및 [그림 II-1-1]과 같다. 2013년에 실시한 6차년도 조사 참여 가구는 1,662가구로 전체 2,150가구 기준 77.3%의 유지율을 보였다. 이는 2012년에 실시한 5차년도 조사 대상의 97.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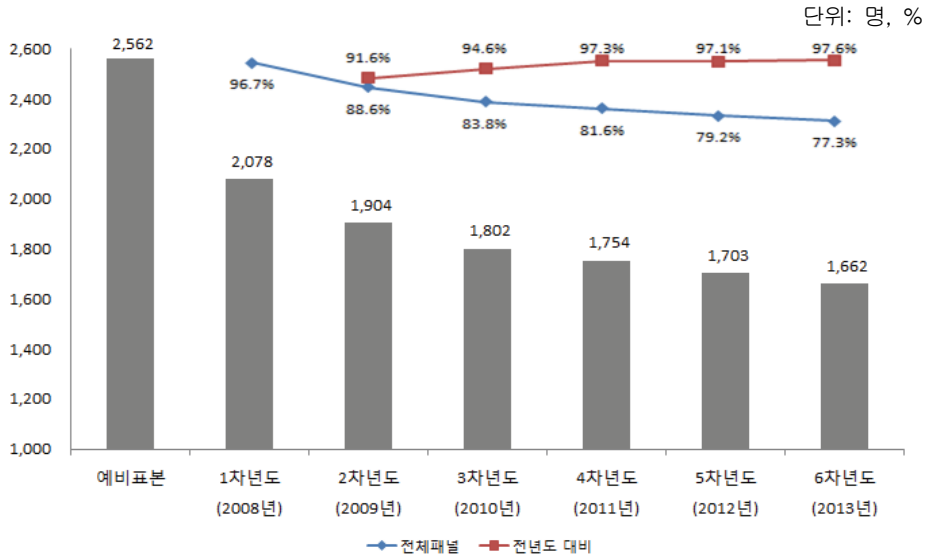
〈표 II-1-6〉 한국아동패널 2008~2013년 조사 참여율

패널 현황	단위: 가구,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계
병원구축 기준 가구 수	1,219	437	316	293	297	2,562
2008년 참여 가구 수	992	349	240	271	226	2,078
2009년 참여 가구 수	879	320	221	271	213	1,904
2010년 참여 가구 수	838	309	213	246	196	1,802
2011년 참여 가구 수	809	299	216	239	191	1,754
2012년 참여 가구 수	784	291	199	234	195	1,703
2013년 참여 가구 수	759	287	198	222	196	1,662
2013년 전년 대비 성공률						97.6%
2013년 전체 패널 기준 성공률						77.3%

주: 성공 패널의 지역 기준은 각 연도의 실제 거주 주소를 기준으로 서울(서울, 경기, 인천, 제주), 부산(부산, 울산, 경남), 대구(대구, 경북), 대전(대전, 충청, 강원), 광주(광주, 전라)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함.

전체 패널의 연차별 표본 마모율을 살펴보면, 6개년도에 걸쳐 총 2,150가구 중 평균 3.9%의 패널 가구가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년 대비 패널 유지율은 지속적으로 90%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아동패널의 주 대상이 영·유아기 아동이라는 특이점을 고려할 때 양호한 수준의 유지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아동패널이 총 2,150가구로 시작한 다소 소규모 패널인 점을 고려할 때 전체 패널 대비 탈락율이 지속될 경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II-1-1] 한국아동패널 2008~2013년 조사 참여율

6차년도에 실시된 조사별 성공률은 <표 II-1-7>과 같다. 전체 조사 성공률의 기준이 되는 CAPI 면접조사는 1,662명으로 조사 완료되었다. 우편 조사로 실시되는 어머니 대상 조사는 1,614명(97.1%), 아버지 대상 조사는 1,543명(92.8%)이 참여하였다.

<표 II-1-7> 한국아동패널 2013년 조사별 성공률

구분	CAPI (주양육자용)	CAPI (아동용)	어머니 대상	아버지 대상	HOME	CBCL 1.5-5	육아지원 기관
참여자 수	1,662 ¹⁾	1,650	1,614	1,543	1,660	1,651	1,215
성공률	100.0	99.3	97.1	92.8	99.9	99.3	73.5 ²⁾

주: 1) 응답자의 요청으로 2건은 PAPI로 진행 함.

2) 조사별 성공률은 CAPI(주양육자용)을 기준으로 하며, 육아지원 기관의 성공률은 육아지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한 1,652명을 기준으로 함.

관찰 및 면접으로 실시하는 HOME 조사는 1,660명(99.9%), 어머니가 응답하는 CBCL 1.5-5 검사지는 1,651명(99.3%), 아동용 CAPI로 실시된 수용 어휘력 검사 및 자아개념 검사는 1,650명(99.3%)이 조사를 완료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다니는 육아지원기관의 교사 또는 반일제 이상 학원의 강사 대상 조사는 1,215명이 참여하였다. 이는 CAPI 면접조사에서 육아지원기관 또는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한 1,652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73.5%가 참여한 것이다.

마. 자료 활용 및 확산

2013년 한국아동패널 연구 6차년도에는 기존 자료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크게 네 가지를 시도하였다. 첫째는 학술대회의 개최이며, 둘째는 자료 활용 현황 파악, 셋째는 국정과제 관련 중단 분석의 실시, 넷째는 다학제간 협력 연구의 모색이다.

1) 학술대회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검증 및 확산을 위한 제4회 국제학술대회는 2013년 11월 1일(금, 10시 ~ 18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외 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한국아동패널 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총 18편의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표 II-1-8〉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주제

구분	주제
Session 1. 아동발달의 현주소	주제 1. 사회성 발달 관련 주요인 분석
	주제 2. 육아환경과 언어발달 관 관계 분석
	주제 3. 발달의 중단적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Session 2. 건강한 양육환경	주제 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요인들
	주제 5. 어머니의 취업과 행복한 육아
	주제 6. 대학원생 논문 공모 수상작 발표

제4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는 ‘행복한 육아,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Jay Belsky 교수에 의한 기조강연과 강상경 교수에 의한 중단 데이터 분석에 대한 특별강연이 개최되었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

구 영역은 크게 '아동발달의 현주소'와 '건강한 양육환경'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으며, 영역별 주제는 <표 II-1-8>과 같다.⁵⁾

2) 자료 활용 현황 파악

2013년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자료 활용 현황 파악은 다음과 같다. 2013년 12월 29일을 기준으로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신청 건수는 164건이었으며, 승인된 데이터를 활용한 발간물은 총 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II-1-9> 한국아동패널 자료 활용 현황

데이터 신청	데이터 활용 발간물				계
	연구보고서	학술 발표	학술 논문	브리프 및 세미나 등	
260	3	54	8	4	69

주: 한국아동패널에서 확인된 자료 활용 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기재된 내용 외에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

3) 종단자료의 활용과 분석

5년 간 축적되어온 종단 데이터를 고급 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종단분석을 통해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방법론의 다양화를 꾀하였다. 또한, 축적되어온 패널 데이터를 통한 종단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였고,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다학제간 연구와 협력 연구의 모색

국내·외적으로 패널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OECD Start Strong III에서도 아동패널의 대한 소개가 게재되었다. 또한 종단적인 데이터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KDI와 국회 예산처에도 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아동패널 조사는 다양한 영역에의 내용을 포괄하므로 다학제간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연구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5) 학술대회 자료집 표지 및 세부일정에 대한 내용은 부록 2에 수록됨.

2. 심층조사

가. 심층조사의 특징 및 내용

심층조사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자료 수집을 목표로 하였다. 즉, 한국아동패널의 일반조사는 대규모 조사의 특성상 일반조사기관의 조사원을 활용하였고, 조사 설계 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도구를 선정하고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경우 조사의 편의성 및 자료의 객관성은 높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심도 있는 자료 수집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전체 패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전문성을 갖춘 대학원 과정 이상의 발달검사 관련 과목 이수를 한 조사원을 활용하여 아동의 발달 상태 및 주변 인적환경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올해 제 2차 심층조사에서는 만 5세 아동의 인지발달과 언어 발달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수집을 목표로 K-WPPSI와 REVT 중 표현어휘력 검사를 사용하였다.

K-WPPSI는 인지검사로서 언어성과 동작성 두 요인의 12개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동작성과 언어성 검사는 각각 6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작성과 언어성 소검사 점수를 합하여 동작성 IQ와 언어성 IQ를 각각 산출하고 둘을 합산하여 전체 IQ점수를 도출하였다.

〈표 II-2-1〉 심층조사의 내용

변인	도구	소검사	하위척도
인지	K-WPPSI	언어성	상식, 이해, 산수, 어휘, 공통성, 문장
		동작성	모양맞추기, 도형, 토막짜기, 미로, 빠진곳찾기, 동물짜짓기
언어	REVT	표현어휘력	185문항 중 연령범위 선택 사물과 현상에 대한 언어 표현 능력을 측정함

한편, 언어발달 검사는 REVT는 수용 어휘와 표현어휘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반조사에서 표현어휘력 검사는 실시되었고, 표현어휘력이 수용어휘력보다는 한 차원 높은 언어 능력을 나타내므로 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표현어휘력 검사는 표현어휘에 해당하는 품사별로 명사 106개, 동사 58개, 형용사와 부사 21개로 이루어진 표현어휘력 검사에서 연령에 맞는 문항번호를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나. 심층조사의 절차

심층조사는 참여를 희망하는 패널 가구의 신청을 토대로 진행하였는데, 1차 심층조사와의 연계성을 위하여 1차 심층조사 참여자의 참여를 독려했고 그 외 13% 정도를 추가로 지원받아 선정하였다. 패널 가구의 주거지를 기본으로 인근 지역의 거점지역의 대학에 배정하였다. 지역별 거점 장소는 조사에 요구되는 전문성 및 검사 환경을 충족할 수 있는 곳으로 총 13개 학교를 선정하여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거점별 배분 인원 및 심층조사 전문가 네트워크는 다음의 <표 II-2-2>와 같다.

네트워크 구성 전문가의 업무는 심층조사 변인 및 도구들에 관한 자문, 해당 학과/센터 내의 심층조사 수행 총괄, 검사자 확정 및 관리 등이었다.

<표 II-2-2> 심층조사 전문가 네트워크 및 표본 배분

단위: %(명)

지역	거점 대학교	거점 전문가	1차 심층조사 참여자	2차 신규 참여자	전체
강원, 경기	가천대	정미라	16.3	4.8	9.0
경기	가톨릭대	신유립	5.6	1.0	2.7
경기	아주대	김은정	7.3	7.1	7.2
경기, 서울	연세대	박주희	12.4	6.8	8.8
서울	덕성여대	이경옥	7.9	4.2	5.5
서울	중앙대	박찬옥	9.0	9.3	9.2
인천	인하대	이완정	5.6	2.9	3.9
충청, 대전	충북대	신나리	7.3	3.9	5.1
경북, 대구	경북대	정정희	7.3	18.6	14.5
울산	울산대	박혜원	6.7	4.5	5.3
경남, 부산	부산대	정계숙	5.1	15.8	11.9
전북	전북대	이진숙	2.2	6.8	5.1
광주, 전남	전남대	이주연	6.7	14.1	11.5
제주도	-	-	0.6	0.3	0.4
계	13		100.0(178)	100.0(311)	100.0(489)

또한 네트워크 검사 환경의 통일성을 위하여 아동과 보호자가 거점대학에 설치된 검사 장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심층조사의 조사원은 거점대학별 전문가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서울에서 진행된 2회의 집합 교육 및 개별 실습을 포함한 교육을 이수한 뒤 투입되었다. 조

사원 교육은 각 도구의 개발자들(K-WPPSI, 박혜원; REVT, 홍경훈)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에 의해 진행되었다. 교육 내용은 도구 개발자 및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에 의한 강의식 전달 수업 및 실습교육과 더불어 교육 기간 중 개별 조사원이 만 5세 아동을 편의 표집하여 사전 실습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실습 과정의 질의사항 및 결과에 대한 도구 개발자의 피드백을 통해 심층 조사의 진행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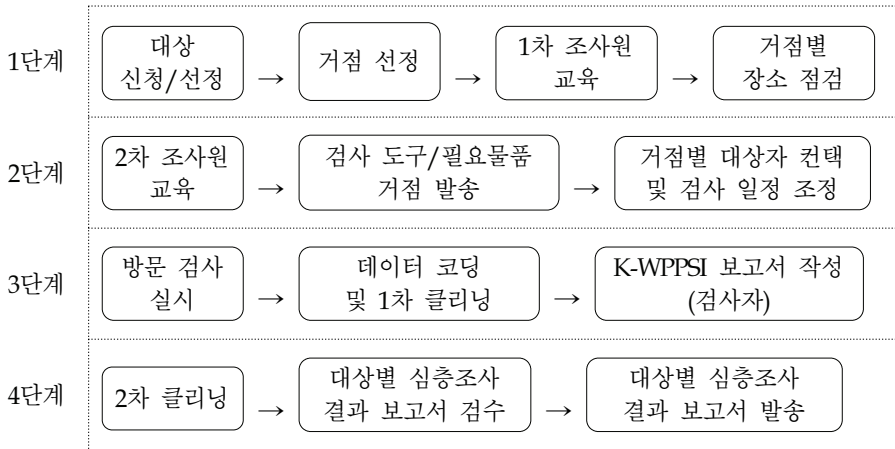
〈표 II-2-3〉 심층조사 조사원 교육

구분	시 간	내 용
제1차 9/27 (금)	10:00 - 10:10	○연구진 소개 및 인사, 참석자 확인
	10:10 - 11:30	○K-WPPSI 교육 I: K-WPPSI의 이해, 소검사 실시법(모양맞추기, 상식, 도형, 이해, 토막짜기, 산수)
	11:30 - 11:40	○휴식
	11:40 - 12:40	○K-WPPSI 실습 I
	12:40 - 13:40	○점심식사
	13:40 - 14:40	○K-WPPSI 교육 II: 소검사 실시법(미로, 어휘, 빠진곳찾기, 공통성, 동물짝짓기, 문장)
	14:40 - 14:50	○휴식
	14:50 - 16:20	○K-WPPSI 실습 II
	16:20 - 16:30	○휴식
	16:30 - 17:20	○REVT(표현) 교육: 실시 및 채점 방법
	17:20 - 17:30	○휴식
	17:30 - 18:30	○REVT(표현) 실습
	제2차 10/11 (금)	10:00 - 10:10
10:10 - 12:00		○K-WPPSI 교육: 개별실습 경험 나눔 및 질의응답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4:00		○K-WPPSI 교육: 채점 및 프로파일 작성법
14:00 - 14:10		○휴식
14:10 - 15:50		○REVT(표현) 교육: 개별실습 경험 나눔 및 질의응답
15:50 - 16:20		○조사 진행 및 대상자 컨택 시의 주의사항
16:20 - 16:30		○휴식
16:30 - 17:20	○Data 입력 방식 및 주의사항	

심층조사의 진행은 각 거점별로 대상자를 컨택하여 일정을 조율하고, 매주 조사원에 의해 코딩된 데이터와 K-WPPSI 보고서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검수하고 피드백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층조사가 모두 완료된 뒤 거점별 자료를 수합하여 2차 데이터 클리닝 및 대상별 심층조사 결과 보고서를 수합하여 전문가 검수를 거쳐 대상별 결과 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심층조사 진행절차를 정리하면 [그림 II-2-1]과 같다.



[그림 II-2-1] 심층조사 진행절차

다. 심층조사의 기대효과

유아기 말에 해당하는 5세에는 대뇌발달의 성숙이 95% 정도 이루어지고 대뇌의 기능도 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숙된다. 또한 이러한 대뇌 발달로 인해 유아기 아동은 기억용량과 기억전략도 발달하게 되어 인지능력이 향상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인지발달은 이후의 다른 발달 영역과의 관련성이나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중요하다.

또한 만 5세경이 되면 아동이 사용하는 언어는 기본적인 언어발달이 거의 완성된 것으로 간주될 만큼 복잡한 구문의 발달이 어느 정도 완성된다. 이러한 시기 이후 학령기에 발달하는 가장 중요한 언어 영역은 이야기 산출 능력이며, 아동의 이야기 산출 능력은 학령기의 학업적 성취 및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도 관련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이야기 평가는 취학 전후의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취

학 후 직면할 수 있는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편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심층조사는 패널 아동과 부모에게는 인근 지역의 대학을 방문하는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 서비스를 인식하게 하고, 아동에게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공과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 심층조사의 경과

2회에 걸친 조사원교육을 받은 조사원은 각 지역의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10월 말부터 실제 조사를 시작하여 지역 간의 차이는 있으나 12월에 심층조사를 마무리하고자 하였다. 각 거점대학별 조사원 대표가 주말마다 실시한 검사 결과와 데이터 코딩을 연구소로 보내오면 패널팀 담당자가 검토하여 클리닝하면서 오류를 수정하고 있다. 각 거점대학별 조사원 대표가 점검한 데이터와 정비한 검사 도구를 연구소로 보내는 것이 마지막 절차이다.

Ⅲ. 5차년도(2012) 자료의 기초분석⁶⁾

1. 조사의 개요

가. 5차년도 조사별 성공률

2012년도에 실시된 5차년 조사별 성공률은 <표 Ⅲ-1-1>과 같다. 전체 조사 성공률의 기준이 되는 CAPI 면접조사는 1,703명으로 조사 완료되었다. 우편 조사로 실시되는 어머니 대상 조사는 1,678명(98.5%), 아버지 대상 조사는 1,618명(95%)이 참여하였다. 관찰 및 면접으로 실시하는 HOME 조사는 1,690명(99.2%), 어머니가 응답하는 CBCL은 1,694명(99.5%),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창의성발달 검사인 K-FCTYC는 1,690명(99.2%)이 조사 완료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다니는 육아지원기관의 교사 대상 조사는 1,018명이 조사되었으며, 이는 CAPI 면접 조사에서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한 1,649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61.7%가 참여하여 다른 조사에 비해 성공률이 낮았다.

<표 Ⅲ-1-1> 한국아동패널 2012년 조사별 성공률

구분	단위: 명, %						
	CAPI 면접조사	어머니 대상	아버지 대상	HOME	CBCL 1.5-5	K-FCTYC	육아지원 기관
참여자 수	1,703	1,678	1,618	1,690	1,694	1,690	1,018
성공률	100.0%	98.5%	95.0%	99.2%	99.5%	99.2%	61.7% ^{주)}

주: 육아지원 기관의 성공률은 육아지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한 1,649명을 기준으로 함.

나. 분석주제별 변인 구성

5차년도 조사의 분석은 조사 대상자의 아동 특성, 부모 특성, 가구 특성,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특성, 육아 정책 특성으로 구분하여 6개의 주제

6) 기초분석에 사용한 조사 자료는 2014년도에 공개될 예정이며, 학술대회 및 에디팅 작업 후에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별로 이루어졌다. 각 분석주제별 내용에 따라 기초통계량과 함께 아동의 성별, 어머니의 취업여부 또는 가구소득⁷⁾ 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았다. 분석주제별 변인의 구성과 해당 변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⁸⁾

1) 아동 특성

5차년도 조사의 아동 특성은 인구학적 특성, 신체 발달, 일상생활,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사회·정서 발달로 구분하였으며, 해당하는 변인은 <표 III-1-2>와 같다. 인구학적 특성 중 일부 변하지 않는 변인은 종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신체 발달은 체중과 신장을 측정하였다. 인지 발달과 언어 발달은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서비스 기관의 교사에 의해 응답되었으며, 창의성 발달은 조사원에 의해 아이와 면대면 개별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성 발달 중 문제 행동(CBCL 1.5-5)은 아동 검사가 실시되는 동안 어머니에 의해 작성되었다.

<표 III-1-2> 아동 특성

구분	하위변인	해당질문지	
인구학적 특성	성별, 월령	-	
	출생순위	면접조사용	
	수면 관련	수면 시각, 시간, 숙면 여부 낮잠: 여부, 시간	면접조사용 기관조사용
일상생활	식습관 관련	식습관: 규칙성, 양, 속도, 자립도, 편식 아침식사 횟수, 간식 횟수, 외식 횟수	어머니대상 기관조사용 어머니대상
	일과 관련	일과 활동 시간 미디어 이용: 시작 연령, 정도	면접조사용
	신체발달	체중, 신장	(측정)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한 치료, 입원, 통원 치료, 질환	면접조사용	
인지발달	인지발달	기관조사용	
	창의성발달	K-FCYTC	
언어발달	언어발달	기관조사용	

7) 가구소득 분류는 통계청의 소득 10분위 가구당 가계수지의 소득을 도시 전체가구 기준으로 적용하여 상·하 30% 기준금액을 적용하였음.

8) 5차년도 조사 질문지는 부록 3~8에 수록하였음.

(표 III-1-2 계속)

구분	하위변인	해당질문지
사회·정서 발달	기질	어머니대상
	선호하는 놀이 영역, 기관 선호 정도, 교사 선호 정도	어머니대상 기관조사용
	또래 놀이 상호작용	기관조사용
	문제 행동	CBCL 15-5

2) 부모 특성

5차년도 조사의 부모 특성은 인구학적 특성, 건강 특성, 직업 특성, 개인 특성, 부부 특성, 부모됨, 양육 특성, 지원 특성, 육아지원 서비스 참여,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하는 변인은 <표 III-1-3>과 같다. 부모의 개인 내적 특성, 부모됨, 양육특성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조사하였다.

〈표 III-1-3〉 부모 특성

구분	하위변인	해당질문지
인구학적 특성	연령, 최종학력, 결혼 상태 및 기간	면접조사용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비동거 시 아이를 만나는 일 수	
건강 특성	1·2급 장애 유무, 희귀난치성 유전병 유무	면접조사용
	음주: 횟수, 음주량, 과음 횟수	어머니대상
	흡연	아버지대상
직업 특성	취업/학업 상태, 취업 상태	면접조사용 아버지대상
	미취업 이유, 취업 이유, 경력 단절 이유, 경력 단절 시기	면접조사용
	향후 취/학업 계획, 구직활동 여부, 희망 근로 형태, 이유	면접조사용 아버지대상
	이직 사유, 직장 변동 여부	
	종사상 지위, 직업 군, 직장의 종사자 수	
근무 일 수, 근무시간, 출퇴근 소요 시간 40시간 미만 근로 이유	면접조사용	
개인 특성	하루 일과 활동 시간	면접조사용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어머니대상 아버지대상
부부 특성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어머니대상 아버지대상

(표 III-1-3 계속)

구분	하위변인	해당질문지
부모됨	출산 계획 여부, 후속 출산 미계획 사유	
	계획 자녀 수, 계획 시기	어머니대상
	이상 자녀 수, 성별, 기대성별 구성	아버지대상
	신념: 부모의 책임,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	
양육 특성	양육 행동,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대상
	아버지의 양육 참여, 양육 시간	아버지대상
육아지원 서비스 참여	기관 생활 관심정도, 육아지원 기관 방문 횟수	어머니대상
	부모참여 행사 참여	기관조사용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지난 1년 간 육아지원 서비스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이유, 미이용 이유, 중복이용 이유	면접조사용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빈도, 이용 시작 시기	
	등·하원 수단, 동반자, 등·하원 시간	기관조사용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변경 횟수, 변경 이유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비용	면접조사용
	육아지원 서비스 비용 부담도, 전반적 만족도	

3) 가구 특성

5차년도 조사의 가구 특성은 인구학적 특성, 가계경제 요소, 역사적 특성, 가족 환경의 질로 구분하였으며, 해당하는 변인은 <표 III-1-4>와 같다. 가정환경의 질은 조사원의 가정 방문 시의 관찰 및 면접을 통해서 조사되었다.

〈표 III-1-4〉 가족 특성

구분	하위변인	해당질문지
인구학적 특성	가구 구성, 가구원 수	면접조사용
가계경제 요소	가구 소득: 근로(사업) 소득, 재산 및 금융 소득, 공적 소득, 사적 이전 소득, 어머니의 근로 소득	
	가구 지출(소비성, 비소비성)	면접조사용
	부동산, 금융자산	
	부채 여부, 부채액, 월 상환금	
	사회보장 지원	
역사적 특성	가족생활사건(규범적, 비규범적)	어머니대상
가정환경의 질	HOME	면접조사용

4)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5차년도 조사의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은 기관 특성, 학급 특성, 교사 특성, 특별활동 특성, 대리양육자 특성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하는 변인은 <표 III-1-5>와 같다.

<표 III-1-5>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구분	하위변인	해당질문지
기관 특성	기관 유형, 시설 유형	면접조사용
	평가 여부, 규모	기관조사용
학급 특성	연령 구성, 학급 규모, 교실 환경	기관조사용
	기관의 휴식 공간 실외 놀이 공간, 실내 대근육 활동 공간	
교사 특성	성별, 연령, 전공, 근무 시간, 경력, 자격, 학력 아동의 담임 기간, 교수 효능감, 아동과의 상호작용	기관조사용
특별 활동 특성	기관 내 특별활동 이용 여부, 특별활동 종류, 수, 이용 횟수, 이용 시간, 이용 비용	면접조사용 기관조사용
	기관 외 특별활동 이용 여부, 특별활동 종류, 수, 이용 횟수, 이용 시간, 이용 비용	면접조사용
대리 양육자 특성	인구학적 특성, 이용 특성, 이용 비용, 이용 시간, 비용 부담도, 전반적 만족도	면접조사용
비급여 양육 도우미	비급여 양육 도우미 여부, 아동과의 관계	면접조사용

5) 지역사회 특성

5차년도 지역사회 특성은 일반적 특성, 물리적 환경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하는 변인은 <표 III-1-6>과 같다.

<표 III-1-6> 지역사회 특성

구분	하위변인	해당질문지
일반적 특성	현 거주지역	어머니대상
물리적 환경	양육 적절성	어머니대상
	가용 육아지원기관, 사교육기관 시설 이용 편리성	

6) 육아 정책 특성

5차년도 육아지원정책 특성은 국가지원, 직장에서의 지원, 보육·교육 정책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해당하는 변인은 <표 III-1-7>과 같다. 5차년도 조사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에 대한 문항을 아버지에게도 질문을 하였다.

〈표 III-1-7〉 육아 정책 특성

구분	하위변인	해당질문지
국가 지원	수혜 경험 여부, 지원 유형, 지원 만족도	어머니대상
	보육·교육 무상 이용에 따른 후속출산 의사 정도 양육비용 지급에 따른 후속출산 의사 여부, 적정 금액	
직장에서의 지원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시행 여부	면접조사용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필요성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필요 순위	어머니대상
보육·교육 정책	보육·교육 정책 인지 여부, 보육·교육 정책 필요성 인식 보육·교육 정책의 출산계획 영향 여부	어머니대상

2. 가중치 작성 및 추정⁹⁾¹⁰⁾

가. 가중치 부여방법

한국아동패널의 경우 의료기관을 집락으로 사용한 층화다단계 표본추출에 의해 표본이 구축되었는데, 이러한 형태의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e design)에서 얻어진 표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산출된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과정을 통해 적절한 통계분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복합표본 설계된 조사의 가중치는 ① 설계 가중치, ② 무응답에 따른 가중치 조정, ③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에 의한 가중치 보정 등 세 가지 요인을 종합하여 산정된다. 특히 한국아동패널과 같이 매년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패널 조사에서는 1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 중

9) 가중치 산출 및 작성은 숙명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김영원 교수에 의해 산출 및 작성되었음.

10) 가중치 부여방법은 한국아동패널 연구에 대해 조사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됨. 각 연도별로 가중치 보정 시 설계가중치가 지속적으로 이용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설계가중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보고서(조복희 외, 2009)를 참고할 것.

2차 조사 이후에 무응답이 발생하거나 패널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표본이 마모(sample attrition)됨으로써 표본 구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연구대상 모집단에도 매년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패널조사 자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무응답 조정 및 사후층화를 통한 가중치 보정이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아동패널에서도 추출확률에 따른 설계가중치를 기초로 무응답 조정 및 사후층화 조정 등을 고려한 1차년도 가중치를 산출하여 이미 제공하였으며, 2009년도(2차), 2010년도(3차), 2011년도(4차) 조사가 수행됨에 따라 매년 무응답 및 사후층화 조정 과정을 통해 작성한 횡단면 및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를 제공해 왔다. 패널 조사의 경우 조사가 매년 수행됨에 따라 각 연도별로 가중치 보정 과정을 통해 이론적으로 타당한 가중치를 작성해 자료 분석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5차년도 가중치 보정

1) 아동패널 응답패턴 분석

가중치 보정을 위해서는 우선 패널 가구의 응답패턴을 분석하는 동시에 응답 가구와 무응답 가구의 특성상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응답여부에 따른 가구 특성 분석 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횡단면 및 종단면 가중치를 작성하였다.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구체적인 응답 패턴 및 표본마모 현황은 ‘한국아동패널 2012(김은설 외, 2012)’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2012년) 조사결과 패널 가구의 응답여부에 따른 분포는 <표 III-2-1>과 같다. 우선 1차년도 원 패널¹¹⁾ 2,078가구 중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차 ~ 5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가구는 1,536가구로 원패널 기준 표본 유지율은 73.9%이고, 2차 및 3차 조사에 신규 추가 된 가구를 포함한 전체 패널¹²⁾ 2,150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패널 유지율은 71.4%이다.

11) 원 패널: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2008년) 조사에 참여한 2,078가구를 의미함.

12) 전체 패널: 한국아동패널에서는 1차년도(2008년) 조사부터 3차년도(2010년) 조사까지는 구축 당시의 예비 표본 중에서 해당 연도의 표본으로 추가 구축을 허용하였고, 예비표본 중 1~3차년도 조사 중 한번 이상 참여한 2,150가구를 최종 전체 패널로 구축하였음. 3차년도 이후부터의 설계가중치 산출은 전체 패널을 기준으로 함.

한편 5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는 447가구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원 패널 가구 중 1차, 2차, 3차 및 4차년도 조사에 계속 참여하였으나 5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81가구, 4차년도 이후에 계속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60가구, 3차년도 이후에 계속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110가구, 1차년도에만 참여 하고 2차년도 이후 조사에는 계속 참여하지 않은 150가구였으며, 그 밖에 단조결 측패턴(Monotone Missing Pattern)에 해당하지 않는 5차년도 무응답 가구가 46가구 있었다. 결과적으로 전체 패널을 기준으로 보면 5차년도 패널 응답률은 79.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 연도별 아동패널가구 응답가구 분포

단위: 가구,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가구수	비율(%)
원패널: 조사 성공	○	○	○	○	○	1,536	71.4
원패널: 5차년도 탈락	○	○	○	○	X	81	3.8
원패널: 4차년도 이후 탈락	○	○	○	X	X	60	2.8
원패널: 3차년도 이후 탈락	○	○	X	X	X	110	5.1
원패널: 2차년도 이후 탈락	○	X	X	X	X	150	7.0
2차년도 신규: 조사 성공	-	○	○	○	○	29	1.3
3차년도 신규: 조사 성공	-	-	○	○	○	14	0.7
기타 - 5차년도 참여	*	*	*	*	○	124	5.8
기타 - 5차년도 탈락	*	*	*	*	X	46	2.1
합 계						2,150	100.0
(5차년도 조사 성공가구)	-	-	-	-	-	(1,703)	

주: '○'는 해당 연도 조사에 참여 가구, 'X'는 해당 연도 조사에 비참여 가구를 의미함.

2) 5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작성

5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무응답에 따른 편향을 줄이며 또한 가중치 산출 방안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기존의 4차년도까지 적용했던 무응답 조정 계급(Non-response Adjustment Class)을 가능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무응답을 보정한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아울러 모집단 변동을 반영하는 동시에 패널 마모에 의한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4차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2012년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한 벤치마킹 가중치 보정과정을 통해 최종 횡단면 가중치를 산출한 것이다. 참고로 2012년도 5차년도 아동패널 가중치 산출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작업은 5차년도에 조사가 완료된 1,703가구가 우리나라 2008년 신생아 가구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 최종 가중치는 전체 패널 중 5차년도 무응답 447가구에 따른 무응답 가중치 보정 후, 통계청의 2012년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벤치마킹하는 사후층화과정을 통해 최종 가중치를 산출한 것이다.

우선 1차년도 패널 가구의 조사누락으로 인한 편향을 줄이기 위한 무응답 가중치 보정을 위해, 조사 자료에 나타난 가구/어머니 특성을 고려한 무응답 조정 계급을 구성해 무응답에 따른 가중치 보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가구/어머니 특성에 따른 응답률 분석을 위해 응답여부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조사 변수들 중 거주지, 아동 성별, 어머니 취업 여부, 아동 출생 순위, 월평균 가구 소득 등과 같은 조사 대상자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독립 변수로 사용한 로지스틱 모형을 기초로 응답률에 영향을 많이 주는 변수를 통계적인 변수선택방법을 통해 추출했다. 모형 적합을 위해서는 연도별 응답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패널 가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8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2차와 3차년도에 신규로 참여한 경우는 신규 참여 연도에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였다(일부 응답가구 중 취업여부 및 지역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음). 로지스틱 분석결과는 <표 III-2-2>와 같이 권역(서울권, 경인권, 대전/충청/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등 6개 권역), 출생순위(2개 범주) 및 어머니 취업여부(2개 범주)의 세 가지 변수가 한국아동패널의 무응답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차년도 무응답 가중치 보정과정에서도 과거와 동일한 변수들을 무응답 조정 계급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무응답 가중치 보정 과정이 연도별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I-2-2> 5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무응답 로지스틱 모형 분석결과

변수	자유도	Wald 카이제곱 통계량	유의확률(p-value)
취업여부	1	3.9928	0.0457
출생순위	1	5.6713	0.0172
지역(권역)	5	14.3871	0.0133

따라서 무응답 조정 계급은 거주지를 나타내는 6개 권역, 출생순위를 나타내는 2개 범주(첫째 아동 대 둘째이상 아동), 어머니 취업여부를 나타내는 2개 범주를 기준으로 24개 무응답 조정 계급을 구성하고 각 계급 내에서 가중응답률

(Weighted Response Rate)을 산출한 후, 이 값의 역수를 무응답 조정 상수로 사용하여 해당 계급내의 응답 가구 가구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무응답 가중치 조정 작업을 수행했다.

무응답에 따른 가중치 조정 후, 한국아동패널의 최종 가중치는 통계청의 2012년 주민등록인구자료에서 16개 시도별로 만 4세 남녀 아동수와 한국아동패널의 해당 범주별 표본 가중치의 합이 일치 하도록 벤치마킹하는 사후층화 가중치 보정 과정을 통해 최종 2012년 횡단면 가중치를 산출했다. 사후층화과정에서는 일부 극단적으로 값이 크게 산출된 가중치는 걱정 수준에서 절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극단(Outlier) 가중치를 포함한 계급 내의 다른 가중치를 절사된 만큼 부풀리는 방식으로 최종 가중치를 산출했다.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최종적으로 산출된 2012년 한국아동패널 횡단면 가중치의 기술통계는 <표 III-2-3>과 같다. 최종 2012년 횡단면 가중치의 평균은 271.03, 중위수는 215.38, 표준편차는 158.50, 최솟값은 33.72, 최댓값은 830.7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 5차년도 최종 횡단면 가중치 부여결과(2012년 자료 기준)

구분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사례수	최솟값	최댓값
사례별 가중치	271.03	215.38	158.50	1,703	33.72	830.78

3) 5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작성

3차년도까지는 3개 년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실제 아동패널 자료 이용자가 본격적인 종단면 자료 분석을 할 정도로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단면 가중치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원래 패널조사는 시점별 모집단 현황 파악을 위한 횡단면 분석과 함께 동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종단면 분석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패널의 경우에도 4차년도부터는 횡단면 가중치와 함께 종단면 가중치를 작성해 자료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종단면 가중치 작성을 위해 우선 원 표본 가구로부터 5차년도까지 무응답 패턴을 분석해 응답여부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종단면 가중치 보정을 위한 무응답 조정 계급을 설정하였다. 5차 년도의 종단면 가중치

작성 과정은 횡단면 가중치 산출과정과 유사한 무응답 보정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2008년부터 5개년 모두 응답한 가구의 자료에만 종단면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기 때문에 횡단면 가중치 작성 과정과 일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응답률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무응답이 단조결측패턴을 갖지 않기 때문에 횡단면 가중치 및 종단면 가중치는 각각 별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5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부여대상가구에 대해서도 횡단면 자료와 마찬가지로 로지스틱분석을 통해 응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였고, 4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출생 순위, 거주지 등이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선택되었다. 따라서 가중치 산출 방안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4차년도에 적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종단면 가중치 보정을 위한 무응답 조정계급도 횡단면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거주지를 나타내는 6개 권역, 출생 순위를 나타내는 2개 범주(첫째 아동, 둘째 이상 아동), 어머니 취업여부를 나타내는 2개 범주를 기준으로 24개 무응답 조정 계급을 구성하고 각 계급 내에서 가중응답률을 산출한 후, 이 값의 역수를 무응답 조정 상수로 사용하여 해당 계급내의 응답 가구 가구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무응답 가중치 조정 작업을 수행했다.

종단면 가중치 작성과정에서도 1차년도 이후 발생한 모집단 변동을 반영하는 동시에 패널 마모에 의한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한 사후층화 형식의 벤치마킹 가중치 보정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종단면 가중치도 무응답에 따른 종단면 가중치 조정 후, 통계청의 2012년 주민등록인구자료에서 권역별로 만 4세 남녀 아동수를 벤치마킹하는 사후층화 가중치 보정 과정을 통해 산출하였다. 종단면 가중치에 대한 사후층화과정에서도 횡단면 가중치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부 극단 가중치를 절사 처리했다.

〈표 III-2-4〉 5차년도 최종 종단면 가중치 부여결과(2012년 자료 기준)

구분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사례수	최솟값	최댓값
사례별 가중치	300.48	242.45	170.31	1,536	43.41	866.75

최종적으로 산출된 2012년 한국아동패널 종단면 가중치의 기술통계는 <표 III-2-4>와 같다. 최종 2012년 종단면 가중치의 평균은 300.48, 중위수는 242.45, 표준편차는 170.31, 최솟값은 43.41, 최댓값은 866.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모수추정

한국아동패널에서 각종 모집단에 대한 평균(또는 비율)은 표본가중평균(標本加重平均)을 이용하여 추정하며, 표본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bar{y} = \frac{\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y_{hij}}{\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 \frac{\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y_{hij}}{w_{\dots}}$$

w_{hij} : 각 표본 신생아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

y_{hij} : 각 조사대상 가구에서 얻은 각종 조사 변수에 대한 관측치들

$w_{\dots} = \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모든 표본 가구에 대한 가중치의 합

여기서 h 는 지역층, i 는 층내 의료기관, j 는 표본가구를 나타내는 첨자이다.

참고로 한국아동패널 분석용 자료에는 2008년 ~ 2010년까지는 횡단면 가중치만을 조사 자료와 함께 제공하였지만, 2011년 4차년도 자료부터는 횡단면 가중치와 함께 종단면 분석(Longitudinal Analysis)을 위한 가중치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횡단면 분석뿐만 아니라 종단면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타당한 분석을 위해서는 관련 가중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III-2-5〉 한국아동패널 조사 연도별 가구 수 및 가중치 적용

구분	연도	분석대상 가구 수	적용 대상 가중치
횡단면 분석	2008년 (1차조사)	2,078	2008년 횡단면 가중치
	2009년 (2차조사)	1,904	2009년 횡단면 가중치
	2010년 (3차조사)	1,802	2010년 횡단면 가중치
	2011년 (4차조사)	1,754	2011년 횡단면 가중치
	2012년 (5차조사)	1,703	2012년 횡단면 가중치
종단면 분석	2011년 (1~4차조사)	1,617	2011년 종단면 가중치
	2012년 (1~5차조사)	1,536	2012년 종단면 가중치

예를 들어,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토대로 2008년 조사가 완료된 2,078가구 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2008년 횡단면 가중치를 사용해야 하고, 2009년,

2010년, 2011년 및 2012년 자료에 대한 횡단면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년도의 횡단면 가중치 반드시 적용해 분석해야한다. 아울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차년도에 걸쳐 계속 조사된 1,536가구를 대상으로 한 종단면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료와 함께 제공된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3. 아동 특성

가. 인구학적 특성

5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가구는 총 1,703가구로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870명, 여아가 833명이었다. 대상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아 45.9%, 둘째아 42.6%, 셋째아 10.4%이었다. 아동의 나이는 조사 일을 기준으로 52개월이 30.1%로 가장 많았고, 53개월 24.3%, 51개월 22.9% 순이었다.

〈표 III-3-1〉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성별			월령		
남아	51.1	(870)	49개월	2.6	(44)
여아	48.9	(833)	50개월	11.5	(195)
출생순위			51개월	22.9	(390)
첫째아	45.9	(781)	52개월	30.1	(513)
둘째아	42.6	(726)	53개월	24.3	(413)
셋째아	10.4	(177)	54개월	7.8	(133)
넷째아	0.9	(16)	55개월	0.9	(15)
다섯째아 이상	0.2	(3)	계	100.0	(1,703)

나. 일상생활

아동의 일상생활은 수면, 식습관 및 일과 활동으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1) 수면

아동의 수면 시각, 시간, 숙면 여부, 낮잠 여부 및 낮잠 시간을 변인에 따라 어머니와 교사에게 질문하였다.

만 4세 시기 패널 아동의 평균 기상 시각은 7시 29분경(7.48시)이며, 취침 시각은 21시 31분경(21.52시)이고, 평균 수면 시간은 9시간 56분(9.93시간) 정도였다. 아동의 수면은 아동의 성별과 모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늦게 취침하고 일찍 기상하며 더 적게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의 자녀들이 미취업모의 자녀들보다 늦게 취침하고 일찍 기상하며 더 적게 자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2〉 아동의 수면 시간

단위: 시각, 시간(명)

구분	취침 시각			기상 시각			총 수면 시간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1.52	1.33	(1,699)	7.48	.67	(1,702)	9.93	.79	(1,702)
아동 성별									
남	21.54	1.31	(866)	7.45	.68	(869)	9.87	.78	(870)
여	21.49	1.35	(833)	7.51	.66	(833)	10.00	.81	(832)
<i>t</i>		0.73*			-2.01*			-3.25**	
모 취업여부									
취업	21.61	1.61	(720)	7.41	.67	(722)	9.73	.80	(723)
미취업	21.45	1.08	(959)	7.53	.66	(960)	10.07	.76	(959)
<i>t</i>		2.44*			-.363***			-8.90***	

* $p < .05$, ** $p < .01$, *** $p < .001$.

만 4세 아동의 86.8%는 밤에 깨지 않고 자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 성별과 모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I-3-3〉 아동의 숙면 유무

단위: %(명)

구분	예(깨지 않음)	아니요(깨)	계(수)	$\chi^2(df)$
전체	86.8	13.2	100.0(1,703)	-
아동 성별				
남	44.3	6.8	51.1(870)	0.01(1)
여	42.5	6.4	48.9(833)	
모 취업여부				
취업	38.0	5.0	43.0(723)	2.00(1)
미취업	49.1	8.0	57.0(960)	

가정에서 낮잠을 자는 아동은 12.1%, 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은 87.9%인 반면, 기관에 낮잠 시간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낮잠을 자는 아동은 28.4%, 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은 33.2%이었다. 가정과 기관에서의 낮잠 여부 모두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기관에서의 낮잠 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III-3-4〉 아동의 낮잠 여부

단위: %(명)

구분	가정에서의 낮잠			기관에서의 낮잠 ^{주)}				계(수)
	낮잠을 잠	낮잠을 자지 않음	계(수)	낮잠시간 없음	낮잠을 잠	낮잠을 자지 않음	불규칙 적임	
전체	12.1	87.9	100.0(1,703)	30.3	28.4	33.2	8.2	1000(1,018)
아동 성별								
남	11.7	88.3	100.0(870)	30.4	29.8	31.5	8.3	1000(527)
여	12.5	87.5	100.0(833)	30.1	26.9	35.0	7.9	1000(491)
$\chi^2(df)$		0.23(1)				1.73(2)		
모 취업여부								
취업	11.9	88.1	100.0(723)	23.2	38.8	29.2	8.7	1000(448)
미취업	12.4	87.6	100.0(960)	35.9	19.6	36.8	7.7	1000(560)
$\chi^2(df)$		0.10(1)				31.00(2) ^{***}		

주: 기관에서의 낮잠의 통계치 분석은 '낮잠시간 없음'을 제외하고 분석함.

*** $p < .001$.

가정과 기관에서 낮잠을 자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가정에서의 낮잠 평균 시간은 1시간 17분(76.46분)정도였고, 기관에서의 평균 시간은 1시간(59.63분)정도였다. 아동의 낮잠 시간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고,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가정과 기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는 취업모보다 미취업모의 자녀들이, 기관에서는 미취업모보다 취업모의 자녀들이 낮잠을 더 오래 자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 III-3-5〉 아동의 낮잠 시간

단위: 분(명)

구분	가정에서의 낮잠			기관에서의 낮잠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76.46	34.11	(206)	59.63	22.83	(380)

(표 III-3-5) 계속

구분	가정에서의 낮잠			기관에서의 낮잠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아동 성별						
남	75.29	34.49	(102)	60.39	21.88	(204)
여	77.60	33.86	(104)	58.75	23.91	(176)
<i>t</i>		-0.48			0.70	
모 취업여부						
취업	70.12	29.33	(86)	61.65	24.17	(218)
미취업	80.67	36.59	(119)	56.41	20.66	(156)
<i>t</i>		-2.29*			2.19*	

* $p < .05$.

2) 식습관

아동의 식습관과 관련하여 식사 규칙성, 식사량, 식사속도, 자립도 및 아침식사, 간식, 외식 횟수, 편식 여부 등에 대하여 아동의 어머니와 교사에게 질문하였다.

아동의 식사 시간의 규칙성에 대해 어머니가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 규칙성의 평균은 3.72점으로, '그렇다' 이상의 응답 비율은 66.5%였다. 아동의 성별과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I-3-6〉 가정에서의 아동의 식사시간 규칙성(어머니 응답)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0.7	5.0	27.9	54.8	11.7	100.0(1,673)	3.72
아동 성별							
남아	0.6	5.8	27.0	55.3	11.3	100.0(856)	3.71
여아	0.7	4.0	28.9	54.2	12.1	100.0(817)	3.73
$\chi^2(df)/t$				3.72(4)			-0.55
모 취업여부							
취업	0.4	5.8	27.4	54.5	11.9	100.0(707)	3.72
미취업	0.8	4.2	28.5	55.0	11.5	100.0(951)	3.72
$\chi^2(df)/t$				3.41(4)			-0.12

아동의 식사량에 대해 아동이 다니고 있는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의 담임교사(또는 강사)가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 식사량 평균은 3.05점이었다. 식사량

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2.5%로 가장 많았고, '조금 먹는 편' 이하의 응답 비율 16.1%, '많이 먹는 편' 이상의 응답 비율 21.4%였다. 교사가 응답한 아동의 식사량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사들은 취업모 자녀들의 식사량이 더 많다고 보고하였다.

〈표 III-3-7〉 기관에서의 또래와 비교한 아동의 식사량(교사 응답)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먹는 편임	조금 먹는 편임	보통임	많이 먹는 편임	매우 많이 먹는 편임	계(수)	평균
전체	1.6	14.5	62.5	20.0	1.4	100.0(1,018)	3.05
아동 성별							
남아	1.5	14.8	60.9	20.9	1.9	100.0(527)	3.07
여아	1.6	14.3	64.2	19.1	0.8	100.0(491)	3.03
$\chi^2(df)/t$				3.05(4)			0.84
모 취업여부							
취업	0.7	13.4	61.6	23.4	0.9	100.0(448)	3.10
미취업	2.3	15.5	63.4	17.0	1.8	100.0(560)	3.00
$\chi^2(df)/t$				11.87(4)*			2.36*

* $p < .05$.

아동의 식사량이 일정한가를 어머니가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 식사량의 일정성 평균은 3.62점이었고,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5.8%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가 응답한 아동의 식사량 일정성은 아동의 성별과 모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I-3-8〉 가정에서의 아동의 식사량 일정성(어머니 응답)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0.5	8.5	27.3	55.8	7.9	100.0(1,673)	3.62
아동 성별							
남아	0.4	8.5	26.8	56.2	8.2	100.0(856)	3.63
여아	0.7	8.6	27.8	55.3	7.6	100.0(817)	3.60
$\chi^2(df)/t$				0.39(2)			0.76

(표 III-3-8 계속)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모 취업여부							
취업	0.4	9.2	28.1	55.4	6.8	100.0(707)	3.59
미취업	0.6	8.1	26.4	56.2	8.7	100.0(951)	3.64
$\chi^2(df)/t$				1.26(2)			-1.3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분석이 불가하여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로 재분류하여 분석함.

아동의 식사 속도가 빠른 편인지에 대해 5점 척도로 어머니가 응답한 결과, 평균 점수는 2.68점이었고, 어머니는 '보통이다'에 50.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아동의 식사 속도가 '빠르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11.5%이었으며, '식사 속도가 빠르지 않다'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은 37.9%이었다. 아동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아동 식사속도에 대한 응답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여아가 남아보다 식사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모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I-3-9〉 가정에서의 아동의 식사 속도(어머니 응답)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6.6	31.3	50.5	10.1	1.4	100.0(1,672)	2.68
아동 성별							
남아	6.9	29.0	50.8	11.6	1.8	100.0(856)	2.72
여아	6.4	33.8	50.2	8.6	1.0	100.0(816)	2.64
$\chi^2(df)/t$				8.83(4)			2.14*
모 취업여부							
취업	6.7	29.3	51.4	11.5	1.1	100.0(706)	2.71
미취업	6.5	32.7	50.2	9.0	1.6	100.0(951)	2.66
$\chi^2(df)/t$				4.57(4)			1.18

* $p < .05$.

기관의 담임교사에게 식사 속도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평균 점수는 2.76점이었고, 교사는 '보통이다'에 50.9%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교사가 식사속도가 '빠름' 이상의 응답을 한 비율은 14.6%이었고, '느림' 이하의 응답을

한 비율은 34.6%이었다. 점수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동 성별과 모 취업 여부에 따라 교사의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0〉 기관에서의 또래와 비교한 아동의 식사 속도(교사 응답)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느림	느림	보통임	빠름	매우 빠름	계(수)	평균
전체	5.8	28.8	50.9	12.8	1.8	100.0(1,018)	2.76
아동 성별							
남아	7.4	25.4	51.6	13.3	2.3	100.0(527)	2.78
여아	4.1	32.4	50.1	12.2	1.2	100.0(491)	2.74
$\chi^2(df)/t$			11.07(4)*				0.68
모 취업여부							
취업	5.8	29.9	51.1	12.3	0.9	100.0(448)	2.73
미취업	5.9	27.9	50.9	13.0	2.3	100.0(560)	2.78
$\chi^2(df)/t$			3.50(4)				-1.07

* $p < .05$.

아동의 식습관 자립도에 대해 5점 척도로 어머니가 응답한 결과, 평균 점수는 3.37점이었고, '보통이다'에 37.2%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식습관 자립도에 대해 '그렇다'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6%이었으며, '그렇지 않다'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은 18.3%이었다. 아동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아동 식습관 자립도에 대한 응답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식습관 자립도가 높았다. 모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I-3-11〉 가정에서의 아동의 식습관 자립도(어머니 응답)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1.7	16.6	37.2	32.4	12.2	100.0(1,673)	3.37
아동 성별							
남아	1.9	19.5	38.9	30.3	9.5	100.0(856)	3.26
여아	1.5	13.5	35.4	34.6	15.1	100.0(817)	3.48
$\chi^2(df)/t$			24.23(4)***				-4.84***
모 취업여부							
취업	2.1	16.5	36.8	34.1	10.5	100.0(707)	3.34
미취업	1.4	16.6	37.3	31.2	13.5	100.0(951)	3.39
$\chi^2(df)/t$			5.40(4)				-0.97

*** $p < .001$.

아동의 일주일 간 집에서의 아침 식사 횟수, 간식 횟수 및 외식 횟수에 대해 어머니가 응답한 결과, 아침식사는 거의 매일 먹음이 60.9%, 1일 1회의 간식 42.4%, 외식 주 1-2회 61.4%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아침식사 횟수와 간식 횟수는 모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외식 횟수는 차이가 없었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I-3-12〉 아침식사 횟수

단위: %(명)

구분	거의 안 먹음	주 1-2회	주 3-4회	주 5-6회	거의 매일 먹음	계(수)	$\chi^2(df)$
전체	4.3	8.3	14.4	12.1	60.9	100.0(1,669)	
아동 성별							
남아	4.2	7.4	14.1	12.2	62.2	100.0(531)	2.59(4)
여아	4.3	9.3	14.8	12.0	59.5	100.0(815)	
모 취업여부							
취업	6.1	8.5	16.6	11.9	56.9	100.0(705)	18.01(4)**
미취업	2.7	8.2	13.0	12.1	64.0	100.0(949)	

** $p < .01$.

〈표 III-3-13〉 간식 횟수

단위: %(명)

구분	거의 안함	1일 1회	1일 2회	1일 3회	1일 4회 이상	계(수)	$\chi^2(df)$
전체	1.9	42.4	40.4	10.5	4.9	100.0(1,670)	
아동 성별							
남아	1.2	42.6	41.0	10.0	5.1	100.0(856)	5.27(4)
여아	2.6	42.1	39.8	10.9	4.5	100.0(814)	
모 취업여부							
취업	3.1	43.7	37.6	10.9	4.7	100.0(705)	14.31(4)**
미취업	0.9	41.4	42.5	10.2	4.9	100.0(950)	

** $p < .01$.

〈표 III-3-14〉 외식 횟수

단위: %(명)

구분	거의 안함	주 1-2회	주 3-5회	주 6-7회	주 8회 이상	계(수)	$\chi^2(df)$
전체	34.7	61.4	3.7	0.1	0.1	100.0(1,672)	
아동 성별							
남아	36.7	60.3	2.9	0.1	0.0	100.0(856)	-
여아	32.6	62.6	4.5	0.1	0.1	100.0(816)	

(표 III-3-14 계속)

구분	거의 안함	주 1-2회	주 3-5회	주 6-7회	주 8회 이상	계(수)	$\chi^2(df)$
모 취업여부							
취업	36.1	59.3	4.2	0.1	0.1	100.0(706)	3.02(2) ^{주)}
미취업	33.6	63.0	3.3	0.1	-	100.0(951)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하여 '거의 안함', '주 1-2회', '주 3회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함.

가정에서의 아동의 편식 습관 여부에 대해 5점 척도로 어머니가 응답한 결과, 평균 점수는 3.18점이었고, 편식 습관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38.3%이었다. 어머니가 응답한 아동의 편식 습관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아동의 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5〉 가정에서의 아동의 편식(어머니 응답)

구분	단위: %(명), 점					계(수)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2	22.9	34.9	30.6	8.3	100.0(1,669)	3.18
아동 성별							
남아	4.3	24.4	33.0	29.7	8.6	100.0(852)	3.14
여아	2.1	21.4	37.0	31.5	8.1	100.0(817)	3.22
$\chi^2(df)/t$			10.66(4) [*]				-1.73 [*]
모 취업여부							
취업	2.7	22.5	33.7	32.9	8.2	100.0(706)	3.21
미취업	3.7	23.3	36.0	28.8	8.2	100.0(948)	3.15
$\chi^2(df)/t$			4.13(4)				1.40

* $p < .05$.

기관의 담임교사에게 편식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평균 점수는 3.33점이었고, '골고루 먹는 편임'에 41.6%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편식하는 편임'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26.4%이었다. 교사가 응답한 아동의 편식 습관 여부도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편식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아동의 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6〉 기관에서의 또래와 비교한 아동의 편식 정도(교사 응답)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편식안함	꽤고루 먹는 편임	보통임	편식하는 편임	편식이 심함	계(수)	평균
전체	10.8	41.6	21.2	22.5	3.9	100.0(1,018)	3.33
아동 성별							
남아	10.4	39.8	19.9	23.9	5.9	100.0(527)	3.25
여아	11.2	43.4	22.6	21.0	1.8	100.0(491)	3.41
$\chi^2(df)/t$				14.34(4)*			-2.44*
모 취업여부							
취업	12.1	43.3	18.8	21.9	4.0	100.0(448)	3.38
미취업	49.1	46.4	39.4	43.2	45.0	100.0(560)	3.29
$\chi^2(df)/t$				3.9			1.25

* $p < .05$.

3) 활동시간과 미디어 이용

아동의 일과를 활동시간과 미디어 이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아동의 교육·보육기관 이용 시간은 1일 평균 6시간 53분(6.88시간)으로 응답되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어, 취업모의 자녀들이 교육·보육기관을 더 오랜 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7〉 교육·보육기관 이용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6.88	1.87	(1,698)
아동 성별			
남	6.92	1.87	(866)
여	6.83	1.86	(832)
t		1.08	
모 취업여부			
취업	7.70	1.73	(722)
미취업	6.24	1.70	(956)
t		17.27***	

*** $p < .001$.

교육·보육기관 이외 기타 학원 이용이나 개인레슨 시간과, 학습지 등을 이용하여 집에서 하는 학습활동 시간을 조사한 결과, 기타 학원 이용이나 개인레슨

시간은 일일 평균 10분(0.16시간), 집에서 하는 학습활동 시간은 일일 평균 19분(0.31시간)이었다. 아동 성별과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 학습지 등 집에서 하는 학습활동 시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아들과 미취업모의 자녀들이 집에서 하는 학습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8〉 학습활동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기타 학원 또는 개인레슨			학습지 등 집에서 하는 학습활동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6	.47	(1,703)	.31	.36	(1,703)
아동 성별						
남	.14	.44	(870)	.29	.34	(870)
여	.18	.50	(833)	.34	.38	(833)
<i>t</i>		-1.55			-3.00 ^{***}	
모 취업여부						
취업	.16	.47	(723)	.28	.34	(723)
미취업	.16	.48	(959)	.34	.38	(960)
<i>t</i>		0.09			-3.15 ^{**}	

** $p < .01$, *** $p < .001$.

아동들은 시청각 프로그램을 일일 평균 1시간 22분(1.36시간) 시청하고 있었고, 게임 및 인터넷은 일일 평균 14분(0.24시간) 이용하고 있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 시청각 프로그램 시청과 게임 및 인터넷 이용시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전기 및 전자 기기를 더 이용하고 있었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 시청각 프로그램 시청시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고, 미취업모의 자녀들의 시청시간이 길었다.

〈표 III-3-19〉 시청각 프로그램 및 전자제품 이용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시청각 프로그램 시청			게임 및 인터넷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36	.87	(1,703)	.24	.42	(1,703)
아동 성별						
남	1.42	.90	(870)	.26	.43	(870)
여	1.30	.84	(833)	.21	.41	(833)
<i>t</i>		2.72 ^{**}			2.57 [*]	

(표 III-3-19 계속)

구분	시청각 프로그램 시청			게임 및 인터넷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모 취업여부						
취업	1.29	.83	(723)	.25	.44	(723)
미취업	1.40	.88	(960)	.23	.41	(960)
<i>t</i>		-2.76**			0.98	

* $p < .05$, ** $p < .01$.

만 4세 아동들은 24시간 중 바깥놀이 및 활동을 일일 평균 1시간 10분(1.16시간) 동안 하였고, 장난감과 책 보기 등 실내놀이 활동은 평균 2시간 5분(2.08시간) 동안 하였다. 이 결과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모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미취업모의 자녀들이 바깥놀이/활동 및 실내놀이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0〉 놀이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바깥놀이 및 활동			장난감, 책 보기 등 실내놀이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16	.86	(1,703)	2.08	1.19	(1,703)
아동 성별						
남	1.18	.87	(870)	2.09	1.20	(870)
여	1.14	.84	(833)	2.07	1.19	(833)
<i>t</i>		0.84			0.28	
모 취업여부						
취업	.92	.75	(723)	1.90	1.07	(723)
미취업	1.33	.89	(960)	2.22	1.26	(960)
<i>t</i>		-10.36***			-5.07***	

*** $p < .001$.

패널에 참여한 아동들은 24시간 중 평균 1시간 19분(1.32시간)을 세면 및 외모 관리 등 기본생활 유지에 사용하였고 29분(0.48시간)을 기타 시간에 사용하였다.

〈표 III-3-21〉 기본생활 및 기타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기본생활			기타 시간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32	.60	(1,658)	.48	.88	(1,703)
아동 성별						
남	1.31	.61	(847)	.46	.85	(870)
여	1.33	.60	(811)	.50	.91	(833)
<i>t</i>		-0.90			-1.13	
모 취업여부						
취업	1.24	.52	(697)	.45	.84	(723)
미취업	1.39	.65	(942)	.51	.91	(960)
<i>t</i>		-5.07***			-1.50	

*** $p < .001$.

미디어 이용과 관련하여 최초로 미디어를 이용하기 시작한 연령과 이용 정도를 조사하였다. 컴퓨터를 최초로 이용하기 시작한 연령은 평균 3.40세, 개인 게임기는 3.32세, 휴대폰은 3.58세이었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모 취업에 따라서는 휴대폰을 최초로 이용한 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취업모의 자녀들이 휴대폰을 더 이른 연령부터 이용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표 III-3-22〉 아동의 미디어 최초 이용 시작 연령

단위: 세(명)

구분	컴퓨터			개인 게임기			휴대폰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40	.74	(380)	3.32	1.23	(160)	3.58	.66	(441)
아동 성별									
남	3.44	.74	(205)	3.45	1.11	(98)	3.63	.57	(191)
여	3.35	.74	(175)	3.11	1.38	(62)	3.52	.75	(441)
<i>t</i>		1.39			2.87			3.04	
모 취업여부									
취업	3.39	.73	(208)	3.33	1.23	(73)	3.49	.76	(245)
미취업	3.41	.75	(379)	3.32	1.23	(87)	3.64	.56	(439)
<i>t</i>		0.13			0.03			5.71*	

* $p < .05$.

아동의 컴퓨터 이용 정도에 대해 어머니가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 평균 점수는 2.54점이었고, 컴퓨터를 '전혀 이용하지 않음'이 28.2%로 가장 많았고, '보

통'임이 27.1%, '대체로 이용함'이 22.9%로 조사되었다. 아동의 성별과 모 취업 여부에 따라 컴퓨터 이용 정도에 있어 차이는 없었다.

〈표 III-3-23〉 아동의 미디어 이용 정도: 컴퓨터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이용하지 않음	대체로 이용 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이용함	매우 자주 이용함	(수)	평균
전체	28.2	18.6	27.1	22.9	3.2	100.0(532)	2.54
아동 성별							
남	16.5	9.6	15.2	12.2	1.7	55.3(294)	2.51
여	11.7	9.0	11.8	10.7	1.5	44.7(238)	2.58
$\chi^2(df)/t$			1.55(4)				-0.70
모 취업여부							
취업	11.9	8.7	12.3	9.8	1.9	44.6(236)	2.58
미취업	16.1	10.0	14.9	13.0	1.3	55.4(293)	2.52
$\chi^2(df)/t$			1.93(4)				0.51

개인 게임기 이용 정도에 대해 어머니가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 평균 점수는 1.58점이었고, 개인 게임기를 '전혀 이용하지 않음'이 69.1%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이용하지 않음'이 12.6%, '보통'임이 10.0%이었다. 개인 게임기 이용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개인 게임기를 더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24〉 아동의 미디어 이용 정도: 개인 게임기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이용하지 않음	대체로 이용 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이용함	매우 자주 이용함	(수)	평균
전체	69.1	12.6	10.0	7.5	0.8	100.0(531)	1.58
아동 성별							
남	36.2	7.3	6.0	4.9	0.8	55.0(293)	1.67
여	33.0	5.3	4.0	2.6	0.0	44.8(238)	1.47
$\chi^2(df)/t$				1)			2.38*
모 취업여부							
취업	30.1	5.9	5.3	3.2	0.2	44.7(236)	1.60
미취업	38.8	6.8	4.7	4.4	0.6	55.3(292)	1.57
$\chi^2(df)/t$				1)			0.34

주: 1) 빈도수 특성상 통계분석이 불가함.

* $p < .05$.

아동의 휴대폰 이용 정도에 대해 어머니가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 평균 점수는 2.92점이었고, 휴대폰을 '대체로 이용함'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임'이 32.7%, '전혀 이용하지 않음'이 16.9%로 조사되었다. 아동의 성별과 모 취업여부에 따른 휴대폰 이용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표 III-3-25〉 아동의 미디어 이용 정도: 휴대폰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이용하지 않음	대체로 이용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이용함	매우 자주 이용함	(수)	평균
전체	16.9	13.3	32.7	34.6	2.4	100.0(532)	2.92
아동 성별							
남	8.1	7.7	17.9	19.9	1.7	55.3(294)	2.99
여	8.8	5.6	14.8	14.7	0.8	44.7(238)	2.84
$\chi^2(df)/t$			3.68(4)				1.54
모 취업여부							
취업	7.8	5.7	14.4	15.3	1.5	44.6(236)	2.94
미취업	9.1	7.8	18.3	19.3	0.9	55.4(293)	2.91
$\chi^2(df)/t$			1.79(4)				0.22

다. 신체발달

만 4세 아동들의 신체발달을 알아보기 위해 체중과 신장을 측정하였고, 아동의 병력을 조사하였다.

패널 아동들의 평균 체중은 16.97kg이었으며, 평균 신장은 103.79cm이었다. 아동의 체중과 신장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체중과 신장에서 모두 남아가 여아보다 더 무겁고,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6〉 아동 체중 및 신장

단위: kg, cm(명)

구분	체중					신장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전체	16.97	2.12	11.0	29.6	(1,703)	103.79	4.08	85.0	125.0	(1,703)
성별										
남	17.16	2.09	11.0	25.0	(870)	104.20	4.19	85.0	125.0	(870)
여	16.77	2.14	11.6	29.6	(833)	103.37	3.93	91.2	120.0	(833)
t			3.80***					4.20***		

(표 III-3-26) 계속

구분	체중					신장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모 취업여부										
취업	17.06	2.13	12.0	29.0	(723)	103.96	4.04	91.2	120.0	(723)
미취업	16.88	2.09	11.0	29.6	(960)	103.63	4.09	85.0	125.0	(960)
<i>t</i>			1.72					1.62		

*** $p < .001$.

아동의 병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사고나 중독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13.9%, 지난 1년 동안 치료 횟수는 평균 1.38회였다. 아동의 치료여부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취업모의 자녀들이 더 많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27〉 아동의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한 치료

단위: %, 번(명)

구분	치료 여부			치료 횟수		
	없다	있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86.1	13.9	100.0(1,703)	1.38	1.02	(236)
아동 성별						
남	85.6	14.4	100.0(870)	1.48	1.29	(125)
여	86.7	13.3	100.0(833)	1.27	.57	(111)
$\chi^2(df)/t$		0.39(1)			1.58	
모 취업여부						
취업	88.1	11.9	100.0(723)	1.28	.63	(86)
미취업	84.7	15.3	100.0(960)	1.44	1.19	(147)
$\chi^2(df)/t$		4.04(1)*			-1.18	

* $p < .05$.

지난 1년 간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아동은 9.1%로 나타났으며, 입원횟수는 평균 1.24회, 입원기간은 평균 8.02일로 조사되었다.

〈표 III-3-28〉 아동의 입원 치료

단위: %, 번, 일(명)

구분	입원 여부			입원 횟수			입원 기간		
	없다	있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90.9	9.1	100.0(1,703)	1.24	.75	(155)	8.02	12.11	(153)

(표 III-3-28) 계속

구분	입원 여부			입원 횟수			입원 기간		
	없다	있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아동 성별									
남	91.0	9.0	100.0(870)	1.19	.76	(78)	9.96	16.35	(76)
여	90.8	9.2	100.0(833)	1.29	.74	(77)	6.10	4.67	(77)
$\chi^2(df)/t$		0.04(1)			-0.78			1.98	
모 취업여부									
취업	90.9	9.1	100.0(723)	1.26	.77	(66)	6.49	6.31	(65)
미취업	90.9	9.1	100.0(960)	1.16	.40	(87)	9.23	15.12	(86)
$\chi^2(df)/t$		0.00(1)			0.93			-1.52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입원의 주된 이유는 폐렴이 23.4%로 가장 많았고, 장염이 22.0%, 수술이 18.5%이었으며, 이외 감기, 고열, 구내염, 중이염, 기관지염, 폐렴 및 장염 등 다양한 이유로 32.2%, 골절이 3.9%로 응답되었다.

〈표 III-3-29〉 아동의 입원 이유(중복응답)

구분	폐렴	골절	장염	수술	기타	단위: %(수)
						계(수)
전체	23.4	3.9	22.0	18.5	32.2	100.0(205)
아동 성별						
남	24.5	3.8	20.8	18.9	32.1	100.0(106)
여	22.2	4.0	23.2	18.2	32.3	100.0(99)
모 취업여부						
취업	19.5	4.9	23.2	9.8	42.7	100.0(82)
미취업	26.1	3.4	21.8	23.5	25.2	100.0(119)

조사일 기준으로 52.3%의 아동이 최근 2주간 통원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치료 횟수는 평균 2.14회이었다.

〈표 III-3-30〉 아동의 한 달 간 통원 치료

구분	치료 여부			치료 횟수		
	없다	있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47.7	52.3	100.0(1,703)	2.14	1.93	(891)
아동 성별						
남	47.5	52.5	100.0(870)	2.17	1.97	(457)
여	47.9	52.1	100.0(833)	2.10	1.88	(434)
$\chi^2(df)/t$		0.03(1)			0.57	

(표 III-3-30) 계속

구분	치료 여부			치료 횟수		
	없다	있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수)
모 취업여부						
취업	48.0	52.0	100.0(723)	2.07	1.75	(376)
미취업	47.7	57.2	100.0(960)	2.20	2.01	(502)
$\chi^2(df)/t$		0.01(1)			-0.94	

패널 아동이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모든 질환을 조사한 결과, 아토피 피부염이 56.8%로 가장 많고, 만성 부비동염이 20.7%이었으며, 그 외 천식과 만성 중이염의 진단을 받았다.

〈표 III-3-31〉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아동의 질환(중복응답)

구분	단위: %(수)						
	선천성 심장질환	간질	천식	아토피 피부염	만성 부비동염	만성 중이염	계(수)
전체	0.9	0.9	13.5	56.8	20.7	7.2	100.0(111)
아동 성별							
남	1.5	1.5	15.2	50.0	24.2	7.6	100.0(66)
여	0.0	0.0	11.1	66.7	15.6	6.7	100.0(45)
모 취업여부							
취업	2.2	15.2	60.9	10.9	10.9	10.9	100.0(46)
미취업	0.0	1.6	12.5	54.7	26.6	4.7	100.0(64)

주: 응답된 항목만 기술함.

패널 아동이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질환의 진단 시기는, 천식의 경우 아동의 평균 나이가 42.60개월, 아토피 피부염은 41.90개월, 만성 부비동염은 42.57개월, 만성 중이염은 44.75개월이었다.

〈표 III-3-32〉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아동의 질환의 진단 시기

구분	단위: 개월(수)							
	천식		아토피 피부염		만성 부비동염		만성 중이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2.60	5.54	41.90	4.73	42.57	8.88	44.75	2.49
아동 성별								
남아	43.10	3.54	42.78	4.84	10.21	2.55	3.11	1.39
여아	41.60	8.79	40.93	4.47	2.94	1.11	.58	.33
t	0.48		1.55		-1.24		-0.78	

(표 III-3-32) 계속

구분	천식		아토피 피부염		만성 부비동염		만성 중이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모 취업여부								
취업	44.14	3.19	41.30	5.88	45.60	3.05	45.20	2.59
미취업	41.25	6.94	42.38	3.59	41.71	10.12	44.00	2.65
<i>t</i>	1.01		-0.89		0.84		0.63	

주: 응답된 항목만 기술함.

라. 인지발달

만 4세 아동들의 인지발달은 「영유아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평가(이종숙·신은수·박은혜·김영태·곽영숙·유영의, 2008)」 도구를 이용하여 교사가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평정하였고, 창의성은 아동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도구인 「유아 도형 창의성 검사(전경원, 2001)」로 측정하였다.

교사가 평정한 아동의 만 4세 시기 인지발달의 표준 점수¹³⁾ 평균은 102.88점이었으며, 아동의 성별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여아와 취업모의 자녀들이 인지발달에서 더 높게 평정되었다.

〈표 III-3-33〉 아동의 인지발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i>t</i>
전체	102.88	13.16	(1,018)	-
아동 성별				
남아	100.74	13.70	(527)	-5.48***
여아	105.18	12.16	(491)	
모 취업여부				
취업	104.07	12.32	(448)	2.52*
미취업	101.97	13.73	(560)	

* $p < .05$, *** $p < .001$.

「유아 도형 창의성 검사」는 ‘으뜸도형으로 그리기’와 ‘자극도형으로 그리기’ 2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창성·독창성·개방성·민감성의 네 가지 하위요인을 측정한다(전경원, 2001). 패널 아동 전체의 창의성 평균은 49.93점, 유창

13) 표준 점수 = 100 + 15(원점수 - 평균/표준편차) (이종숙 외, 2008, 25쪽)

성은 52.66점, 독창성은 57.97점, 개방성은 54.16점, 민감성은 34.93점으로, 하위 요인 중 민감성 요인의 점수가 다른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창의성 전체 점수 및 하위요인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전체와 하위요인 모두에서 남아들보다 여아들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창의성 전체 점수와 각 하위요인의 점수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3-34〉 아동의 창의성발달

구분	단위: 점(명)									
	종합		유창성		독창성		개방성		민감성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49.93	13.79 (160)	52.66	14.12 (160)	57.97	17.76 (160)	54.16	13.79 (160)	34.93	10.84 (160)
아동 성별										
남아	49.15	13.78 (86)	51.58	13.84 (86)	57.11	17.85 (86)	53.50	13.86 (86)	34.41	10.90 (86)
여아	50.74	13.76 (89)	53.77	14.32 (89)	58.85	17.64 (89)	54.85	13.69 (89)	35.48	10.77 (89)
<i>t</i>		-2.37*		-3.20**		-2.02*		-2.02*		-2.02*
모 취업여부										
취업	50.11	13.52 (75)	53.03	14.03 (75)	58.12	17.34 (75)	54.28	13.47 (75)	35.03	10.59 (75)
미취업	49.82	14.05 (95)	52.37	14.20 (95)	57.91	18.17 (95)	54.11	14.11 (95)	34.90	11.09 (95)
<i>t</i>		.43		.94		.24		.24		.24

* $p < .05$, ** $p < .01$.

마. 언어발달

교사가 관찰을 바탕으로 「영유아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평가(이종숙 외, 2008)」 도구를 이용하여 평정한 아동의 언어발달의 표준 점수 평균은 105.51점이며,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의 언어발달 점수가 남아보다 더 높았다.

〈표 III-3-35〉 아동의 언어발달

구분	단위: 점(명)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05.51	12.00	(1,018)
			<i>t</i>
			-

(표 III-3-35)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t
아동 성별				
남아	103.83	13.36	(527)	-4.70***
여아	107.30	10.06	(491)	
모 취업여부				
취업	106.33	11.17	(448)	1.88
미취업	104.92	12.47	(560)	

*** $p < .001$.

바. 사회·정서 발달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은 아동의 기질, 아동이 현재 다니고 있는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에서 아동이 선호하는 놀이영역, 기관의 선호도, 담임교사(또는 강사)를 선호하는 정도, 아동의 놀이 상호작용 및 문제행동으로 측정하였다.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EAS; Buss와 Plomin, 1984)」를 사용하여 주 양육자가 평정한 아동 기질 중 정서성의 평균 점수는 2.80점, 활동성의 평균 점수는 3.76점, 사회성의 평균 점수는 3.48점으로 나타났다. 기질의 세 가지 하위영역 중 활동성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여 남아가 여아보다 더 활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36〉 아동의 기질

구분	부정적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80	.64	(1,670)	3.76	.60	(1,666)	3.48	.53	(1,663)
아동 성별									
남아	2.79	.63	(855)	3.85	.59	(852)	3.50	.51	(853)
여아	2.80	.66	(815)	3.67	.60	(814)	3.46	.54	(810)
t		-0.36			5.93***			1.55	
모 취업여부									
취업	2.78	.64	(705)	3.75	.58	(705)	3.49	.52	(704)
미취업	2.81	.64	(950)	3.76	.62	(946)	3.47	.53	(944)
t		-0.97			-0.24			0.70	

*** $p < .001$.

패널 아동들이 재원하고 있는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에서 아동이 선호하는 놀이 영역 1순위는 쌓기 45.8%, 역할 26.2%, 미술 16.4%이었다. 남아의 경우는 선호하는 놀이 영역 1순위가 쌓기 78.2%이었고, 여아의 경우는 역할 48.9%, 미술 28.1%로 조사되었다.

〈표 III-3-37〉 기관에서 선호하는 놀이 영역: 1순위

단위: %(명)

구분	언어	미술	쌓기	수 /과학	조작	역할	음률	컴퓨터	해당 없음	계(수)
전체	4.0	16.4	45.8	2.2	4.7	26.2	0.4	-	0.3	100.0(1,018)
아동 성별										
남아	1.9	5.5	78.2	2.3	6.5	5.1	0.2	-	0.4	100.0(527)
여아	6.3	28.1	11.0	2.0	2.9	48.9	0.6	-	0.2	100.0(491)

아동이 선호하는 놀이 영역 2순위는 역할 29.8%, 미술 21.7%, 조작 18.0%이었다. 남아의 경우 선호하는 놀이 영역 2순위가 조작 29.0%, 역할 27.6%이었고, 여아의 경우 역할 32.2%, 미술 30.7%로 나타났다.

〈표 III-3-38〉 기관에서 선호하는 놀이 영역: 2순위

단위: %(명)

구분	언어	미술	쌓기	수 /과학	조작	역할	음률	컴퓨터	기타	해당 없음	계(수)
전체	7.1	21.7	13.1	7.3	18.0	29.8	2.3	-	0.6	-	100.0(1,009)
아동 성별											
남아	6.0	13.2	11.5	10.9	29.0	27.6	1.3	-	0.4	-	100.0(521)
여아	8.4	30.7	14.8	3.5	6.4	32.2	3.3	-	0.8	-	100.0(488)

아동이 현재 다니고 있는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의 선호도를 어머니와 교사에게 각각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먼저 어머니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아동의 기관 선호도 평균 점수는 4.03점으로 대체로 좋아함 이상으로 평정한 경우가 82.3%였다. 어머니가 응답한 아동의 기관 선호도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기관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39〉 어머니가 인식한 아동의 기관 선호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좋아하지 않음	별로 좋아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좋아함	아주 좋아함	계(수)	평균
전체	0.2	2.3	15.3	59.1	23.2	100.0(1,624)	4.03
아동 성별							
남아	0.4	3.1	16.9	61.0	18.6	100.0(828)	3.94
여아	0.0	1.5	13.6	57.0	27.9	100.0(796)	4.11
$\chi^2(df)/t$				10.77(2)**			-4.90***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분석이 불가하여 '좋아하지 않음', '보통임', '좋아함'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함.

** $p < .01$, *** $p < .001$.

아동의 담임교사가 평정한 아동의 기관 선호도 평균 점수는 4.13점으로 대체로 좋아함 이상을 선택한 경우가 8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응답한 아동의 기관 선호도에서도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응답과 동일하게,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기관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0〉 교사가 인식한 아동의 기관 선호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좋아하지 않음	별로 좋아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좋아함	아주 좋아함	계(수)	평균
전체	-	0.4	12.9	59.9	26.8	100.0(1,018)	4.13
아동 성별							
남아	-	0.6	14.6	61.1	23.7	100.0(527)	4.08
여아	-	0.2	11.0	58.7	30.1	100.0(491)	4.19
$\chi^2(df)/t$				-1			-2.74**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분석이 불가함.

** $p < .01$.

아동이 담임교사를 좋아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어머니와 교사에게 각각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아동의 교사 선호도의 평균 점수는 4.11점으로 대체로 좋아함 이상을 선택한 경우가 83.3%였다. 어머니가 응답한 아동의 담임교사 선호도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자신의 담임교사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41〉 어머니가 인식한 아동의 교사 선호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좋아하지 않음	별로 좋아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좋아함	아주 좋아함	계(수)	평균
전체	0.2	1.5	15.0	53.5	29.8	100.0(1,629)	4.11
아동 성별							
남아	0.2	1.7	16.0	56.4	25.7	100.0(832)	4.06
여아	0.1	1.4	13.9	50.4	34.1	100.0(797)	4.17
$\chi^2(df)/t$				1.86(2)			-3.2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분석이 불가하여 '좋아하지 않음', '보통임', '좋아함'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함.

** $p < .01$.

교사가 응답한 교사 선호도의 평균 점수는 4.18점으로 대체로 좋아함 이상으로 평정한 경우가 87.8%였다. 교사가 응답한 아동의 교사 선호도에서도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응답과 동일하게,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자신의 담임교사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2〉 교사가 인식한 아동의 교사 선호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좋아하지 않음	별로 좋아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좋아함	아주 좋아함	계(수)	평균
전체	-	0.3	11.6	57.5	30.3	100.0(1,018)	4.18
아동 성별							
남아	-	0.6	13.7	58.6	27.1	100.0(527)	4.12
여아	-	0.0	9.4	56.5	34.4	100.0(491)	4.25
$\chi^2(df)/t$.1)			-3.22**

주: 1) 빈도수 특성상 통계분석이 불가함.

** $p < .01$.

패널 아동의 놀이 상호작용은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 도구(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 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와 Sutton-Smith, 1998)」를 사용하여 아동의 담임교사가 1~5점으로 평정하였다. 아동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 중 놀이방해의 평균 점수는 2.04점, 놀이 상호작용의 평균 점수는 3.11점, 놀이단절의 평균 점수는 1.56점이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의 평균

점수는 남아가 더 높았고, 놀이상호작용의 평균점수는 여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III-3-43〉 또래 놀이 상호작용

단위: 점(명)

구분	놀이방해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04	0.46	(1,018)	3.11	0.39	(1,018)	1.56	0.45	(1,018)
아동 성별									
남아	2.16	0.46	(527)	3.03	0.41	(527)	1.61	0.47	(527)
여아	1.92	0.42	(491)	3.19	0.35	(491)	1.50	0.41	(491)
<i>t</i>		8.58 ^{***}			-6.46 ^{***}			3.95 ^{***}	
모 취업여부									
취업	2.07	0.46	(448)	3.09	0.41	(448)	1.55	0.46	(448)
미취업	2.02	0.45	(560)	3.12	0.38	(560)	1.56	0.43	(560)
<i>t</i>		1.61			-1.01			-2.24	

*** $p < .001$.

아동의 문제행동은 「CBCL 1.5-5(오경자·김영아, 2009)」을 사용하여 아동의 주양육자가 응답하였다. CBCL의 T점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문제행동 총점의 평균은 49.31점, 내재화 문제행동의 평균은 49.85점, 외현화 문제행동의 평균은 49.41점이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문제행동 총점과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남아의 부모들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미취업모들이 자녀들의 문제행동을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4〉 문제행동 증후군

단위: 점(명)

구분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외현화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49.31	9.86	(1,694)	49.85	9.59	(1,694)	49.41	9.53	(1,694)
아동 성별									
남아	50.05	9.72	(865)	50.15	9.38	(865)	50.51	9.53	(865)
여아	48.54	9.75	(829)	49.55	9.80	(829)	49.55	9.41	(829)
<i>t</i>		3.17 ^{***}			1.29			4.87 ^{***}	

(표 III-3-44 계속)

구분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외현화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모 취업여부									
취업	48.51	9.84	(717)	49.06	9.40	(717)	48.86	9.63	(717)
미취업	49.91	9.81	(958)	50.43	9.66	(958)	49.84	9.44	(958)
<i>t</i>		-2.88**			-2.93**			-2.09*	

* $p < .05$, ** $p < .01$, *** $p < .001$.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을 보면, 정서적 반응성 요인의 평균은 53.54점, 불안/우울 요인은 53.98점, 신체증상 요인은 53.75점, 위축 요인은 53.94점이었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신체증상을 제외한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및 위축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취업모보다 미취업모가 자녀의 문제행동을 더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I-3-45〉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

구분	단위: 점(명)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53.54	5.32	(1,694)	53.98	5.60	(1,694)	53.75	5.67	(1,694)	53.94	5.61	(1,694)
아동 성별												
남아	53.51	5.36	(865)	53.99	5.62	(865)	53.86	5.68	(865)	54.04	5.70	(865)
여아	53.57	5.28	(829)	53.98	5.59	(829)	53.64	5.66	(829)	53.84	5.52	(829)
<i>t</i>		-.20			.04			.78			.74	
모 취업여부												
취업	53.16	5.08	(717)	53.45	5.28	(717)	53.52	5.38	(717)	53.45	5.32	(717)
미취업	53.82	5.50	(958)	54.37	5.80	(958)	53.90	5.83	(958)	54.27	5.79	(958)
<i>t</i>		-2.57*			-3.35**			-1.34			-3.01**	

* $p < .05$, ** $p < .01$.

외현화 문제행동의 하위요인 중 주의집중문제 요인의 평균은 53.17점, 공격행동 요인은 53.63점이었다. 기타문제 중 수면문제 요인은 53.05점, 새로운 것에 대한 겁내기, 도움에 대한 끊임없는 요청, 애어른과 같은 행동, 과식 등 기타문제는 53.58점이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수면문제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남아들의 점수가 여아들보다 높았다. 모 취업여부

에 따라서는 주의집중문제와 기타문제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미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주의집중문제와 기타문제 요인에서 자녀의 문제행동을 더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I-3-46〉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 및 기타 문제

단위: 점(명)

구분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수면문제			기타문제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53.17	4.71	(1,694)	53.63	5.49	(1,694)	53.05	5.29	(1,694)	53.58	5.42	(1,694)
아동 성별												
남아	53.57	4.83	(865)	54.17	5.86	(865)	53.02	5.19	(865)	54.00	5.66	(865)
여아	52.76	4.55	(829)	53.06	5.02	(829)	53.08	5.40	(829)	53.14	5.24	(829)
<i>t</i>		3.58***			4.20***			-0.22			3.29**	
모 취업여부												
취업	52.85	4.44	(717)	53.48	5.49	(717)	52.80	5.13	(717)	53.18	5.22	(717)
미취업	53.38	4.86	(958)	53.75	5.51	(958)	53.23	5.43	(958)	53.87	5.55	(958)
<i>t</i>		-2.31*			-1.00			-1.64			-2.61**	

* $p < .05$, ** $p < .01$, *** $p < .001$.

CBCL의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DSM) 진단 방식의 척도’를 분석한 결과, 정서문제의 평균은 53.23점, 불안문제는 53.17점, 전반적 발달문제는 53.73점, ADHD는 53.87점, 반항행동문제는 53.53점이었다.

〈표 III-3-47〉 DSM 진단

단위: 점(명)

구분	정서문제		불안문제		전반적 발달문제		ADHD		반항행동문제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53.23	5.27 (1,694)	53.17	5.22 (1,694)	53.73	5.78 (1,694)	53.87	5.20 (1,694)	53.53	5.32 (1,694)
아동 성별										
남아	53.23	5.24 (865)	53.25	5.32 (865)	53.88	5.94 (865)	54.28	5.29 (865)	53.87	5.53 (865)
여아	53.24	5.30 (829)	53.09	5.10 (829)	53.56	5.60 (829)	53.44	5.07 (829)	53.18	5.08 (829)
<i>t</i>		-0.03		.64		1.14		3.33***		2.65**
모 취업여부										
취업	53.02	5.13 (717)	52.70	5.00 (717)	53.33	5.54 (717)	53.72	5.20 (717)	53.30	5.22 (717)
미취업	53.35	5.33 (958)	53.53	5.38 (958)	54.01	5.93 (958)	53.98	5.19 (958)	53.72	5.41 (958)
<i>t</i>		-1.29		-3.27**		-2.41*		-1.02		-1.60

* $p < .05$, ** $p < .01$.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ADHD와 반항행동문제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고, 남아들의 점수가 여아들보다 높았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 불안문제와 전반적 발달문제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미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주의집중문제와 기타문제 요인에서 자녀의 문제행동을 더 인식하고 있었다.

4. 부모 특성

가. 인구학적 특성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패널 아동의 부모 특성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 연령은 30~39세가 83.5%로 가장 많았고, 40~49세가 10.1%, 20~29세가 6.3%이었다. 아버지 연령 역시 30~39세가 71.5%로 가장 많았고, 40~49세가 26.5%, 20~29세가 1.6%이었다.

〈표 III-4-1〉 부모의 연령

구분	단위: %(명)				계(수)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어머니	6.3	83.5	10.1	0.1	100.0(1,693)
아버지	1.6	71.5	26.5	0.5	100.0(1,685)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4년제 대졸이 38.2%, 고졸 29.1%, 전문대 졸 26.9%, 대학원 석사 졸 5.3% 순이었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4년제 대졸이 43.1%, 고졸 26.5%, 전문대 졸 19.3%, 대학원 석사 졸 10.4% 순이었다.

〈표 III-4-2〉 부모의 최종학력

구분	무학	단위: %(명)					계(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어머니	0.1	0.5	29.1	26.9	38.2	5.3	100.0(1,693)
아버지	0.0	0.6	26.5	19.3	43.1	10.4	100.0(1,685)

부모의 결혼 상태는 98.6%가 현재 유배우자 초혼이며, 재혼 0.8%, 이혼 0.3%, 사별, 별거, 미혼이 각 0.1%로 나타났다. 평균 결혼기간은 7.97년이었다.

〈표 III-4-3〉 부모의 결혼상태 및 기간

단위: %, 년(명)

미혼	유배우		결혼상태				결혼기간	
	-초혼	-재혼	사별	이혼	별거	계(수)	평균	표준편차
0.1	98.6	0.8	0.1	0.3	0.1	100.0(1,694)	7.97	3.24

아동과의 동거 여부를 부모 각각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아동과 어머니가 동거하는 경우가 99.5%, 아버지와 동거하는 경우는 96.3%였다. 동거하지 않는 이유는, 어머니의 경우 50.0%, 아버지의 경우 91.1%가 타 지역에서의 근무 또는 학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동거 시 아동이 어머니와 만나는 횟수는 월평균 4.13일, 아버지와 만나는 횟수는 월평균 5.44일로 조사되었다.

〈표 III-4-4〉 아동과의 동거 여부

단위: %, 일(명)

구분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비동거 시 월 평균 만남 횟수	
	동거	비동거	계(수)	타 지역 근무(학업)	기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어머니	99.5	0.5	100.0(1,693)	50.0	50.0	100.0(8)	4.13	3.72
아버지	96.3	3.7	100.0(1,685)	91.1	7.9	100.0(63)	5.44	3.33

나. 건강 특성

부모의 건강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1, 2급 장애 여부 및 희귀난치성 유전병 여부, 음주 및 흡연 습관을 조사하였다.

1) 장애 및 희귀난치성 질환

부모 중 1, 2급 이상의 중증도 장애가 있는 경우는 어머니는 0.3%, 아버지는 0.4%이며, 희귀난치성 유전병은 아버지 중 1.1%가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5〉 부모의 1·2급 장애 및 희귀난치성 유전병 유무

단위: %(명)

구분	1·2급 장애			희귀난치성 유전병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어머니	0.3	99.7	100.0(1,693)	0.1	99.9	100.0(1,693)
아버지	0.4	99.6	100.0(1,703)	1.1	98.8	100.0(1,703)

2) 음주

부모에게 평상시 음주 습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30.2%가 최근 1년 간 전혀 마시지 않았고, 36.1%는 월 1회 이하, 26.2%는 월 2~4회, 6.9%는 주 2~3회 음주를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아버지의 음주 횟수에 대해 살펴보면, 월 2~4회가 37.2%로 가장 많았으며, 주 2~3회가 27.4%, 월 1회 이하가 16.8%, 최근 1년 간 마시지 않음이 8.9%순이었다.

〈표 III-4-6〉 부모의 음주 횟수

단위: %(명)

구분	월 1회 이하	월 2~4회	주 2~3회	주 4회 이상	최근 1년 간 전혀 안 마심	계(수)
어머니	36.1	26.2	6.9	0.6	30.2	100.0(1,674)
아버지	16.8	37.2	27.4	9.8	8.9	100.0(1,675)

1회 음주 시 음주량에 대해 어머니의 59.0%가 1잔 또는 2잔이라고 응답하였고, 3잔 또는 4잔은 26.9%, 10잔 이상은 1.7%이었다. 아버지의 경우, 1회 음주 음주량에 있어, 3~4잔이 22.5%, 5~6잔이 22.3%로 가장 많았고, 1~2잔을 마시는 비율이 16.1%로 가장 낮았으며, 10잔 이상 마시는 비율은 18.6%이었다.

〈표 III-4-7〉 부모의 음주량

단위: %(명)

구분	1잔 또는 2잔	3잔 또는 4잔	5잔 또는 6잔	7잔 또는 9잔	10잔 이상	계(수)
어머니	59.0	26.9	9.3	3.1	1.7	100.0(1,149)
아버지	16.1	22.5	22.3	20.6	18.6	100.0(1,468)

1회 음주 시 어머니의 과음 횟수를 조사한 결과, 43.2%가 전혀 과음한 적이 없었고, 한 달에 1번 미만은 31.0%, 거의 매일은 1.0%이었다. 아버지의 경우, 전

혀 과음하지 않는다가 9.6%에 불과한 반면, 주 1번이 35.3%이었으며, 월 1번 정도가 26.3%, 거의 매일은 7.8%이었다.

〈표 III-4-8〉 부모의 과음 횟수

단위: %(명)

구분	전혀 없음	한 달에 1번 미만	한 달에 1번 정도	1주일에 1번 정도	거의 매일	계(수)
어머니	43.2	31.0	17.4	7.4	1.0	100.0(1,143)
아버지	9.6	21.0	26.3	35.3	7.8	100.0(1,465)

3) 흡연

부모의 흡연 여부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98.3%와 아버지의 49.1%가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4-9〉 흡연

단위: %(명)

구분	피움	피우지 않음	계(수)
어머니	1.7	98.3	100.0(1,663)
아버지	50.9	49.1	100.0(1,610)

다. 직업 특성

부모의 직업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취/학업 상태, 어머니의 미취업/취업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무급 가족 종사자에는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포함되었고, 집안일과 가사를 도맡아 하는 경우에는 무직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취업상태의 부모가 응답한 직업 항목은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판」을 기준으로 재분류하였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대분류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아버지의 경우, 94.7%가 취업/학업 중이었고, 미취업/미학업은 5.3%로 조사되었다. 어머니는 43.0%가 취업/학업 중이었고, 미취업/미학업은 57.0%로 응답되었다. 취업 중인 어머니의 취업 상태를 살펴본 결과 6.0%가 휴직 중으로 응답되었다.

〈표 III-4-10〉 취업/학업 상태

단위: %(명)

구분	취업/학업 상태			취업 상태		
	취업/학업	미취업/미학업	계(수)	휴직중	재직중	계(수)
어머니	43.0	57.0	100.0(1,683)	6.0	94.0	100.0(988)
아버지	94.7	5.3	100.0(1,616)		-	

어머니들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가 8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른 이유는 5% 이하로 응답되었다.

〈표 III-4-11〉 어머니의 미취업/취업 이유

단위: %(명)

미취업 이유		취업 이유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2.2	경제적으로 보다 여유롭게 살기 위해	68.0
남편, 가족이 원하지 않아서	1.5	생계를 위해	9.2
일할 능력이 없어서	0.2	가족 또는 지인이 원해서	0.8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0.9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0.1
가정이 더 중요해서	4.5	자신의 발전과 자아실현을 위해	14.8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0.1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1.7
자녀를 돌보기 위해	89.5	양육비, 보육비를 벌기 위해	3.4
기타	1.1	돈을 모아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	1.8
		기타	0.1
계(수)	100.0 (960)	계(수)	100.0 (715)

취업 중인 어머니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보다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가 68.0%로 가장 높았고, '자신의 발전과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14.8%, '생계를 위해서'는 9.2%, 다른 이유는 5% 이하로 조사되었다.

어머니들이 취업/학업을 중단한 이유는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가 41.0%로 가장 많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가 9.5%, '○○(이)의 동생 임신 또는 출산으로'가 8.8%이었다.

〈표 III-4-12〉 어머니의 경력 단절 이유

단위: %(명)

구분	비율(수)
직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불이익 때문에	1.1(8)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9.5(68)

(표 III-4-12) 계속

구분	비율(수)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하지 않아서	1.5(11)
직장/학교생활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4.8(34)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41.0(293)
가족이 원해서	1.8(13)
다른 일자리나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1.0(7)
건강상의 이유로	2.1(15)
일 또는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서	0.6(4)
○○(이)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5.9(42)
○○(이)의 동생 임신 또는 출산으로	8.8(63)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8.3(59)
학교를 졸업해서	0.4(3)
직장사정으로(폐업, 파산, 휴업, 감원 등)	0.8(6)
기타	12.4(89)
계(수)	100.0(715)

어머니들이 취업/학업을 중단한 시기는 패널 대상 아동이 출생한 2008년도가 29.7%로 가장 많았고, 그 전년도가 27.8%, 2012년도가 13.9%로 조사되었다. 취업/학업을 중단한 시기는 패널 대상 아동의 나이가 평균 11.70개월이었다.

〈표 III-4-13〉 어머니의 경력단절 시기

조사년도 별 경력단절 비율							단위: %, 개월(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수)	경력단절 시 아동 월령	평균	표준편차
27.8	29.7	8.0	8.7	11.9	13.9	100.0(1,242)	11.70	20.70	

주: 2012년도 조사 대상자 1,242명에 대한 결과이므로 IV장 국정과제에 따른 주제 분석 3의 결과와 다른 수치가 나올 수 있음.

조사 전년도에 취업/학업 중이었던 사람들 중 조사 시기에 미취업/미학업인 응답자들에게 향후 취/학업 계획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계획이 전혀 없음'이 43.0%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취/학업의 계획이 있는 경우 '3년 이후'가 15.6%, '6개월 이내' 12.5%, '2~3년 이내' 10.9%, '1~2년 이내' 10.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4-14〉 어머니의 향후 취/학업 계획

							단위: %(명)	
계획이 전혀 없음	6개월 이내	6개월~ 1년 이내	1년~2년 이내	2년~3년 이내	3년 이후	○○의 동생 출산 후	계(수)	
43.0	12.5	7.0	10.2	10.9	15.6	0.8	100.0(128)	

향후 취업/학업 계획이 있는 어머니들 중 96.3%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구직활동 중인 응답자들의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를 조사한 결과, 시간제 근로 61.8%, 전일제 근로 38.2%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라는 응답이 85.2%, '가사일 때문에'가 4.8%이었다.

〈표 III-4-15〉 어머니의 구직활동 여부, 희망 근로 형태 및 희망 이유

구직활동 여부			희망 근로 형태			시간제 근로 희망 이유		
하고 있음	하고 있지 않음	계(수)	시간제 근로	전일제 근로	계(수)	아이를 돌보기 위해	가사일 때문에	계(수)
3.7	96.3	100.0(913)	61.8	38.2	100.0(34)	85.2	4.8	100.0(21)

취업모의 이직사유를 조사한 결과, '임금 또는 수입이 많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가 16.4%, '나의 생활터전과 가까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14.9%, '고용상태 등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13.4%,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10.4%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III-4-16〉 어머니의 이직사유

구분	단위: %(명) 비율(수)
고용상태 등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13.4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1.5
장래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7.5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10.4
임금 또는 수입이 많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16.4
출산 및 육아에 장애가 없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9.0
근무환경 등 사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9.0
나의 생활터전과 가까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14.9
기타	17.9
계(수)	100.0(67)

현재 재직중인 부모들의 직장 또는 직위 변동여부에 대하여 어머니의 73.3%, 아버지의 77.0%가 변동이 없었고, 어머니의 3.18%는 직위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17〉 부모의 직장/직위 변동여부

					단위: %(명)
구분	변동 없음	직장이 바뀜	직위가 바뀜	해당없음	계(수)
어머니	73.3	9.4	3.1	14.3	100.0(715)
아버지	77.0	20.5	-	2.4	100.0(1,533)

주: 해당없음은 지난 조사 시 미취업/미학업 또는 지난 조사 미참여자임.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는 '정규직/상용직'이 61.0%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주/자영업자' 18.0%, '비정규직 종사자'는 임시직, 일용직 각각 12.9%, 2.9%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는 '정규직/상용직'이 74.1%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주/자영업자' 20.4%, '비정규직 종사자'는 임시직, 일용직 각각 2.0%, 2.6%로 나타났다.

〈표 III-4-18〉 부모의 종사상 지위

							단위: %(명)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종업원을 둔 고용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계(수)
어머니	61.0	12.9	2.9	5.3	12.7	5.2	100.0(715)
아버지	74.1	2.0	2.6	9.6	10.8	0.9	100.0(1,477)

어머니의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43.7%로 가장 많았고, '사무종사자' 27.5%, '판매종사자' 10.8% 순이었다. 반면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종사자'가 26.0%로 가장 많았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2.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15.2%이었다.

〈표 III-4-19〉 부모의 직업군

											단위: %(명)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	계(수)
어머니	2.5	43.7	27.5	6.4	10.8	0.5	1.6	3.4	3.2	0.4	100.0 (563)
아버지	2.7	22.9	26.0	4.9	9.9	1.6	12.3	15.2	2.5	1.9	100.0 (1,468)

취업모가 근무하는 직장의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 직장의 종사자 수를 조사한 결과, 1~4명이 34.4%, 10~29명이 13.8%, 50~99명이 12.1%, 5~9명이 12.0%로 응답되었다.

〈표 III-4-20〉 어머니 직장의 종사자 수

									단위: %(명)
1~4명	5~9명	10~29명	30~49명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계(수)
34.4	12.0	13.8	8.5	12.1	6.2	2.7	2.4	8.0	100.0(710)

어머니의 평균 근무일수는 주중 4.81일, 주말 1.16일이었으며, 1일 평균 근무 시간은 주중 7시간 50분(7.83시간), 주말 6시간 47분(6.79시간)이었다.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주중 53.82분, 주말 49.29분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4-21〉 어머니 평균 근무일 및 시간

구분	주중			주말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근무일 수	4.81	.70	(672)	1.16	.37	(154)
평균 근무 시간	7.83	2.23	(672)	6.79	2.98	(154)
출퇴근 소요시간	53.32	36.33	(669)	49.29	35.43	(154)

취업모의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으로 응답된 경우,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아이를 돌보기 위해'가 7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일을 적당 시간 하고 싶어서'로 응답률은 10.1%이었다.

〈표 III-4-22〉 어머니의 40시간 미만 근무 이유

									단위: %(명)
아이를 돌보기 위해	가사일 때문에	다른 일과 병행하기 위해	전일제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하루 종일 직장에 매여 있는 것이 싫어서	일을 적당 시간 하고 싶어서	일이 적어서	기타	계(수)	
76.2	2.4	2.4	0.6	1.8	10.1	4.2	2.4	100.0(168)	

라. 부모의 개인 특성

부모의 개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하루 일과 활동, 부모 각각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우울을 측정하였다.

1) 하루 일과 활동 시간

어머니가 인식한 하루 일과 활동 시간을 조사한 결과, 어머니들의 수면시간은 주중 평균 7시간 8분(7.14시간), 주말 평균 7시간 56분(7.93시간)이었으며, 가사노동 시간은 주중 평균 3시간 44분(3.73시간), 주말 평균 4시간 14분(4.24시간)이었다. 자녀와의 놀이 및 학습시간은 주중 평균 2시간 44분(2.73시간), 주말 평균 4시간 17분(4.28시간)이었으며,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주중 평균 1시간 52분(1.87시간), 주말 평균 2시간 9분(2.15시간)이었다. 기본생활 시간은 주중 평균 1시간 26분(1.43시간), 주말 평균 1시간 34분(1.57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III-4-23〉 어머니의 활동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주중			주말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수면시간	7.14	0.99	(1,661)	7.93	1.08	(1,653)
가사노동 시간	3.73	1.86	(1,683)	4.24	1.63	(1,683)
자녀와의 놀이 및 학습시간	2.73	1.86	(1,683)	4.28	2.25	(1,683)
자녀를 돌보는 시간	1.87	1.46	(1,683)	2.15	1.44	(1,683)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	2.06	1.80	(1,683)	2.51	2.04	(1,683)
기본생활	1.43	0.77	(1,683)	1.57	0.80	(1,656)
기타시간	1.30	1.94	(1,664)	1.40	1.99	(1,663)

2) 부모의 개인 심리적 특성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기효능감을 4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능한 최소 점수는 4점, 최대 점수는 2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기효능감 평균점수는 각각 2.24점과 2.12점이었다.

〈표 III-4-24〉 (부정적) 자기효능감

구분	평균	표준편차	단위: 점(명)
			(수)
어머니	2.24	.74	(1,669)
아버지	2.12	.68	(1,604)

자아존중감은 10개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평균은 각각 3.67점과 3.77점이었다.

〈표 III-4-25〉 자아존중감

구분	평균	표준편차	단위: 점(명)
			(수)
어머니	3.67	.58	(1,661)
아버지	3.77	.53	(1,598)

우울은 6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보여준다. 어머니와 아버지 우울 평균 점수는 각각 1.96점과 1.86점이었다.

〈표 III-4-26〉 우울

구분	평균	표준편차	단위: 점(명)
			(수)
어머니	1.96	.75	(1,672)
아버지	1.86	.67	(1,608)

마. 부부 특성

부부 특성은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으로 측정하였다. 결혼만족도는 5점 척도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5차년도에 조사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평균점수는 3.68점, 아버지는 평균 4.01점으로 모두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표 III-4-27〉 결혼만족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단위: 점(명)
			(수)
어머니	3.68	.76	(1,665)
아버지	4.01	.66	(1,611)

부부갈등은 8개 문항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낮을수록 갈등이 많음을 나타낸다. 5차년도에 조사된 어머니의 부부갈등 평균점수는 2.12점, 아버지는 평균 2.09점이었다.

〈표 III-4-28〉 부부갈등

구분	평균	표준편차	단위: 점(명)
			(수)
어머니	2.12	.78	(1,664)
아버지	2.09	.72	(1,607)

바. 부모됨

패널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후속출산 계획, 이상 자녀수와 기대성별, 부모의 책임 및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자질과 특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1) 후속출산

아동이 만 4세가 된 5차년도 조사에서 어머니에게 앞으로의 출산의도를 묻는 질문에 9.1%가 추가적인 출산의도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80.5%는 없다고 응답하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9%였다.

〈표 III-4-29〉 후속출산 계획 여부

				단위: %(명)
낳겠음(임신 중)	낳지 않겠음	잘 모르겠음	기타	계(수)
9.1	80.5	9.9	0.5	100.0(1,676)

주: '기타' 응답의 경우 세부사항에 대하여 '무응답'하였음.

후속 출산 의도가 없다고 응답한 어머니의 경우,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로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라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자녀 교육비용 때문에'라는 응답이 23.1%이었다.

〈표 III-4-30〉 후속출산 미계획 사유

단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수)
9.8	23.1	8.3	4.1	29.7	7.2	16.4	0.7	0.7	100.0(1,344)

주: ① 자녀 양육비용 때문에(아이 관련 생필품, 육아 도우미 비용 등) ② 자녀 교육비용 때문에(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의 기관 이용비용, 그 외 학원 등의 사교육비용 등) ③ 직장/학업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서 ④ 개인시간/여가 또는 자아성취를 위하여 ⑤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 ⑥ 나이가 많아서 ⑦ 육체적으로 힘들어서(출산 및 양육 등) ⑧ 믿을 만한 양육자 또는 육아지원기관이 없어서 ⑨ 기타.

후속 출산 의도가 있다고 응답한 9.1%에게 현재 자녀 외에 추가로 몇 명을 더 출산할 계획인지 조사한 결과 90.1%가 1명, 2명은 7.9%, 3명 이상은 2.0%로 매우 낮았다. 언제 낳을 예정인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57.2%가 '1년 이내', 24.3%가 '1~2년 이내', 5.3%가 2~3년 이내에 다음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표 III-4-31〉 후속출산 계획 자녀 수

단위: %(명)

계획 자녀 수				계획 시기					
1명	2명	3명	계(수)	1년 이내 (임신 중)	1년~2년 이내	2년~3년 이내	3년 이후	미정 (잘모름)	계(수)
90.1	7.9	2.0	100.0(152)	57.2	24.3	5.3	3.9	9.2	100.0(152)

2) 이상 자녀수와 기대성별

부모에게 이상 자녀수, 즉 자신의 가족계획이나 현재 자녀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자녀는 몇 명을 두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어머니 중 가장 많은 58.9%가 2명이 이상 자녀수라고 응답하였고, 27.6%가 3명의 자녀수에 응답하였으며, 4명 이상이라는 응답은 9.1%였다. 반면에 이상 자녀수가 1명이라는 응답은 2.3%이었다.

아버지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수도 어머니와 유사한 응답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 역시 제일 많은 58.4%가 2명이 이상 자녀수라고 응답하였고, 29.0%가 3명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II-4-32〉 부모의 이상 자녀 수

단위: %(명)

구분	무자녀	1명	2명	3명	4명	5명	미정(잘 모름)	계(수)
어머니	0.3	2.3	58.9	27.6	8.9	0.2	1.9	1000(1,668)
아버지	0.3	4.6	58.4	29.0	5.6	0.9	1.2	1000(1,610)

이상 자녀수의 기대성별에 대해 어머니 59.6%와 아버지 56.8%가 ‘아들·딸 구분이 없이’라고 응답하였고, 어머니 36.8%와 아버지 40.8%가 ‘성별을 구분하여’라고 하였다.

〈표 III-4-33〉 부모의 이상적인 자녀의 기대성별

단위: %(명)

구분	딸·아들 구분 없이	딸·아들 구분해서	딸·아들 구분 없이 동성으로	잘 모르겠음	계(수)
어머니	59.6	36.8	2.8	0.8	100.0(1,580)
아버지	56.8	40.8	2.1	0.3	100.0(1,480)

어머니의 경우, 1남 1녀(36.3%), 1남 2녀(34.4%), 또는 2남 2녀(21.1%)를 이상적인 자녀의 성별 구성이라고 응답하였고, 아버지의 경우, 1남 1녀(51.8%), 1남 2녀(18.4%), 2남 1녀(13.7%) 또는 2남 2녀(11.3%)를 이상적인 자녀의 성별 구성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II-4-34〉 부모의 이상적인 자녀의 기대성별 구성

단위: %(명)

구분	1녀	2녀	3녀	1남	1남 1녀	1남 2녀	1남 3녀	2남	2남 1녀	2남 2녀	2남 3녀	3남	3남 2녀	3남 3녀	계(수)
어머니	0.2	0.9	0.2	0.3	36.3	34.4	0.2	-	6.4	21.1	0.2	-	-	-	100.0 (582)
아버지	0.7	1.5	0.2	0.5	51.8	18.4	0.2	1.0	13.7	11.3	0.3	0.2	0.2	0.2	100.0 (604)

3) 부모의 책임

부모의 책임은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조사되었고, 4차년도에는 조사되지 않았으며 5차년도에 다시 조사되었다. 부모의 책임 범위에 관하여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와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진술 중 더 동의하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어머니들은 이 두 가지 진술을 비슷한 비율로 선택한 반면, 아버지들은 56.8%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에 동의하였다.

〈표 III-4-35〉 부모의 책임

구분	단위: %(명)		
	①	②	계(수)
어머니	51.6	48.4	100.0(1,670)
아버지	56.8	43.3	100.0(1,600)

주: ①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임.

②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됨.

4)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자질과 특성

부모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자질과 특성에 대해서도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조사되었고, 4차년도에는 조사되지 않았으며 5차년도에 다시 조사되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11개의 자질과 특성을 제시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 다섯 가지를 우선순위 없이 선택하도록 하였다. 부모 모두 '예의 바른 생활습관'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이어서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을 선택하였다. 부모 모두 가장 낮게 선택한 자질과 특성은 '이타심'이었다.

〈표 III-4-36〉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자질과 특성(중복응답)

구분	단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
어머니	18.0	9.4	9.0	17.4	5.6	14.9	6.0	10.0	3.2	1.4	5.1	100.0(1,676)
아버지	17.7	10.0	10.3	17.2	6.1	12.7	6.5	9.4	2.0	1.8	6.4	100.0(1,616)

주: ① 예의바른 생활습관 ② 독립심 ③ 근면함 ④ 책임감 ⑤ 상상력 ⑥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⑦ 검소함, 저축하고 절약하기 ⑧ 결단력과 끈기 ⑨ 종교적 신념 ⑩ 이타심 ⑪ 어른 말씀 잘 듣기.

사. 부모의 양육 특성

1) 양육행동

5차년도에 부모에게 조사된 양육실제 척도는 사회적 양육유형 하위척도 6문항과 한계설정 하위척도 6문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하위척도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6~30점이다.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유형의 평균점수는 3.66점이었고, 아버지의 평균점수는 3.55점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한계설정 양육유형의 평균점수는 3.37점이었고, 아버지의 경우는 평균점수가 3.25점이었다.

〈표 III-4-37〉 양육행동

구분	사회적			한계설정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어머니	3.66	.54	(1,674)	3.37	.52	(1,671)
아버지	3.55	.59	(1,608)	3.25	.60	(1,606)

양육스트레스는 총 11개 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어머니는 평균 2.74점이었고, 아버지는 평균 2.40점이었다.

〈표 III-4-38〉 양육스트레스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어머니	2.74	.66	(1,669)
아버지	2.40	.60	(1,599)

4차년도에 이어 5차년도에도 네 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척도인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를 부모 각각에게 조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가 평정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버지가 평정한 자신의 양육참여는 각각 평균 3.57점과 3.56점으로 나타나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I-4-39〉 아버지의 양육참여

구분	평균	표준편차	단위: 점(명)
			(수)
어머니	3.57	.79	(1,666)
아버지	3.56	.66	(1,610)

어머니가 응답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시간은 주중 평균 1시간 22분(1.37시간) 이었고, 휴무일 평균은 4시간 28분(4.47시간)이었다.

〈표 III-4-40〉 아버지의 양육참여 시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최댓값	최솟값	단위: 시간(명)
						계(수)
주중	1.37	1.44	1.0	15.0	0.0	100.0(1,675)
휴무일	4.47	2.60	4.0	15.0	0.0	

아. 육아지원 서비스 참여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반일제 학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5차년도 조사에서는 아동의 담임교사(또는 강사)가 응답하는 기관용 질문지를 통해서 부모의 기관 생활 관심정도, 부모참여 행사의 참석 여부를 조사하였고, 어머니를 대상으로 기관 방문횟수, 부모참여 행사의 참석 여부 및 참석한 프로그램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아동의 담임교사들은 아동의 부모가 ‘관심을 가지는 편’(46.5%)이거나 ‘매우 관심이 크다’(31.5%)고 응답하였다.

〈표 III-4-41〉 교사가 인식한 부모의 기관 관심 정도

전혀 관심 없음	별로 관심 없는 편	보통	관심을 가지는 편	매우 관심이 큼	단위: %(명)
					계(수)
0.5	2.8	18.8	46.5	31.5	100.0(1,018)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방문했는지를 어머니에게 조사하였으며, 방문 횟수는 6개월에 1~2회가 2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월 1회(15.3%)와 연간 1~2회(15.1%)가 거의 같았고, 거의 가지 않음은 10.1%였다.

〈표 III-4-42〉 부모의 육아지원기관 방문 빈도

단위: %(명)

일주일에 1회	일주일에 2~2회	한 달에 1회	한 달에 2~3회	6개월에 1~2회	6개월에 3~4회	연간 1~2회	거의 가지 않음	계(수)
6.6	7.1	15.3	6.7	29.2	9.2	15.1	10.1	100.0(1,631)

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모참여 행사에 부모의 참석 여부를 어머니에게 조사한 결과, 전체 어머니의 85.9%가 참여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중복으로 응답한 참여 프로그램의 종류로는 담임교사와의 상담(33.7%) 및 소풍, 재롱잔치, 운동회 등 아동관련 행사(31.9%)가 가장 많았다.

〈표 III-4-43〉 부모참여 행사 참석 여부와 종류(어머니 응답)

단위: %(명)

참여 여부			참여 종류(중복 응답)					계(수)
참여	비참여	계(수)	아동행사	담임상담	원장상담	부모교육	부모참여 ^{주)}	
85.9	14.1	100.0 (1,627)	31.9	33.7	8.9	18.5	7.1	100.0 (1,389)

주: '기타'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토대로 '부모 참여'응답이 추가됨.

아동이 다니고 있는 기관의 담임교사는 부모가 가장 많이 참석한 부모참여 행사로 담임 상담(21.1%), 가정통신문에 대한 답장(20.3%)과 오리엔테이션(19.2%)이라고 응답하였고, 가장 적게 참석한 부모참여 행사로 기관 운영위원회(2.0%)와 급식 준비, 야외활동, 수업보조, 청소 등의 자원봉사(3.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4-44〉 부모참여 행사 참석 종류(교사 중복 응답)

단위: %(명)

오리엔 테이션	아동행사	자원봉사	부모교육 프로그램	담임상담	가정통신문 답장	재정적 기여	기관운영 위원회 ^{주)}	계(수)
19.2	15.2	3.6	11.2	21.1	20.3	7.4	2.0	100.0(1,005)

주: 학원은 해당사항 없음.

자.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아동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조사일 이후 1년 동안 낮 시간에 주로 아이를 돌보아준 개인 대리 양육자, 기관 또는 개인 대리

양육자/기관을 월별로 조사하였다. 조사 시점이 패널별로 다르므로, 4차년도 조사가 시작된 시기인 2011년 7월부터 5차년도 조사 종료 시기인 2012년 10월까지의 응답을 병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 대리 양육자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미이용률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3월부터는 미이용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유치원의 이용률이 증가하였다.

〈표 III-4-45〉 지난 1년 간 육아지원 서비스

구분	미이용	개인대리 양육자	어린이집	유치원	단위: %(명)				계(수)
					반일제 이상 학원 등	개인대리 양육자와 어린이집	개인대리 양육자와 유치원	기타	
2011년									1000(1,703)
7월	16.3	1.7	77.2	1.6	1.2	1.5	0.1	0.4	1000(1,703)
8월	14.8	1.7	77.6	2.6	1.5	1.4	0.1	0.4	1000(1,703)
9월	14.4	1.3	76.7	3.5	1.9	1.7	0.1	0.5	1000(1,703)
10월	14.3	0.8	76.6	3.9	2.2	1.7	0.1	0.6	1000(1,703)
11월	14.4	0.8	76.1	4.2	2.3	1.6	0.1	0.6	1000(1,703)
12월	14.4	0.8	76.0	4.2	2.3	1.7	0.1	0.6	1000(1,703)
2012년									1000(1,703)
1월	14.5	0.8	75.7	4.2	2.3	1.7	0.1	0.6	1000(1,703)
2월	14.4	0.7	74.8	5.2	2.4	1.7	0.1	0.6	1000(1,703)
3월	3.1	0.0	59.1	32.5	2.5	1.4	0.5	1.0	1000(1,703)
4월	3.1	0.1	58.8	32.8	2.5	1.4	0.5	1.0	1000(1,703)
5월	3.0	0.1	58.7	32.9	2.4	1.5	0.5	1.0	1000(1,703)
6월	3.1	0.1	58.6	32.9	2.4	1.5	0.5	1.0	1000(1,703)
7월	3.0	0.1	58.4	33.2	2.4	1.6	0.5	1.1	1000(1,703)
8월	2.8	0.2	58.0	33.4	2.3	1.8	0.5	1.1	1000(1,703)
9월	2.0	0.1	57.1	35.3	1.9	1.7	0.7	1.0	1000(1,703)
10월	2.3	0.0	61.4	32.6	1.5	0.8	0.8	0.0	1000(1,703)

주: 학원은 해당사항 없음.

1)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미이용 이유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 또는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였다. 먼저,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또래와 어울릴 수 있어서'가 46.0%로 가장 많았고, '교육과 발달에 도움이 되어서'는 40.7%, 그 밖에 '집에서 돌보기 힘들어서'가 8.3%이었다.

〈표 III-4-46〉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비율
또래와 어울릴 수 있어서	46.0
교육과 발달에 도움이 되어서	40.7
남들이 보내니까	0.4
아이가 원해서	0.7
보육료,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0.6
집에서 돌보기 힘들어서(동생 양육, 가사 등)	8.3
집에서 가까워서	1.9
기타	1.4
계(수)	100.0(1,610)

한편,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가 24.5%로 가장 많았고, '기관에 보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는 18.9%로 나타났다.

〈표 III-4-47〉 육아지원서비스 미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비율
기관에 보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8.9
아이가 어려서	-
주변에 마음에 드는 개인대리양육자 혹은 육아지원기관이 없어서	11.3
비용이 부담되어서	9.4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24.5
아이가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
아이가 다른 개인대리양육자나 육아지원기관에 적응하지 못해서	9.4
기관에 대기자가 많아서	11.3
기타	15.1
계(수)	100.0(53)

보육 또는 교육기관 및 대리양육을 함께 이용하는 이유는 '아이가 어려서 장 시간 동안 한 기관에 있기 힘들까봐'가 50.0%로 가장 많았고, '기관 이용 시간이 제한적이어서'가 15.8%로 응답되었다.

〈표 III-4-48〉 육아지원기관 및 대리양육 중복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비율
아이가 어려서 장시간 동안 한 기관에 있기 힘들까봐		50.0
개인 대리양육자의 장시간 이용비용이 부담 되어서		-
기관 이용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15.8
다양한 경험을 위하여		2.6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2.6
특기교육을 위하여		-
아이가 원해서		-
기타		28.9
계(수)		100.0(38)

2) 육아지원기관 이용의 실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기관에 다니기 시작한 평균 나이는 38.83개월이었다.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빈도를 보면 월~금요일까지 주 5일 이용하는 비율이 99.3%이었다.

〈표 III-4-49〉 육아지원기관 이용 시작 시기 및 이용 빈도

		단위: 개월, %(명)					
이용 시작 시기			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수)	월~토요일	월~금요일	일주일 내내	일주일에 며칠만	계(수)
38.83	8.69	(1,645)	0.5	99.3	0.1	0.1	100.0(1,647)

아동의 등·하원 수단은 기관운영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각각 58.4%, 6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보와 자가용 순이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는 각각 1.1%였다.

〈표 III-4-50〉 등·하원 수단

		단위: %(명)						
구분	도보	대중교통	기관차량	자가용	일정하지 않음	기타	계(수)	
등원 수단	22.9	1.1	58.4	13.7	3.5	0.4	100.0(1,017)	
하원 수단	21.9	1.1	61.8	12.4	1.5	1.4	100.0(1,016)	

아동이 등·하원 시 동반하는 사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엄마가 각각 79.6%, 75.2%로 가장 많았으며, 조부모, 아빠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51〉 등·하원 시 동반하는 사람

단위: %(명)

구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대리 양육자	친인척	이웃	형제 자매	알정하지 않음	없음	기타	계(수)
등원	79.6	6.6	9.7	0.5	0.2	0.2	1.0	0.8	0.6	0.9	100.0(1,018)
하원	75.2	4.7	12.5	0.9	0.4	0.1	2.7	1.7	0.1	1.8	100.0(1,003)

아동의 등원은 오전 9-10시 사이가 63.6%, 오전 8-9시 사이가 31.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원의 경우에는 오후 3시-5시 사이가 50.7%로 가장 많았고, 오후 5-7시 30분 사이가 30.2%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4-52〉 등·하원 시간

단위: %(명)

등원 시간							하원 시간						
8시 이전	8시~ 9시	9시~ 10시	10시~ 11시	11시 이후	일정하지 않음	계(수)	13시 이전	13시~ 15시	15시~ 18시	18시~ 19시 30분	19시 30분 이후	일정하지 않음	계(수)
1.7	31.3	63.6	2.4	0.2	0.9	100.0 (1,018)	0.3	17.1	50.7	30.2	0.9	0.9	100.0 (1,018)

아동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보육·교육 기관을 선택할 때 고려한 사항에 대하여 '집 또는 직장에서 가까워서'가 22.9%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교육내용이 마음에 들어서'가 12.1%, '형제가 다녀서'가 8.3%로 응답되었다.

〈표 III-4-53〉 현 육아지원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단위: %(명)

구분	비율	구분	비율
형이나 동생이 다녀서	8.3	이용시간이 적당해서	1.3
친구가 다녀서	1.6	집 또는 직장에서 가까워서	22.9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1.2	주변에 보낼만한 다른 기관이 없	4.3
교사가 좋아서	3.3	어서	4.9
아이가 좋아해서	3.0	평판이 좋아서	4.9
교육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12.1	기타	3.1
계(수)		100.0(1,648)	

지난 1년 간 개인 대리 양육자 또는 보육·교육 기관을 변경했을 경우 변경한 횟수를 질문한 결과, 모두 평균 1회 정도로 나타났다.

〈표 III-4-54〉 대리양육 및 육아지원기관 변경 횟수

단위: 회

개인대리양육자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학원	기타(선교원)등
1.04	1.06	1.00	1.00	1.00

개인 대리 양육자 또는 보육·교육 기관을 변경한 이유는 '연령에 맞는 반이 없어서'가 43.8%로 가장 많았고, '교육내용 때문에'라는 이유는 26.2%, '이사로 인하여'는 17.0%로 응답되었다.

〈표 III-4-55〉 대리양육 및 육아지원기관 변경 이유

단위: %(수)

대기 순서가 되어서	이사로 인하여	이전 기관에서의 적응이 어려워서	연령에 맞는 반이 없어서	교육내용 때문에	기타	계(수)
1.1	17.0	2.0	43.8	26.2	9.9	100.0(948)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비용은 매월 최소 0만원 이용부터 최대 186만원 까지였고 월 평균 비용은 25.25만원이었다.

〈표 III-4-56〉 육아지원기관 총 비용

단위: 만원(명)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수)
25.25	20.23	19.82	0	186	(1,645)

보육·교육 기관 이용비용 부담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부담되는 편임'과 '매우 부담됨'을 합하여 56.3%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고, 25.7%는 '적당하다'고 하였으며, '전혀 부담되지 않음'과 '크게 부담되지 않음'을 합한 18.0%는 부담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5점 척도 상의 평균은 3.48점이었다.

〈표 III-4-57〉 육아지원기관 이용비용 부담도

단위: %(명), 점

전혀 부담되지 않음	크게 부담되지 않음	적당함	부담되는 편임	매우 부담됨	계(수)	평균
5.5	12.5	25.7	40.7	15.6	100.0(1,607)	3.48

보육·교육 기관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86점이었고, 비교적 만족 이상이 63.1%, 보통이 20.0%, 불만족 이하가 3.8%이었다.

〈표 III-4-58〉 육아지원기관 이용비용 전반적 만족도

단위: %(명), 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비교적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0.5	3.3	20.0	61.8	14.3	100.0(1,647)	3.86

5. 가구 특성

가. 인구학적 특성

각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구 구성원 수를 알아 본 결과, 대상 아동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 수는 평균 4.06명으로 나타났다. 패널 아동을 제외하고는 3명 정도의 가족구성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 구성으로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구성이 89.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조부모와 부부, 자녀로 구성된 3세대 가족이 6.1%, 이혼 및 별거가구, 조부모나 친척이 패널 아동과 생활하는 등의 기타 유형이 2.4%, 조부모, 부부, 자녀와 친척으로 구성된 가구원 구성이 1.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5-1〉 가구 구성원 수 및 구성

단위: %(명), 명

가구 구성					구성원 수		
부부+자녀	조부모+부부 +자녀	부부+자녀 +친척	조부모+부부 +자녀+친척	기타	계(수)	평균	표준 편차
89.7	6.1	0.5	1.3	2.4	100.0(1,703)	4.06	.90

나. 가계경제 요소

패널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의 경제적인 특성을 월평균 가구 총 소득, 근로(사업) 소득, 어머니의 근로소득, 가구 재산 및 금융 소득, 가구 공적 소득 및 이전 소득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월평균 가구 총 소득은 484.92만원이었고, 근로(사업) 소득은 월평균 445.15만원, 어머니의 근로소득은 월평균 203.94만원, 가구 재산 및 금융 소득은 월평균 26.67만원, 가구 공적 소득은 월평균 5.10만원, 이전 소득은 월평균 8.01만원이었다.

〈표 III-5-2〉 월평균 가구 소득

단위: 만원(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수)
총 가구 소득	484.92	472.16	399.87	0	8,150	(1,701)
가구 근로(사업) 소득	445.15	366.35	393.27	0	6,000	(1,701)
어머니의 근로소득	203.94	178.29	180.00	0	3,000	(714)
가구 재산 및 금융 소득	26.67	228.83	57.37	0	7,000	(1,700)
가구 공적 소득	5.10	17.87	90.00	0	300	(1,699)
가구 이전 소득	8.01	136.92	48.85	0	5,000	(1,702)

가구 전체의 총 지출은 월평균 348.48만원, 전체 자녀에 대한 지출은 월평균은 121.85만원, 패널 아동에 대한 지출은 월평균 63.60만원이었다.

〈표 III-5-3〉 월평균 가구 지출

단위: 만원(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수)	
지출 총합	가구 전체	348.48	190.07	304.06	0	3,000	(1,703)
	전체 자녀	121.85	71.48	110.00	13	1,050	(1,689)
	패널 아동	63.60	39.49	55.00	0	350	(1,689)
소비성 지출	가구 전체	228.66	115.19	203.20	40	2,000	(1,694)
	전체 자녀	96.56	59.45	82.83	7	700	(1,699)
	패널 아동	47.07	29.13	41.18	0	250	(1,398)
비소비성 지출	가구 전체	121.53	111.42	99.32	0	2,500	(1,692)
	전체 자녀	25.41	23.32	19.54	0	350	(1,691)
	패널 아동	11.82	11.02	9.38	0	150	(1,391)

가구 전체의 소비성 지출은 월평균 228.66만원, 전체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출은 월평균 96.56만원, 패널 아동에 대한 소비성 지출은 월평균 47.0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가구 전체의 비소비성 지출은 월평균 121.53만원, 전체 자녀에 대한 비소비성 지출은 월평균 25.41만원, 패널 아동에 대한 비소비성 지출은 11.82만원으로 나타났다.

5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패널 가구의 자산은 부동산이 평균 29,469.638만원으로, 금융자산이 10,654.06만원으로 응답되었다.

〈표 III-5-4〉 가구 자산

단위: 만원(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수)
부동산	29469.63	235665.50	13469.70	0	8,400,000	(1,698)
금융자산	10654.06	177074.33	2023.78	0	7,000,000	(1,694)

반면 부채는 평균 5,704.94만원이었고, 부채에 대한 월상환금은 121.1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5-5〉 가구 부채 및 월상환금

단위: 만원(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수)
부채	5704.94	15562.04	2068.42	0	500,000	(1,685)
월상환금	121.12	695.24	39.16	0	13,000	(1,037)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지원의 수급 여부를 패널 참여 가구에게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의 0.6%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었고, 4.2%가 차상위 계층이었으며, 95.2%는 해당없음에 응답하였다.

〈표 III-5-6〉 사회보장 지원

단위: %(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해당없음	계(수)
0.6	4.2	95.2	100.0(1,621)

다. 역사적 특성

4차년도 조사 이후 1년 동안 가족의 일상생활이나 아동 양육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건을 겪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생활사건을 사회통념상 수용 가능

한 규범적 사건과 규범적으로 어긋나는 부정적인 비규범적 사건으로 나누어 사건의 경험 여부를 조사하였다. 규범적 사건의 경우, 지난 1년 간 한 번도 규범적 사건을 격지 않은 가정부터 최대 13회까지 겪은 가정이 있었으며 평균은 3.50건이었다. 비규범적 사건은 평균 0.59건을 겪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가구소득을 240만원 이하(하), 241-454만원(중), 455만원 이상(상)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생활 사건을 겪은 횟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어, 소득 상집단이 소득 중·하집단에 비해 규범적 사건을 덜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7〉 가족생활사건

단위: 회(명)

구분	규범적 사건					비규범적 사건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전체	3.50	2.30	0	13	(1,678)	0.59	.90	0	6	(1,678)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3.98 ^a	2.55	0	12	(170)	0.59	.87	0	4	(170)
241-454만원	3.70 ^a	2.23	0	12	(912)	0.62	.94	0	6	(588)
455만원 이상	3.07 ^b	2.28	0	13	(594)	0.55	.85	0	5	(594)
F				17.91 ^{***}					2.06	

*** $p < .001$.

마. 가정환경의 질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조사에 이어 5차년도 조사에서도 패널 가정의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EC-HOME을 어머니들에게 실시하였다. EC-HOME의 각 하위척도별 문항 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1,703 가구 중 가정환경검사에는 1,690가구가 응답하였다.

〈표 III-5-8〉 HOME의 하위척도 및 문항수

구분	학습자극	언어자극	물리적 환경	반응성	학습자극	모방학습	다양성	수용성	계
문항 수	11	7	7	7	5	5	9	4	55

5차년도 조사의 결과도 4차년도와 동일하게 총점과 하위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와 더불어 중위수 및 중위수와의 편차를 제시하였다.

가정환경검사의 전체 평균은 49.13점이었고, 전체 가구의 98.8%가 가정환경 검사 총점의 중위수에서 6점 이하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가구소득을 240만원 이하(하), 241-454만원(중), 455만원 이상(상)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가정환경 검사 총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소득 상위 집단의 가정환경 총점이 하위 집단보다 높았다.

〈표 III-5-9〉 HOME: 가정환경 총점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F	중위수	편차≤6	편차=7	편차≥8
전체	49.13	4.42	100.0(1,690)	-	50.00	98.8	0.2	1.1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47.99 ^b	5.8	100.0(175)	4.86 ^{**}	49.00	97.1	0.6	2.3
241-454만원	49.00 ^{ab}	4.64	100.0(915)		50.00	98.4	0.2	1.4
455만원 이상	49.65 ^a	3.44	100.0(598)		50.00	99.8	0.0	0.2

** $p < .01$.

학습자료 하위척도 점수의 평균은 9.06점이었고, 전체 조사 대상의 97.3%가 중위수보다 1점 이하의 차이를 보였다. 소득 수준에 따라 학습자료 점수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소득 상위 집단의 학습자료 점수가 하위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0〉 HOME: 학습자료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F	중위수	편차≤1	편차=2	편차≥3
전체	9.06	1.08	100.0(1,690)	-	9.00	97.3	1.5	1.2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8.87 ^b	1.49	100.0(175)	5.31 ^{**}	9.00	94.3	2.9	2.9
241-454만원	8.98 ^{ab}	1.10	100.0(915)		9.00	96.8	1.9	1.3
455만원 이상	9.24 ^a	0.90	100.0(598)		9.00	98.8	0.5	0.7

** $p < .01$.

언어자극 하위척도의 평균은 6.70점이었고, 전체 대상의 98.3%가 언어자극 하위척도의 중위수에서 1점 이하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언어자극 하위척도 점수의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III-5-11〉 HOME: 언어자극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F	중위수	편차≤1	편차=2	편차≥3
전체	6.70	0.72	100.0(1,690)	-	7.00	98.3	1.1	0.7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6.64 ^a	0.93	100.0(175)	3.85*	7.00	97.7	0.6	1.7
241-454만원	6.68 ^a	0.79	100.0(915)		7.00	97.6	1.6	0.8
455만원 이상	6.76 ^a	0.52	100.0(598)		7.00	99.5	0.3	0.2

* $p < .05$.

물리적 환경 하위척도의 평균은 6.58점이었고, 전체 조사 대상의 94.5%가 중위수보다 1점 이하의 차이를 보였다. 소득 수준에 따라 물리적 환경 점수의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소득 중·상위 집단의 물리적 환경 점수가 하위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2〉 HOME: 물리적 환경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F	중위수	편차≤1	편차=2	편차≥3
전체	6.58	1.10	100.0(1,690)	-	7.00	94.5	2.0	3.6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6.26 ^b	1.51	100.0(175)	9.96***	7.00	89.1	2.9	8.0
241-454만원	6.53 ^a	1.17	100.0(915)		7.00	93.9	2.1	4.0
455만원 이상	6.73 ^a	0.79	100.0(598)		7.00	97.0	1.5	1.5

*** $p < .001$.

반응성 하위척도의 평균은 6.34점이었고, 전체 조사 대상의 91.7%가 반응성 하위척도의 중위수에서 1점 이하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소득 수준에 따른 반응성 점수의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I-5-13〉 HOME: 반응성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F	중위수	편차≤1	편차=2	편차≥3
전체	6.34	1.17	100.0(1,690)	-	7.00	91.7	4.7	3.6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6.21	1.40	100.0(175)	2.82	7.00	89.1	4.0	6.9
241-454만원	6.34	1.17	100.0(915)		7.00	91.6	4.6	3.8
455만원 이상	6.39	1.07	100.0(598)		7.00	92.8	5.0	2.2

학습자극 하위척도의 평균은 4.73점이었고, 전체 조사 대상의 97.3%가 중위수와 1점 이하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소득 수준에 따른 학습자극 점수의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4〉 HOME: 학습자극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F	중위수	편차≤1	편차=2	편차≥3
전체	4.73	0.74	100.0(1,690)	-	5.00	97.3	1.4	1.2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4.77	0.77	100.0(175)	.09	5.00	97.7	0.6	1.7
241-454만원	4.73	0.75	100.0(915)		5.00	97.3	1.4	1.3
455만원 이상	4.73	0.72	100.0(598)		5.00	97.5	1.5	1.0

모방학습 하위척도의 평균은 4.02점이었고, 전체 조사 대상의 99.2%가 모방학습 하위척도의 중위수에서 1점 이하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소득 수준에 따른 모방학습 점수의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I-5-15〉 HOME: 모방학습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F	중위수	편차≤1	편차=2	편차≥3
전체	4.02	0.84	100.0(1,690)	-	4.00	99.2	0.8	0.1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4.09	0.92	100.0(175)	2.16	4.00	98.3	1.1	0.6
241-454만원	4.02	0.85	100.0(915)		4.00	99.1	0.9	0.0
455만원 이상	4.01	0.81	100.0(598)		4.00	99.5	0.5	0.0

다양성 하위척도의 평균은 8.17점이었고, 전체 조사 대상의 92.2%가 다양성 하위척도의 중위수와 1점 이하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성 점수의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소득 중·상위 집단의 다양성 점수가 하위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6〉 HOME: 다양성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F	중위수	편차≤1	편차=2	편차≥3
전체	8.17	1.15	100.0(1,690)	-	9.00	92.2	4.5	3.3

(표 III-5-16)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F	중위수	편차≤1	편차=2	편차≥3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7.82 ^b	1.47	100.0(175)	9.64 ^{***}	9.00	85.1	6.3	8.6
241-454만원	8.20 ^a	1.16	100.0(915)		9.00	93.1	3.5	3.4
455만원 이상	8.23 ^a	1.00	100.0(598)		9.00	93.0	5.5	1.5

*** $p < .001$.

수용성 하위척도의 평균은 3.51점이었고, 전체 조사 대상의 95.6%가 중위수와 1점 이하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수용성 점수의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소득 상위 집단의 수용성 점수가 하위 집단보다 높았다.

〈표 III-5-17〉 HOME: 수용성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수)	F	중위수	편차≤1	편차=2	편차≥3
전체	3.51	0.69	100.0(1,690)	-	4.00	95.6	2.4	2.0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3.33 ^b	0.83	100.0(175)	3.83 [*]	3.00	93.1	2.3	4.6
241-454만원	3.52 ^{ab}	0.71	100.0(915)		4.00	95.4	2.2	2.4
455만원 이상	3.56 ^a	0.60	100.0(598)		4.00	96.5	2.8	0.7

* $p < .05$.

6.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가. 기관 특성

만 4세 시기에 아동패널 대상자가 이용하는 기관으로 어린이집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60.7%),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6-1〉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 유형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선교원 등)	계(수)	$\chi^2(df)$
전체	60.7	34.3	4.3	0.7	100.0(1,648)	-

(표 III-6-1) 계속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선교원 등)	계(수)	$\chi^2(df)$
모 취업여부						
취업	64.7	30.8	3.9	0.6	100.0(712)	9.08(3)*
미취업	57.5	37.1	4.6	0.9	100.0(917)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69.0	29.8	0.6	0.6	100.0(168)	.1)
241-454만원	63.1	33.6	2.2	1.0	100.0(892)	
455만원 이상	54.6	36.5	8.5	0.3	100.0(586)	

주: 1)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

* $p < .05$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미취업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고 유치원 이용률이 낮았다.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이용률이 감소했으며 유치원과 반일제 이상 학원을 더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육아지원 기관의 시설유형별로 패널 아동의 이용률을 비교한 결과,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72.6%) 국공립, 법인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 86.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는 놀이학교가 과반수였으며 영어학원은 2위로(34.0%) 나타났다.

〈표 III-6-2〉 육아지원기관 시설유형

단위: %(명)

어린이집	비율	유치원	비율	반일제 이상 학원	비율
국공립 어린이집	13.2	국립 유치원	2.3	영어학원(영어유치원)	34.0
법인 어린이집	9.6	공립(병설) 유치원	9.1	놀이학교	52.8
가정 어린이집	1.7	공립(단설) 유치원	2.0	미술 학원	5.7
민간 어린이집	72.6	사립 유치원	86.6	태권도, 음악 등의 각종학원	1.9
직장 어린이집	2.9			기타 학원	5.7
부모협동 어린이집	-				
계(수)	100.0(988)	계(수)	100.0(558)	계(수)	100.0(53)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통과여부와 유치원의 평가참여 여부를 확인한 결과 패널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71.0%가 평가인증을 받았으며, 19.2%는 평가인증을 받지 않지 않았다. 과반수의 유치원이 평가를 받을 예정이며 3.9%는 평가계획이 없었다.

〈표 III-6-3〉 육아지원기관 평가 여부

어린이집		유치원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재인증 받음	43.5	평가 받음	43.2
신규 인증 받음	28.5	평가 받을 예정	53.0
심사 중	8.7	평가 계획 없음	3.9
인증 받지 않음	19.2	계(수)	100.0(336)
계(수)	100.0(634)	계(수)	100.0(336)

단위: %(명)

〈표 III-6-4〉 육아지원기관의 규모

구분	전체 학급 수				정원			
	평균	표준편차	(수)	F	평균	표준편차	(수)	F
전체	6.77	3.41	(1,017)	-	109.50	72.95	(1,017)	-
기관 유형								
어린이집	6.95 ^b	3.44	(633)	3.81 [*]	90.41 ^c	55.60	(633)	101.49 ^{***}
유치원	6.57 ^{ab}	3.45	(337)		151.24 ^b	85.64	(337)	
반일제 이상 학원	5.70 ^a	2.50	(47)		67.23 ^a	43.55	(47)	

단위: 학급, 명

* $p < .05$, *** $p < .001$.

패널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의 규모는 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7개의 학급이 있고 총 정원이 평균 91명 수준이었으며, 유치원도 평균 7개 학급, 152명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반일제 이상 학원도 평균 6학급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정원은 68명으로 다소 적었다.

나. 학급 특성

패널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의 학급은 88.9%이상 단일연령의 형태였으며, 어린이집 74개반, 유치원 35개반, 반일제 이상 학원 4개반에서 혼합반 형태로 구성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에서는 3-4세 혼합반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은 3-5세 혼합반(68.6%)이,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는 2-3세 혼합반(50.0%)의 연령 구성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표 III-6-5〉 육아지원기관의 연령 구성

단위: %(명)

구분	구성 형태			혼합 연령 범위						
	단일 연령	혼합 연령	계(수)	1세 ~5세	2세 ~3세	2세 ~5세	3세 ~4세	3세 ~5세	4세 ~5세	계(수)
전체	88.9	11.1	100.0(1,017)	1.8	15.9	0.9	42.5	37.2	1.8	100(113)
기관 유형										
어린이집	88.3	11.7	100.0(633)	2.7	20.3	1.4	50.0	24.3	1.4	100(74)
유치원	89.6	10.4	100.0(337)	0.0	0.0	0.0	31.4	68.6	0.0	100(35)
반일제 이상 학원	91.5	8.5	100.0(47)	0.0	50.0	25.0	0.0	0.0	25.0	100(4)
$\chi^2(df)$			0.72(2)							1)

주: 1)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분석이 불가함.

만 4세 패널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학급의 교사 수는 평균 1.2명, 아동 수는 15.2명으로 교사1인당 아동비율이 평균 13.8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 학급당 평균 교사 수 1.6명, 아동 수 20.2명이었으며 반일제 이상 학원은 학급당 교사 1.4명, 아동 수 12.6명으로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의 교사 1인당 아동비율이 평균 9.9명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표 III-6-6〉 학급 규모

단위: 명

구분	교사 수			아동 수			교사 1인당 아동 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32	.56	(1,017)	16.76	5.26	(1,017)	13.56	3.94	(1,017)
기관 유형									
어린이집	1.17 ^b	.49	(633)	15.23 ^a	4.07	(633)	13.80 ^b	3.42	(633)
유치원	1.60 ^c	.56	(337)	20.22 ^c	5.39	(337)	13.60 ^b	4.36	(337)
반일제 이상 학원	1.43 ^a	.62	(47)	12.55 ^b	5.71	(47)	9.91 ^a	5.30	(47)
F		76.67 ^{***}			148.37 ^{***}			22.31 ^{***}	

*** $p < .001$.

패널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의 교실 환경에 대해 공간배치, 발달적합성, 다양성, 충분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여 교사에게 5점 척도로 평정 받은 결과, 전반적으로는 4.2점이었으며, 공간배치, 발달적합성, 다양성, 충분성에 대한 세부 평가도 모두 4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비교하였을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평정점수가 반일제 이상 학원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I-6-7〉 교실 환경

단위: 점(명)

구분	공간 배치			발달 적합성			다양성			충분성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4.29	.66	(1017)	4.23	.66	(1017)	4.11	.76	(1017)	4.00	.80	(1017)	4.16	.62	(1017)
기관 유형															
어린이집	4.33 ^a	.64	(633)	4.24 ^a	.67	(633)	4.15 ^a	.75	(633)	4.03 ^a	.78	(633)	4.19 ^a	.62	(633)
유치원	4.30 ^a	.61	(228)	4.26 ^a	.62	(228)	4.11 ^a	.73	(228)	3.99 ^a	.82	(228)	4.16 ^a	.58	(228)
반일제 이상 학원	3.64 ^b	.85	(25)	3.91 ^b	.86	(25)	3.62 ^b	.97	(25)	3.77 ^b	.98	(25)	3.73 ^b	.78	(25)
F	25.47 ^{***}			5.75 ^{**}			10.74 ^{***}			2.60			12.05 ^{***}		

** $p < .01$, *** $p < .001$.

패널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 기관의 내부 공간 특성을 살펴 본 결과, 대부분 기관에서 휴식 공간(88.0%), 실외 놀이공간(79.3%), 실내 대근육 활동 공간(79.3%)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휴식 공간은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실외놀이공간은 유치원에서, 실내 대근육활동 공간은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 가장 많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8〉 육아지원기관 내 공간 특성

단위: %(명)

구분	휴식 공간			실외놀이 공간				실내 대근육활동 공간		
	없음	있음	계(수)	없음	있음	대체장소 이용	계(수)	없음	있음	계(수)
전체	12.0	88.0	1000(1017)	3.5	79.3	17.2	1000(1017)	20.7	79.3	1000(1017)
기관 유형										
어린이집	4.9	95.1	1000(633)	1.9	76.0	22.1	1000(633)	23.4	76.6	1000(633)
유치원	23.7	76.3	1000(337)	2.1	90.8	7.1	1000(337)	16.6	83.4	1000(337)
반일제 이상 학원	23.4	76.6	1000(47)	36.2	40.4	23.4	1000(47)	14.9	85.1	1000(47)
$\chi^2(df)$	80.03(2) ^{***}			193.54(4) ^{***}				7.15(2) [*]		

* $p < .05$, *** $p < .001$.

다. 교사 특성

패널 아동의 담당 교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여성 교사이며 연령 분포는 20대가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 비교하였을 때 30대 교사의 분포가

어린이집에서 30.3%로 높았고, 반일제 학원에서도 43.8%로 유치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I-6-9〉 교사의 성별 및 연령

단위: %, 세(명)

구분	성별			연령				평균
	남	여	계(수)	20대	30대	40대 이상	계(수)	
전체	0.7	99.3	1000(1018)	60.4	26.4	13.2	1000(1018)	29.70
기관 유형								
어린이집	0.8	99.2	1000(628)	54.0	30.3	15.6	1000(628)	30.60 ^b
유치원	0.6	99.4	1000(335)	74.5	16.6	8.9	1000(335)	27.97 ^a
반일제 이상 학원	0.0	100.0	1000(48)	45.8	43.8	10.4	1000(48)	30.04 ^{ab}
$\chi^2(df)/F$		⁻¹				46.25(4) ^{***}		16.41 ^{***}

주: 1)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분석이 불가함.

*** $p < .001$.

패널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의 근무 상황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13시간 19분(13.32시간) 근무하며 월 단위의 주말 근무 빈도는 1일이었다. 기관 유형별로 비교하였을 때 어린이집과 반일제 이상 학원에 비하여 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이 14시간 16분(14.26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주말 근무 빈도도 가장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III-6-10〉 교사의 근무 시간

단위: 시간, 일(명)

구분	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주말 근무일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3.32	3.57	(996)	1.00	1.31	(1,018)
기관 유형						
어린이집	12.95 ^b	3.38	(633)	0.85	1.17 ^a	(633)
유치원	14.26 ^b	3.72	(337)	1.34	1.44 ^b	(337)
반일제 이상 학원	10.33 ^a	2.60	(26)	0.56	1.46 ^a	(48)
F		25.42 ^{***}			18.83 ^{***}	

*** $p < .001$.

패널 아동을 담당하는 육아지원 기관의 교사에게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의 재직 기간을 조사한 결과, 총 재직 경력은 어린이집 52.2개월,

유치원 51.3개월, 반일제 이상 학원 45.2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가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 재직 한 기간이 36.5개월, 27.2개월 이상이었고, 반일제 이상 학원 교사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재직기간이 각각 50.2개월, 21.0개월로 나타났다.

〈표 III-6-11〉 교사의 경력

단위: 개월(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52.20	36.40	(670)	51.26	56.19	(433)	45.22	44.42	(144)
기관 유형									
어린이집	56.13 ^b	36.94	(572)	30.58 ^{ab}	25.30	(122)	50.23 ^b	45.39	(88)
유치원	27.85 ^a	22.36	(82)	60.78 ^b	63.28	(298)	20.96 ^a	21.86	(23)
반일제 이상 학원	36.50 ^a	18.74	(16)	27.15 ^a	29.52	(13)	48.79 ^b	48.82	(33)
F		21.82 ^{***}			14.60 ^{***}			4.28 [†]	

* $p < .05$, *** $p < .001$.

패널 아동의 담당 교사의 소지자격증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교사가 소지한 자격증은 보육교사 73.3%, 유치원교사 25.1%의 순으로 분포하였고, 유치원은 유치원교사 61.9%, 보육교사 36.0%의 순이었다.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 교사자격 미소지자가 13.8%로 높았으며, 보육교사 47.7%, 유치원교사 32.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6-12〉 교사의 자격(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없음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초·중등교사	계(수)
전체	1.1	39.2	58.2	1.6	100.0(1,415)
기관 유형					
어린이집	0.4	25.1	73.3	1.2	100.0(820)
유치원	0.6	61.9	36.0	1.5	100.0(530)
반일제 이상 학원	13.8	32.3	47.7	6.2	100.0(65)

패널 아동의 담당 교사의 학력은 과반수가 전문대 졸업이었고(56.5%),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35.1% 순이었다. 기관 유형별로 비교한 결과 어린이집에 한하여 고등학교 졸업자가 7.7% 분포하였고,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이 59.6%로 타 유형에 비해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13〉 교사의 학력

단위: %(명)

구분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대학교 재학/졸업	대학원 재학/졸업	계(수)
전체	4.8	56.5	35.1	3.5	100.0(1,017)
기관 유형					
어린이집	7.7	58.5	32.5	1.3	100.0(633)
유치원	0.0	55.8	36.5	7.7	100.0(337)
반일제 이상 학원	0.0	36.2	59.6	4.3	100.0(47)
$\chi^2(df)$			68.93(6) ^{***}		

*** $p < .001$.

패널 아동 담당 교사의 전공을 살펴본 결과 유아교육이 61.8%로 가장 많았고, 보육학, 아동학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반일제 이상 학원의 교사 전공에서는 유아교육, 기타, 미술교육, 영어교육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6-14〉 교사의 전공

단위: %(명)

구분	유아교육	보육학	아동학	교육학	미술 교육	음악 교육	영어 교육	체육 교육	기타	계(수)
전체	61.8	12.8	8.6	1.5	3.7	0.5	0.8	0.5	9.7	100.0(968)
기관 유형										
어린이집	43.2	20.0	13.4	2.6	5.0	0.9	0.3	0.7	14.0	100.0(584)
유치원	97.3	1.2	0.9	0.0	0.3	0.0	0.0	0.0	0.3	100.0(337)
반일제 이상 학원	38.3	6.4	4.3	0.0	12.8	0.0	12.8	2.1	23.4	100.0(4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분석이 불가함.

패널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의 특성으로 담임기간, 교수 효능감, 교사와 아동 간 상호작용을 조사한 결과, 담임교사로서 평균 6.83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5점 평정 척도 대비 교수 효능감은 3.8점, 교사와 아동 간 상호작용에 대한 평정은 4.2점이었다. 기관 유형별로 비교하면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정 결과는 반일제 이상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수 효능감은 반일제 이상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6-15〉 교사의 교수 특성

단위: 개월, 점(명)

구분	아동의 담임기간			교수 효능감			교사-아동 상호작용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6.83	1.59	(1,018)	3.83	.47	(1,017)	4.22	.46	(1,017)
기관 유형									
어린이집	7.22 ^a	5.09	(633)	3.84 ^a	.46	(633)	4.20 ^a	.45	(633)
유치원	6.20 ^a	3.57	(337)	3.79 ^{ab}	.48	(337)	4.23 ^a	.46	(337)
반일제 이상 학원	6.17 ^a	3.40	(48)	3.98 ^b	.52	(47)	4.39 ^b	.48	(47)
F		6.00 ^{**}			3.46 [*]			3.91 [*]	

* $p < .05$, ** $p < .01$.

라. 특별활동 특성

패널 아동이 육아지원 기관에서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지 조사한 결과, 기관 내 특별활동은 73.2%, 기관 외 특별활동은 47.3%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어머니의 취업 유무와 가구소득에 따라 기관 내 외 특별활동 이용률에 차이가 없었다.

〈표 III-6-16〉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기관 내 특별활동 이용 여부			기관 외 특별활동 이용 여부		
	이용하지 않음	이용함	계(수)	이용하지 않음	이용함	계(수)
전체	26.8	73.2	100.0(1,017)	52.7	47.3	100.0(1,703)
모 취업여부						
취업	24.8	75.2	100.0(447)	54.5	45.5	100.0(723)
미취업	28.4	71.6	100.0(401)	51.0	49.0	100.0(960)
$\chi^2(df)$		1.61(1)			1.97(1)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24.5	75.5	100.0(102)	53.2	46.8	100.0(1,000)
241-454만원	26.8	73.2	100.0(555)	52.2	47.8	100.0(565)
455만원 이상	27.3	72.7	100.0(359)	53.0	47.0	100.0(83)
$\chi^2(df)$		0.32(2)			0.14(2)	

패널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 기관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기관 내에서는 영어(23.5%), 체육(19.6%), 미술(13.1%) 순이었고, 기관 외에서는 국어(43.4%), 수학(17.2%), 미술(8.1%) 순이었다.

〈표 III-6-17〉 특별활동 프로그램 종류(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국어	컴퓨터	교구	한자	영어	기타 외국어	창의성	통합	기타	계(수)
기관 내	13.1	11.7	19.6	3.4	4.2	6.5	0.0	10.2	0.6	23.5	0.7	3.7	2.3	0.5	100.0 (3,681)
기관 외	8.1	1.8	5.8	0.5	17.2	43.4	-	7.3	1.4	7.3	0.1	7.2	4.0	0.6	100.0 (1,339)

패널 아동이 이용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는 평균 육아지원 기관 내에서 3개, 기관 외에서 1.7개로 나타났다.

〈표 III-6-18〉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

단위: 개(명)

구분	기관 내 특별활동 수			기관 외 특별활동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98	1.68	(744)	1.66	.90	(806)
모 취업여부						
취업	2.94	1.62	(336)	1.70	.91	(329)
미취업	3.01	1.71	(401)	1.64	.89	(470)
<i>t</i>		-0.54			0.86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2.99	1.44	(77)	1.56 ^a	.86	(70)
241-454만원	2.95	1.60	(406)	1.58 ^{ab}	.80	(450)
455만원 이상	3.02	1.85	(261)	1.82 ^b	1.03	(284)
<i>F</i>		0.14			7.10 ^{**}	

** $p < .01$.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라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가 유의하게 차이나지 않았으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용하는 기관 외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가 많았다.

패널 아동이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일주일 동안 이용하는 횟수는 기관 내 특별활동의 경우 평균 5.1번, 기관 외의 경우 1.7번이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특별활동 이용 횟수는 차이나지 않았으나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기관 외 특별활동 이용 횟수가 가장 높은 특징이 있었다.

〈표 III-6-19〉 특별활동 프로그램 주당 이용 횟수

단위: 회(명)

구분	기관 내 특별활동 이용 횟수			기관 외 특별활동 이용 횟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5.06	3.89	(744)	1.65	1.24	(804)
모 취업여부						
취업	4.91	3.25	(336)	1.75	1.40	(328)
미취업	5.19	4.38	(401)	1.58	1.12	(469)
<i>t</i>		-0.98			1.91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4.78	3.03	(77)	1.61 ^a	1.31	(70)
241-454만원	5.14	4.16	(406)	1.54 ^a	1.08	(450)
455만원 이상	5.00	3.70	(261)	1.84 ^a	1.43	(284)
<i>F</i>		0.32			5.16 ^{**}	

** $p < .01$.

패널 아동이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기관 내 특별활동의 경우 평균 1시간 56분(115.66), 기관 외의 경우 1시간 11분(71.18)이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특별활동 참여 시간은 차이나지 않았으나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기관 외 특별활동 참여 시간이 가장 길었다.

〈표 III-6-20〉 특별활동 프로그램 주당 이용 시간

단위: 분(명)

구분	기관 내 특별활동 시간			기관 외 특별활동 시간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15.66	76.73	(744)	71.18	87.44	(805)
모 취업여부						
취업	114.90	76.76	(336)	75.41	94.70	(329)
미취업	116.42	77.13	(401)	68.76	82.52	(469)
<i>t</i>		-0.27			1.05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102.79	55.36	(77)	70.29 ^a	83.44	(70)
241-454만원	113.70	76.35	(406)	61.80 ^a	73.88	(449)
455만원 이상	122.49	82.15	(261)	86.40 ^a	104.99	(283)
<i>F</i>		2.26			9.97 ^{**}	

** $p < .01$.

패널 아동이 이용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비용은 기관 내 특별활동의 경우 월평균 6.9만원, 기관 외의 경우 7.9만원 이었다. 어머니가 취업하였을 때 기관

내 특별활동 이용비용이 더 높았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기관 내외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비용이 유의하게 상승하는 특징이 있었다.

〈표 III-6-21〉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기관 내 특별활동 비용			기관 외 특별활동 비용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68.78	50.42	(1,228)	79.44	80.12	(805)
모 취업여부						
취업	7.41	5.20	(564)	84.44	78.54	(329)
미취업	6.43	4.87	(652)	76.29	81.57	(469)
<i>t</i>		3.40**			1.41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54.02 ^a	31.80	(127)	59.40 ^a	63.37	(70)
241-454만원	67.26 ^b	48.69	(669)	68.10 ^a	63.62	(449)
455만원 이상	75.48 ^b	56.23	(431)	102.25 ^b	100.12	(284)
<i>F</i>		9.68***			18.96***	

** $p < .01$, *** $p < .001$.

마. 대리 양육자 특성

패널 아동에 대한 개인대리양육자 40명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이 여자이며, 비혈연 도우미 12.5%를 제외하고 패널 아동과 친인척 관계였다.

〈표 III-6-22〉 개인대리양육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성별		자녀 양육경험		국적	
남자	7.5	있음	100.0	한국	95.0
여자	92.5	없음	0.0	중국(조선족)	5.0
아동과의 관계		연령		최종학력	
친할머니	37.5	30~39세	10.0	초졸	22.5
친할아버지	5.0	40~49세	5.0	중졸	32.5
외할머니	32.5	50~59세	25.0	고졸	30.0
외할아버지	2.5	60~69세	57.5	전문대졸	2.5
기타 친인척	10.0	70세 이상	2.5	대졸	10.0
비혈연 도우미	12.5	잘모름	0.0	잘 모름	2.5
	계(수)				100.0(40)

대리양육자 모두가 자녀 양육경험이 있었고 연령대는 60대가 57.5%였으며 50대가 25.0%를 차지했다. 국적은 대부분 한국인이며, 최종학력은 초졸부터 대졸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표 III-6-22 참조).

지난 조사와 동일한 개인대리양육자인지 조사한 결과 동일한 경우가 32.5%였으며, 아동의 집으로 개인대리양육자가 출퇴근 하는 경우가 32.5%, 낮시간에 대리양육자 집에 맡기는 경우가 30.0%, 함께 사는 경우가 25.0%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표 III-6-23〉 개인대리양육 이용 특성

단위: %(명)

변경 여부				동거 여부							
동일함	동일하지 않음	올해 처음 이용	계(수)	함께 살고 있음	아이만 이분 집에 살고 있음		아동 집으로 이분 집에 출퇴근 하고 있음		이분 집에 낮시간 맡기고 있음		기타 계(수)
					32.5	5.0	62.5	100.0(40)	25.0	10.0	

대리양육자 이용 시간은 주 5일이 70%로 과반수였으며 일주일 내내 15% 순으로 나타났다. 1일 총 이용 시간은 평균 7시간 18분(7.3시간) 이상이었다.

〈표 III-6-24〉 개인대리양육 이용 시간

단위: %, 시간(명)

주간 이용 빈도						1일 총 이용 시간	
월-토요일까지 매일	월-금요일까지 매일	일주일 내내	일주일내 며칠만	계(수)	평균	표준편차	
7.5	70.0	15.0	7.5	100.0(40)	7.28	5.07	

대리양육자 이용 비용은 정기적 현금 지불이 62.5%로 과반수였고 지불 안하는 경우는 20.0%이었으며, 이용 비용은 평균 6만원이었다.

〈표 III-6-25〉 개인대리양육 이용 비용

단위: %, 만원(명)

비용 지불 여부					이용 비용(현금 및 현물)			
지불 안함	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비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현물로 지불	계(수)	평균	표준편차
	20.0	62.5	7.5	10.0				

개인대리양육자 이용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는 '적당함'이 46.9%, '부담되는 편임' 25.0%, '크게 부담되지 않음' 15.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6-26〉 개인대리양육 이용 비용 부담도

단위: %(명), 점

전혀 부담되지 않음	크게 부담되지 않음	적당함	부담되는 편임	매우 부담됨	계(수)	평균
3.1	15.6	46.9	25.0	9.4	100.0(32)	3.22

개인 대리양육자 이용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5점 척도 평정 결과 평균 4.0점으로 비교적 만족이 70.0%로 가장 높았다.

〈표 III-6-27〉 개인대리양육 전반적 만족도

단위: %(명), 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비교적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2.5	0.0	12.5	70.0	15.0	100.0(40)	3.95

개인대리양육자 이외에 급여(현금, 현물 포함)를 받지 않으며 패널 아동의 양육에 도움을 주는 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4.3%였으며, 도우미와 아동의 관계는 조부모인 외할머니 44.4%, 친할머니 27.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6-28〉 비급여 양육 도우미 여부

단위: %(명)

도우미 여부			양육 도우미의 아동과의 관계(중복응답)								
없음	있음	계(수)	친 할머니	친 할아버지	외 할머니	외 할아버지	손위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	친구, 이웃	가사 도우미	계(수)
85.7	14.3	100.0 (1,703)	27.1	8.2	44.4	7.2	1.0	6.2	0.7	4.6	100.0 (306)

7. 지역사회 특성

가. 물리적 특성

1) 거주 지역

거주 지역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아파트 지역이 71.0%, 일반주택 지역이 22.8%로, 전체 패널의 93.8%가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과 지역 규모에 따라 주거지역 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중소도시 지역에서 일반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7-1〉 거주 지역

단위: %(명)

구분	일반주택	일반아파트	상가·회사	공장(단)	농·어가	계(수)	$\chi^2(df)$
전체	22.8	71.0	2.2	1.0	3.1	100.0(1,669)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33.5	54.1	2.9	1.8	7.6	100.0(170)	47.56(8)***
241-454만원	23.7	70.1	1.8	0.9	3.5	100.0(907)	
455만원 이상	18.3	77.3	2.5	0.8	1.0	100.0(590)	
지역규모							
대도시	30.5	66.1	2.7	0.6	0.2	100.0(637)	213.08(8)***
중소도시	19.4	77.7	2.1	0.6	0.1	100.0(674)	
읍면지역	15.6	67.0	1.4	2.2	13.7	100.0(358)	

*** $p < .001$.

2) 지역사회의 양육 적절성

거주지역의 전반적인 양육 적절성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률이 44.1%로 가장 높았으며 5점 척도 평정 결과 평균은 3.3점이었다. 가구소득 및 지역규모에 따라 거주지역의 양육적절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중소도시에서 상대적으로 거주지역의 양육 적절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표 III-7-2〉 양육 적절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전체	2.7	12.9	44.1	33.8	6.5	100.0(1,668)	3.29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2.4	16.5	51.8	24.1	5.3	100.0(170)	3.14 ^a
241-454만원	3.3	13.9	46.2	31.5	5.1	100.0(907)	3.21 ^a
455만원 이상	1.9	10.4	38.7	40.1	9.0	100.0(589)	3.44 ^b
$\chi^2(df)/F$			37.05(8)***				15.37***

(표 III-7-2 계속)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지역규모							
대도시	3.5	12.5	43.2	35.0	5.8	100.0(634)	3.27 ^a
중소도시	1.5	9.8	42.8	37.3	8.7	100.0(676)	3.42 ^b
읍면지역	3.6	19.6	48.3	24.9	3.6	100.0(358)	3.05 ^c
$\chi^2(df)/F$			46.91(8) ^{***}				21.51 ^{***}

*** $p < .00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보육·교육기관 및 사교육기관의 충분 정도, 공공여가공간이나 시설, 문화시설 등의 이용 편리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육아지원기관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5점 척도에서 3.13점이었고, '충분하다 이상'의 응답이 37.5%였다. 가구소득에 따른 육아지원기관의 충분성 인식 차이는 없었으나,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가용 육아지원기관이 불충분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표 III-7-3〉 가용 육아지원기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충분함	불충분함	보통임	충분함	매우 충분함	계(수)	평균
전체	6.0	19.3	37.3	30.7	6.8	100.0(1,672)	3.13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5.9	23.5	37.1	27.6	5.9	100.0(170)	3.04
241-454만원	6.5	19.3	38.5	29.3	6.5	100.0(909)	3.10
455만원 이상	5.2	18.1	35.7	33.7	7.3	100.0(591)	3.20
$\chi^2(df)/F$			7.06(8)				2.40
지역규모							
대도시	5.5	19.3	36.2	31.1	7.9	100.0(636)	3.17 ^a
중소도시	4.3	17.7	39.1	32.3	6.5	100.0(677)	3.19 ^a
읍면지역	10.0	22.0	35.9	26.7	5.3	100.0(359)	2.95 ^b
$\chi^2(df)/F$			21.41(2) ^{**}				7.39 ^{**}

** $p < .01$.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교육기관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2.9점으로, '충분하다' 이상의 응답 비율은 29.1%였다. 가구소득과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지역규모가 클수록 대도시가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에 비하여 사교육기관이 더 충분하다

고 인식하였다.

〈표 III-7-4〉 가용 사교육기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충분함	불충분함	보통임	충분함	매우 충분함	계(수)	평균
전체	10.9	25.3	34.8	22.7	6.4	100.0(1,668)	2.88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12.4	28.8	38.2	15.9	4.7	100.0(170)	2.72 ^a
241-454만원	12.0	27.2	34.1	21.3	5.4	100.0(907)	2.81 ^a
455만원 이상	8.8	21.4	34.8	26.8	8.1	100.0(589)	3.04 ^b
$\chi^2(df)/F$			23.86(8)**				10.67***
지역규모							
대도시	8.2	23.1	36.6	24.8	7.2	100.0(636)	3.00 ^a
중소도시	7.9	23.3	37.4	24.8	6.5	100.0(673)	2.99 ^b
읍면지역	21.4	32.9	26.5	14.8	4.5	100.0(359)	2.48 ^b
$\chi^2(df)/F$			81.53(8)***				33.43***

** $p < .01$, *** $p < .001$.

공공여가시설인 놀이터 이용이 얼마나 편리한지 인식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편리한 편'이라는 답이 3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 평균은 약 3.2점으로 나타났다. 놀이터 이용의 편리성에 대해 가구소득과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놀이터 이용이 편리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지역규모에서는 읍면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불편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7-5〉 시설 이용 편리성: 놀이터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전체	11.7	14.7	25.6	36.5	11.6	100.0(1,673)	3.22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17.1	15.9	35.9	25.3	5.9	100.0(170)	2.87 ^a
241-454만원	12.4	6.5	25.7	34.5	10.9	100.0(910)	3.15 ^b
455만원 이상	9.0	11.5	22.5	42.8	14.2	100.0(591)	3.42 ^c
$\chi^2(df)/F$			45.84(8)***				17.70***
지역규모							
대도시	11.9	15.2	24.3	36.3	12.2	100.0(637)	3.22 ^a
중소도시	7.8	13.0	25.0	40.9	13.3	100.0(677)	3.39 ^a
읍면지역	18.4	17.0	29.0	28.4	7.2	100.0(359)	2.89 ^b
$\chi^2(df)/F$			45.18(8)***				21.27***

*** $p < .001$.

공공여가시설인 공원 이용이 얼마나 편리한지 인식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편리한 편'이라는 답이 30.7%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 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다. 공원 이용의 편리성에 대해 가구소득과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역규모가 클수록 공원 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III-7-6〉 시설 이용 편리성: 공원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전체	12.1	19.9	27.0	30.7	10.3	100.0(1,669)	3.07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15.4	24.3	33.1	22.5	4.7	100.0(169)	2.77 ^a
241-454만원	14.0	20.7	26.4	29.5	9.4	100.0(907)	3.00 ^b
455만원 이상	9.3	17.4	26.1	35.0	13.2	100.0(591)	3.27 ^c
$\chi^2(df)/F$			36.11(8) ^{***}				16.37 ^{***}
지역규모							
대도시	10.1	22.0	25.0	31.8	11.2	100.0(636)	3.12 ^a
중소도시	8.6	17.3	27.7	34.5	12.0	100.0(676)	1.13 ^a
읍면지역	22.4	21.0	29.1	21.8	5.6	100.0(357)	2.67 ^b
$\chi^2(df)/F$			68.45(8) ^{***}				28.62 ^{***}

*** $p < .001$.

산책로 이용이 얼마나 편리한지에 대해 '편리한 편'이라는 응답이 31.3%로 가장 높았고 5점 척도로 평정한 결과, 평균 3.1점으로 나타났다. 시설 이용의 편리성에서 가구소득, 지역규모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역 규모가 클수록 산책로 이용이 편리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III-7-7〉 시설 이용 편리성: 산책로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전체	12.0	19.8	25.6	31.3	11.4	100.0(1,673)	3.10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14.7	28.2	30.0	22.4	4.7	100.0(170)	2.74 ^a
241-454만원	14.0	19.2	26.2	30.2	10.4	100.0(910)	3.04 ^b
455만원 이상	8.1	18.4	23.5	35.4	14.6	100.0(591)	3.30 ^c
$\chi^2(df)/F$			41.02(8) ^{***}				17.19 ^{***}

(표 III-7-7) 계속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지역규모							
대도시	10.7	19.9	27.2	29.8	12.4	100.0(637)	3.13 ^a
중소도시	9.3	19.8	22.6	35.9	12.4	100.0(677)	3.22 ^a
읍면지역	19.2	19.8	28.4	25.1	7.5	100.0(359)	2.82 ^b
$\chi^2(df)/F$			40.19(8) ^{***}				13.92 ^{***}

*** $p < .001$.

박물관 이용의 편리성에 대한 인식으로 '불편한 편임' 이하 응답이 65.0%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로 평정한 결과 평균 2.17점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이용의 편리성은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편리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읍면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박물관 이용이 불편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III-7-8〉 시설 이용 편리성: 박물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전체	32.9	32.1	22.3	10.9	1.8	100.0(1,672)	2.17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39.1	36.1	20.7	2.4	1.8	100.0(169)	1.92 ^a
241-454만원	36.9	31.3	20.0	10.2	1.5	100.0(910)	2.08 ^b
455만원 이상	24.9	32.1	26.4	14.4	2.2	100.0(591)	2.37 ^c
$\chi^2(df)/F$			44.94(8) ^{***}				18.79 ^{***}
대도시	26.4	34.9	24.6	12.2	1.9	100.0(637)	2.28 ^a
중소도시	29.7	31.0	23.9	13.1	2.2	100.0(677)	2.27 ^a
읍면지역	50.6	29.3	15.1	4.2	0.8	100.0(358)	1.75 ^b
$\chi^2(df)/F$			79.17(8) ^{***}				35.82 ^{***}

*** $p < .001$.

미술관의 이용의 편리성에 대해 69.0%가 '불편한 편임' 이하의 응답을 하였으며 인식정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한 결과, 평균 2.06점으로 나타났다. 미술관 이용의 편리성은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박물관 이용이 편리하다고 응답했으며 읍면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박물관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9〉 시설 이용 편리성: 미술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전체	36.0	33.0	21.2	8.3	1.6	100.0(1,672)	2.06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39.6	37.9	17.8	3.6	1.2	100.0(169)	1.89 ^a
241-454만원	39.8	33.3	18.7	6.9	1.3	100.0(910)	1.97 ^a
455만원 이상	29.1	31.0	26.1	11.8	2.0	100.0(591)	2.27 ^b
$\chi^2(df)/F$			41.19(8) ^{***}				18.76 ^{***}
지역규모							
대도시	29.5	33.8	24.8	9.4	2.5	100.0(367)	2.22 ^a
중소도시	32.2	32.1	24.2	10.2	1.3	100.0(677)	2.16 ^a
읍면지역	54.7	33.2	8.9	2.8	0.3	100.0(358)	1.61 ^b
$\chi^2(df)/F$			102.31(8) ^{***}				49.11 ^{***}

*** $p < .001$.

공연시설(음악회, 연극 등)의 이용의 편리성에 대해 ‘불편한 편임’ 이하의 응답이 57.9%였고 인식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평균 2.3점이었다. 공연시설 이용의 편리성은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역 규모가 클수록 공연시설 이용이 편리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455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와 대도시, 중소도시에서의 공연시설 이용이 상대적으로 편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10〉 시설 이용 편리성: 공연시설(음악회, 연극 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전체	29.8	28.1	26.3	14.1	1.6	100.0(1,671)	2.30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40.2	26.0	27.8	5.3	0.6	100.0(169)	2.00 ^a
241-454만원	33.1	30.3	23.5	11.7	1.4	100.0(909)	2.18 ^a
455만원 이상	21.7	25.5	30.1	20.5	2.2	100.0(591)	2.56 ^b
$\chi^2(df)/F$			64.39(8) ^{***}				29.76 ^{***}
지역규모							
대도시	25.1	25.0	30.6	17.0	2.4	100.0(637)	2.46 ^a
중소도시	23.8	29.7	27.5	17.4	1.6	100.0(677)	2.43 ^a
읍면지역	49.6	30.8	16.5	2.8	0.3	100.0(357)	1.73 ^b
$\chi^2(df)/F$			128.71(8) ^{***}				65.40 ^{***}

*** $p < .001$.

영화관의 이용의 편리성에 대해 ‘불편한 편’임 이상의 응답은 39.9%, ‘편리한 편임’ 이상의 응답은 33.0%였으며 인식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평균 2.78점으로 나타났다. 영화관 이용의 편리성에 대해 가구소득과 지역규모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편리하다고 응답하였고, 지역규모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유사하였으며, 읍면지역의 경우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11〉 시설 이용 편리성: 영화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전체	21.6	18.3	27.1	26.7	6.3	1000(1670)	2.78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31.4	22.5	29.6	14.8	1.8	100.0(169)	2.33 ^a
241-454만원	24.6	19.7	27.6	22.7	5.4	100.0(908)	2.65 ^b
455만원 이상	14.0	15.1	25.7	36.4	8.8	100.0(591)	3.11 ^c
$\chi^2(df)/F$			81.51(8) ^{***}				39.38 ^{***}
지역규모							
대도시	14.8	16.0	29.8	31.4	8.0	100.0(637)	3.02 ^a
중소도시	15.8	16.2	28.7	32.6	6.6	100.0(677)	2.98 ^a
읍면지역	44.7	26.4	19.4	7.0	2.5	100.0(356)	1.96 ^b
$\chi^2(df)/F$			215.50(8) ^{***}				112.54 ^{***}

*** $p < .001$.

장난감 대여센터의 이용에 대해 ‘불편한 편임’ 이하의 응답이 65.6%였고 편리함에 대한 인식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평균 2.1점으로 나타났다.

〈표 III-7-12〉 시설 이용 편리성: 장난감 대여센터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전체	32.2	33.4	24.4	8.6	1.4	100.0(1,669)	2.14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44.6	28.6	21.4	4.8	0.6	100.0(168)	1.88 ^a
241-454만원	34.3	35.2	22.9	6.4	1.3	100.0(910)	2.05 ^a
455만원 이상	25.5	32.1	27.7	13.1	1.7	100.0(589)	2.33 ^b
$\chi^2(df)/F$			47.08(8) ^{***}				20.36 ^{***}

(표 III-7-12) 계속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지역규모							
대도시	25.6	31.7	28.6	12.1	2.0	100.0(637)	2.33 ^a
중소도시	25.8	37.1	27.2	8.6	1.3	100.0(674)	2.23 ^a
읍면지역	56.1	29.3	11.7	2.5	0.3	100.0(358)	1.61 ^b
$\chi^2(df)/F$			145.63(8) ^{***}				67.61 ^{***}

*** $p < .001$.

장난감 대여센터 이용의 편리성에 대해 가구소득과 지역규모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편리하다고 인식했으며 지역규모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 거주자가 불편한 것으로 인식하였다(표 III-7-12 참조).

도서관 이용의 편리함에 대해서 '보통임' 응답률이 30.3%로 가장 높았고 인식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한 결과, 평균 3.0점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의 편리성은 가구소득 및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도서관 이용이 편리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자가 읍면지역에 비해 도서관 시설 이용이 편리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표 III-7-13〉 시설 이용 편리성: 도서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전체	14.3	17.1	30.3	28.5	9.8	100.0(1,669)	3.03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21.3	20.7	34.3	16.0	7.7	100.0(169)	2.68 ^a
241-454만원	16.1	19.1	28.0	27.4	9.5	100.0(908)	2.95 ^b
455만원 이상	9.3	13.1	32.9	33.7	11.0	100.0(590)	3.24 ^c
$\chi^2(df)/F$			47.99(8) ^{***}				18.87 ^{***}
지역규모							
대도시	13.7	16.5	30.3	28.3	11.2	100.0(636)	3.07 ^a
중소도시	9.9	16.4	29.7	33.5	10.5	100.0(677)	3.18 ^a
읍면지역	23.6	19.4	31.5	19.4	6.2	100.0(356)	2.65 ^b
$\chi^2(df)/F$			55.27(8) ^{***}				24.52 ^{***}

*** $p < .001$.

8. 육아 정책 특성

가. 국가 지원

1) 국가 지원 수혜

패널 아동 중 육아지원제도의 수혜를 받았는지 조사한 결과 보육·교육료를 지원 받은 경험이 40.4%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검진 지원 27.9%, 필수예방접종 지원 27.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8-1〉 육아지원제도 수혜여부(중복 응답)

		단위: %(명)	
구분	비율	구분	비율
보육료 유아 학비 지원	40.4	문제 행동 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	0.1
장애아 보육 교육비 지원	0.2	인터넷게임 중독 아동 치료 서비스	0.0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0.2	영유아 건강 검진 지원	27.9
아이 돌보미 서비스	0.7	필수 예방 접종	27.3
아동 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	1.9	기타	1.1
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	0.2		
	계(수)		100.0(2,420)

보육·교육료, 장애아 보·교육비, 시간 연장형 보육료 및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전액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과반수였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 아동발달 지원 서비스,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서비스는 일부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표 III-8-2〉 육아지원제도 지원유형

구분	전액지원	일부지원	해당없음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64.2	35.3	0.4
장애아 보육교육비 지원	75.0	25.0	-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60.0	40.0	-
아이돌보미 서비스	20.0	66.7	13.3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21.7	78.3	-
아동발달 지원서비스	-	100.0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	100.0	-
인터넷게임중독아동 치료 서비스	-	-	100.0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	-

(표 III-8-2) 계속

구분	전액지원	일부지원	해당없음
필수예방접종	86.5	13.3	0.2
기타	14.8	77.8	7.4
계(수)			-

패널 아동 부모가 국가의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이상의 비율이 48.3%에서 75.5%까지로 가장 높았고 5점 평정 척도에서 항목별로 3.0부터 4.3점까지 분포하였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에 대해서는 '보통'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8-3〉 육아지원제도 지원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2.2	16.0	23.6	43.4	14.9	100.0(976)	3.53
장애아 보육교육비 지원	-	-	25.0	25.0	50.0	100.0(4)	4.25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	-	40.0	40.0	20.0	100.0(5)	3.80
아이돌보미 서비스	-	-	28.6	50.0	21.4	100.0(14)	3.93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	8.7	30.4	50.0	10.9	100.0(46)	3.63
아동발달 지원서비스	-	-	50.0	33.3	16.7	100.0(6)	3.67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	-	50.0	50.0	-	100.0(2)	3.50
인터넷게임중독아동 치료 서비스	-	-	100.0	-	-	100.0(1)	3.00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1.8	12.6	37.3	29.0	19.3	100.0(675)	3.51
필수예방접종	1.2	4.5	23.9	42.7	27.6	100.0(660)	3.91
기타	3.7	25.9	48.1	22.2	-	100.0(27)	2.89

2) 국가 지원에 따른 후속출산

국가가 미취학 아동에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 및 교육비를 지원하게 될 때, 자녀를 더 낳을 것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43.6%의 어머니가 더 낳을 생각이 '조금 있다'고 답하였다. 이어서 '잘 모름'(33.9%), '거의 없음'(10.3%), '매우 많음'(8.5%), '전혀 없음'(3.6%)이 뒤를 이었다.

〈표 III-8-4〉 보육·교육 무상 지원에 따른 후속출산 의사 정도

						단위: %, 점(명)	
전혀 없음	거의 없음	조금 있음	매우 많음	잘 모름	계(수)	평균	
3.6	10.3	43.6	8.5	33.9	100.0(165)	2.86	

국가가 아동의 양육비용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면 자녀를 더 낳을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7.0%로 가장 높았으며 '잘 모름' 30.9%, '없음'이 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아동의 양육비용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면 매월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절한지 질문한 결과,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5.5%로 가장 높았고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 32.3%, '50만원 이상'이 30.1%,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8-5〉 양육비용 지급에 따른 후속출산 의사 여부 및 적정 금액

후속출산 의사 여부				지원 적정 금액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있음	없음	잘 모름	계(수)	2.2	32.3	35.5	30.1	계(수)			
57.0	12.1	30.9	100.0(165)	2.2	32.3	35.5	30.1	100.0(93)			

나. 직장에서의 지원

직장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중에서 패널 아동의 부모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 질문한 결과, 여성의 출산휴가가 24.3%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육아휴직 19.8%, 남성의 출산휴가가 11.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의 제도의 실시율은 10% 미만이었다(표 III-8-6 참조).

직장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의 '필요 정도'에 대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질문한 결과, 두 경우 모두 '여성의 출산휴가'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89.2%가 여성의 출산휴가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8.8%가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버지의 경우 여성의 출산휴가에 대해 전체의 76.3%가 '매우 필요', 19.0%가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표 III-8-7 참조).

〈표 III-8-6〉 직장에서 시행 가능한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

		단위:%(명)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여성의 출산휴가	24.3	수유실 설치	2.8
여성의 육아휴직	19.8	유급수유시간	2.5
남성의 출산휴가	11.3	시차출근제	6.0
남성의 육아휴직	9.7	대체인력풀 운영	7.2
직장 어린이집	3.5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5.5
보육비 지원	7.3		
계(수)		100.0(1,573)	

또한 아버지의 경우 여성의 출산휴가와 더불어 보육비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했는데, 구체적으로 전체의 75.7%가 보육비 지원이 '매우 필요', 19.4%가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더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필요성은 부모 모두의 경우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 모두 남성의 육아휴직 보다는 남성의 출산휴가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III-8-7〉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방식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필요	대체로 불필요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계	(수)	평균
어머니								
여성의 출산휴가	1.2	0.2	0.5	8.8	89.2	100.0	(1,665)	4.85
여성의 육아휴직	1.1	0.3	0.8	10.5	87.2	100.0	(1,662)	4.82
남성의 출산휴가	1.0	1.3	8.3	25.8	63.7	100.0	(1,662)	4.50
남성의 육아휴직	1.3	3.2	15.5	31.0	49.0	100.0	(1,660)	4.23
직장 어린이집	1.1	0.6	7.4	22.6	68.4	100.0	(1,659)	4.57
보육비 지원	1.0	0.6	2.8	12.4	83.2	100.0	((1,659)	4.76
수유실 설치	1.0	1.1	7.9	24.2	65.8	100.0	(1,659)	4.53
유급 수유시간	1.1	2.4	12.8	27.2	56.5	100.0	(1,660)	4.36
시차 출근제	1.0	1.5	10.8	28.5	58.2	100.0	(1,657)	4.41
대체인력풀 운영	0.9	1.8	12.1	29.9	55.2	100.0	(1,660)	4.37
근로시간 단축	1.0	1.1	8.3	26.9	62.7	100.0	(1,661)	4.49
아버지								
여성의 출산휴가	1.1	0.4	3.1	19.0	76.3	100.0	(1,604)	4.69
여성의 육아휴직	0.9	0.6	4.4	23.6	70.4	100.0	(1,604)	4.62
남성의 출산휴가	1.6	3.2	15.9	31.9	47.4	100.0	(1,600)	4.20
남성의 육아휴직	2.1	6.3	24.7	30.1	36.7	100.0	(1,603)	3.93
직장 어린이집	0.8	2.0	12.8	31.0	53.4	100.0	(1,604)	4.34
보육비 지원	0.9	0.5	3.6	19.4	75.7	100.0	(1,604)	4.69

(표 III-8-7 계속)

구분	매우 불필요	대체로 불필요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계	(수)	평균
수유실 설치	1.3	2.4	13.9	32.5	49.8	100.0	(1,599)	4.27
유급 수유시간	1.3	3.3	19.1	33.3	43.0	100.0	(1,599)	4.14
시차 출근제	1.2	3.6	20.8	34.8	39.6	100.0	(1,600)	4.08
대체인력풀 운영	1.1	3.2	21.0	35.4	39.3	100.0	(1,596)	4.09
근로시간 단축	1.3	2.8	17.7	35.3	43.0	100.0	(1,600)	4.16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중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우선순위로 질문한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1순위로 '여성의 출산휴가'를 선택하였다. 그 정도는 어머니의 경우 전체의 55.7%, 아버지의 경우 전체의 51.7%로, 어머니의 경우가 아버지보다 다소 높았다. 육아지원제도 중 2순위는 '여성의 육아휴직'이었고 그 비율은 어머니의 45.4%, 아버지의 38.9%로 어머니의 경우가 더 높았다. 3순위로는 '보육비 지원'을 택했다. 비율로서 어머니의 경우 전체의 28.0%, 아버지의 경우 전체의 27.4%로 그 수준이 비슷하나 어머니의 경우가 다소 높았다.

〈표 III-8-8〉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방식 필요 순위

구분	단위: %(명)					
	1순위		2순위		3순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여성의 출산휴가	55.7	51.7	9.6	9.4	4.3	5.6
여성의 육아휴직	16.3	9.3	45.4	38.9	11.3	9.9
남성의 출산휴가	1.9	4.5	6.8	9.2	9.2	10.6
남성의 육아휴직	1.1	2.2	5.0	5.4	5.6	6.8
직장 어린이집	4.8	6.0	9.5	10.6	13.1	11.3
보육비 지원	15.4	23.4	13.9	16.8	28.0	27.4
수유실 설치	0.1	-	0.5	0.2	0.7	0.8
유급 수유시간	0.1	0.1	0.3	0.3	0.8	0.4
시차 출근제	2.1	1.4	3.9	5.0	9.7	8.4
대체인력풀 운영	0.4	0.4	1.3	1.4	2.8	4.5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2.0	1.1	3.8	2.6	14.4	14.2
계(수)	100.0(1,671)	100.0(1,606)	100.0(1,671)	100.0(1,603)	100.0(1,669)	100.0(1,599)

다. 보육·교육 정책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계획 중인 보육·교육 관련 정책방안에 대해 패널

아동의 어머니들의 인지도와 필요성에 대한 견해 및 후속출산 계획에 끼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8-9〉 보육·교육 정책 인지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인지 여부			필요성 인식					계(수)	평균
	있음	없음	계(수)	매우 불필요	대체로 불필요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0~2세 양육수당	84.7	15.3	100.0 (1,639)	5.3	6.1	10.3	25.1	53.1	100.0 (1,637)	4.15
0~2세 무상보육	92.2	7.8	100.0 (1,649)	10.3	13.0	13.1	17.4	46.1	100.0 (1,636)	3.76
5세 누리과정	88.0	12.0	1,646 (100.0)	2.0	1.0	5.1	22.4	69.6	100.0 (1,640)	4.57
3~4세 누리과정	71.6	28.4	1,617 (100.0)	2.2	1.5	8.1	23.9	64.4	100.0 (1,630)	4.47

만 0~2세 시기 양육수당과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각각 어머니의 84.7%와 92.2%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필요하다’는 견해가 53.1%와 46.1%로 가장 높았다. 조사시점인 2012년을 기준으로 시행 중인 만 5세 누리과정과 시행 계획 중인 만 3~4세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88.0%와 71.6%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필요하다’는 견해가 69.6%와 64.4%로 과반수였다.

〈표 III-8-10〉 보육·교육 정책의 출산계획 영향 여부: 만 0~2세 지원

단위: %(명)

구분	0~2세 양육수당			0~2세 무상보육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전체	27.3	72.7	100.0(1,631)	27.6	72.4	100.0(1,621)
모 취업여부						
취업	24.8	75.2	100.0(686)	25.4	74.6	100.0(682)
미취업	29.1	70.9	100.0(932)	29.0	71.0	100.0(926)
$\chi^2(df)$		3.68(1)			2.67(1)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33.5	66.5	100.0(167)	34.5	65.5	100.0(165)
241-454 만원	30.9	69.1	100.0(892)	30.8	69.2	100.0(886)
455만원 이상	19.8	80.2	100.0(570)	20.6	79.4	100.0(568)
$\chi^2(df)$		25.27(2) ^{***}			22.49(2) ^{***}	

(표 III-8-10) 계속

구분	0~2세 양육수당			0~2세 무상보육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지역규모						
대도시	26.4	73.6	100.0(622)	27.3	72.7	100.0(616)
중소도시	24.8	75.2	100.0(658)	25.0	75.0	100.0(656)
읍면지역	33.6	66.4	100.0(351)	33.0	67.0	100.0(349)
$\chi^2(df)$		9.46(2)**			7.26(2)*	

* $p < .05$, ** $p < .01$, *** $p < .001$.

시행 중이거나 시행 계획 중인 보육·교육의 정책방안이 후속출산 계획에 영향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만 0~2세 시기 지원 중 양육수당에 대하여는 27.3%가,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27.6%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두 정책 모두에 대하여 가구소득 및 지역규모에 따라서 응답에 차이가 있었는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읍면지역이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비해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8-10 참조).

〈표 III-8-11〉 보육·교육 정책의 출산계획 영향 여부: 만 3~5세 지원

단위: %(명)

구분	5세 누리과정			3~4세 누리과정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전체	29.9	70.1	100.0(1,626)	29.2	70.8	100.0(1,610)
모 취업여부						
취업	25.3	74.7	100.0(683)	25.7	74.3	100.0(674)
미취업	33.0	67.0	100.0(930)	31.6	68.4	100.0(922)
$\chi^2(df)$		11.12(1)**			6.56(1)*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33.0	67.0	100.0(167)	34.1	65.9	100.0(167)
241-454만원	23.9	76.1	100.0(888)	32.4	67.6	100.0(879)
455만원 이상	29.9	70.1	100.0(569)	22.8	77.2	100.0(562)
$\chi^2(df)$		15.25(2)***			17.59(2)***	
지역규모						
대도시	30.4	69.6	100.0(618)	29.4	70.6	100.0(615)
중소도시	27.9	72.1	100.0(656)	27.5	72.5	100.0(647)
읍면지역	32.7	67.3	100.0(352)	31.9	68.1	100.0(348)
$\chi^2(df)$		2.63(2)			2.13(2)	

* $p < .05$, ** $p < .01$, *** $p < .001$.

만 5세 누리과정 지원이 후속 출산 계획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어머니의

29.9%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40만원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진 집단에서 후속 출산에 영향력이 가장 컸다. 만 3~4세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서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후속 출산 계획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29.2%가 예상하였다. 가구소득에 따라 영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후속출산 계획에 대한 영향력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III-8-11 참조).

9. 요약

2012년 5차년도 기초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별은 남아 51.1%, 여아 48.9%였고 첫째아가 거의 45.9%로 많았다. 패널 아동의 일상생활을 살펴본 결과, 패널 아동은 평균적으로 7시 29분에 기상하며, 저녁 21시 31분에 취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수면시간은 9시간 56분이었다. 육아지원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은 1일 평균 6시간 53분 정도이고 게임 및 인터넷 이용시간은 1일 평균 14분 이용하고 있었다.

둘째, 신체발달을 살펴보면, 아동의 체중은 평균 16.97kg이었으며, 신장은 평균 103.79cm이었다.

셋째, 교사가 평정한 「영유아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평가」 결과, 만 4세 시기 아동의 인지발달의 표준 점수 평균은 102.88점이었고 창의성 평균은 49.93점, 유창성은 52.66점, 독창성은 57.97점, 개방성은 54.16점, 민감성은 34.93점이었다. 또한 언어발달 표준점수 평균은 105.51점이었다.

넷째, 아동의 기질 중 정서성은 평균 2.80점, 활동성은 평균 3.76점, 사회성은 평균 3.48점이었고 'CBCL'에서 문제행동 총점의 평균 T점수는 49.31점, 내재화 문제행동의 평균은 49.85점, 외현화 문제행동의 평균은 49.41점이었다.

다섯째, 부모의 연령은 30~39세가 가장 많았고 부모의 학력은 어머니의 경우 전문대 졸 이상이 70.4%, 아버지는 72.8%이었다. 부모의 결혼 상태는 98.6%가 현재 유배우자 초혼이며, 평균 결혼기간은 7.97년이었다. 결혼 만족도는 5점 척도 상에서 어머니의 평균점수는 3.68점, 아버지는 평균 4.01점으로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더 높았다.

여섯째, 아동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 수는 평균 3.05명으로, 부부와 자녀로 이

투여된 가구 구성이 90.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월평균 가구 총 소득은 484.92만원, 월평균 지출은 348.48만원, 전체 자녀에 대한 지출은 월평균은 121.85만원, 패널 아동에 대한 지출은 월평균 63.60만원이었다.

일곱째, 만 4세 시기에 패널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으로 어린이집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60.7%),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순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거주 지역 유형은 일반아파트 지역 71.0%, 일반주택 지역 22.8%이었으며,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중소도시에서 지역사회의 양육적절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아홉째, 만 0~2세 시기 양육수당과 무상보육에 대해서 어머니의 84.7%와 92.2%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46.1~53.1%였다.

IV. 국정과제 관련 주제별 중단분석

본 장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1~5차 년도에 이르는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의 연령에 따른 발달 변화와 이에 대한 아동의 부모를 중심으로 한 미시적, 거시적 양육환경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과거 한국아동패널 중단분석의 방향이었던 응답분포 변화추이분석이나 구조모형 및 경로분석을 통한 심층 분석과 구별하여, 5년 간 누적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학계 및 행정 분야의 전문가들의 한국 아동패널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었다.

한국아동패널의 조사변인은 매우 다양하여 모든 변인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육·교육관련 주요 이슈를 고려하여 분석 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국민행복의 향상을 위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 실현¹⁴⁾에 기여할 수 있는 아동의 양육 환경에 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아동의 연령에 따른 육아환경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보육·교육 기관 이용 및 하루 생활시간 사용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둘째 가정 내 환경요인으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결정요인과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셋째 가정 내·외 환경과 관련된 여성의 사회 참여를 소재로 하여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 경제활동의 변화를 살펴보고 한국아동패널의 중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1. 아동의 보육·교육 기관 이용과 생활시간 사용

가. 연구 목적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이 어린시기에 가정에서 양육 받을 때 부모와

14) 관련 국정 과제: 5)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57)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58)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45) 건강한 가정 만들기, 55) 장기간근로 개선 및 정연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의 애착형성이 잘되고 이후 시기의 인지발달에도 영향력이 크다는 전문가 견해에 따라 취업모들이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제 근무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는 데 비해(문무경, 2007),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전면 무상보육 정책의 도입으로 지난 10년 간 전 연령의 보·교육 기관 이용률의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윤희숙·김인경·권형준, 2013). 취업모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보육정책으로 개편되어 정부의 재정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최근 연구를 볼 때(윤희숙 외, 2013; 이어진·정도영, 2012; 차현숙·윤석진·윤계형·장건춘, 2009), 자녀의 양육을 어머니가 아닌 대리양육자나 보·교육시설에 위탁하는 적절한 시점과 이용 시간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8년도 출생한 한국패널 아동의 일상생활 시간 중 연령별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률과 기관 이용시간을 산출하여 전면 무상보육 정책 도입 이전의 현상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패널 아동의 연령에 따른 취침 시각, 수면시간, 미디어 노출시간의 변화도 살펴보아 기본적인 아동의 연령별 일상생활 시간 활용을 가능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육환경에 따라 아동의 생활시간 구성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나. 문제 제기

취업모이거나 가족 중 아동을 돌볼 지원세력이 없는 경우 아동을 가정 내에서 양육할 수 없을 확률이 높고 어린이집이나 개인 대리양육자를 활용하여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돌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영아기 모성 취업률(33.2%)보다 영아 보육률(48.7%)이 더 높고(OECD family database, 2013. 7. 29; 보육실태조사(2012) 원자료; 윤희숙 외 2013에서 재인용), 어린이집 첫 이용시기로 적절한 월령은 26.7개월이며 이용 시간은 1세까지는 주중 4일, 일일 5시간 미만이라고 부모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 시작 시점은 만 2세가 되기 전부터였으며 실제 이용시간도 더 길었다¹⁵⁾(이미화·민정원·엄지원·윤지연, 2013). 따라서 육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시점과 이용 시간도 취업모와 같은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양육환경에 따른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추이와 그 이외의 아동 생활시간 구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영아기를 지나 유아기에 돌입

15) 주 5일 이용률 97.2%, 일일 6시간 이상 이용률 85.2%

하면서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는지, 세부적으로는 어떤 서비스를 더 선호하는 지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본 생활시간에 변화가 있는 지 확인하였다. 본 주제와 관련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연령과 어머니의 취업률은 관련이 있는가? 둘째, 자녀의 연령과 어머니의 취업 유형(예. 비정규직)은 관련 있는가? 셋째, 어머니의 출산 전 최종 학력 및 직위와 출산 후 어머니의 취업 지속성은 관련 있는가? 넷째, 다자녀와 낮은 가구 소득수준 등은 어머니 취업의 중단 또는 지속 영향요인인가?

다. 분석 방법

주로 이용하는 육아지원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개인대리양육자, 어린이집, 유치원(만 3세부터),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중복 이용으로 구분하였고, 아동의 하루 생활시간은 보육·교육기관 이용시간, 수면시간, 미디어 노출시간 등으로 구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부모에게 질문한 결과 그 응답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IV-1-1〉 연령별 관련 문항 응답자 수

구분	단위: 명				
	0세	1세	2세	3세	4세
전체	2,078	1,904	1,802	1,754	1,703
낮 시간 주이용 육아지원 서비스	2,078	1,875	1,800	1,754	1,703
보육·교육기관 이용시간	46	172	783	1,452	1,698
취침시간	-	-	1,762	1,754	1,699
수면시간 (밤잠 기준)	-	-	1,761	1,754	1,699
미디어 노출 시간	-	-	1,378	1,591	1,703

만 1세까지 과반수의 패널 아동은 육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부모가 직접 양육하였으나 만 2세부터 미이용 46.7%, 보육·교육 기관이용 43.1%, 개인 대리 양육자 9.4% 순으로 변화하였다. 만 3세 이후에는 보육·교육 기관 이용자가 약 80%로 만 4세경에는 90%이상의 패널 아동이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대리양육자 이용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감소하여 만 3세경에 큰 폭 하락하였다.

패널 아동의 하루 생활시간에서 취침시간, 수면시간은 자녀 연령에 따라 크게 차이하지 않았으나, 보육·교육 이용시간은 다소 상이하였다. 연령별 보육·교육 이용 시간은 이용자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0세 영아의

보육·교육 이용 시간이 12시간 18분(12.3 시간)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길었다. 0세 시기 기관 이용자가 소수로(46명) 부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개인대리양육서비스 등 다른 대안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기는 경우로 추정되므로 장시간 이용이 불가피한 표본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표 IV-1-2〉 연령별 응답 값 분포

단위: %(수), 평균시간(표준편차)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주이용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률					
미이용	83.6(1,738)	72.0(1,370)	46.7(841)	15.6(274)	3.1(53)
개인 대리 양육자 ¹⁾	14.1(294)	15.5(296)	9.4(169)	1.7(29)	0.1(2)
보육·교육 기관 ²⁾	2.1(43)	10.1(192)	43.1(777)	79.4(1,392)	94.5(1,610)
개인대리양육 + 기관	0. (3)	0.9(17)	0.7(13)	3.4(59)	2.2(38)
무응답	-	1.5(29)	0.1(2)	-	-
계	100.0(2,078)	100.0(1,904)	100.0(1,802)	100.0(1,754)	100.0(1,703)
아동의 기본 생활시간					
보육·교육기관 이용시간	12.33(3.56)	8.78(2.10)	6.46(2.39)	7.45(1.57)	6.87(1.87)
취침시간	-	-	21.17(4.25)	21.67(2.40)	21.69(1.31)
수면시간 (밤잠 기준)	-	-	9.83(0.86)	9.90(0.90)	9.94(0.79)
미디어 노출 시간 ³⁾	-	-	1.38(0.90)	1.30(0.91)	1.60(0.97)

- 주: 1) 혈연 및 비혈연 관계의 개인대리양육자 모두 포함.
 2) 기관 유형은 연령에 따라 차이 있음(0, 1세: 어린이집, 2세: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선교원 등 기타 기관 포함, 3세: 유치원 포함).
 3) 미디어 노출시간은 TV 및 비디오 또는 기타 시청각 프로그램 시청하거나, 오락게임(컴퓨터, 개인 전자제품 등을 활용한)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시간으로 정의하였음.

본 주제에서는 위와 같은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과 가구특성에 따른 주이용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률 변화와 아동의 하루 생활시간 구성의 차이는 t -검정 또는 분산분석으로 살펴보았다. 가구특성에 따른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률 변화 추이 분석에는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GEE)을 활용하였다.

일반화추정방정식 분석법이란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동일한 기본 모형을 사용하지만 여러 시기에 걸쳐 반복 측정된 값을 고려한 회귀계수를 도출할 수 있다. 즉, 반복측정값의 개인 내 상관성을 고려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수 간의 인과관계의 경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특히 정규분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다변

량 변수에 일반선형모형(GLM: Generalized Linear Model)을 적용하여 일반선형 모형에서 제한적으로 다뤄졌던 반복측정 시계열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분석기법이다(Liang & Zeger, 1986; 박진옥·정민수, 2008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최근 4년 간 패스트푸드 섭취량과 비만 (체질량 지수 > 25m²/kg)위험의 연관성을 살펴보려면, 4년 간 한 달 (또는 분기별) 단위의 패스트푸드 섭취량과 해당 시기의 체질량지수 측정값을 사용하여 분석해야 한다. 개인의 패스트푸드 섭취량은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날 수 있으나 개인의 특성이 반영되므로 서로 상관성을 갖는다. 또한 비만의 여부도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개인의 특성이 개입하므로 시기별 비만여부에 대한 시계열자료들을 독립된 값으로 다를 수 없다. 일반화추정방정식 분석법은 이러한 개인의 시계열 자료가 갖는 시기별 연관성과 영향변인과 결과변인의 시간에 따른 변화 경향을 고려하여 특정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교차비(Odds ratio)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미취업모 집단(대조군)에 대한 취업모 집단(비교군)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위험(확률)을 배수로 표현하게 된다.

일반화추정방정식 분석법 활용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복측정 자료에서 영향 변인과 결과변인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모두 고려하여 인과관계의 영향력 크기를 산출할 수 있다.

둘째, 반응변인의 형태가 이분(binary)형 일 때 (예.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등) 영향요인에 따른 결과변수의 평균값 비교 보다는 교차비의 산출이 적합한 방법인데 일반화추정 방정식은 종단분석에서 본 연구 방법의 수행이 가능한 기법이다.

셋째,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비교 등 집단적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므로, 개개인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혼합모형(mixed effects models)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집단의 평균적 교차비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넷째, 반복측정 자료의 상관성에 적합한 working correlation structure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분형 결과 변인에 대한 일반화추정방정식 분석법에서는 여러 working correlation structure 적용에 따른 결과 차이가 크지 않아(robust) 결과값이 안정적이다. 본 종단분석에서도 가까운 시기의 시계열자료가 상대적으로 더 유사하므로 Autoregressive correlation structure을 사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시계열 자료 중 1회 결측값이 있어도 개체 전체 시계열 자료가 삭제되며, 여러 working correlation structure 적용에 따른 실제 분석 결과값에

차이가 크지 않아, exchangeable working correlation structure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활용하였다.

다섯째, 취업모의 종사상 직위, 근로소득, 직종 등 일부 집단에게만 국한된 연구주체에 대한 분석이므로 거주지, 출생순위, 어머니 취업여부에 의한 무응답을 조정하여 2008년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한 횡단가중치의 적용이 필요 없고 일반화추정방정식 분석법에서 종단 데이터의 결측값에 대한 자체 처리를 하고 있어 종단 가중치의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

라. 분석 결과

1) 가구특성에 따른 연령별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률 비교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에 고려할 가구특성으로 어머니 취업여부와 종사상 지위, 가구소득, 부모 학력을 주 영향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취업모의 경우 패널 아동이 0세일 때도 개인대리양육자 이용률이 47.1%, 기관 이용률 6.9%로 대부분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미취업모 집단(99.5%)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미취업모의 기관이용률은 아동이 만 3세가 돼서야 과반수(75.3%)가 되었다.

취업모 어머니 중 정규직 종사자일 때 만 2세까지 개인대리양육자 이용률이 비정규직 취업모의 보다 높았다. 비정규직 취업모는 아동이 0세일 때 직접 양육하지만 1-2세에는 개인 대리양육자나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세 이후에는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 기관 이용이 과반수였다.

〈표 IV-1-3〉 어머니 취업 및 종사상 지위에 따른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률

단위: %(수)

구분	전체(수)	모 취업 여부 ¹⁾		모 종사상 지위	
		취업	미취업	정규직	비정규직 ²⁾
0세					
미이용	83.6(1,738)	45.5	99.5	39.8	64.8
개인	14.1(294)	47.1	0.4	52.5	26.8
기관	2.1(43)	6.9	0.1	7.0	8.5
중복	0.1(3)	0.5	0.0	0.6	0.0
$\chi^2(df)$	-	919.94(3) ^{***}		17.96(3) ^{***}	

(표 IV-1-3) 계속

구분	전체(수)	모 취업 여부 ¹⁾		모 종사상 지위	
		취업	미취업	정규직	비정규직 ²⁾
만 1세					
미이용	72.0(1,370)	21.5	96.3	19.8	27.8
개인	15.5(296)	49.7	0.3	54.5	31.3
기관	10.1(192)	26.2	3.2	23.1	38.3
중복	0.9(17)	2.6	0.2	2.6	2.6
$\chi^2(df)$	-	1157.23(3) ^{***}		20.79(3) ^{***}	
만 2세					
미이용	46.7(841)	11.0	64.6	10.1	13.1
개인	9.4(169)	26.7	0.7	30.7	16.9
기관	43.1(777)	60.1	34.7	56.7	68.3
중복	0.7(13)	2.2	0.0	2.5	1.7
$\chi^2(df)$	-	617.85(3) ^{***}		13.24(3) ^{**}	
만 3세					
미이용	15.6(274)	2.7	24.3	1.9	4.4
개인	1.7(29)	3.9	0.1	4.7	2.2
기관	79.4(1,392)	85.5	75.3	84.6	87.2
중복	3.4(59)	7.9	0.3	8.8	6.2
$\chi^2(df)$	-	239.85(3) ^{***}		7.38(3)	
만 4세					
미이용	3.1(53)	1.3	4.4	1.4	1.1
개인	0.1(2)	0.3	0.0	0.5	0.0
기관	94.5(1,610)	93.4	95.6	91.5	96.4
중복	2.2(38)	5.0	0.0	6.6	2.5
$\chi^2(df)$	-	65.13(3) ^{***}		7.63(3)	

주: 1) 모취업 여부 판단 시, 학업중 (휴학중 포함)인 경우 미취업자로, 휴직중인 경우 취업으로 분류되었음.

2) 임시직, 일용직, 기타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봉사자, 등)는 비정규직에 포함하였음.

** $p < .01$, *** $p < .001$.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공통적으로 개인대리양육자를 더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만 1세까지 육아지원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다가 만 2세부터 육아지원서비스 중 기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부모의 학력 및 가구소득에 따른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률

단위: %(수)

구분	전체(수)	가구소득			부 학력			모 학력		
		20만원 이하	241-454만원	455만원 이상	고졸 이하	대학 졸업	석사 이상	고졸 이하	대학 졸업	석사 이상
0세										
미이용	83.6(1,738)	97.8	84.0	54.9	91.0	80.9	77.0	92.1	80.5	71.3
개인	14.1(294)	1.2	13.6	41.2	6.7	16.7	21.0	5.6	17.3	26.1
기관	2.1(43)	1.1	2.2	3.3	2.1	2.2	2.0	2.0	2.1	2.6
중복	0.1(3)	0.0	0.1	0.6	0.2	0.2	0.0	0.3	0.1	0.0
$\chi^2(df)$	-	311.53(3) ^{***}			40.51(3) ^{***}			65.13(3) ^{***}		
만 1세										
미이용	72.0(1,370)	88.7	73.2	44.4	81.2	71.3	63.8	81.3	71.0	51.1
개인	15.5(296)	1.9	15.4	42.2	5.8	18.0	26.6	6.1	18.5	37.2
기관	10.1(192)	9.1	10.8	10.6	12.8	9.4	9.1	12.2	9.5	8.5
중복	0.9(17)	0.3	0.6	2.8	0.2	1.3	0.5	0.4	1.0	3.2
$\chi^2(df)$	-	285.14(3) ^{***}			66.27(3) ^{***}			90.44(3) ^{***}		
만 2세										
미이용	46.7(841)	50.8	51.1	29.6	43.2	48.4	49.1	42.3	48.9	42.7
개인	9.4(169)	0.9	8.1	23.9	4.6	10.4	15.0	4.6	10.7	21.4
기관	43.1(777)	48.3	40.0	45.1	51.1	40.7	34.1	52.3	39.7	34.8
중복	0.7(13)	0.0	0.8	1.4	1.1	0.5	1.8	0.8	0.7	1.1
$\chi^2(df)$	-	156.08(3) ^{***}			35.30(3) ^{***}			45.57(3) ^{***}		
만 3세										
미이용	15.6(274)	14.6	18.3	12.1	12.7	16.1	21.1	12.8	17.3	13.5
개인	1.7(29)	0.0	0.6	3.7	0.4	1.4	6.1	0.5	1.5	9.0
기관	79.4(1,392)	85.4	80.0	76.4	85.2	78.9	67.2	84.8	77.6	69.6
중복	3.4(59)	0.0	1.1	7.8	1.7	3.6	5.6	1.9	3.6	7.9
$\chi^2(df)$	-	93.03(3) ^{***}			45.31(3) ^{***}			51.62(3) ^{***}		
만 4세										
미이용	3.1(53)	5.1	3.1	2.7	1.5	3.4	5.1	2.0	3.5	3.4
개인	0.1(2)	0.0	0.0	0.3	0.0	0.2	0.0	0.0	0.2	0.0
기관	94.5(1,610)	93.8	95.5	93.2	96.7	94.0	93.2	95.6	94.6	91.0
중복	2.2(38)	1.1	1.4	3.8	1.8	2.4	1.7	2.4	1.7	5.6
$\chi^2(df)$	-	16.93(3) ^{**}			8.51(3)			10.06(3)		

** $p < .01$, *** $p < .001$.

육아지원 서비스로 개인대리양육자, 어린이집, 유치원(만 3세부터)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중복 중 하나라도 이용할 교차비를 일반화추정방정식(GEE)을 활용하여 가구의 특성에 따라 비교하였다 교차비란, 대조군(예: 미취업모)에 대한 비교군(예: 취업모)의 특정 행위나 현상이 발생할 확률 또는 위험(예: 육아지원서

비스를 이용할 위험)을 배수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육아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은 자녀 연령이 1세 증가할 때 마다 3.3배씩 증가하였다. 자녀 연령의 영향력(시간 효과)을 통제하였을 때, 취업모의 경우 미취업모보다 18.7배, 취업모가 정규직일 경우 비정규직 취업모보다 2.0배 높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240만원 미만에 비해 454만원 이상인 경우,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에 비해 석사 이상인 경우 육아지원 서비스를 각각 5.2배, 1.9배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위험(확률)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데 어머니의 취업 및 취업모의 정규직 여부와 부모의 학력,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이 유의하게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1-5〉 아동 연령 및 출생 시 가구특성별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률 비교

영향변인	(n)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교차비		
		Odds ratio	(95% 신뢰구간)	z
자녀 연령	(2,150)	3.27	(3.14- 3.40)	57.40***
어머니 취업 여부	(2,078)			
미취업모	(1,467)	1.00	(reference)	
취업모	(611)	18.72	(15.61- 22.45)	31.60***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	(568)			
비정규직	(71)	1.00		
정규직	(497)	2.01	(1.40- 2.90)	3.74***
가구 소득(n=2,065)	(2,065)			
240만원 이하	(667)	1.00	(reference)	
241-454만원	(1,070)	1.32	(1.13- 1.55)	3.44***
455만원 이상	(328)	5.20	(4.18- 6.49)	14.68***
아버지 최종학력	(1,993)			
고졸 이하	(569)	1.00	(reference)	
대학 졸	(1,224)	1.20	(1.02- 1.41)	2.16*
석사 이상	(200)	1.28	(0.98- 1.67)	1.83
어머니 최종학력	(2,062)			
고졸이하	(643)	1.00	(reference)	
대학졸	(1,304)	1.15	(0.98- 1.34)	1.73
석사이상	(115)	1.92	(1.39- 2.66)	3.93***

주: 1) 본 표의 내용은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위험에 대한 각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일
반화추정방법정식 분석법(GEE)으로 분석한 결과임.

2) 부모가 낮 시간 주양육자가 아니고 대리양육자(혈연, 비혈연 포함) 또는 기관을 이용
하거나 이를 중복 이용할 할 경우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자로 정의하였음.

* $p < .05$, *** $p < .001$.

2) 가구특성에 따른 아동의 연령별 생활시간 비교

패널 아동의 기관이용 시간은 아동연령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취업했을 때 미취업한 경우보다 아동의 기관이용 시간이 1시간 18분(1.3시간) ~ 1시간 30분(1.5시간) 더 길었으며, 취업모 중에서도 정규직 종사자일 때 만 3세까지 아동이 기관을 12분(0.2시간) ~ 30분(0.5시간) 더 오래 이용하였다. 그러나 2013년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기 전에도 어머니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만 2세 부터 5시간 48분(5.8시간) 이상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만 4세시기에 부모 학력이 낮을 때 자녀가 기관을 더 오래 이용하였다.

〈표 IV-1-6〉 출생 시 가구 특성에 따른 아동의 연령별 기관이용 시간

단위: 1일 시간

구분	만 2세(n=783)			만 3세(n=1,452)			만 4세(n=1,698)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6.46	2.39	-	7.45	1.57	-	6.87	1.87	-
모 취업 여부									
취업(휴직 포함)	7.30	2.34	-9.25***	8.19	1.65	-17.14***	7.71	1.74	-17.25***
미취업	5.78	2.22		6.85	1.21		6.25	1.69	
모 종사상 지위									
정규직	7.50	2.43	-2.00*	8.34	1.69	-3.30***	7.77	1.85	-1.32
비정규직	6.97	2.07		7.89	1.52		7.61	1.54	
가구소득									
240 만원 이하	6.40	1.94	0.10	7.25	1.48	3.09*	6.90	1.85	1.29
241- 454만원	6.49	2.39		7.41	1.49		6.81	1.83	
455 만원 이상	6.47	2.88		7.57	1.70		6.96	1.93	
부 학력									
고졸 이하	6.74	2.07	1.73	7.60	1.54	2.64	7.28	1.51	16.73***
대학 졸	6.42	2.49		7.38	1.56		6.76	1.90	
석사 이상	6.22	2.59		7.44	1.77		6.51	2.23	
모 학력									
고졸 이하	6.71	2.17	2.07	7.51	1.50	1.37	7.14	1.64	7.61***
대학 졸	6.36	2.47		7.44	1.61		6.79	1.92	
석사 이상	6.11	2.89		7.18	1.52		6.57	2.03	

주: 기관은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교육시설과 반일제 이상 학원으로 정의함(0, 1세: 어린이집(보육시설); 2세: 반일제 이상 학원, 선교원 등 기타 기관 추가 포함; 3-4세: 유치원 추가 포함).

* $p < .05$, *** $p < 0.001$.

패널 아동의 취침시각은 만 2세 9시 12분, 3, 4세에는 9시 42분으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조금씩 취침시각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만 4세시기에 취업모의 아동이 미취업모 보다 취침시각이 12분 정도 더 늦어져 9시 48분경에 잠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 가구소득 및 부모의 학력에 따라 아동의 취침시각에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IV-1-7〉 출생 시 가구 특성에 따른 아동의 연령별 취침시각

단위: 24시계

구분	만 2세(n=1,762)			만 3세(n=1,754)			만 4세(n=1,699)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21.17	4.25	-	21.67	2.40	-	21.69	1.31	-
모 취업 여부									
취업(휴직 포함)	21.08	4.51	0.63	21.77	2.49	-1.30	21.80	1.39	-3.08**
미취업	21.22	4.11		21.62	2.25		21.60	1.25	
모 종사상 지위									
정규직	21.29	3.99	-1.59	21.81	2.18	-0.57	21.84	0.76	-0.77
비정규직	20.54	5.61		21.68	3.04		21.74	2.01	
가구소득									
240 만원 이하	20.86	5.04	2.11	21.82	1.75	0.58	21.64	1.85	0.70
241- 454만원	21.21	4.12		21.67	2.49		21.66	1.46	
455 만원 이상	21.47	3.39		21.61	2.45		21.74	0.79	
부 학력									
고졸 이하	20.81	5.03	2.04	21.75	2.18	0.74	21.75	1.31	0.70
대학 졸	21.23	4.11		21.61	2.58		21.67	1.22	
석사 이상	21.51	3.51		21.76	1.81		21.63	1.82	
모 학력									
고졸 이하	20.96	4.63	0.81	21.72	2.26	0.59	21.67	1.59	0.11
대학 졸	21.25	4.10		21.62	2.55		21.69	1.21	
석사 이상	21.20	4.11		21.86	0.82		21.74	0.82	

** $p < 0.01$.

패널 아동의 수면시간은 2세 9시간 5분(9.8시간), 3-4세에 9시간 54분(9.9시간)으로 연령에 따라 큰 차이 없이 10시간 정도 수면하였다. 가구 특성별 비교에서 취업모의 아동이 미취업모 아동보다 12 - 24분 정도 적게 자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 3세 시기에 정규직 취업모의 아동이 비정규직 취업모의 아동보다 수면시간이 짧은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부모 학력 및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아동의 수면시간에 차이가 없었다.

〈표 IV-1-8〉 출생 시 가구 특성에 따른 아동의 연령별 수면시간

단위: 1일 평균 시간

구분	만 2세(n=1,761)			만 3세(n=1,754)			만 4세(n=1,699)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9.83	0.86	-	9.90	0.90	-	9.94	0.79	-
모 취업 여부									
취업(휴직 포함)	9.67	0.81	5.17**	9.71	0.86	7.38**	9.75	0.81	8.73**
미취업	9.90	0.87		10.03	0.89		10.08	0.74	
모 종사상 지위									
정규직	9.65	0.80	1.45	9.65	0.83	2.86**	9.71	0.84	1.60
비정규직	9.76	0.83		9.85	0.92		9.81	0.77	
가구소득									
240 만원 이하	9.83	0.90		9.97	0.82		9.91	0.80	
241- 454만원	9.87	0.84	2.91	9.88	0.89	1.01	9.95	0.78	0.20
455 만원 이상	9.74	0.83		9.91	0.94		9.93	0.79	
부 학력									
고졸 이하	9.85	0.92		9.91	0.87		9.88	0.81	
대학 졸	9.82	0.83	0.19	9.90	0.92	0.09	9.97	0.78	2.14
석사 이상	9.83	0.72		9.93	0.81		9.95	0.79	
모 학력									
고졸 이하	9.90	0.92		9.92	0.90		9.89	0.82	
대학 졸	9.81	0.80	2.05	9.90	0.89	0.37	9.95	0.77	1.16
석사 이상	9.77	1.11		9.83	0.90		9.99	0.85	

** $p < .01$, *** $p < .001$.

패널 아동의 하루 중 미디어에 대한 노출 시간을 조사한 결과 만 4세까지 2시간 미만으로 관찰되었다. 아동의 미디어에 대한 노출시간은 어머니 취업여부, 가구소득, 부모 학력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 났다. 취업모 아동일 때 미취업모보다, 가구소득이 더 높을수록, 부모 학력이 더 높을수록 미디어 노출시간이 짧았다.

〈표 IV-1-9〉 출생 시 가구 특성에 따른 아동의 연령별 미디어 노출시간

단위: 1일 평균 시간

구분	만 2세(n=1,378)			만 3세(n=1,591)			만 4세(n=1,703)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1.38	0.90	-	1.30	0.91	-	1.60	1.00	-

(표 IV-1-9) 계속

구분	만 2세(n=1,378)			만 3세(n=1,591)			만 4세(n=1,703)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평균	표준 편차	t/F
모 취업 여부									
취업(휴직 포함)	1.23	0.77	4.42***	1.15	0.78	5.30***	1.53	0.93	2.36*
미취업	1.44	0.94		1.39	0.98		1.64	0.98	
모 종사상 지위									
정규직	1.21	0.74	0.36	1.12	0.73	1.63	1.49	0.94	1.50
비정규직	1.24	0.83		1.23	0.87		1.59	0.93	
가구소득									
240 만원 이하	1.53	1.00	10.22***	1.36	0.96	1.05	1.78	1.03	9.94***
241- 454만원	1.36	0.90		1.27	0.91		1.65	0.95	
455 만원 이상	1.21	0.73		1.32	0.90		1.47	0.97	
부 학력									
고졸 이하	1.48	0.98	4.93**	1.38	0.95	2.71	1.70	0.90	6.45**
대학 졸	1.35	0.88		1.27	0.92		1.58	0.98	
석사 이상	1.21	0.71		1.20	0.67		1.39	0.97	
모 학력									
고졸 이하	1.51	1.05	6.20**	1.39	0.91	4.71**	1.76	0.99	1.11***
대학 졸	1.34	0.84		1.26	0.93		1.52	0.94	
석사 이상	1.20	0.71		1.13	0.58		1.49	1.04	

주: 미디어 노출시간은 TV 및 비디오 또는 기타 시청각 프로그램 시청하거나, 오락게임 (컴퓨터, 개인 전자제품 등을 활용한)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시간으로 정의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마. 소결

과반수의 패널 아동이 부모 이외에 육아지원 서비스에 노출되는 시기는 만 2세였으며 취업모 가정의 경우 0세부터 과반수가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규직 취업모는 만 2세까지 개인대리양육자를 더욱 선호했다. 그러나 부모의 학력이 낮거나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만 1세까지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고 2세부터는 주로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아기에는 가구 특성에 따라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이 차이 나지만, 유아기인 3세부터는 79.4%가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여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며, 취업모 등 가구특성에 따라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취업모 여부에 따라 아동의 기관이용 시간이 다소 차이나는 경향은 있으나 가구특성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만 2세부터 5시간 48분(5.8

시간) 이상 기관을 이용하였다.

아동의 하루 생활시간 분석에서 3세 기준으로 평균 21시 42분에 취침하기 시작하여 9시간 54분(9.9시간)동안 잠을 자고, 보육·교육기관을 6시간 54분(6.9시간) 이용하며, 미디어에는 1시간 36분(1.6시간)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별 비교에서는 어머니 취업여부와 종사상 지위에 따라 아동의 생활시간이 차이 났으며, 미디어에 한해 부모학력, 가구소득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본 결과를 통해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은 아동의 기관이용과 생활시간 구성에 유사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구 특성 변인으로 생각되며, 모의 취업 여부 이외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보·교육기관 이용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구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아버지의 양육태도 변화와 그 영향

가. 연구 목적

핵가족화, 여성의 취업 증가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같은 현대사회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맞벌이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어머니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도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와 지원은 시대적 요구 사항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는 부모들의 장시간 근로, 회식 문화, 적은 휴가 등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많고 자녀양육을 여성의 책임으로 보는 사회의 분위기는 남성들의 자발적인 양육 참여를 주저하게 한다. 현재의 직장의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가 없이는 아버지들이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최근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아동의 발달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 중에서 특히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Shears & Robinson, 2005; Woodworth, Belsky, & Crnic,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패널 중단자료를 바탕으로, 자녀 성장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분담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아버지의 양육분담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 문화적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도 살펴보았다.

나. 문제 제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는 자녀 신체 보호 위주의 양육 영역에서 자녀와 놀이하고 생활 습관을 지도하며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는 영역으로 점차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영아기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수유를 담당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크지만 유아기부터는 아버지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나, 반대로 영아기 자녀에 대한 1차적인 보호 필요 정도가 감소함에 따라 아버지의 관심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아버지의 자녀 양육 지식이 부족할수록 양육협조 수준도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근무형태가 규칙적이지 않거나 근무환경이 열악할 때 아버지의 자녀 양육 시간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가구 소득이 낮거나 아버지가 자영업자인 경우 자녀를 돌볼 만큼 여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버지의 양육협조에 대한 관련 요인으로 아버지의 근무환경과 종사상 특징을 분석하였다. 아버지의 양육협조가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패널 아동의 3세 시기 또래 상호작용 수준과 4세 시기 문제행동 척도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자녀 양육 태도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변화하는가? 둘째, 사회 경제적 특성에 의해 아버지의 자녀 양육 태도가 차이 나는가? 셋째,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

다. 분석 방법

본 주제에 대한 분석 자료로 아래와 같은 도구로 측정된 결과를 활용하였다.

1) 아버지의 양육태도 평가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양육협조의 네 가지 측면(필요한 물품이나 장난감 사주기, 생활습관 지도하기, 음식을 먹이거나 목욕시키기, 놀이나 이야기 상대 되어주기)을 묻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5점 Likert식 척도이다.

2) 아동의 사회성 발달

아동의 사회성 발달은 또래상호작용과 문제행동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가) 또래상호작용

아동의 또래상호작용은 패널 아동이 만 3세가 된 4차년도(2011년)에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 척도(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를 사용하여 패널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진 PIPPS는 놀이 방해 13문항, 놀이상호작용 9문항, 놀이단절 8문항의 세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각 척도별 수준을 산출할 수 있다. 아동의 또래상호작용 하위변인 각각의 영역에 대한 점수 분포는 다음과 같았다.

〈표 IV-2-1〉 만 3세 시기 자녀의 또래상호작용 점수 분포

	평균	표준편차	단위: 점	
			최소값	최대값
놀이 단절(<i>n</i> =1,667)	15.61	3.58	8.00	31.00
놀이 방해(<i>n</i> =1,576)	29.48	4.85	14.00	49.00
놀이 상호작용(<i>n</i> =1,658)	31.03	4.33	12.00	45.00

나) 문제행동

표준화된 유아행동평가척도(K-CBCL) 1.5-5를 사용하여, 패널 아동이 만 4세가 된 5차년도에 패널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문제행동을 조사하였다. 총 99문항으로 구성되어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수면문제 등 7개 하위척도로 구성된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의 2개 요인 점수와 총 문제행동척도를 산출할 수 있다. K-CBCL의 총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점수 분포는 다음과 같았다.

〈표 IV-2-2〉 만 4세 시기 자녀 문제행동 점수 분포

	평균	표준편차	(N=1,694) 단위: 점	
			최소값	최대값
문제행동총점	49.31	9.86	24.00	86.00
내재화 문제 총점	49.85	9.59	31.00	90.00
외현화 문제 총점	49.41	9.53	31.00	84.00

아버지의 양육협조 점수의 변화 추이를 보기 위해 전이확률 분석을 이용하였고, 아버지 근로특성 등 가구 여건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협조 수준 비교는 카이

검정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양육협조 수준에 따른 자녀의 사회성 발달 수준은 분산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라. 분석 결과

1) 아동 연령에 따른 아버지 양육 태도 변화

아버지의 양육협조에 대하여 어머니가 평정한 5개년도 자료와 아버지 본인이 자신의 양육 참여에 대하여 4차년도와 5차년도에 평정한 자료를 각 조사 년도 별로 구분하여 총점수를 비교하였다. 어머니가 평정한 자녀 연령 변화에 따른 부모의 아버지 양육협조는 자녀가 만 2세를 기준으로 증가 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아버지의 양육협조에 대한 부모 간의 평정점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표 IV-2-3〉 아버지의 양육협조 변화

단위: 점(명)

구분	모 평가			부 평가		
	(수)	총점	표준편차	(수)	총점	표준편차
2008(1차)	(1,860)	14.33	3.23	-	-	-
2009(2차)	(1,890)	14.53	3.54	-	-	-
2010(3차)	(1,753)	14.87	3.37	-	-	-
2011(4차)	(1,697)	14.45	3.23	(1,624)	14.48	2.61
2012(5차)	(1,668)	14.26	3.17	(1,614)	14.24	2.66

주: 아버지 양육협조의 4개 문항 중 한 문항이라도 결측값이 있는 경우 총점 계산에서 제외하였음.

아버지의 양육협조에 대한 어머니 평정이 5년 간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하기 위하여 전이확률로 분석하였다. 문항의 응답 경향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협조 네 문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대체로 그렇다’의 답변이 가장 많이 관찰되어, ‘대체로 그렇다’ 이상을 상군으로, ‘보통이다’ 이하 군을 하군으로 구분하여 네 개의 문항별로 5년 동안 상군, 하군 또는 상·하군으로의 변화의 확률(전이확률)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종단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세부 문항마다 경미한 차이가 있으나 아버지의 양육협조가 상군을 유지할 확률은 77.6-78.6%, 하군을 유지할 확률은 63.9-70.7%이었으며, 상군에

서 하군으로 전이할 확률은 21.4-22.4%, 하군에서 상군으로 전이할 확률은 29.3-36.1%로 분포하며 네 문항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IV-2-4〉 5년 간 아버지 양육협조의 지속성

	단위: %(수)		
	상군 ¹⁾	하군 ²⁾	계
1) 물품, 장난감			
상군	77.86(2,817)	22.14(801)	100.0(3,618)
하군	30.44(894)	69.56(2,043)	100.0(2,937)
계	56.61(3,711)	43.39(2,844)	100.0(6,555)
2) 습관, 생활지도			
상군	78.40(3,179)	21.60(876)	100.0(4,055)
하군	36.13(910)	63.87(1,609)	100.0(2,519)
계	62.20(3,089)	37.80(2,485)	100.0(6,574)
3) 식사, 목욕			
상군	78.57(3,036)	21.43(828)	100.0(3,864)
하군	32.07(866)	67.93(1,834)	100.0(2,700)
계	59.45(3,902)	40.55(2,662)	100.0(6,564)
4) 놀이, 이야기 상대			
상군	77.58(3,117)	22.42(901)	100.0(4,018)
하군	29.33(748)	70.67(1,802)	100.0(2,550)
계	58.85(3,865)	41.15(2,703)	100.0(6,568)

주: 1) 상군은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응답으로 정의함. 과거 상군으로 평가 받은 후 (1행 기준)가 지속적으로 상군일 확률(1열 기준).

2) 하군은 '보통이다' 이하의 응답으로 정의함. 과거 상군으로 평가받은 후 (1행 기준) 5년의 기간 동안 하군으로 전이할 확률(2열 기준).

아버지의 양육협조 네 개 문항 모두에서 '대체로 그렇다' 이상에 응답한 비율이 공통적으로 높았으므로, 추후 아버지 양육협조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1차년도인 2008년부터 3차년도인 2010년까지 3년 동안 수집된 아버지의 양육협조 데이터가 네 개 문항에서 지속적으로 상군인 경우(3년 연속 총점 환산결과 16점 이상), 지속적으로 하군인 경우(3년 연속 총점 환산결과 12점 이하), 그 이외의 경우를 중군으로 구분하였다. 4차와 5차년도에 수집된 아동발달 자료에 선행하는 영향요인으로 아버지 양육협조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5년 동안 수집된 아버지의 양육협조 데이터 대신 2008-2010년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활용하였다.

〈표 IV-2-5〉 아버지 양육협조 상중하 군의 분포

단위: %(수)			
상군	중군	하군	계
22.91(346)	64.90(980)	12.19(184)	100.00(1,510)

주: 3개년도 중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협조 평가가 한번이라도 부재한 경우 상중하 군의 구분에서 제외되어 총 1,510명에 대해 집단을 구분하였음.

2)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 양육 태도 비교

아버지의 근무환경, 근로특성 등이 아버지의 양육협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3, 4세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영향변인으로서 시간의 선후 관계상 2010년에 조사된 가구의 사회·경제 특성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협조 수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의 특성별 비교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 양육 협조 수준이 높았으며, 근로특성으로 관리직·전문가,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조립·단순노무직·군인 순으로 양육협조가 높게 나타났으나,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어머니가 취업한 가구에서 미취업한 가구보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협조가 더 높았다.

〈표 IV-2-6〉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 양육협조 비교

구분	아버지 양육협조			$\chi^2(df)$
	상(n=346)	중(n=980)	하(n=184)	
아버지 학력				31.68(6)***
고졸 이하	15.6	71.4	12.9	
전문대 졸	20.6	61.8	17.6	
대학 졸	26.1	62.6	11.4	
석사 이상	32.3	61.8	5.9	
아버지 직종				18.27(6)**
관리직·전문가	26.6	63.7	9.7	
사무직	25.1	64.4	10.5	
서비스·판매직	23.4	58.0	18.6	
기능·조립·단순노무직·군인	18.1	68.7	13.2	
아버지 종사상 지위				6.10(4)
정규직	24.5	64.2	11.3	
임시일용직	13.9	72.2	13.9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20.6	66.8	12.6	

(표 IV-2-6) 계속

구분	아버지 양육협조			$\chi^2(df)$
	상(n=346)	중(n=980)	하(n=184)	
어머니 취업여부				
미취업	20.7	66.3	13.1	9.91(2)**
취업	27.6	62.1	10.3	
가구소득				
하(240만원 이하)	16.7	71.5	11.8	19.48(4)***
중(241- 454만원)	23.1	63.8	13.1	
상(455만원 이상)	30.4	59.5	10.1	

** $p < .01$, *** $p < .001$.

3) 아버지 양육 태도에 따른 아동 사회성 발달 수준 비교

자녀의 사회성 발달 중 또래상호작용 수준은 아버지의 양육협조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의 양육협조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만 3세 시기 놀이단절 수준이 낮았고, 놀이상호작용 척도는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자녀의 놀이단절 수준은 아버지의 양육협조 상과 하 집단에서 차이가 두드러졌고, 놀이상호작용은 아버지의 양육협조 상, 중, 하 집단 각각에서 차이가 있었다.

〈표 IV-2-7〉 아버지의 양육협조 수준에 따른 자녀의 또래상호작용 비교

(N=1,372) 단위: 점

구분	놀이단절			놀이방해			놀이상호작용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양육협조 수준									
하	16.10 ^a	0.27		29.94	0.39		29.77 ^a	0.33	
중	15.68 ^{ab}	0.11	4.53*	29.64	0.17	1.90	30.94 ^b	0.14	11.02*
상	15.16 ^{bc}	0.20		29.09	0.29		31.66 ^c	0.24	

주: 자녀 성별과 아버지 학력 수준(놀이방해만 해당), 가구소득 수준(놀이상호작용만 해당)에 따라 자녀의 또래상호작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분석에서 자녀 성별, 아버지 학력 수준(놀이방해만 해당) 및 가구소득 수준(놀이상호작용만 해당)의 영향력을 통제함.

* $p < .05$.

아버지의 양육협조 수준에 따라 자녀의 만 4세시기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 지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협조 수준에 따라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외현화 영역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IV-2-8〉 아버지의 양육협조 수준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비교

(N=1,376) 단위: 점

구분	문제행동 총합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양육협조 수준									
하	49.42 ^{ab}	0.79		50.19 ^{ab}	0.74		49.78 ^{ab}	0.75	
중	49.93 ^a	0.34	3.30*	50.37 ^a	0.32	3.36*	50.03 ^a	0.32	3.21*
상	48.20 ^{bc}	0.58		48.75 ^{bc}	0.54		48.40 ^{bc}	0.56	

주: 자녀 성별과 아버지 학력 수준(문제행동 총합, 외현화 문제행동에만 해당),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의 또래상호작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분석에서 자녀 성별, 아버지 학력 수준(문제행동 총합, 외현화 문제행동에만 해당) 및 가구소득 수준의 영향력을 통제함.

* $p < .05$.

아버지 양육협조 수준이 상집단에 속할 때 타 군에 비해 자녀의 문제행동 총합,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문제행동 총점은 아버지 양육협조의 상과 중 수준 간에 차이가 두드러졌고,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서도 아버지 양육협조가 중수준인 집단에 비해 상수준일 때 자녀의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났다.

마. 소결

아버지의 양육협조의 변화 경향과 이에 대한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자녀의 사회발달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협조는 자녀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없고 영아기 상황이 이후에도 지속되는 양상이다. 물품 또는 장난감 사주기, 생활습관 지도, 음식을 먹이거나 목욕시키기, 놀이 및 이야기 상대 되어주기의 세부 문항마다 경미한 차이가 있으나 5년 동안 아버지의 양육협조가 상군 또는 하군을 유지할 확률이 64.79%로 바뀔 확률 21.36%보다 높아 자녀의 연령에 따른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협조 수준은 아버지의 학력 및 근로 특성과 어머니의 취업여부, 가구소득과 연관되어 있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직종에서는 관리직·전문가,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조립·단순노무직·군인 순으로 양육협조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근로 형태가 규칙적이고 근무환경이 우호적일 때 자녀 양육시간의 확보가 가능하여 아버지의 양육협조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버지의 양육지식도 양육협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아버지 교육의 필요성도 시사한다. 또한 어머니가 취업하여 아버지의 양육분담이 필수적

인 경우 아버지의 양육협조도가 특징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양육협조가 낮은 것으로 보아 가족 부양자로서 아버지의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자녀 양육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사회성 발달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양육 협조 수준이 높을 때 자녀의 만 3세 시기 놀이단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놀이상호작용 척도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만 4세시기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 양육협조 수준이 상집단에 속할 때 자녀의 문제행동 총합,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아버지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사회성 발달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어머니의 취업 변화 양상 및 결정요인 탐색

가. 연구 목적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여성의 연령과 취업률에 대한 역U자형 곡선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경력단절여성 규모 190만명 중 57%가 30대 ('11년 통계청 자료 기준)에 분포한다. 이는 만혼화, 고령 출산 증가로 30대에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 중단 확률이 높았다가 자녀 취학 후 다시 재취업하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여성의 연령과 취업률 간에는 M형 곡선의 형태를 띤다. 또한 경력이 단절되면 숙련 여성인력 양성이 어려워 재취업했을 때 근로조건이 비정규직 또는 저임금 노동으로 하향화될 확률이 커, 여성인력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경력 단절 시 재취업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관계부처합동 보도 자료, 2013).

그러나 자녀 출산 이후 어머니의 경력 지속 또는 단절 경향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어려웠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아동패널의 중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출산 후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취업률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어머니의 경력을 중단 또는 지속 시키는 영향요인들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나. 문제 제기

연령에 따른 여성의 경제 참여 특징은 자녀 출산 후 양육 초기에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재취업이 발생하는 M자형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출산 후 5년 동안의 아동패널 조사에서도 어머니의 취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머니의 특성별로 세분화 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출산 전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최종 직위가 높을수록 경제활동의 지속력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출산 후 자녀 양육 시기에 정규직으로 일할 확률도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동의 수와 가구의 소득수준은 양가적 영향력이 가능하다. '자녀가 많다'는 현상은 경제활동을 선호하지 않고 자녀 양육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남편의 근로소득으로 다자녀를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취업의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

가구의 소득이 낮은 경우, 자녀를 보육기관 또는 개인대리양육 서비스에 맡기는 비용이 본인의 근로소득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어머니의 근로 의욕이 상실될 수 있으며, 가구 전체의 소득이 매우 커도 어머니 자신의 근로 소득이 기여할 부분이 크지 않아 어머니가 취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어머니의 취업 의사가 주위로부터 존중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가구소득과 더불어 가구소득 대비 취업모의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취업률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주제와 관련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과 기관 이용시간이 변화하는가? 둘째,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일상생활시간 (취침 시각, 수면시간, 미디어노출 시간)이 변화하는가? 셋째, 각 가구의 양육환경(어머니 취업, 가구소득 등)에 따라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정도와 자녀의 일상 생활시간 사용이 차이 나는가?

다. 분석 방법

한국아동패널의 5년 동안 당해 연도 응답자 수 및 해당여부의 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IV-3-1〉 연도별 응답자 수¹⁾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가구소득	2,065	1,893	1,801	1,752	1,696
모 학력	2,062	1,892	1,678	1,746	1,693
모 취업여부	2,078	1,887	1,801	1,741	1,683
모 취업자 수(%) ²⁾	611(29.4)	593(31.4)	600(33.3)	694(39.9)	715(42.5)
모 직업 분류	572	491	428	591	563
모 종사상 지위 ³⁾	529	534	482	558	549
모 근로소득	-	-	-	672	711

주: 1) 자녀 수는 2011년 기준으로 1,754명임.

2) 취업중인 어머니에 한하여 어머니의 근로시간, 근로소득, 종사상 지위, 직종을 참값으로 인정하였음.

3) 종사상 지위로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모름)에 응답한 대상자는 본 중단분석에서 제외되었음.

〈표 IV-3-2〉 연도별 응답 값 분포

단위: %(수), 만원(표준편차)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가구소득					
240 만원 이하	32.3(667)	31.2(591)	25.4(457)	11.8(206)	9.9(167)
241- 454만원	51.8(1070)	51.4(974)	54.9(988)	52.4(918)	51.9(880)
455 만원 이상	15.9(328)	17.3(328)	19.8(356)	35.8(628)	38.3(649)
모 학력					
고졸 이하	31.2(643)	30.6(579)	29.9(501)	30.5(533)	29.7(502)
전문대 졸	28.6(590)	25.0(472)	25.0(419)	26.1(455)	26.9(455)
대학 졸	34.6(714)	39.5(747)	39.9(669)	38.3(669)	38.2(647)
석사 이상	5.6(115)	5.0(94)	5.3(89)	5.1(89)	5.3(89)
모 취업 상태					
취업(휴직 포함)	29.4(611)	31.4(593)	33.3(600)	39.9(694)	42.5(715)
학업중(휴학 포함)	0.7(14)	0.4(7)	0.3(5)	0.6(9)	0.5(8)
미취업	70.0(1,453)	68.2(1,287)	66.4(1,196)	59.6(1,038)	57.0(960)
모 직업 분류					
관리자, 전문가	47.2(270)	46.6(229)	46.3(198)	49.4(236)	46.4(260)
사무종사자	34.8 (199)	34.0(167)	35.5(152)	32.4(155)	27.7(155)
서비스, 판매	13.3 (76)	15.5(76)	14.7(63)	14.4(69)	17.3(97)
기타	4.7 (27)	3.9(19)	3.5(15)	3.8(18)	8.6(48)
모 종사상 지위 여부					
정규직	94.0(497)	88.2(471)	83.8(404)	83.2(464)	79.4(436)
임시직	4.5(24)	9.2(49)	14.1(68)	15.4(86)	16.8(92)
일용직	1.5(8)	2.6(14)	2.1(10)	1.4(8)	3.8(21)
모 근로소득	-	-	-	201.2(200.2)	207.5(206.8)

아동패널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분석한 결과, 2,150명의 5개년도 시계열 자료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체 취업률은 35.0%이었다. 패널 어머니를 기준으로 보면, 2,150명 중 한번이라도 취업한 어머니는 52.2%으로 반수 이상이나, 1회 이상 일했던 어머니 중 평균적으로 5년 기간 동안 취업률은 67.1%로 취업의 지속성은 높지 않았다.

〈표 IV-3-3〉 5년 간 어머니의 취업 변화

	단위: %(수)		
	전체 ¹⁾	개인 간 비교 ²⁾	개인 내 비교 ³⁾
미취업	65.0(5,977)	79.0(1,698)	82.3
취업	35.0(3,213)	52.2(1,123)	67.1
계	100.0(9,190)	131.2(2,821)	76.2

주: 1) 2,150명의 5년 간 총 9,190개의 관찰 사례 중 어머니 취업 여부 분포를 나타냄.

2) 2,150명 중 1회라도 미취업 또는 취업할 확률을 나타냄.

3) 1인의 5년 간 평균 취업 상태 지속성 (미취업상태 지속 또는 취업상태 지속) 확률을 나타냄.

5년 동안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미취업한 경우 87.6%, 지속적으로 취업한 경우 85.6%지만, 미취업모가 취업할 확률 12.4%, 취업모가 취업을 포기할 확률도 14.5%로 유동적인 양상을 보였다.

〈표 IV-3-4〉 5년 간 어머니 취업의 지속성

	단위: %(수)		
	미취업 ¹⁾	취업 ²⁾	계
미취업	87.6(4,045)	12.4(571)	100.0(4,616)
취업	14.5(327)	85.6(1,936)	100.0(2,263)
계	63.6(4,372)	36.4(2,507)	100.0(6,879)

주: 1) 출산 시부터 5년 동안 미취업 했던 어머니 (1행 기준) 중 지속적으로 미취업 할 확률 (1행 1열 해당).

2) 출산 시부터 5년 동안 미취업 했던 어머니 (1행 기준) 중 취업할 확률(1행 2열 해당).

따라서 출산 당시 취업하였어도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출산 당시 미취업 상태였어도 지난 5년 동안 취업할 확률이 있어 초기 응답값을 기준으로 미취업자 또는 취업자로 구분하여 종단분석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접근방법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출산 후 어머니의 유동적인 취업 상태를 고려할 수 있는 일반화추정방정식(GEE) 분석법을 활용하여, 어머니의 경제 활동의 유형과 이에 대한 주요 영향변인의 탐색을 위해 구체적인 가설을 설정하여 아동패널 종단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라. 분석 결과

1) 출산 후 어머니의 지속적 취업을 위한 영향요인 탐색

어머니 취업 위험에 대한 각 영향요인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일반화추정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근로소득은 2011년 첫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취업모 611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의 근로소득은 평균 201.2만원 이었고 가구소득 대비 어머니 근로소득 비율의 평균은 38.0%이었다.

자녀의 연령 증가(출산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어머니의 취업률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가 출산 후 자녀의 연령이 1세 증가 시마다 취업할 확률은 1.2배 상승하여, 출산 후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가 점차 증대되는 것으로 보였다.

자녀 연령에 의한(시간) 효과를 통제한 후 어머니의 출산 시 응답정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 어머니 근로소득, 가구소득 대비 어머니의 근로소득의 비중, 종사상 지위 및 어머니의 학력과 비례하여 어머니가 출산 후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할 확률이 크게 나타났다.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집단에 비해 어머니 취업 교차비(Odds ratio)는 241-454만원 집단에서 2.6배, 455만원 이상 집단에서 4.4배로 나타났다. 어머니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 집단에 비해 어머니 취업 교차비는 101-250만원 집단에서 3.6배, 250만원 초과집단에서 11.2배이며, 가구소득에 대한 어머니 근로소득의 비중이 25% 이하인 집단에 비해 26-50% 집단에서는 3.3배, 50% 초과집단에서는 3.9배였다. 어머니의 종사상 직위가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일 경우 어머니 취업 교차비는 3.0배였다. 어머니 최종학력이 고졸이하 집단에 비해 어머니 취업 교차비는 전문대 졸업 집단에서 1.4배, 4년제 대학졸업 집단에서 2.2배, 석사 이상 학력 집단에서 4.4배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자녀수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취업 가능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녀 1인당 어머니 취업 확률 0.83배로 감소). 출산 시기 어머니의 연령의 영향력을 통제 하여도 본 표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표 IV-3-5〉 아동 연령 및 출산 시 가구특성별 어머니 취업률 비교

영향변인	(수)	어머니 취업 교차비		
		Odds ratio	(95% 신뢰구간)	z
자녀 연령	(2,150)	1.17	(1.14 - 1.19)	15.57***
어머니 연령	(2,077)	1.02	(1.00 - 1.04)	2.31*
자녀 수 ¹⁾	(1,754)	0.83	(0.73 - 0.93)	-3.06**

(표 IV-3-5) 계속

영향변인	(수)	어머니 취업 교차비		
		Odds ratio	(95% 신뢰구간)	z
가구 소득				
240만원 이하	(667)	1.00	(reference)	
241-454만원	(1,070)	2.05	(1.71 - 2.45)	7.67***
455만원 이상	(328)	7.94	(6.22 - 10.14)	16.62***
어머니 근로소득 ²⁾				
100만원 이하	(125)	1.00	(reference)	
101-250만원	(384)	3.58	(2.71 - 4.72)	9.02***
250만원 이상	(163)	11.24	(7.58- 16.66)	12.04***
가구 소득 대비 어머니 근로소득 비율 ²⁾				
25% 이하	(164)	1.00	(reference)	
26-50%	(372)	3.33	(2.56 - 4.34)	8.93***
50% 이상	(131)	3.85	(2.71 - 5.47)	7.53***
어머니 종사상 지위				
비정규직	(32)	1.00	(reference)	
정규직	(497)	3.03	(1.65 - 5.59)	3.56***
어머니 직종				
관리직, 전문직	(270)	1.00	(reference)	
사무직	(199)	0.96	(0.67 - 1.40)	-0.19
서비스, 판매직	(76)	1.15	(0.67 - 1.97)	0.50
기능, 조립, 단순노무, 군인	(27)	0.57	(0.28 - 1.17)	-1.54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643)	1.00	(reference)	
전문대 졸	(590)	1.40	(1.13 - 1.72)	3.16***
대학 졸	(714)	2.15	(1.77 - 2.61)	7.71***
석사 이상	(115)	4.42	(3.12 - 6.27)	8.35***

주: 1) 본 표의 내용은 각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일반화추정방정식 분석법(GEE)으로 분석한 결과임.

2) 패널 아동의 형제자매에 관한 종단자료 확인이 완료된 1,75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가 출산 후 5년 동안 학업을 지속하여 학력수준이 상승되었을 때와 물가상승률 반영, 임금상승, 외벌이에서 맞벌이로 전환 등의 이유로 가구소득 수준이 변화하였을 때 어머니의 출산 후 취업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자녀의 연령(시간)에 의한 효과를 보정하였을 때, 출산 후 어머니의 학력이 상승할수록(고졸, 전문대 졸, 대학 졸, 석사이상으로 학력을 구분하였을 때 1등급 구간 상승한 경우로 정의) 어머니의 출산 후 취업 확률이 1.3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연령 증가(시간 경과)에 의한 효과를 보정하였을 때, 출산 후 가구소득이 상승할수록(240만원 이하, 241-454만원, 455만원 이상으로 소득을

구분하였을 때 1등급 구간 상승한 경우로 정의) 어머니의 출산 후 취업 확률이 2.0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6〉 어머니의 5년 간 학력과 가구 소득수준 변화에 따른 어머니 취업을 비교

영향변인	(수)	어머니 취업 교차비		
		Odds ratio	(95% 신뢰구간)	z
자녀 연령	(2,150)	1.17	(1.14 - 1.19)	15.57***
어머니 학력	(2,146)	1.33	(1.24 - 1.42)	8.50***
가구 소득	(2,146)	2.04	(1.91 - 2.19)	20.42***

주: 1) 본 표의 내용은 어머니 취업 위험에 대한 각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일반화추정방정식 분석법(GEE)으로 분석한 결과임.

2) 영향변인의 구간구분은 자녀 연령은 1세 간격으로,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고졸, 전문대졸, 대학졸, 석사이상으로, 가구소득은 240만원 이하, 241-454만원, 455만원 이상으로 되었음.

*** $p < 0.001$.

2) 어머니의 출산 후 취업 유형 변화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는 출산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낮아졌다. 자녀의 연령이 1세 증가할 때마다 어머니가 정규직으로 취업을 할 확률은 0.8배로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표 IV-3-7〉 출산 시 학력 및 가구소득별 어머니의 정규직 취업을 비교

영향변인	어머니 정규직 취업 교차비		
	Odds ratio	(95% 신뢰구간)	z
자녀 연령	0.83	(0.78- 0.89)	-5.69***
가구소득			
240만원 이하	1.00	(reference)	
241-454만원	2.74	(2.03 - 3.70)	6.60***
455만원 이상	7.01	(4.52 - 10.88)	8.68***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이하	1.00	(reference)	
전문대졸	2.92	(2.02 - 4.23)	5.66***
대학졸	2.47	(1.79 - 3.40)	5.51***
석사이상	2.28	(1.35 - 3.84)	3.10***

주: 1) 본 표의 내용은 어머니 취업 위험에 대한 각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일반화추정방정식 분석법(GEE)으로 분석한 결과임.

2) 5년 동안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에 대한 정보가 1회 이상 있는 98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p < 0.001$.

출산 시 가구소득 및 학력과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가구소득이 240만원 이하인 집단에 비해 241-454만원 집단에서 어머니의 정규직 취업 확률은 2.7배로 가구소득이 455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240만원 이하인 경우보다 7.0배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출산 시 학력에 따른 정규직 취업 확률을 분석한 결과, 고졸 이하의 학력을 소지한 어머니에 비해 전문대졸 학력을 소지한 어머니가 정규직 취업을 2.9배, 대학졸 및 석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어머니는 2.3배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7 참조).

마. 소결

한국아동패널 어머니의 출산 후 5년 간 취업상태를 분석한 결과, 29.4%, 31.4%, 33.3%, 39.9%, 42.5%로 모취업률은 출산한 해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한편 개인의 취업 경험을 기준으로 지속성과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한번이라도 취업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는 과반수이나(52.2%), 출산 후 5년 동안 취업모가 취업을 포기한 경우 14.5%, 미취업모였다가 취업한 경우 12.4%로 유동적이었다.

이와 같은 모취업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최종 학력, 종사상 지위, 직종, 가구소득, 자녀 수 등이 양가적 영향력을 모두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화추정방정식으로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녀 연령 1세 증가시마다 어머니 취업 확률은 1.2배 상승하였고, 출산 시 가구소득, 어머니 학력, 어머니 근로소득, 가구소득 대비 어머니의 근로소득의 비율, 종사상 지위가 높을수록 어머니 취업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가 1명 늘 어날 때 어머니의 취업위험(확률)은 0.83배로 감소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비정규직 취업률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고 출산 시 학력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비정규직 취업 확률이 높아졌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한국 유자녀 여성의 취업률은 비정규직 위주로 출산 후 점차 회복되고 출산 전 학력과 과거 직장 경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자녀가 성장해도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미취업모로 남을 확률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가구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클수록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여에 동기부여가 되어 어머니의 취업이 지속되는 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4. 종단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

한국아동패널의 1~5차년도에 이르는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의 연령에 따른 발달 변화와 이에 대한 아동의 부모를 중심으로 한 미시적, 거시적 양육환경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보육·교육관련 세 가지 주요 주제를 분석하였다. 세 가지 주제는 아동의 연령에 따른 육아환경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보육·교육 기관 이용 및 하루 생활시간 사용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가정 내 환경요인으로 아버지의 양육 태도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결정요인과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 경제활동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패널의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 아동의 보육·교육 기관 이용과 생활시간 사용

본 결과를 통해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은 아동의 기관이용과 생활시간 구성에 유사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구 특성 변인으로 생각되며, 모의 취업 여부 이외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보·교육기관 이용을 위해서는 가구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아동의 기관이용과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의 기관이용 시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본 패널 아동의 영아기 기관 이용률과 평균 시간은 OECD 평균 시간보다 높고, 취업모와 같은 실수요자 중심의 이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의 평균을 넘는 영아기의 높은 기관 이용률은 이후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재 무상보육으로 인한 기관이용의 확대를 낮출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수면시간의 양과 미디어 매체 시간의 부모 중재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수면시간은 바람직한 건강습관에 주요한 요소로서 신체기능의 회복과 향상성 유지, 에너지 보존과 건강유지에 필수적이다. 취업모와 미취업모 아동의 수면시간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미취업모의 아동이 10시간 정도이고 취업모의 아동은 9시간 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미디어 노출 시간도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아동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노출시간도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연구결

과들은 너무 이른 시기의 미디어 노출과 장시간 노출은 뇌의 발달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영유아기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부모의 노력이 요구되며, 취업으로 인한 영유아기의 건강습관을 저해 받지 않도록 지원책이 요구된다.

셋째, 영아기의 부모양육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패널 아동의 미취업모들은 0세에는 영아를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99.5%였고 1세에도 96.3%가 직접 양육하고 있었으나 취업모의 경우는 개인대리양육 이용률이 47.1%이고 기관이용율도 6.9%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를 고려할 때 부모의 선택에 의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취업모에게는 신뢰로운 양육도우미의 파견이나 비용 지원을 하도록 하고, 미취업모에게는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 내 시설이나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나. 아버지의 양육 태도 변화와 그 영향

아동패널 데이터를 중심으로 아버지의 양육 태도와 아동의 사회발달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 양육 태도의 종단적 변화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며 아버지의 양육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마련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아버지 양육 태도와 종단적 변화가 자녀의 성장에 어떤 영향력을 갖는지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버지 양육 태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결혼 초기 또는 임신 초기부터 실시해야 한다.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자녀가 태어난 직후부터 지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혼 초기나 임신 초기에 양육 태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실시하여 부부가 양육을 함께 하고 자녀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버지의 양육 태도에 대한 지속성 분석 결과를 보면,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유지 확률은 60~70% 정도이며, 전이 확률은 20~30%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 교육은 결혼 초기나 임신 초기에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한 물품 구입, 일상생활 지도, 식사와 목욕 관련, 놀이에 대한 기술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 태도 관련 교육이 서울과 일부 시·도에 집중되어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을 지자체와 지역사회로 확산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은 결혼이주민 또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어머니의

언어와 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으나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과 더 관련이 깊은 것으로 연구 결과들이 지적하고 있으므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아버지 교육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 될 것이다.

둘째, 공익광고 등 적극적인 미디어 홍보를 제공하여 아버지 양육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 자녀양육이 그동안 여성이나 어머니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어온 기존의 양육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부모의 자녀 양육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위한 직장문화와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의 독려와 함께 직장 내 아버지학 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가정에서의 양육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더라도 직장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가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지 못한다면 실천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직장 문화와 사회 분위기 정착이 중요하다.

넷째,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와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범 국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와 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회식문화를 최소화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위해 가족의 날을 지정하도록 한다. 휴가 제도를 활성화하여 평등한 부모역할을 지원하도록 한다. 저출산 타개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의 조성이 필수적이므로 기업과 정부가 앞장서서 과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가족의 양육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의 발달을 지원하고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이다.

다. 어머니의 취업 변화 양상 및 결정요인 탐색

한국 유자녀 여성의 취업률은 비정규직 위주로 출산 후 점차 회복되고 출산 전 학력과 과거 직장 경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자녀가 성장해도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미취업모로 남을 확률이 높은 경향이 있는 반면,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취업이 지속되는 데 영향이 있었다. 이러한 중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자 맞춤형의 육아지원서비스 다양화가 시급하다. 즉, 어머니의 다

양한 근로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기관 서비스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어머니의 취업상태를 고려한 현실적인 보육과 교육 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종일제 근로자를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 우선권을 제공하고, 시간제 근로자를 위한 시간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미취업 어머니들에게는 시간제 육아지원 서비스와 양육도우미의 선택을 통해 취업모들과는 다른 육아지원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출산 후 어머니 취업률 상승 경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시간제 일자리의 공급이 필요하다. 자녀 유아기부터 시간제 근로와 육아를 병행하기 시작한다면 일·가정 양립에 효과적일 수 있다. 단, 시간제 일자리는 어머니의 출산 전 다양한 취업 경험과 최종 학력에 적절하도록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셋째, 취약 계층 어머니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낮은 취업모와 비정규직 취업모의 출산 후 취업 권리 보호를 위해 이들을 고용할 경우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양육수당 지급으로 근로소득이 낮은 취업모와 비정규직 취업모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 드릴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 합동(2013). 보도자료 - 고용률 70% 로드맵 (2013.6.4.).
- 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2009).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서울: 서울 장애인종합복지관.
- 문무경(2007). 영국의 육아정책.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4. 육아정책개발센터.
- 박진옥·정민수(2008). 일반화추정방정식(GEE) 모형을 적용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형태 변동과 건강수준 차이 연구. 사회연구 통권16호, 77-103.
- 오경자·김영아(2009). CBCL 1.5-5 유아행동평가척도 부모용 매뉴얼. 서울: (주)휴노컨설팅.
- 윤희숙·김인경·권형준(2013). 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 KDI FOCUS. 제34호.
- 이미화·민정원·엄지원·윤지연(2013). 영아보육의 질 제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어진·정도영(2012). 영아 무상보육 재정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8월호.
- 이종숙·신은수·박은혜·김영태·곽영숙·유영의 외(2008). 영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평가 도구 교사 지침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기술부.
- 장명림·신나리·박수연(2006). 아동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전경원(2001). 유아 도형창의성 검사 전문가지침서.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 차현숙·윤석진·윤계형·장건춘(2009). 영유아 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p.111-112.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the ASEBA Preschool Forms &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Craven, R. G., McInerney, V., & Marsh, H. W. (2000). The Structure and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self concept and relation to academic achievement.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f the American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on 24-28, April 2000.
- Growing Up in New Zealand(2013). <http://www.growingup.co.nz/> 2013. 8. 23.
- Joseph, J. (1979). *JOSEPH Pre-school & Primary Self-concept Screening Test*. Illinois: Stoelting Co.
- Liang, K. Y., & Zeger, S. L. (1986). Longitudinal data analysis using Generalized Linear Models. *Biometrika*, 73, 13-22.
- Millennimu Cohort Study (2010). *Millennimu Cohort Study First, Second, Third and Fourth Surveys: A Guide to the datasets* (5th ed). K. Hansen (ED.), Retrieved from http://survey.net.ac.uk/index/_search1099%5cMcs%5c6411_2008_guide.pdf.
- Millennimu Cohort Study (n.p.). Welcome to the Millennium Cohort Study [Online post]. Retrieved from <http://www.cls.ioe.ac.uk/page.aspx?&sitectionid=851&sitectiontitle=Welcome+to+the+Millennium+Cohort+Study>.
- OECD(2012). *OECD Family Database*, OECD, Paris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 2013. 7. 29.
- Olson, D. H. (2010). *FACES IV manual*. Minneapolis, MN: Life Innovations, Inc. www.facesiv.com
- Olson, D. H. (2011). FACES IV and the Circumplex Model: Validation stud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7(1), 64-80.
- Shears, J., & Robinson, J. (2005). Fathering attitudes and practices: Influences on children's development. *Child Care in Practice*, 11(1), 63-79.
- Woodworth, S., Belsky, J., & Crnic, K. (1996). The determinants of fathering

during the child's second and third years of life: A developmenta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 679-692.

Abstract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2013

Namhee Do Jungwon Min Younghee Wang

Yejin Yi Soa Kim Jimin Uh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provides longitudinal and cross-sectional data to enrich the related fields and to serve as the resources for establishing and improving child care policies. We discuss the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The 6th year wave of PSKC consisted of annual study, in-depth study, and international conference. Annual study Annual child survey, parent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and a web-based questionnaire for teacher of the child. There were 1,662 panel families participating in the 6th year survey with retention rate of 77.3%. In the in-depth study,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test were administered to about 23% of panel childre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took place with professor J. Belsky's keynote speech.

Based on the data collected for the past five years, this year's technical analysis was done in six categories;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development, parenting, household, child care services, local community, and child care policies.

1) Characteristics of child development: The average weight of the children was 16.97kg with average height of 103.79cm. The children slept for 9 hours and 56 minutes by getting up at 7:29 AM and going to bed at 21:31 PM on the average. The typical day of the children consisted of 6.88 hours at kindergarten or child care center, 0.16 hours at after school institutes or for private lessons, 0.31 hours for studying at home, 1.16 hours for outdoor play,

2.08 hours for indoor play, and 1.32 hours for washing, dressing up and other daily maintenance.

2) Characteristics of parenting: The highest percentage of parents were between 30 and 39 years old. 36.1% of the mothers consumed alcohol once or less a month and 37.2% of the fathers drank 2-4 times a month. 98.3% of mothers and 49.1% of fathers were currently non-smokers. 94.7% of the fathers and 43.0% of the mothers have been employed. Mothers worked 7.83 hours per day, 4.81 days on weekdays and 6.79 hours, 1.16 days on weekends. Mother rated marital satisfaction as 3.68 and fathers did 4.01 on a 5-point scale. Regarding father's child rearing participation, mothers rated 3.57 and fathers did 3.56.

3)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 Not counting the panel child, the average number of family members was 3.05 with 90.2% of the family made up of parents and child. The per month income for total household income was 484,920,000 Won with mother's earned income of 203,940,000 Won, property and financial income of 26,670,000 Won, public income of 5,100,000 Won, and transfer income of 8,010,000 Won.

4) Characteristics of child care services: Child care service that children of age four used most was child care center (60.7%), followed by cram school running over half day and personal care. Ratings of the classroom environment in spatial layout, adequacy for development, diversity and sufficiency were 4 or more on 5-point scales.

5)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community: 71.0% of the families have lived in apartment complex and 22.8% in a single house in a local residential area. On a 5-point scale the adequacy of the living area's environment for child rearing was rated as 3.3; the adequacy of the child support institutions in the local community was 3.1; and the adequacy of the private institutes was 2.9. Park and walkways showed highest convenience for using public leisure facilities with 3.1 and toy rental services and art galleries showed lowest of 2.1.

6) Characteristics of child care policies: The highest percentage, 40.4% of

the participants have received no-tuition child care or early childhood education, followed by 27.9% for physical checkups, and 27.3% for vaccination. The beneficiaries assessed the child care support policies that they had received as 'satisfied' and above. At workplace, employees used maternity leave most at 24.3%, child care leave at 19.8% and paternity leave at 11.3%.

84.7% and 92.2% of the mothers responded that they were aware of the child care allowance for children of age 0-2 and no-tuition child-care or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highest rates, 53.1% and 46.1%, responded 'extremely necessary' for the each of the policies. 88.0% were aware of the Nuri curriculum (integrated curriculum for both child care and education) for children of age 5. 71.65% heard the Nuri curriculum to be implemented for the ages of 3-4. The highest response showed 'extremely necessary' at respective percentage of 69.6% and 64.4% for the two curriculums.

Based on the data accumulated from the years 1 through 5, three topics were examined using longitudinal analysis. The topics were; child care and use of child care institutions in relation to daily time use; father's changing attitude towards child care and its influence; and changing trends in mother's employment and the decision factors. The results showed that when mothers are employed or are full time workers, their children sleep late and short. Another trend found is that the lower the family income or lower the academic achievement of the parents is, the longer the children are exposed to media. The degree of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was related to the father's academic achievement, characteristics of labor, employment of the mother, and family income. The factors influencing mother's employment were mother's academic achievement, position at work, type of occupation, family income and number of children.

부 록

부록 1. 6차년도(2013) 조사 안내문

부록 2. 제4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표지 및 일정

부록 3. 5차년도(2012) 면접조사용(CAPI) 질문지

부록 4. 5차년도(2012) 어머니대상 질문지

부록 5. 5차년도(2012) 아버지대상 질문지

부록 6. 5차년도(2012) 어린이집용 질문지

부록 7. 5차년도(2012) 유치원용 질문지

부록 8. 5차년도(2012) 반일제이상 학원용 질문지

부록 1. 6차년도(2013) 조사 안내문

한국아동패널 2013년도 안내문



안녕하세요. 한국아동패널 조사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13년 6월부터 한국아동패널 6차년도 조사가 시작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한국아동패널 6차년도 조사는 귀 닥의 자녀가 만 5세가 되는 시점부터 면접원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린 후 귀 닥을 방문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 방문에 앞서 우송해 드린 '어머니 질문지'와 '아버지 질문지'는 미리 작성해서 면접원이 방문할 때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올해는 언어발달검사가 실시됩니다. 검사결과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5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 당일 면접원이 직접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아동에게 중요한 환경이 되는 교육·보육 기관의 생활에 대해서 선생님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에 대한 많은 동의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올해는 10월경 400명을 대상으로 지능검사 등의 발달검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올해 조사 참여자 중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 조사에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동패널 핫라인(전화, 문자, 카카오톡 가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를 마친 후에는 소정의 사례(2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아동 선물)를 드립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본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정보는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6월 말부터 진행되는 '2013년 한국아동패널'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패널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복과 평안이 넘치길 바랍니다.

-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panel/>
※ 아이 양육 및 교육정보와 한국아동패널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 02-398-7790)
- 한국아동패널 핫라인 010-0000-0000

조사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을지로 33 안국빌딩 7층
「한국아동패널」연구팀
TEL) 02-000-0000, 0000
FAX) 02-000-0000

[조사수행기관] (주)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센터 24층 「한국아동패널」조사팀
TEL) 02-0000-0000
핫라인) 010-0000-0000



6차년도(2013년) 경품 행사

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팀입니다.

이번 2013년 경품 행사는 패널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에 보답하고자, 경품 당첨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경품추첨 행사는 2013년 한국아동패널 조사가 완료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품 대상** : 2013년 아동패널조사 참여자
 - **실시 일정** : 2013년 10월 중 실시
 - **실시 장소** : 육아정책연구소
 - **결과 발표** :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공지(당첨자 개별 연락)
 - **관련 문의** : 미디어리서치 한국아동패널 조사팀 핫라인(010-0000-0000)
- 패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품추첨

1등: 로봇청소기 2명



2등: 제습기 5명



3등: 음식물 처리기 5명



4등: 도형 테트리스 세트 7명



5등: 맥포머스 자석블럭 10명



6등: 영어동화책 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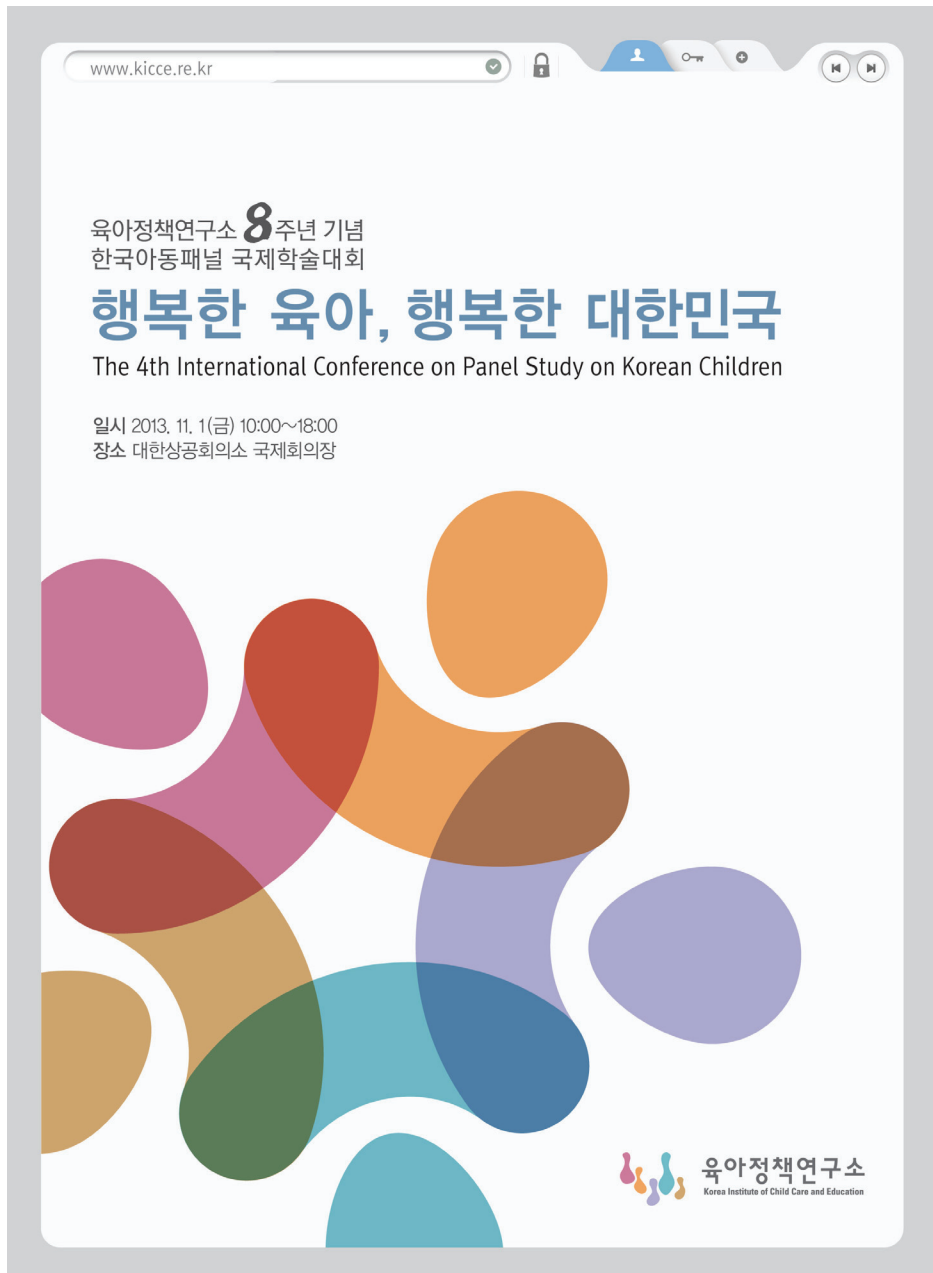


7등: 문화상품권(2만 원) 50명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록 2. 제4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표지 및 일정



Program

시간	프로그램
10:00-10:30	등 록
1부 육아정책연구소 8주년 기념행사	
사회: 장명림 기획경영실장	
10:30-10:50	개 회 식 대통령 축하 메시지 격려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환영사 육아정책연구소 이영 소장
10:50-11:00	육아정책연구소 소개
2부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사회: 이미화 정책연구실장	
11:00-12:00	기 조 강 연 Jay Belsky (UC DAVIS 교수)
12:00-12:10	휴 식
12:10-12:30	한국아동패널 소개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책임연구자)
12:30-12:40	대학원생 논문 시상
12:40-13:40	오 찬
13:40-14:30	특 별 강 연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4:30-14:45	휴 식
14:45-16:15	Session1. 아동 발달의 현주소
16:15-16:30	휴 식
16:30-18:00	Session2. 건강한 양육 환경

행복한 육아, 행복한 대한민국

국제 회의장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Environmental Influences 강연자: Jay Belsky (Professor of UC DAVIS)
중회의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종단분석 강연자: 강상경 (서울대학교 교수)
14:45 ~16:15	Session 1. 아동발달의 현주소
소회의실 4	제 1 주제: 사회성 발달 관련 제요인 분석 사회: 우남희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1. 유아 기질 및 부모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 조운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토론자: 위영희 (서원대학교 교수)	
2.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모-교사 협력의 조절효과	
연구자: 김영희 (한경대학교 교수) 박지현*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토론자: 이희선 (가천대학교 교수)	
3.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자녀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 김근규* (Delaware State University, Professor) 이일량 (University of Florida, Adjunct Faculty) 나종민 (국민대학교 조교수)	
토론자: 이경옥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 발표자

제 2 주제: 육아환경과 언어발달 간 관계 분석

사회: 정미라 (가천대학교 교수)

4. 3세 아동용 간편 어휘력검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자: 김영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홍경훈 (나사렛대학교 교수)

김수진* (나사렛대학교 교수)

토론자: 박혜원 (울산대학교 교수)

5.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기 자녀의 어휘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 박찬화* (한국무역보험공사 Kids-sure 어린이집 원장)

이윤선 (연세대학교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연구 ·
훈련센터 센터장)

토론자: 권희경 (건국대학교 교수)

6. Association Between Young Children's Temperament and Language Development: The Mediating Role of Peer Interactions

연구자: 이일량 (University of Florida, Adjunct Faculty)

김근규 (Delaware State University, Professor)

나종민* (국민대학교 조교수)

토론자: 신유림 (가톨릭대학교 교수)

제 3 주제: 발달의 종단적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사회: 양옥승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7.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의 발달과정 탐색연구

연구자: 이귀옥* (숭의여자대학교 조교수)

이미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토론자: 배지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8. Mother's Work and Child Development in South Korea

연구자: 김현식* (경희대학교 조교수)

김두환 (덕성여자대학교 조교수)

토론자: 한유미 (호서대학교 교수)

9. 자녀의 연령에 따른 유아녀 부모의 일반적 특성과 심리학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이 기대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 오승아 (경동대학교 조교수)

유준호* (을지대학교 조교수)

토론자: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출산정책연구센터 센터장)

* 발표자

16:30
~18:00

소회의실
4

Session 2. 건강한 양육환경

제 4 주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요인들

사회: 정계숙 (부산대학교 교수)

10.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

연구자: 이희정*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조교수)

토론자: 강지현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11. 만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연구자: 김정주 (춘해보건대학교 조교수)

김옥주* (춘해보건대학교 조교수)

토론자: 문혁준 (가톨릭대학교 교수)

12. 3세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과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

연구자: 김혜금* (동남보건대학교 교수)

토론자: 이영환 (전북대학교 교수)

소회의실
3

제 5 주제: 어머니의 취업과 행복한 육아

사회: 옥선화 (서울대학교 교수)

13.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검증: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다집단 분석

연구자: 신나리* (충북대학교 교수)

안재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토론자: 이완정 (인하대학교 교수)

14.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연구자: 금지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동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토론자: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자

15. An Analysis of Self-efficacy of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ors

연구자: 박성옥*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University at Buffalo 강사)
 James Hoo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University at Buffalo, Professor)
 신혜진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University at Buffalo 박사 수료)
 토론자: 조성연 (호서대학교 교수)

제 6 주제: 대학원생 논문 공모 수상작 발표

사회: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16.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양상, 보육료 수혜여부, 육아지원기관 및 지역사회 양육환경 만족도가 후속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 이정민*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이보람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17. 영아 어머니의 가족 친화적 생활환경 인식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및 거주 지역 규모에 따른 조절효과

연구자: 허청아*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18. Relations among Negative Emotionality, Supportive Parenting, and Early Social Development in Korean Infants

연구자: 차기주* (Stanfo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박사과정)

* 발표자

부록 3. 5차년도(2012) 면접조사용 질문지¹⁶⁾ID 

2012 한국아동패널 질문지

※ 본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사 날짜	2012 년 ____ 월 ____ 일		
아동 이름	_____	아동 이름 변동 사유	OO(이)의 이름이 이전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개명함 ② 지난조사에서 잘못 입력함 ③ 기타 _____
아동 출생순위 (해당아동 포함)	____ 남 ____ 녀 중 ____ 째	출생순위 변동 사유	① 손위형제 사망 ② 손위형제 입양 ③ 재혼으로 형제순위 변동 ④ 기타 _____
응답자 변경여부	① 지난 조사와 동일함 ② 지난 조사와 동일하지 않음		
응답자 이름	_____	응답자 이름 변동 사유	응답자의 이름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개명함 ② 지난조사에서 잘못 입력함 ③ 기타 _____
아동과의 관계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OO(이)의 형제·자매 ④ OO(이)의 조부모 ⑤ 기타 친인척		
응답자 성별	① 남 ② 여		
응답자 연락처	집 전화: _____ 어머니 휴대폰: _____ 아버지 휴대폰: _____		
현주소	_____ 시·도 _____ 군·구 _____ 동·읍·면 _____		
주소 변경사유	① 기존 정보 오류 ② 이사 ③ 분가 ④ 합가 ⑤ 도로명 주소 입력 ⑥ 기타 _____		
현주소 이사 날짜	_____ 년 ____ 월		



방문 횟수	면접 일시	면접 결과
1	2012년 ____월 ____일 : ____시 ____분 ~ ____시 ____분	① 완료 ② 미완료 ③ 기타 _____
2	2012년 ____월 ____일 : ____시 ____분 ~ ____시 ____분	① 완료 ② 미완료 ③ 기타 _____
면접원 성명	면접원 전화번호	

16) 면접조사용 질문지는 본 부록에 수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CAPI 화면에 문항별 로직을 구현하여 실시됨.

다음은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다음은 OO(이)의 어머니에 대한 질문입니다.

※ '어머니' 개인정보 응답 후, 다음 문항에서 '아버지' 개인정보에 대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1-1-1. OO(이) 어머니의 결혼상태	① 미혼 ④ 동거 (사실혼 포함) ⑦ 별거	② 유배우-초혼 ⑤ 사별	③ 유배우-재혼 ⑥ 이혼
1-1-2. 어머니의 현재 결혼상태 시작일	_____년 _____월		
1-1-3. 어머니의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1-1-4. 어머니의 최종학력	① 무학 ③ 중학교 졸업 ⑤ 전문대 졸업(3년제 이하 기능대학) ⑦ 대학원 졸업	② 초등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⑥ 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 ⑨ 해당없음	
1-1-5. 어머니의 1, 2급 장애유무	① 예(장애 있음) ② 아니오(장애 없음) ③ 해당없음		
1-1-6. 어머니의 희귀난치성 유전병	① 예(유전병 있음) ② 아니오(유전병 없음) ③ 해당없음		
1-1-7. 어머니와 OO(이)와의 동거 여부	① OO(이)와 함께 살고 있음 ② OO(이)와 떨어져 살고 있음 ③ 해당없음	⇨ 1-2-1번 문항으로 ⇨ 1-1-8번 문항으로 ⇨ 1-2-1번 문항으로	
1-1-8. 어머니와 OO(이)와의 비동거 이유	① 타지역 (해외)에 근무 중 (학업포함) ③ 장기입원, 요양 중	② 군복무 ④ 기타 _____	
1-1-9. 비동거 시 OO(이)를 만나는 일수	월 평균 _____ 일		

1-2. 다음은 OO(이)의 아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2-1. OO(이) 아버지의 결혼상태	① 미혼 ④ 동거 (사실혼 포함) ⑦ 별거	② 유배우-초혼 ⑤ 사별	③ 유배우-재혼 ⑥ 이혼
1-2-2. 아버지의 현재 결혼상태 시작일	_____년 _____월		
1-2-3. 아버지의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1-2-4. 아버지의 최종학력	① 무학 ③ 중학교 졸업 ⑤ 전문대 졸업(3년제 이하 기능대학) ⑦ 대학원 졸업	② 초등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⑥ 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 ⑨ 해당없음	
1-2-5. 아버지의 1, 2급 장애유무	① 예(장애 있음) ② 아니오(장애 없음) ③ 해당없음		
1-2-6. 아버지의 희귀난치성 유전병	① 예(유전병 있음) ② 아니오(유전병 없음) ③ 해당없음		
1-2-7. 아버지와 OO(이)와의 동거 여부	① OO(이)와 함께 살고 있음 ② OO(이)와 떨어져 살고 있음 ③ 해당없음	⇨ 2번 문항으로 ⇨ 1-2-8번 문항으로 ⇨ 2번 문항으로	
1-2-8. 아버지와 OO(이)와의 비동거 이유	① 타지역 (해외)에 근무 중 (학업포함) ③ 장기입원, 요양 중	② 군복무 ④ 기타 _____	
1-2-9. 비동거 시 OO(이)를 만나는 일수	월 평균 _____ 일		

다음은 귀하의 취업/학업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2. 현재 귀하의 취업/학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두 가지 보기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직장과 학교 병행)는 **지난 조사 이후**로 주로 한 것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잠시 휴직 중인 경우**도 취업 중에 해당됩니다.
 ※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또는 가족/친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일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중**에 해당됩니다. 단,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의 경우 시간제약은 없으나 취업 중에 해당합니다.

- ① 취업 중 (휴직 중 포함) ⇒ 3번 문항으로
- ② 학업 중 (휴학 중 포함) ⇒ 18번 문항으로
- ③ 미취업/미학업 ⇒ 4번 문항으로

3.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5번 문항으로

※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잠시 휴직 중인 경우**도 취업 중에 해당됩니다.

- ① 경제적으로 보다 여유롭게 살기 위해
- ② 생계를 위해
- ③ 가족이나 지인이 원해서
- ④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사부담, 고부갈등, 양육 등의 이유로)
- ⑤ 자신의 발전과 자아실현을 위해
- ⑥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 ⑦ 양육비, 보육비를 벌기 위해
- ⑧ 돈을 모아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 (여유 자금)
- ⑨ 기타 _____

4.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5번 문항으로

- ①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 ② 남편, 가족이 원하지 않아서
- ③ 일할 능력이 없어서
- ④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 ⑤ 가정이 더 중요해서
- ⑥ 정부의 복지혜택(국가지원)을 받기 위해
- ⑦ 자녀를 돌보기 위해
- ⑧ 기타 _____

다음은 현재 취업/휴직 중인 어머니만 답하여 주십시오.

5. 현재 귀하의 취업관련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아래 왼쪽의 보기 ①~②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해당하는 오른쪽 추가 문항에 답해 주십시오.

① 휴직중	다	6. 귀하의 언제부터 휴직하셨습니다? _____년 _____월부터 ⇒ 10번 문항으로
② 재직중	다	7. 귀하의 평소 일주일에 평균 몇 일, 몇 시간을 근무하십니까? 출퇴근 소요시간은 제외 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단, 업무시간에는 업무성 회식 등의 시간이 포함되며, 직장이 2군데 이상일 경우, 총 합산 시간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점심시간 포함
7-1. 근무 일수 : 주중(월~금) 5일 평균 _____ 일, 주말(토, 일) 2일 평균 _____ 일		
7-2. 근무 시간 : 주중(월~금) 1일 평균 _____ 시간, 주말(토, 일) 1일 평균 _____ 시간		
8. 주중 40시간미만 근로를 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① 아이를 돌보기 위해 <li style="width: 50%;">② 가사일 때문에 <li style="width: 50%;">③ 다른 일과 병행하기 위해 (파트타임, 학업 등) <li style="width: 50%;">④ 전일제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li style="width: 50%;">⑤ 건강상의 이유로 <li style="width: 50%;">⑥ 유학, 시험, 개인사업 등을 준비하기 위해 <li style="width: 50%;">⑦ 하루 중일 직장애 매여 있는 것이 싫어서 <li style="width: 50%;">⑧ 일을 적당 시간하고 싶어서 <li style="width: 50%;">⑨ 일이 적어서 <li style="width: 50%;">⑩ 기타 _____ 		

9. 귀하는 평소 출퇴근하는데 **하루에 평균 왕복 몇 분**이 걸리십니까? 30분 단위로 응답해주시시오.
출퇴근 시간 : 주중(월~금) 1일 평균 왕복 _____시간, 주말(토, 일) 1일 평균 왕복 _____시간

10. 귀하의 현재 직업은 지난 조사와 비교하여 볼 때 직장 또는 직위의 변동이 있습니까?

직장이 2군데 이상일 경우, 주 직장을 중심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① 아니오(변동 없음) ⇒ 11번 문항으로
- ② 직장이 바뀜 ⇒ 10-1번 문항으로
- ③ 직장은 그대로이나, 직위가 바뀜(전근, 부서 변경 포함) ⇒ 10-5번 문항으로
- ④ 지난 조사시, 미취업/미학업 이었음 ⇒ 10-2번 문항으로

10-1. 직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고용상태 등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 ②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 ③ 장래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 ④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 ⑤ 임금 또는 수입이 많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 ⑥ 출산 및 육아에 장애가 없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 ⑦ 근무환경 등 사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 ⑧ 업무평가 및 승진이 공정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
- ⑨ 나의 생활터전과 가까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 ⑩ 기타 _____

10-2. 귀하가 현재 일하시는 직장(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속되어 있는 지점이나 공장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일반 회사인 경우 회사명과 지점명까지, 교사인 경우 초등/중등/고등학교까지, 공무원인 경우 중앙부처/시군구 명/읍면동사무소까지
 (예: ○○전자 ○○공장, ○○초등학교 혹은 서울시청), 뚜렷한 직장명이 없는 경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기입

직장(사업체)명: _____

10-3. 위 직장(사업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직장명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없는 중소기업체인 경우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 표기 요망
 ※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 장소를 기입

직장의 사업 내용(업종): _____

10-4. 위 직장(사업체)에서 귀하가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 사무직인 경우 행정직/전산직/기술직, 음식점인 경우 조리/서빙 등, 교사인 경우 영어/수학 등 과목명 기입
 ※ 가급적 자세히 기입(ex. 택시운전, 건설용 트럭 운전, 한식조리, 양식조리 등)

주로 하는 일: _____

10-5. 위 직장(사업체)에서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프리랜서, 공무원의 경우 급수, 회사원인 경우 평사원/대리/과장/부장 등의 직위, 음식점인 경우 사장/매니저/일반직원 등

직장(사업체) 내 직위: _____

11. 귀하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 ① 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②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 ③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
- ④ 종업원을 둔 고용주
- 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⑥ 무급가족종사자(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에 정규적인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

12. 현직장(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 ① 1~4명
- ② 5~9명
- ③ 10~29명
- ④ 30~49명
- ⑤ 50~99명
- ⑥ 100~299명
- ⑦ 300~499명
- ⑧ 500~999명
- ⑨ 1,000명 이상

13. 현직장(사업체)에서 귀하의 근로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만원단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이자소득세 등을 비롯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한 **세전금액**으로 말씀해주시시오.

월평균 _____ 만 원

14. 다음의 직장에서 시행 가능한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 중에서 귀하의 현재 직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20번 문항으로

- ① 여성의 출산휴가
- ② 여성의 육아휴직
- ③ 남성의 출산휴가
- ④ 남성의 육아휴직
- ⑤ 직장 어린이집
- ⑥ 보육비 지원(직장지원)
- ⑦ 수유실 설치
- ⑧ 유급수유시간
- ⑨ 시차출근제(탄력근무)
- ⑩ 대체인력풀 운영
- ⑪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⑫ 해당없음

※ **여성의 출산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는 것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임신부의 보호)

※ **남성의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남성에게 5일의 휴가를 주는 것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의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휴직**: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것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육아휴직)

※ **유급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자 근로자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근무 중 수유시간을 부여하는 것

※ **시차출근제**: 근로자가 사정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 탄력근무라고도 함 (근로기준법 제 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 **대체인력풀 운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기관이 운영하는 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신 최대 1년 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2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의 총 사용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음

다음은 현재 미취업 또는 미학업 중인 어머니만 답하여 주십시오.

15. 귀하는 언제 일 또는 학업을 그만두셨습니까? (가장 최근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____년 ____월

16. 일 또는 학업을 그만 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 ① 직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불이익 때문에 ②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 ③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하지 않아서
- ④ 직장/학교생활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 ⑤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⑥ 가족이 원해서
- ⑦ 다른 일자리나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⑧ 건강상의 이유로
- ⑨ 일 또는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서 ⑩ ○○(이)의 동생 임신 또는 출산으로
- ⑪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⑫ 학교를 졸업해서
- ⑬ 직장사정으로(폐업, 파산, 휴업, 감원 등) ⑭ 기타 _____

17. 앞으로의 취업 또는 취학 관련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 ① 계획이 전혀 없음 ⇒ 20번 문항으로
- ② 6개월 이내 취업 또는 취학할 계획임
- ③ 6개월~1년 이내에 취업 또는 취학할 계획임
- ④ 1년~2년 이내에 취업 또는 취학할 계획임
- ⑤ 2년~3년 이내에 취업 또는 취학할 계획임 ⇒ 18번 문항으로
- ⑥ 3년 이후
- ⑦ ○○의 동생 출산 후
- ⑧ 기타 _____

다음은 어머니의 구직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18. 귀하는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①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 ⇒ 19번 문항으로
- ②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 ⇒ 20번 문항으로

19.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시간제 근로 ⇒ 19-1. 시간제근로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아이를 돌보기 위해
 ② 가사일 때문에
 ③ 다른 일(직장, 학업)과 병행하기 위해
 ④ 전일제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⑤ 건강상의 이유로
 ⑥ 유학, 시험, 개인사업 등을 준비하기 위해
 ⑦ 하루 종일 직장에 매여 있는 것이 싫어서
 ⑧ 기타 _____

② 전일제 근로

다음은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의 활동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 귀하는 하루에 다음의 활동을 보통 얼마동안 하는지 주중, 주말로 나누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30분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 시간 환산 예

시간	활동안함	30분	1시간	1시간30분	2시간	2시간30분	3시간	3시간30분	4시간	4시간30분	5시간	5시간30분
응답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시간	6시간	6시간30분	7시간	7시간30분	8시간	8시간30분	9시간	9시간30분	10시간	10시간30분	11시간	11시간30분
응답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5	11.0	11.5

활동 내용	주중 1일 활동 시간	휴무일 활동 시간
1) 근로시간	___시간	___시간
2) 출퇴근 시간	___시간	___시간
3) 수면시간(낮잠은 포함 안 됨)	___시간	___시간
4) 가사노동 시간(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빨래, 은행가기 등)	___시간	___시간
5) 자녀와의 놀이 및 학습시간	___시간	___시간
6) 자녀를 돌보는 시간(씻기, 옷 입히기 등 포함)	___시간	___시간
7)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학업, 인터넷, 취미, 사교, 종교, 낮잠, 시댁 방문 등 포함)	___시간	___시간
8) 기본생활(식사, 씻기, 출근준비 등)	___시간	___시간
9) 기타 시간	___시간	___시간

21. 귀하의 배우자는 자녀를 돌보는데 하루에 평균 몇 시간을 할애하십니까? **30분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 시간 환산 예

시간	활동안함	30분	1시간	1시간30분	2시간	2시간30분	3시간	3시간30분	4시간	4시간30분	5시간	5시간30분
응답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시간	6시간	6시간30분	7시간	7시간30분	8시간	8시간30분	9시간	9시간30분	10시간	10시간30분	11시간	11시간30분
응답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5	11.0	11.5

- ※ 자녀를 돌보는 시간: 1) 밥, 간식 먹이기, 목욕시키기, 상호작용 놀이 시간 등 자녀 양육과 관련된 일과 시간
 2) 짐보리 등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시간
 ※ 포함되지 않는 시간: 1) 가족식사준비, 빨래, 청소와 같은 가사노동 시간
 2) 아이가 유아교육기관에 머무는 시간

배우자의 자녀 양육 시간 : 주중(월~금요일) 1일 평균 ___시간, 휴무일 평균 ___시간

다음은 조사 대상 아동(이하 OO)의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22. OO(이)는 평상시 밤에 몇 시에 잠들어 아침 몇 시에 일어나니까? **30분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오전 00시 00분~11:30분 / 오후 12시 00분~23시30분
 예1) 아동이 오후 9시에 잠들어 오전 7시에 일어나는 경우 : 21시 00분 ~ 7시 00분으로 표시
 예2) 아동이 새벽 3시에 잠들어 낮 1시 30분에 일어나는 경우 : 3시 00분 ~ 13시 30분으로 표시

___시 ___분 ~ ___시 ___분

26. ○○(이)는 **최근 1년 간**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무응답 시, Go Q27

① 있다 ⇨

26-1. 입원한 적이 있다면 몇 번입니까?	1년 간 _____ 번
26-2. 1년 중 며칠 동안 입원했습니까? 입원횟수가 2회 이상이면 총 입원일 수를 말씀해주시시오. ※ 1개월 = 30일 1년 간 _____ 개월 _____ 일	
26-3. 입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폐렴	② 골절
③ 장염	④ 수술 (수술명 : _____)
⑤ 기타 _____	

② 없다

27. ○○(이)는 **최근 한 달 간** 입원을 하지 않고 병원(치과 포함)이나 보건소,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경험이 없을 경우, '0'번 입력

한 달 간 _____ 번

28. ○○(이)는 장애아로 판정받았습니까? 판정받으신 경우, 해당 유형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중복장애의 경우는 판정 받은 모든 장애에 대해 기입하여 주십시오.** (중복응답 가능)

※ 장애아는 장애 급수를 판정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8-1. 장애명	28-2. 판정받은 급수
① 지체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② 뇌병변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③ 시각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④ 청각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⑤ 언어장애	③ 3급 ④ 4급
⑥ 안면장애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⑦ 신장장애	② 2급 ⑤ 5급
⑧ 심장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⑤ 5급
⑨ 간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⑤ 5급
⑩ 호흡기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⑤ 5급
⑪ 장루, 요루장애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⑫ 간질장애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⑬ 지적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⑭ 정신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⑮ 자폐성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⑯ 없음	⇒ 29번 문항으로

29. ○○(이)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각 질환을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입니까? **해당 질환이 3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에 한해** 응답해 주십시오.

질 환 명	29-1. 의사진단여부		29-2. 진단 시기
1) 선천성 심장질환	① 진단받음	② 해당없음	____년 ____월
2) 간질	① 진단받음	② 해당없음	____년 ____월
3) 당뇨	① 진단받음	② 해당없음	____년 ____월
4) 천식	① 진단받음	② 해당없음	____년 ____월
5)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	① 진단받음	② 해당없음	____년 ____월
6) 아토피 피부염	① 진단받음	② 해당없음	____년 ____월
7)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① 진단받음	② 해당없음	____년 ____월
8) 만성 중이염	① 진단받음	② 해당없음	____년 ____월
9) 만성 요로감염	① 진단받음	② 해당없음	____년 ____월

다음은 ○○(이)를 돌보시는 분 또는 ○○(이)를 맡기는 기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30. **지난 1년 간** ○○(이)가 **낮 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동안** 이용한 육아지원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개인대리양육자: 주중의 낮 시간 동안 부모보다 아이를 가장 많은 시간 돌보는 분 (조부모, 기타 친인척, 유급·무급 도우미 등)
 ※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기관은 최소 3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응답해주시시오.
 ※ 영어유치원은 정식 유치원이 아니므로, 학원으로 분류됩니다.

월	2011년	2012년
1월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 이상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⑤ 기타(선교원 등) ⑥ 미이용
2월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 이상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⑤ 기타(선교원 등) ⑥ 미이용
3월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 이상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⑤ 기타(선교원 등) ⑥ 미이용
4월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 이상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⑤ 기타(선교원 등) ⑥ 미이용
5월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 이상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⑤ 기타(선교원 등) ⑥ 미이용
6월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 이상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⑤ 기타(선교원 등) ⑥ 미이용
7월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 이상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⑤ 기타(선교원 등) ⑥ 미이용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 이상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⑤ 기타(선교원 등) ⑥ 미이용
8월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 이상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⑤ 기타(선교원 등) ⑥ 미이용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 이상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⑤ 기타(선교원 등) ⑥ 미이용
9월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 이상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⑤ 기타(선교원 등) ⑥ 미이용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 이상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⑤ 기타(선교원 등) ⑥ 미이용

월	2011년	2012년
10월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 이상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⑤ 기타(선교원 등) ⑥ 미이용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 이상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⑤ 기타(선교원 등) ⑥ 미이용
11월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 이상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⑤ 기타(선교원 등) ⑥ 미이용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 이상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⑤ 기타(선교원 등) ⑥ 미이용
12월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 이상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⑤ 기타(선교원 등) ⑥ 미이용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 이상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⑤ 기타(선교원 등) ⑥ 미이용

31-1.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32번 문항으로

- ① 아이가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
- ② 기관이용에 비해서 비용이 적어서
- ③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어서
- ④ 개인대리양육이 더 믿음이 가고 안심이 되어서
- ⑤ 주변에 보낼만한 기관이 없어서
- ⑥ 기관에 대기자가 많아서
- ⑦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 ⑧ 기타 _____

31-2.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원 등 기관에 ○○(이)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32번 문항으로

- ① 또래와 어울릴 수 있어서
- ② 교육과 발달에 도움이 되어서
- ③ 남들이 보내니까
- ④ 아이가 원해서
- ⑤ 보육료,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 ⑥ 집에서 돌보기 힘들어서 (동생 양육, 가사 등)
- ⑦ 집에서 가까워서
- ⑧ 기타 _____

31-3. 부모님이 ○○(이)를 직접 돌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32번 문항으로

- ① 기관에 보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② 아이가 어려서
- ③ 주변에 마음에 드는 개인대리양육자 혹은 육아지원기관이 없어서
- ④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⑤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 ⑥ 아이가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 ⑦ 아이가 다른 개인대리양육자나 혹은 육아지원기관에 적응하지 못해서
- ⑧ 기관에 대기자가 많아서
- ⑨ 기타 _____

31-4. 육아지원기관과 개인대리양육자를 함께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32번 문항으로

- ① 아이가 어려서 장시간 동안 한 기관에 있기 힘들까봐
- ② 개인 대리양육자의 장시간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 ③ 기관 이용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 ④ 다양한 경험을 위하여
- ⑤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 ⑥ 특기교육을 위하여
- ⑦ 아이가 원해서
- ⑧ 기타 _____

32. ○○(이)는 지난 1년 간 몇 명의 대리양육자 혹은 몇 개의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였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개인대리양육자 _____명

② 육아지원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학원, 기타선교원 등)



32-1. 육아지원기관 (중복응답 가능)

- ① 어린이집 _____개 기관
- ② 유치원 _____개 기관
- ③ 반일제 이상학원 (놀이학교, 영어유치원 등) _____개 기관
- ④ 기타 (선교원 등) _____개 기관

다음은 ○○(이)의 개인대리양육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33. 지난조사와 비교하여 개인대리양육자가 동일합니까?

- ① 예 ⇒ 36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 ⇒ 33-1번 문항으로
- ③ 대리양육자 처음으로 이용함 ⇒ 34번 문항으로

33-1. 대리양육자를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양육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 ② 아이가 싫어해서
- ③ 양육비가 안 맞아서
- ④ 대리양육자의 사정으로
- ⑤ 조부모, 친인척 등이 돌봐주는 게 가능해져서
- ⑥ 아이의 발달을 고려해서
- ⑦ 이사를 하게 되어서
- ⑧ 기타 _____

34. 부모를 대신하여 낮 시간 동안 ○○(이)를 주로 돌보는 분은 누구입니까?

- ① 친할머니
- ② 친할아버지
- ③ 외할머니
- ④ 외할아버지
- ⑤ 기타 친인척 (아동과의 관계: _____)
- ⑥ 베이비시터, 이웃탁아모, 보모 등 아이를 전담해서 돌보는 비혈연 도우미
- ⑦ 파출부 등 가사와 육아를 함께 담당하는 도우미
- ⑧ 기타 _____

35. 이분에게 ○○(이)를 맡기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_____ 년 _____ 월

36. 현재 이분은 ○○(이)를 일주일에 보통 며칠 동안 돌봐줍니까?

- 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 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 ③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 ④ 일주일에 며칠만 (_____일)

37. 이분은 어디에 사십니까?

- ① 함께 살고 있음
- ② 아이만 이분 집에서 살고 있음 ⇒ 39번 문항으로
- ③ 우리 집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음
- ④ 아이를 이분 집에 낮 시간동안 맡기고 있음
- ⑤ 기타 _____

38. 평상시 이분은 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를 돌보십니까? 함께 살면서 대리양육자가 전적으로 양육하는 경우 **저녁에 00(이)가 잠들기 전까지의 시간을 30분 단위로** 응답해주시시오.

※ 오전 00시 00분~11:30분 / 오후 12시 00분~23시30분
 예1) 아동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봐주는 경우 : 9시 00분 ~ 19시 00분으로 표시
 예2) 아동을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돌봐주는 경우 : 17시 00분 ~ 2시 00분으로 표시
 ※ 시간을 나누어 아이를 돌봐줄 경우, 가장 긴 시간을 기준으로 적어주세요.

_____ 시 _____ 분 ~ _____ 시 _____ 분

39. 이분에게 ○○(이)를 돌보는데 비용을 지불하십니까?
- ① 지불 안함 → 40번 문항으로 ② 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 39-1번 문항으로
- ③ 비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 39-1번 문항으로 ④ 현물로 지불 → 39-2번 문항으로
- ⑤ 숙식만 제공 → 40번 문항으로 ⑥ 기타 _____ → 40번 문항으로
- 39-1. 이분에게 ○○(이)를 돌보는데 지불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만원단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이 양육과 관계없이 대리양육가가 귀댁으로부터 받는 생활비 또는 용돈은 제외하여 답해 주십시오. 비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경우 현 대리양육자가 아이를 돌보기 시작한 이후 지불한 **금액의 월평균**으로 답해 주십시오.
- 월평균 _____ 만원 → 39-3번 문항으로
- 39-2. 이분에게 ○○(이)를 돌보는데 대한 비용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금액의 월평균**을 내 주십시오. 만원단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월평균 _____ 만원 → 39-3번 문항으로
- 39-3. 귀 댁의 생활수준에 비추어볼 때 현재 ○○(이)의 개인대리양육에 드는 총 비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물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 부담되지 않는 편임 ③ 적당함 ④ 부담되는 편임 ⑤ 매우 부담됨
40. 지금 ○○(이)를 돌보는 대리양육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비교적 불만족 ③ 보통 ④ 비교적 만족 ⑤ 매우 만족
41. 지금 ○○(이)를 돌보는 대리양육자의 특성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특성	보기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최종학력	① 무학 ⑤ 전문대졸	② 초졸	③ 중졸 ⑦ 대학원 이상	④ 고졸 ⑥ 잘 모름
3) 연령	① 19세 이하 ⑤ 50~59세	② 20~29세 ⑥ 60~69세	③ 30~39세 ⑦ 70세 이상	④ 40~49세 ⑧ 잘 모름
4) 국적	① 한국	② 중국(조선족)	③ 기타 외국인 (국가: _____)	
5) 자녀양육경험	① 있음	② 없음	③ 잘 모름	

다음은 ○○(이)가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선교원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42. 현재 다니는 기관이 지난조사 때 ○○(이)가 다닌다고 하였던 기관과 동일합니까?
- ① 예 → 43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42-1번 문항으로
- ③ 기관 처음으로 이용함 → 43번 문항으로

42-1. 기관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대기 순서가 되어서
- ② 이사로 인하여
- ③ 이전 기관에서의 적응이 어려워서
- ④ 연령에 맞는 반이 없어서
- ⑤ 교육내용 때문에 (특기교육, 영어, 자유놀이 등을 위해)
- ⑥ 기타 _____

43. ○○(이)가 **현재 주로 다니는 기관**의 이름과 주소는 무엇입니까?

※ 기관명 명확하게 작성요망

- 1) 기관명 _____
- 2) 기관연락처 _____
- 3) 기관주소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동·읍·면 상세주소 _____

43-1. ○○(이)가 **현재 주로 다니는 기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영어유치원은 정식 유치원이 아니므로, 학원으로 분류됩니다.

- ① 어린이집 → 44-1번 문항으로
- ② 유치원 → 44-2번 문항으로
- ③ 반일제 이상 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 44-3번 문항으로
- ④ 기타(선교원 등) → 45번 문항으로

44-1. ○○(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시설유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국공립 ② 법인 ③ 가정 ④ 민간 ⑤ 직장 ⑥ 부모협동

44-2. ○○(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시설유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국립 ② 공립(병설) ③ 공립(단설) ④ 사립

44-3. ○○(이)가 다니는 반일제 이상 학원의 유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영어 학원(영어유치원) ② 놀이학교
- ③ 미술 학원 ④ 태권도, 음악 등의 각종 학원
- ⑤ 기타 _____

45. **현재 다니는 이 기관에** ○○(이)를 언제부터 보내셨습니까?

_____ 년 _____ 월

46. **현재 다니는 이 기관에** ○○(이)가 일주일에 며칠 갑니까?

- 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 ③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④ 일주일에 며칠만(_____ 일)

47. OO(이)가 현재 다니는 이 기관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육환경이 마음에 들어서 ② 형이나 동생이 다녀서 ③ 친구가 다녀서
- ④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⑤ 교사가 좋아서 ⑥ 아이가 좋아해서
- ⑦ 교육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⑧ 특기교육이 마음에 들어서 ⑨ 이용시간이 적당해서
- ⑩ 집 또는 직장에서 가까워서 ⑪ 주변에 보낼만한 다른 기관이 없어서
- ⑫ 평판이 좋아서 ⑬ 기타 _____

48. OO(이)가 현재 다니는 이 기관(3일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선교원, 기타학원 포함)에서 받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용 중인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모두 응답해주시시오. (중복응답 가능)

※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기관의 정규프로그램 외에 별도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함
 ※ 통합 프로그램은 개별 교과목만 하는 것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영어 발레, 영어 요가) 예를 들어, 체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수업 초반에 노래로 주의집중을 하는 것은 음악과 체육의 통합으로 볼 수 없음

- ① 미술(그림, 공작, 서예 등) ② 음악(피아노, 바이올린 등)
- ③ 체육(발레, 수영, 태권도 등) ④ 과학
- ⑤ 수학(숫자, 산수, 주산 등) ⑥ 한글(논술, 독서, 구연동화 등)
- ⑦ 컴퓨터 ⑧ 교구 이용프로그램(가베, 은물, 몬테소리, 레고 등)
- ⑨ 한자 ⑩ 영어
- ⑪ 기타 외국어(중국어 등) ⑫ 창의성 프로그램(호기심 놀이 등 포함)
- ⑬ 통합프로그램 ⑭ 기타 _____
- ⑮ 해당없음(이용중인 특별활동 프로그램 없음) **⇒ 50번 문항으로**

49. OO(이)가 현재 다니는 이 기관에서 받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월평균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천원단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월평균 _____ 천원

50. OO(이)가 현재 다니는 이 기관에 지불하는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만원단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용비, 특기적성비, 특별활동비 등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월평균으로 응답해주시시오. **(국가지원금 및 직장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응답해주시시오.)**

월평균 _____ 만원

51. 귀 닻의 생활수준에 비추어볼 때 현재 OO(이)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드는 총 비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 크게 부담되지 않음 ③ 적당함 ④ 부담되는 편임 ⑤ 매우 부담됨

52. 지금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의 서비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비교적 불만족 ③ 보통 ④ 비교적 만족 ⑤ 매우 만족

53. OO(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 외에 양육에 있어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 현금 또는 현물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개인대리양육자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① 없음

② 있음 ⇨

53-1. 도움을 주는 분 (중복응답 가능)

① ○○(이)의 친할머니	② ○○(이)의 친할아버지
③ ○○(이)의 외할머니	④ ○○(이)의 외할아버지
⑤ ○○(이)의 손위 형제·자매	⑥ 기타 친인척 (○○(이)와의 관계 : _____)
⑦ 친구 또는 이웃	⑧ 파출부 등 가사를 주로 담당하는 가사 도우미
⑨ 기타 _____	

다음은 ○○(이)가 이용하는 기관 외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문항입니다.

54. 지난 조사 이후 ○○(이)가 주기적으로 이용한 학습지 및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있다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응답 가능) 단, 주로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영어학원, 놀이학교 등)에서 받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기관의 정규프로그램 외에 별도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함
 ※ 통합 프로그램은 개별 교과목만 하는 것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영어 발레, 영어 요가) 예를 들어, 체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수업 초반에 노래로 주의집중을 하는 것은 음악과 체육의 통합으로 볼 수 없음

① 참여프로그램 없음 ⇨ 55번 문항으로

② 참여프로그램 있음 ⇨ 54-1번 문항으로

54-1. ○○(이)가 주기적으로 이용한 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 | | |
|---------------------|---------------------------------|
| ① 미술(그림, 공작, 서예 등) | ② 음악(피아노, 바이올린 등) |
| ③ 체육(발레, 수영, 태권도 등) | ④ 과학 |
| ⑤ 수학(숫자, 산수, 주산 등) | ⑥ 국어(한글, 동화구연, 웅변 등) |
| ⑦ 컴퓨터 | ⑧ 교구 이용프로그램(가베, 은물, 몬테소리, 레고 등) |
| ⑨ 한자 | ⑩ 영어 |
| ⑪ 기타 외국어 (중국어 등) | ⑫ 창의성 프로그램 (호기심 놀이 등 포함) |
| ⑬ 통합프로그램 | ⑭ 기타 _____ |

54-2. 이용한 모든 특기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횟수는 일주일에 총 몇 번입니까?

주당 총 _____ 회

54-3. 이용한 모든 특기활동 프로그램의 참여 시간은 일주일에 총 몇 시간입니까?

주당 총 _____ 시간

※ 시간 환산 예

시간	활동안함	30분	1시간	1시간30분	2시간	2시간30분	3시간	3시간30분	4시간	4시간30분	5시간	5시간30분
응답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시간	6시간	6시간30분	7시간	7시간30분	8시간	8시간30분	9시간	9시간30분	10시간	10시간30분	11시간	11시간30분
응답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5	11.0	11.5

54-4. 이용한 모든 특기활동 프로그램의 총 비용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천원단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평균 총 _____ 천원

54-5. 특기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시작한 최초 시기는 언제입니까? _____ 년 _____ 월

**다음은 귀 닥의 경제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응답하시기 어려운 경우는 다른 식구의 도움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55. 지난 1년 간 귀 닥의 월평균 가구지출액은 얼마입니까? **만원단위로** 응답해주시시오.

종 류	소 득
55-1. 귀 닥의 소비성 지출 (식비, 주거비, 보육교육비, 양육비, 의료비, 현물 구입비, 기타 잡비 등)	월평균 _____ 만원
55-2. 귀 닥의 비소비성 지출 (각종 세금, 적금, 4대 보험, 기타 보장성 보험, 타 가구를 위한 생활비 등)	월평균 _____ 만원

55-1-1. 귀 닥의 모든 자녀를 위한 소비성 지출(개인대리양육,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
월 평균 총 _____ 만원

55-1-2. 00(이)를 위한 소비성 지출 월 평균 _____ 만원

55-2-1. 귀 닥의 모든 자녀를 위한 비소비성 지출 (자녀를 위한 보험금, 적금 등)
월 평균 _____ 만원

55-2-2. 00(이)를 위한 비소비성 지출 (외동인 경우 앞 문항과 동일) 월 평균 _____ 만원

56-1. 귀 닥의 지난 1년 동안의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 소득 (본인, 배우자, 동거 자녀, 기타 가족의 세전 소득)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만원단위로** 응답해주시시오.

월 평균 _____ 만원 ➔ 무응답인 경우 56-1-1번, 응답한 경우 56-2번 문항으로

56-1-1. 그럼 귀 닥의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 ① 0원
- ② 1~100만원 이하
- ③ 101~200만원
- ④ 201~300만원
- ⑤ 301~400만원
- ⑥ 401~500만원
- ⑦ 501~600만원
- ⑧ 601~700만원
- ⑨ 701~800만원
- ⑩ 801~900만원
- ⑪ 901~1000만원
- ⑫ 1000만원 이상

56-1-3. 현직장(사업체)에서 귀하의 근로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만원단위로** 응답해주시시오.

※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이자소득세 등을 비롯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한 세전금액으로 말씀해주시시오.

월평균 _____ 만원 ➔ 56-2문항으로

56-2. 귀 닥의 지난 1년 동안의 재산 및 금융에 대한 소득(이자, 배당금, 집세,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만원단위로** 응답해주시시오.

월 평균 _____ 만원 ➔ 무응답인 경우 56-2-1번, 응답한 경우 56-3번 문항으로

56-2-1. 그럼 귀 닥의 재산 및 금융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 ① 0원
- ② 1~100만원 이하
- ③ 101~200만원
- ④ 201~300만원
- ⑤ 301~400만원
- ⑥ 401~500만원
- ⑦ 501~600만원
- ⑧ 601~700만원
- ⑨ 701~800만원
- ⑩ 801~900만원
- ⑪ 901~1000만원
- ⑫ 1000만원 이상

56-3. 귀 닥의 지난 1년 동안의 **공적 소득**(고용보험, 국민연금, 공공부조 등)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만원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 현물은 해당되지 않음

월 평균 _____ 만원

⇒ 무응답인 경우 56-3-1번, 응답한 경우 56-4번 문항으로

56-3-1. 그럼 귀 닥의 **공적 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 ① 0원 ② 1~100만원 이하 ③ 101~200만원 ④ 201~300만원
- ⑤ 301~400만원 ⑥ 401~500만원 ⑦ 501~600만원 ⑧ 601~700만원
- ⑨ 701~800만원 ⑩ 801~900만원 ⑪ 901~1000만원 ⑫ 1000만원 이상

56-4. 귀 닥의 지난 1년 동안의 **사적 이전소득**(부모, 친척으로부터의 보조, 민간단체 지원금 장학금 등)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만원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월 평균 _____ 만원

⇒ 무응답인 경우 56-4-1번, 응답한 경우 57-1번 문항으로

56-4-1. 그럼 귀 닥의 **사적 이전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 ① 0원 ② 1~100만원 이하 ③ 101~200만원 ④ 201~300만원
- ⑤ 301~400만원 ⑥ 401~500만원 ⑦ 501~600만원 ⑧ 601~700만원
- ⑨ 701~800만원 ⑩ 801~900만원 ⑪ 901~1000만원 ⑫ 1000만원 이상

57-1. 귀 닥의 **소유 부동산**(주택, 건물, 임야, 토지 등)은 얼마입니까? **만원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시가 _____ 만원

⇒ 무응답인 경우 57-1-1번, 응답한 경우 57-2번 문항으로

57-1-1. 그럼 귀 닥에서 **소유하신 부동산의 총액**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 ① 0원 ② 1000만원 이하 ③ 1001~3000만원 ④ 3001~5000만
- ⑤ 5001~7000만원 ⑥ 7001만원~1억 ⑦ 1억 1만원~2억 ⑧ 2억 1만원~3억
- ⑨ 3억 1만원~5억 ⑩ 5억 1만원~10억 ⑪ 10억 이상

57-2. 귀 닥의 **금융자산**(예금, 보험, 주식, 채권, 타지 않은 계, 빌려준 돈, 전월세 임대료 등)은 얼마입니까? **만원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총 _____ 만원

⇒ 무응답인 경우 57-2-1번, 응답한 경우 57-3번 문항으로

57-2-1. 그럼 귀 닥에서 소유하신 **금융자산**의 총액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 ① 0원 ② 1000만원 이하 ③ 1001~3000만원 ④ 3001~5000만
- ⑤ 5001~7000만원 ⑥ 7001만원~1억 ⑦ 1억 1만원~2억 ⑧ 2억 1만원~3억
- ⑨ 3억 1만원~5억 ⑩ 5억 1만원~10억 ⑪ 10억 이상

57-3. 귀 닥은 부채가 있습니까? 있다면 갚아야 할 **부채**(전월세 보증금, 임대보증금 포함)는 얼마입니까? **만원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총 _____ 만원

57-4. 귀 닥은 부채가 있습니까? 있다면 갚아야 할 **월 상환금**(원금 또는 이자)는 얼마입니까?

만원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총 _____ 만원

58. 현재 귀 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해당 없음

다음은 정부의 육아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59. 귀 닥은 지난 1년 간 국가로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비용 지원 및 ○○(이)의 양육에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원 종류	59-1. 지난 12개월간 수혜 경험	59-2. 지원받는 유형	59-3. 만족도					59-4. 국가 지원에 불만족 이유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① 있음 ② 없음	① 전액지원 ② 일부지원 ③ 해당없음	①	②	③	④	⑤	
2) 장애아 보육교육비 지원	① 있음 ② 없음	① 전액지원 ② 일부지원 ③ 해당없음	①	②	③	④	⑤	
3)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① 있음 ② 없음	① 전액지원 ② 일부지원 ③ 해당없음	①	②	③	④	⑤	
4) 아이돌보미 서비스	① 있음 ② 없음	① 전액지원 ② 일부지원 ③ 해당없음	①	②	③	④	⑤	
5)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① 있음 ② 없음	① 전액지원 ② 일부지원 ③ 해당없음	①	②	③	④	⑤	
6) 아동발달 지원서비스	① 있음 ② 없음	① 전액지원 ② 일부지원 ③ 해당없음	①	②	③	④	⑤	
7)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① 있음 ② 없음	① 전액지원 ② 일부지원 ③ 해당없음	①	②	③	④	⑤	
8) 인터넷게임중독아동 치료서비스	① 있음 ② 없음	① 전액지원 ② 일부지원 ③ 해당없음	①	②	③	④	⑤	
9)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① 있음 ② 없음		①	②	③	④	⑤	
10) 필수예방접종	① 있음 ② 없음	① 전액지원 ② 일부지원 ③ 해당없음	①	②	③	④	⑤	
11) 기타 _____	① 있음 ② 없음	① 전액지원 ② 일부지원 ③ 해당없음	①	②	③	④	⑤	
99) 해당없음 ⇒ 60번 문항으로								

※ 보육교육지원

- 1)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만 3~4세아 대상
 - － 어린이집(종일보육기준) 177,000원
 - － 국공립유치원 59,000원, 민간유치원 177,000원 / 종일반일 경우 추가, 공립유치원 50,000원, 민간유치원 70,000원
- 2) 장애아 보육교육비 지원
 - ： 취학 전 장애아동의 보육비 전액지원 (종일아간 394,000원/ 24시간 591,000원/ 방과후 장애아동 197,000원)
- 3)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 ： 소득하위 70%로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함 (지원 단가 시간당 27,000원, 지원한도액 162,000원)

※ 양육 지원

- 4) 아이돌보미 서비스
 - ： 전 가구 이용 가능하나 가구의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지원 (추가 1인당 2,500원, 심야주말은 시간당 1천원 추가)
 -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4인 219만원), 70%(307만원), 100%(439만원)
 - － 50%(정부4천원, 본인1천원), 50~70%(정부2천원, 본인3천원), 70~100%(정부1천원, 본인4천원), 100%~(본인5천원)
- 5)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 ：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에, 정부지정기관에서 독서도우미를 주1회 이상 파견 신청 후 10개월 간 월20,000원 지원 (1등급: 10개월 추가 지원, 27,000원 지원)
- 6) 아동발달 지원서비스
 - ： 발달검사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정부 10만원, 본인 12천원)에 지원, 발달검사결과 2개 이상영역에서 발달지연을 보이면 중재서비스 지원(월 정부 18만원, 본인 2만원) (발달검사-발달기초, 언어, 초기인지, 정서사회성 / 중재서비스-아동부모상담 및 언어활동, 인지 중재 등 4개월 지원)

61-8. 위에 응답한 가구원을 제외한 가구원이 있습니까?

- ① 예 _____명 ⇒ 61-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62번 문항으로

61-9. 신규 가구원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에 응답해주시시오.

61-1. OO(이)와의 관계	① OO(이)의 형/오빠·누나/언니 (형제자매 배우자 포함) ② OO(이)의 동생 ③ OO(이)의 친조부·친조모 ④ OO(이)의 외조부·외조모 ⑤ OO(이)의 친인척 ⑥ 기타 _____
61-2. 가구원 정보 확인	② 신규가구원
61-3. 가구원의 변동사유	① 출생 ② 입양 ③ 혼인 ④ 합가 ⑦ 기타 _____
61-4. 가구원의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61-5. 가구원의 연령	_____세
61-6. 가구원의 최종학력	① 무학·미취업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 졸업 ⑥ 대학원 졸업
61-7. 가구원의 소득활동여부	① 일을 하고 있음 ② 학교에 다님 (휴학생 포함) ③ 무직·전업주부임

다음은 OO(이)의 신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62. OO의 현재 몸무게는 몇 kg입니까? _____ kg

※ 준비된 체중계로 조사원이 직접 측정

63. OO의 현재 키는 몇 cm입니까? _____ cm

※ 준비된 줄자로 조사원이 직접 측정

64. 한국아동패널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OO(이)에게 있어서 중요한 환경이 되는 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해 OO(이)의 담임선생님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이의 건강한 발달과 질 높은 육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위하여, OO(이)가 이용하고 있는 기관 방문 조사를 실시하도록 동의해주시겠습니까?

- ① 예 (동의함) ⇒ 65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동의하지 않음) ⇒ 조사종료
③ 해당없음 ⇒ 조사종료

65 OO(이)의 학급 이름과 담임선생님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 1) OO(이)의 소속 학급 명 _____
2) 담임교사 성명 _____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4. 다음은 남편의 ○○(이)의 양육 참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남편은 아이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남편은 아이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남편은 아이의 식사를 도와주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남편은 아이와 함께 자주 놀아주거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 준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임신과 출산에 대하여 어머니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5. 현재 자녀 외에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계획입니까?
 ① 낳겠음(또는 임신 중) ⇨ 5-1번 문항으로 ② 낳지 않겠음 ⇨ 5-3번 문항으로
 ③ 잘 모르겠음 ⇨ 5-4번 문항으로 ④ 기타 _____ ⇨ 5-4번 문항으로

5-1. 더 낳으실 계획인 경우, 현재 자녀 외에 앞으로 몇 명을 더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재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5-2. 다음 자녀는 언제쯤 출산할 계획입니까?
 ① 1년 이내(또는 현재 임신 중) ② 1년~2년 이내
 ③ 2년~3년 이내 ④ 3년 이후
 ⑤ 미정(또는 잘 모르겠음) ⑥ 기타 _____ ⇨ 6번 문항으로

5-3. 더 낳지 않으실 계획인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6번 문항으로
 ① 자녀 양육비용 때문에(아이 관련 생필품, 육아 도우미 비용 등)
 ② 자녀 교육비용 때문에(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의 기관 이용비용, 그 외 학원 등의 사교육비용 등)
 ③ 직장/학업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서 ④ 개인시간/여가 또는 자아성취를 위하여
 ⑤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 ⑥ 나이가 많아서
 ⑦ 육체적으로 힘들어서(출산 및 양육 등)
 ⑧ 믿을 만한 양육자 또는 육아지원기관이 없어서 ⑨ 기타 _____

5-4. 국가에서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자녀를 더 낳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없음 ② 거의 없음 ③ 조금 있음 ④ 매우 많음 ⑤ 잘 모르겠음

5-5. 국가에서 미취학 아동의 양육비용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한다면, 자녀를 더 낳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있음 ⇨

5-5-1. 매월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②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③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④ 50만원 이상
- ② 없음
- ③ 잘 모르겠음

6. 다음은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계획 중인 보육·교육에 대한 정책방안입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구 분	6-1.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6-2.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3. 귀하의 자녀출산계획에 영향을 끼쳤습니까?	
	예 (들어본 적 있음)	아니오 (들어본 적 없음)	매우 불필요	대체로 불필요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예 (영향을 끼침)	아니오 (영향을 끼치지 않음)
시행중	1) 만 0-2세 양육수당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2) 만 0-2세 무상보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3) 만 5세 누리과정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시행계획	4) 만 3-4세 누리과정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 만 0-2세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양육비 지원

※ 만 0-2세 무상보육: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0-2세 아동에게 보육비 전액 지원

※ 만 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아동에게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고려한 보육·교육과정 제공

※ 만 3-4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만 3, 4세 아동에게 보육·교육과정 제공

7. 일반적으로 자녀는 몇 명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무자녀
- ② 1명 ⇨

7-1. 딸·아들 구분해서 입니까? 구분 없이 입니까?	
① 딸·아들 구분 없이	② 딸·아들 구분해서 (아들 _____ 명, 딸 _____ 명)
③ 딸·아들 구분 없이 동성으로	④ 잘 모르겠음
⑤ 기타 _____	
- ③ 2명 ⇨
- ④ 3명 ⇨
- ⑤ 4명 ⇨
- ⑥ 5명 이상 ⇨
- ⑦ 잘 모르겠음

다음은 육아정책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8. 다음은 근로 장소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입니다. 각각의 필요 정도에 대하여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구 분	매우 불필요	대체로 불필요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1) 여성의 출산휴가	①	②	③	④	⑤
2) 여성의 육아휴직	①	②	③	④	⑤
3) 남성의 출산휴가	①	②	③	④	⑤
4) 남성의 육아휴직	①	②	③	④	⑤
5) 직장 어린이집	①	②	③	④	⑤
6) 보육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7) 수유실 설치	①	②	③	④	⑤
8)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또는 유급 수유시간	①	②	③	④	⑤
9) 시차 출근제	①	②	③	④	⑤
10) 대체인력풀 운영.	①	②	③	④	⑤
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②	③	④	⑤

- ※ **여성의 출산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는 것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임신부의 보호)
- ※ **남성의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남성에게 5일의 휴가를 주는 것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의 배우자 출산휴가)
- ※ **육아휴직:**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것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 조의 육아휴직)
- ※ **유급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자 근로자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근무 중 수유시간을 부여받는 것
- ※ **시차출근제:** 근로자가 사정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 탄력근무라고도 함 (근로기준법 제 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 ※ **대체인력풀 운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기관이 운영하는 제도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신 최대 1년 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2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의 총 사용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음

8-1. 앞의 11가지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를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다음은 귀하의 음주와 흡연 습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9. 귀하는 평소에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최근 1년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 월 1회 이하 ② 월 2~4회 ③ 주 2회~3회 ④ 일주일에 4회 이상
 ⑤ 최근 1년 간 전혀 마시지 않음 ➔ 12번 문항으로

10. 술을 마시면 보통 몇 잔정도 마시는 편입니까?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합니다. 단, 캔맥주 1개(355cc)는 맥주 1.6잔과 같습니다.

- ① 1잔 또는 2잔 ② 3잔 또는 4잔 ③ 5잔 또는 6잔 ④ 7잔 또는 9잔 ⑤ 10잔 또는 그 이상

11. 한 번의 술자석에서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경우,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전혀 없음 ② 한 달에 1번 미만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1주일에 1번 정도 ⑤ 거의 매일

12. 귀하는 평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 ① 피움 ② 피우지 않음

다음은 귀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3. 다음은 ○○(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항별로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6)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1)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음은 ○○(이)에 대한 귀하의 양육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와 이야기해주고 놀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족규칙을 아이와 함께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가 성취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아이가 어려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아이가 잘못 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지켜야 할 규칙, 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가정교육을 위해 아이의 행동을 제한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아이가 짜증내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다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나타내는 견해를 진술한 것입니다. 귀하는 둘 중 어디에 더 동의하십니까?

- ①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 ②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16. 다음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을 5가지만 골라 주십시오.(우선순위 없이 선택)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 ① 예의바른 생활습관
- ② 독립심
- ③ 근면함
- ④ 책임감
- ⑤ 상상력
- ⑥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 ⑦ 검소함, 저축하고 절약하기
- ⑧ 결단력과 끈기
- ⑨ 종교적 신념
- ⑩ 이타심
- ⑪ 어른 말씀 잘 듣기

다음은 귀하의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17. 아래의 사건들 중 귀하를 포함한 귀하의 가족이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경우 해당하는 칸에 모두 √표해주시시오.

지난 1년 간 _____	경험함
1) 경기가 좋지 않아 수입에 영향을 받았다.	
2) 병원비 (임신·출산관련 비용 포함)나 치과비 등의 지출로 가계에 부담이 되었다.	
3) 의·식·주에 드는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되었다.	
4) 자녀에게 드는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되었다.	
5) 자동차 또는 인테리어 개조 등 값비싼 물품 구입 등으로 목돈을 지출하였다.	
6)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	
7) 빚을 지거나 대출을 받았다.	
8) 가족 중 직장을 옮긴 사람이 있다.	
9) 가족 중 일을 그만 두거나 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다.	
10) 가족 중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다.	
11) 가족 중 일 (주부로서의 일 포함)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 사람이 있다.	
12) 가족 중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낀 사람이 있다.	
13) 나 또는 배우자가 해외나 지방(다른 지역)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14)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였다.	
15) 가족 중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책임이 커진 사람이 있었다.	
16) 자녀의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17) 자녀가 고3이나 재수생이 되었다.	

18. 아래의 사건들 중 귀하를 포함한 귀하의 가족이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경우 해당하는 칸에 모두 √ 표해주십시오.

지난 1년 간	경험함
1) 내 자신, 부모 또는 배우자가 심하게 아프거나 다쳤다	
2) 자녀가 심하게 아프거나 다쳤다.	
3)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심하게 아프거나 다쳤다.	
4) 신체장애가 있거나 오랫동안 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것이 힘들어졌다.	
5) 시부모나 친정 부모를 직접 돌보거나 금전적으로 도와야 할 책임이 커졌다.	
6) 배우자가 사망했다.	
7) 자녀가 사망했다.	
8) 친정부모, 시부모, 가까운 친척, 친구 중 사망한 사람이 있었다.	
9) 가족 중 법을 어겨 조사를 받거나 체포를 당한 사람이 있었다.	
10) 가정폭력이 있었다.	
11) 가족 중 가출한 사람이 있었다.	
12) 식구 중,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을 당한 사람이 있었다.	

다음은 귀하 자신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19.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가진 문제들 중 몇몇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살면서 때때로 뭔가에 휘둘리는 느낌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통제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삶의 문제들을 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자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13)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4)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귀하는 지난 30일 동안 다음의 느낌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 해주십시오.

얼마나 자주	전혀 안느낌	별로 안느낌	종종 느낌	대체로 느낌	항상 느낌
1)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지난 30일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조사 대상 아이 (이하 ○○)에 대한 질문입니다.

21. 다음은 ○○(이)의 특성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아이는 수줍음을 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아이는 잘 운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아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아이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아이는 혼자 놀기보다 다른 아이들과 놀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아이는 다소 감정적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아이는 활동할 때 대개 천천히 움직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아이는 친구(혹은 사람)를 쉽게 사귀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움직인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아이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아이는 종종 보채면서 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아이는 사교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아이는 매우 활동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아이는 낯선 사람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외톨이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아이는 활동적인 놀이보다는 조용하고 정적인 놀이를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아이는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우리 아이는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아이는 낯선 이와 잘 친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이)가 집에서 음식을 먹는 습관, 아침식사, 간식, 외식 횟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22-1. ○○(이)가 집에서 음식을 먹는 습관은 어떠합니까?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의 식사시간은 규칙적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이)의 식사량은 일정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이)의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이)의 식사속도는 빠른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이)는 엄마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식사를 잘 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22-2. ○○(이)는 집에서 아침식사를 일주일에 평균 몇 번 합니까?

- ① 거의 안 먹음 ② 주 1-2회 ③ 주 3-4회 ④ 주 5-6회 ⑤ 거의 매일 먹음

22-3. ○○(이)는 집에서 간식을 하루에 평균 몇 번 먹습니까?

- ① 거의 안 함 ② 1일 1회 ③ 1일 2회 ④ 1일 3회 ⑤ 1일 4회 이상

22-4. ○○(이)는 외식(배달음식 포함)을 일주일에 평균 몇 번 합니까?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육아지원기관에서 먹는 식사 제외

- ① 거의 안 함 ② 주 1-2회 ③ 주 3-5회 ④ 주 6-7회 ⑤ 주 8회 이상

다음은 귀하께서 살고계신 동네에 관한 질문입니다.

23. 귀하가 현재 거주하시는 동네는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 ① 일반주택지역 ② 일반아파트지역 ③ 상가·회사지역
④ 공장(단)지역 ⑤ 농·어가지역 ⑥ 기타_____

24.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에 육아지원기관 및 사교육기관이 충분합니까?

문항내용	매우 충분함	충분함	보통임	충분함	매우 충분함
1)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지원기관	①	②	③	④	⑤
2) 기타 기관이나 학원 등 사교육기관(미술학원, 영어 학원,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문화센터, 선교원 등 포함)	①	②	③	④	⑤

30. ○○(이)는 주로 다니는 기관의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 ① 전혀 좋아하지 않음
- ② 별로 좋아하지 않음
- ③ 보통임
- ④ 대체로 좋아함
- ⑤ 아주 좋아함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1. 일반적으로 자녀는 몇 명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무자녀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⑥ 5명 이상

⑦ 잘 모르겠음

1-1. 딸·아들 구분해서 입니까? 구분 없이 입니까?

① 딸·아들 구분 없이

② 딸·아들 구분해서 (아들 _____ 명, 딸 _____ 명)

③ 딸·아들 구분 없이 동성으로

④ 잘 모르겠음

⑤ 기타

다음은 귀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2. 다음은 ○○(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항별로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6)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1)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아버지의 ○○(이)의 양육 참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아이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아이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아이의 식사를 도와주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아이와 함께 자주 놀아주거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이)에 대한 귀하의 양육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와 이야기해주고 놀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족규칙을 아이와 함께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가 성취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아이가 어려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아이가 잘못 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지켜야 할 규칙, 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가정교육을 위해 아이의 행동을 제한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아이가 짜증내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나타내는 견해를 진술한 것입니다. 귀하는 둘 중 어디에 더 동의하십니까?

- ①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 ②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6. 다음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을 5가지만 골라 주십시오.(우선순위 없이 선택)

-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 ① 예의바른 생활습관 ② 독립심 ③ 근면함
 ④ 책임감 ⑤ 상상력 ⑥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⑦ 검소함, 저축하고 절약하기 ⑧ 결단력과 끈기 ⑨ 종교적 신념
 ⑩ 이타심 ⑪ 어른 말씀 잘 듣기

다음은 귀 부부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7. 귀 부부에 대하여 다음의 문항별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매우 불만족	비교적 불만족	보통	비교적 만족	매우 만족
1)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아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아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8. 다음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 부부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2) 아내는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아내는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내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아내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떨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는 다르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 자신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9.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가진 문제들 중 몇몇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살면서 때때로 뭔가에 휘둘리는 느낌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통제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삶의 문제들을 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자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13)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4)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귀하는 지난 30일 동안 다음의 느낌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얼마나 자주	전혀 안느낌	별로 안느낌	종종 느낌	대체로 느낌	항상 느낌
1)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지난 30일 동안 안전부절 못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지난 30일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7. 귀하가 현재 일하시는 직장(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속되어 있는 지점이나 공장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 일반 회사인 경우 회사명과 지점명까지, 교사인 경우 초등/중등/고등학교까지, 공무원인 경우 중앙부처/시군구명/읍면동사무소까지(예: ○○전자 ○○공장, ○○초등학교 혹은 서울시청)
- ※ 뚜렷한 직장명이 없는 경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기입

직장(사업체)명: _____

17-1. 위 직장(사업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 직장명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없는 중소기업체인 경우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 표기 요망
- ※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 장소를 기입

직장의 사업 내용(업종): _____

17-2. 위 직장(사업체)에서 귀하가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 ※ 사무직인 경우 행정직/전산직/기술직, 음식점인 경우 조리/서빙 등, 교사인 경우 영어/수학 등 과목명 기입
- ※ 가급적 자세히 기입(ex. 택시운전, 건설용 트럭 운전, 한식조리, 양식조리 등)

주로 하는 일: _____

17-3. 위 직장(사업체)에서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 프리랜서, 공무원의 경우 급수, 회사원인 경우 평사원/대리/과장/부장 등의 직위, 음식점인 경우 사장/매니저/일반직원 등

직장(사업체) 내 직위: _____

18. 귀하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 ① 상용직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② 임시직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 ③ 일용직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
- ④ 종업원을 둔 고용주
- 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⑥ 무급가족종사자(혈연관계 가족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정기적인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다음은 육아정책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19. 다음은 근로 장소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입니다. 각각의 필요 정도에 대하여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구 분	매우 대체로		보통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필요
1) 여성의 출산휴가	①	②	③	④	⑤
2) 여성의 육아휴직	①	②	③	④	⑤
3) 남성의 출산휴가	①	②	③	④	⑤
4) 남성의 육아휴직	①	②	③	④	⑤
5) 직장 어린이집	①	②	③	④	⑤
6) 보육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7) 수유실 설치	①	②	③	④	⑤
8)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또는 유급 수유시간	①	②	③	④	⑤
9) 시차 출근제	①	②	③	④	⑤
10) 대체인력풀 운영	①	②	③	④	⑤
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②	③	④	⑤

- ※ **여성의 출산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는 것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임신부의 보호)
- ※ **남성의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남성에게 5일의 휴가를 주는 것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의 배우자 출산휴가)
- ※ **육아휴직:**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것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 조의 육아휴직)
- ※ **유급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자 근로자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근무 중 수유시간을 부여받는 것
- ※ **시차출근제:** 근로자가 사정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 탄력근무라고도 함 (근로기준법 제 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 ※ **대체인력풀 운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 기관이 운영하는 제도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신 최대 1년 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2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의 총 사용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음

19-1. 앞의 11가지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를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부록 6. 5차년도(2012) 어린이집용 질문지



한국아동패널 2012 어린이집 질문지 (web)

※ 본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취학 전 영유아를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신생아 시기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전국 단위의 종단적 연구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질 높은 육아환경 설계를 위한 육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본 조사는 「한국아동패널」 연구에 참여한 아동과 기관에 관한 내용으로, **부모의 동의 하에 현재 아이가 다니고 있는 기관의 담임 선생님이 응답하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개인에 대한 정보는 절대로 노출되지 않으니, 선생님의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15분가량** 소요됩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10층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연구팀 Tel 02) 398-0000, 0000, Fax 02) 730-0000 e-mail: panel@kicce.re.kr	<조사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주)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한국아동패널』 조사팀 Tel 02) 3488-0000, Fax 02) 598-0000
--	--

어린이집 이름		어린이집 연락처	
선생님의 성별	① 여 ② 남	선생님의 연령	만 _____ 세
처음으로 OO(이)의 담임교사를 맡게 된 시기	_____ 년 _____ 월		



다음은 OO(이)가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12. OO(이)의 평소 행동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 우측의 스크롤 바를 이용해 아래의 모든 문항에 응답해 주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친구를 돕는다.	①	②	③	④
2) 몸싸움이나 말싸움을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3) 다른 친구에게 거부당한다.	①	②	③	④
4)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놀이에 함께 하지 못하고 주위를 배회한다.	①	②	③	④
6) 친구와 놀잇감을 나눈다.	①	②	③	④
7) 위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8) 목적 없이 돌아다닌다.	①	②	③	④
9) 친구들이 놀이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0) 다른 친구에게 무시를 당한다.	①	②	③	④
11) 선생님에게 이른다.	①	②	③	④
12) 친구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13) 친구의 물건이나 놀잇감을 부순다.	①	②	③	④
14)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반대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15) 놀자고 할 때 거절한다.	①	②	③	④
16) 놀이를 시작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7) 친구에게 언어적 비난을 한다.	①	②	③	④
18) 친구의 행동을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19)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울거나 징징거리거나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20) 친구에게 함께 놀자고 한다.	①	②	③	④
21) 친구의 놀잇감을 빼앗는다.	①	②	③	④
22) 다치거나 슬퍼하는 친구를 위로한다.	①	②	③	④
23) 놀이에서 혼란스러워 한다.	①	②	③	④
24) 친구와 놀이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말한다. (예: 우리 지금 ____하고 있다고 하자. 나는 아빠라고 하고 넌 엄마해, 우리 학교 간다고 하자.)	①	②	③	④
25) 친구의 놀이를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26)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7) 친구와의 놀이에서 긍정적 감정을 표현한다.(예: 미소짓기, 웃기)	①	②	③	④
28)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신체적 공격성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29) 친구와의 놀이에서 창의성을 나타낸다.	①	②	③	④
30) 놀이가 순조롭고 융통성 있다.	①	②	③	④

다음은 어린이집에서의 OO(이)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13. OO(이)가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행동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십시오.
 ※ 우측의 스크롤 바를 이용해 아래의 모든 문항에 응답해 주세요.

<표준화 척도>이므로 비공개 문항임.

다음은 OO(이) 부모님의 기관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4. OO(이)의 어머니(또는 아버지나 보호자)는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에서의 OO(이) 생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 편입니까?
 ① 전혀 관심 없음 ② 별로 관심 없는 편 ③ 보통
 ④ 관심을 가지는 편 ⑤ 매우 관심이 큼
15. OO(이)의 어머니(또는 아버지나 보호자)는 다음의 어린이집에서 진행되는 부모참여 행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입니까? **올 한 해 (2012년 1월~현재) 동안 참여했던 행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십시오.

어린이집 행사	참여함	참여하지 않음	모르겠음	해당없음 (행사 미개최)
1) 오리엔테이션	①	②	▶원클릭	▶원클릭
2) 아동 행사 (운동회, 재롱잔치 등)	①	②	▶원클릭	▶원클릭
3) 자원봉사 (급식준비, 야외활동, 수업보조, 청소 등)	①	②	▶원클릭	▶원클릭
4) 부모교육 프로그램	①	②	▶원클릭	▶원클릭
5) 담임 상담	①	②	▶원클릭	▶원클릭
6) 가정통신에 대한 답장	①	②	▶원클릭	▶원클릭
7) 재정적 기여 (전체간식제공, 바자회 지원 등)	①	②	▶원클릭	▶원클릭
8)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①	②	▶원클릭	▶원클릭

다음은 선생님의 교사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16. 선생님의 현재 생각과 교사 생활을 가장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 우측의 스크롤 바를 이용해 아래의 모든 문항에 응답해 주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루기 어려운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지도할 경우 아이들의 학습의욕을 높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활동을 해야 할 경우 그 활동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활동을 잘 생각하도록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교육활동에 흥미가 적은 아이들을 지도할 경우, 그 아이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아이들이 협력하여 활동하도록 이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열악한 주변 환경이 아이들의 학습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아이에게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자주 상호작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아이의 요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아이와 다정하고 자상한 태도로서 대화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아이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독립적 행동을 격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긍정적인 지도 방법을 사용하여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우리 기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정되고 즐거운 상태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아이가 자유롭게 놀이나 다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자유로운 학습 환경을 마련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협동하기, 차례 지키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논하기 같은 아이의 친사회적 행동을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아이의 발달에 맞는 사회적 행동을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아이들이 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의견을 나눔으로써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선생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어린이집의 환경 및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입니다.

17. 현재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반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혼합연령반의 경우 해당 반에 있는 아동의 연령을 입력해 주세요.

17-1. 연령	① 단일연령반 ② 혼합연령반 (만__세 부터 만 __세 까지)
17-2. 선생님 반의 아동 수	남아 _____명, 여아 _____명
17-3. 선생님 반의 교사 수	① 주 담임 _____명 ② 부 담임 _____명 ③ 보조 교사 _____명

18.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어린이집의 교실 환경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실 내의 공간은 (영)유아의 연령과 흥미,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교실 내의 자료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3) 교실 내에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영역의 자료가 골고루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교실 내에 (영)유아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자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선생님의 실 근무시간은 1일 평균 몇 시간입니까? 주중, 주말을 나누어 응답해주시시오.

19-1. 주중 근무시간	19-2. 주말 근무 일 수 ※ 1개월은 4주 기준(최대 8일)	19-3. 주말 근무시간
1일 평균 _____시간 _____분	1개월 평균 _____일	1일 평균 _____시간 _____분

20.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어린이집의 교실에는 아이가 휴식을 취할 공간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21. 어린이집에 실외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③ 없지만 주변 놀이터 및 공원에서 실외놀이를 하고 있다

22. 어린이집 실내에 대근육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23. 다음은 OO(이)가 어린이집에서 받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어린이집의 **정규 프로그램 외 특별활동**

① 없음 ⇒ 24번 문항으로 ② 있음 ⇒ 23-1번 문항으로

※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은 그에 대한 비용을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거나 외부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만 포함됨

※ 통합 프로그램은 개별 교과목만 하는 것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예를 들어, 영어로 하는 발레, 노래로 하는 중국어 등 두 영역 이상의 활동을 반반 정도씩 하는 경우, 통합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수업 초반에 주의집중을 위해 노래로 도입활동을 하는 체육 프로그램 등은 통합프로그램에서 제외됨

특별활동	23-1. OO(이)가 이용하는 프로그램 수	23-2. OO(이)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일주일 총 이용 횟수	23-3. OO(이)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일주일 총 이용 시간
1) 미술 (그림, 공작, 서예 등)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2) 음악 (피아노, 바이올린 등)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3) 체육 (발레, 수영, 태권도 등)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4) 과학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5) 수학 (숫자, 산수, 주산 등)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6) 국어 (한글, 동화구연, 웅변 등)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7) 컴퓨터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8) 교구 이용프로그램 (가베, 은물, 문태소리, 레고 등)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9) 한자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10) 영어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11) 기타 외국어 (중국어 등)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12) 통합프로그램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13) 기타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다음은 어린이집과 선생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24. 현재 근무하고 계신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공공형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은 민간, 가정, 법인 중에 해당되는 보기에 응답해주시시오.

- ① 국공립 ② 법인 ③ 직장 ④ 민간 ⑤ 가정 ⑥ 부모협동

25. 현재 근무하고 계신 어린이집의 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중복응답 가능)
 ※ 어린이집 유형을 모르실 경우, 어린이집에 확인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일반 ② 영아 전담 ③ 장애아 전담 ④ 장애아 통합
 ⑤ 시간 연장 ⑥ 24시간 ⑦ 휴일 ⑧ 방과 후

26. 현재 근무하고 계신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까?
 ※ 인증 준비 중, 통과 유보 등은 '인증 받지 않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 평가인증 여부를 모르실 경우, 어린이집에 확인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재인증 받음 ② 신규인증 받음 (인증 시기 _____년)
 ③ 심사중 (신청 상태) ④ 인증 받지 않음

27. 현재 근무하고 계신 어린이집의 총 현재 반 수와 총 현원 아동 수는 어떻게 됩니까?
 1) 어린이집의 **현재 반(학급) 수** _____ 개
 2) 어린이집의 **총 현원 아동** _____ 명

28. 선생님의 교사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근무기간이 15일 이상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0개월로 응답.

기관	재직 경험 유무 및 교사 경력
어린이집	① 없다 ② 있다()년 ()개월
유치원	① 없다 ② 있다()년 ()개월
반일제 이상 학원	① 없다 ② 있다()년 ()개월

29. 선생님의 교사 자격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되는 보기를 모두 골라 ✓표 해주십시오.
 (중복응답)
- ① 없음 ② 유치원 교사 자격증 (원감, 원장 자격 포함)
 ③ 보육교사 자격증 (시설장 자격 포함) ④ 초·중등교사 자격증

30. 선생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중퇴 및 수료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 ① 고등학교 졸업 **⇒ 조사종료** ③ 전문대 (3년제 이하 기능대학) 졸업
 ② 전문대 (3년제 이하 기능대학) 재학 ④ 대학교 (4년제 이상) 졸업
 ④ 대학교 (4년제 이상) 재학 ⑤ 대학교 (4년제 이상) 졸업
 ⑥ 대학원 재학 ⑦ 대학원 졸업

31. 선생님의 전공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되는 보기를 한 가지만 골라 ✓표 해주십시오.
- ① 유아교육 ② 보육학 ③ 아동학
 ④ 교육학 ⑤ 미술계열 (미술교육) ⑥ 음악계열 (음악교육)
 ⑦ 영문학 (영어교육) ⑧ 체육계열 (체육교육) ⑨ 기타(인문, 사회, 이공계열 등)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부록 7. 5차년도(2012) 유치원용 질문지



한국아동패널 2012 유치원 질문지 (web)

※ 본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취학 전 영유아를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신생아 시기부터 시작하
여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전국 단위의 종단적 연구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질 높은
육아환경 설계를 위한 육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본 조사는 「한국아동패널」 연구에 참여한 아동과 기관에 관한 내용으로,
부모의 동의하에 현재 아이가 다니고 있는 기관의 담임 선생님이 응답하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개인에 대한 정보는 절대로 노출되지 않으니, 선생님의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15분가량** 소요됩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주관기관>	<조사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지로 33 안국빌딩 10층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연구팀 Tel 02) 398-0000, 0000, Fax 02) 730-0000 e-mail: panel@kicce.re.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주)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한국아동패널』 조사팀 Tel 02) 3488-0000, Fax 02) 598-0000

유치원 이름		유치원 연락처	
선생님의 성별	① 여 ② 남	선생님의 연령	만 _____ 세
처음으로 OO(이)의 담임교사를 맡게 된 시기	_____ 년 _____ 월		

다음은 OO(이)가 평소 행동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오.

12. OO(이)의 평소 행동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오.

※ 우측의 스크롤 바를 이용해 아래의 모든 문항에 응답해 주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친구를 돕는다.	①	②	③	④
2) 몸싸움이나 말싸움을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3) 다른 친구에게 거부당한다.	①	②	③	④
4)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놀이에 함께 하지 못하고 주위를 배회한다.	①	②	③	④
6) 친구와 놀잇감을 나눈다.	①	②	③	④
7) 위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8) 목적 없이 돌아다닌다.	①	②	③	④
9) 친구들이 놀이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0) 다른 친구에게 무시를 당한다.	①	②	③	④
11) 선생님에게 이른다.	①	②	③	④
12) 친구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13) 친구의 물건이나 놀잇감을 부순다.	①	②	③	④
14) 친구들에게 싸우지 않고 반대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15) 놀자고 할 때 거절한다.	①	②	③	④
16) 놀이를 시작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7) 친구에게 언어적 비난을 한다.	①	②	③	④
18) 친구의 행동을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19)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울거나, 징징거리거나,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20) 친구에게 함께 놀자고 한다.	①	②	③	④
21) 친구의 놀잇감을 빼앗는다.	①	②	③	④
22) 다치거나 슬퍼하는 친구를 위로한다.	①	②	③	④
23) 놀이에서 혼란스러워 한다.	①	②	③	④
24) 친구와 놀이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말한다. (예: 우리 지금 ___하고 있다고 하자. 나는 아빠라고 하고 넌 엄마해. 우리 학교 간다고 하자.)	①	②	③	④
25) 친구의 놀이를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26)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7) 친구와의 놀이에서 긍정적 감정을 표현한다.(예: 미소짓기, 웃기)	①	②	③	④
28)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신체적 공격성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29) 친구와의 놀이에서 창의성을 나타낸다.	①	②	③	④
30) 놀이에서 순조롭고 융통성 있다.	①	②	③	④

다음은 유치원에서의 OO(이)의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13. OO(이)가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행동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 우측의 스크롤 바를 이용해 아래의 모든 문항에 응답해 주세요.

<표준화 척도>이므로 비공개 문항임.

다음은 OO(이) 부모님의 기관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4. OO(이)의 어머니(또는 아버지나 보호자)는 전반적으로 유치원에서의 OO(이) 생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 편입니까?
 ① 전혀 관심 없음 ② 별로 관심 없는 편 ③ 보통
 ④ 관심을 가지는 편 ⑤ 매우 관심이 큼
15. OO(이)의 어머니(또는 아버지나 보호자)는 다음의 유치원에서 진행되는 부모참여 행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입니까? **올 한 해 (2012년 1월~현재) 동안 참여했던 행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유치원 행사	참여함	참여하지 않음	모르겠음	해당없음 (행사 미개최)
1) 오리엔테이션	①	②	▶원클릭	▶원클릭
2) 아동 행사 (운동회, 재롱잔치 등)	①	②	▶원클릭	▶원클릭
3) 자원봉사 (급식준비, 야외활동, 수업보조, 청소 등)	①	②	▶원클릭	▶원클릭
4) 부모교육 프로그램	①	②	▶원클릭	▶원클릭
5) 담임 상담	①	②	▶원클릭	▶원클릭
6) 가정통신에 대한 답장	①	②	▶원클릭	▶원클릭
7) 재정적 기여 (전체간식제공, 바자회 지원 등)	①	②	▶원클릭	▶원클릭
8) 유치원 운영위원회	①	②	▶원클릭	▶원클릭

다음은 선생님의 교사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16. 선생님의 현재 생각과 교사 생활을 가장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 우측의 스크롤 바를 이용해 아래의 모든 문항에 응답해 주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루기 어려운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지도할 경우 아이들의 학습의욕을 높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활동을 해야 할 경우 그 활동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활동을 잘 생각하도록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교육활동에 흥미가 적은 아이들을 지도할 경우, 그 아이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아이들이 협력하여 활동하도록 이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열악한 주변 환경이 아이들의 학습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아이에게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자주 상호작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아이의 요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아이와 다정하고 자상한 태도로서 대화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아이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독립적 행동을 격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긍정적인 지도 방법을 사용하여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우리 기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정되고 즐거운 상태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아이가 자유롭게 놀이나 다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자유로운 학습 환경을 마련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협동하기, 차례 지키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논하기 같은 아이의 친사회적 행동을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아이의 발달에 맞는 사회적 행동을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아이들이 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의견을 나눔으로써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선생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유치원의 환경 및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입니다.

17. 현재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17-1. 연령	① 단일연령반 ② 혼합연령반 (만 ___세 부터 만 ___세 까지)
17-2. 선생님 학급의 아동 수	남아 _____명, 여아 _____명
17-3. 선생님 학급의 교사 수	① 주 담임 _____명 ② 부 담임 _____명 ③ 보조 교사 _____명

18.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유치원의 교실 환경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실 내의 공간은 유아의 연령과 흥미,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교실 내의 자료는 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3) 교실 내에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영역의 자료가 골고루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교실 내에 유아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자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선생님의 실 근무시간은 1일 평균 몇 시간입니까? 주중, 주말을 나누어 응답해주시시오.

19-1. 주중 근무시간	19-2. 주말 근무 일 수 ※ 1개월은 4주 기준(최대 8일)	19-3. 주말 근무시간
1일 평균 ___시간 ___분	1개월 평균 _____일	1일 평균 ___시간 ___분

20.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유치원의 교실에는 아이가 휴식을 취할 공간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21. 유치원에 실외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③ 없지만 주변 놀이터 및 공원에서 실외놀이를 하고 있다

22. 유치원 실내에 대근육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23. 다음은 OO(이)가 유치원에서 받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유치원의 정규 프로그램 외 특별활동

① 없음 → 24번 문항으로 ② 있음 → 23-1번 문항으로

※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은 그에 대한 비용을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거나 외부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만 포함됨

※ 통합 프로그램은 개별 교과목만 하는 것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예를 들어, 영어로 하는 발레, 노래로 하는 중국어 등 두 영역 이상의 활동을 반반 정도씩 하는 경우, 통합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수업 초반에 주의집중을 위해 노래로 도입활동을 하는 체육 프로그램 등은 통합프로그램에서 제외됨

특별활동	23-1. OO(이)가 이용하는 프로그램 수	23-2. OO(이)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일주일 총 이용 횟수	23-3. OO(이)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일주일 총 이용 시간
1) 미술 (그림, 공작, 서예 등)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2) 음악 (피아노, 바이올린 등)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3) 체육 (발레, 수영, 태권도 등)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4) 과학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5) 수학 (숫자, 산수, 주산 등)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6) 국어 (한글, 동화구연, 웅변 등)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7) 컴퓨터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8) 교구 이용프로그램 (가베, 은물, 몬테소리, 레고 등)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9) 한자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10) 영어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11) 기타 외국어 (중국어 등)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12) 통합프로그램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13) 기타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다음은 유치원과 선생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24. 현재 근무하고 계신 유치원의 설립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국립 ② 공립 (병설) ③ 공립 (단설) ④ 사립 법인 ⑤ 사립 개인
25. 현재 근무하고 계신 유치원은 “2주기 유치원 평가(2011년-2013년)”를 받았습니까?
 ※ 평가 여부를 모르실 경우, 유치원에 확인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① 평가 받음 ② 평가 받을 예정 ③ 평가 계획 없음
26. 현재 근무하고 계신 유치원의 총 학급 수와 총 현원 아동 수는 어떻게 됩니까?
 1) 유치원의 **총 학급 수** _____ 개 2) 유치원의 **총 현원 아동 수** _____ 명
27. 선생님의 교사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근무기간이 15일 이상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0개월로 응답.

기관	재직 경험 유무 및 교사 경력
어린이집	① 없다 ② 있다()년 ()개월
유치원	① 없다 ② 있다()년 ()개월
반일제 이상 학원	① 없다 ② 있다()년 ()개월

28. 선생님의 교사 자격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되는 보기를 모두 골라 ✓표 해주십시오.
 (중복응답)
 ① 없음
 ② 유치원 교사 자격증 (원감, 원장 자격 포함)
 ③ 보육교사 자격증 (시설장 자격 포함)
 ④ 초·중등교사 자격증
29. 선생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중퇴 및 수료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① 고등학교 졸업 ➔ **조사종료**
 ② 전문대 (3년제 이하 기능대학) 재학 ③ 전문대 (3년제 이하 기능대학) 졸업
 ④ 대학교 (4년제 이상) 재학 ⑤ 대학교 (4년제 이상) 졸업
 ⑥ 대학원 재학 ⑦ 대학원 졸업
30. 선생님의 전공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되는 보기를 한 가지만 골라 ✓표 해주십시오.
 ① 유아교육 ② 보육학 ③ 아동학
 ④ 교육학 ⑤ 미술계열 (미술교육) ⑥ 음악계열 (음악교육)
 ⑦ 영문학 (영어교육) ⑧ 체육계열 (체육교육) ⑨ 기타(인문, 사회, 이공계열 등)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부록 8. 5차년도(2012) 반일제이상 학원용 질문지



한국아동패널 2012 반일제 이상 학원 질문지 (web)

※ 본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취학 전 영유아를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신생아 시기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전국 단위의 종단적 연구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질 높은 육아환경 설계를 위한 육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본 조사는 「한국아동패널」 연구에 참여한 아동과 기관에 관한 내용으로,
부모의 동의하에 현재 아이가 다니고 있는 기관의 담임 선생님이 응답하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개인에 대한 정보는 절대로 노출되지 않으니, 선생님의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15분가량** 소요됩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주관기관>	<조사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10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연구팀	(주)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Tel 02) 398-0000, 0000, Fax 02) 730-0000	『한국아동패널』 조사팀
e-mail: panel@kicce.re.kr	Tel 02) 3488-0000, Fax 02) 598-0000

학원 이름		학원 연락처	
선생님의 성별	① 여 ② 남	선생님의 연령	만 _____ 세
처음으로 OO(이)의 담임교사를 맡게 된 시기	_____ 년 _____ 월		



다음은 OO(이)가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12. OO(이)의 평소 행동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 우측의 스크를 바를 이용해 아래의 모든 문항에 응답해 주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친구를 돕는다.	①	②	③	④
2) 몸싸움이나 말싸움을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3) 다른 친구에게 거부당한다.	①	②	③	④
4)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놀이에 함께 하지 못하고 주위를 배회한다.	①	②	③	④
6) 친구와 놀잇감을 나눈다.	①	②	③	④
7) 위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8) 목적 없이 돌아다닌다.	①	②	③	④
9) 친구들이 놀이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0) 다른 친구에게 무시를 당한다.	①	②	③	④
11) 선생님에게 이른다.	①	②	③	④
12) 친구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13) 친구의 물건이나 놀잇감을 부순다.	①	②	③	④
14)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반대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15) 놀자고 할 때 거절한다.	①	②	③	④
16) 놀이를 시작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7) 친구에게 언어적 비난을 한다.	①	②	③	④
18) 친구의 행동을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19)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울거나 징징거리거나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20) 친구에게 함께 놀자고 한다.	①	②	③	④
21) 친구의 놀잇감을 빼앗는다.	①	②	③	④
22) 다치거나 슬퍼하는 친구를 위로한다.	①	②	③	④
23) 놀이에서 혼란스러워 한다.	①	②	③	④
24) 친구와 놀이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말한다. (예: 우리 지금 ____하고 있다고 하자. 나는 아빠라고 하고 넌 엄마해. 우리 학교 간다고 하자.)	①	②	③	④
25) 친구의 놀이를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26)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7) 친구와의 놀이에서 긍정적 감정을 표현한다.(예: 미소짓기, 웃기)	①	②	③	④
28)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신체적 공격성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29) 친구와의 놀이에서 창의성을 나타낸다.	①	②	③	④
30) 놀이가 순조롭고 융통성 있다.	①	②	③	④

다음은 학원에서의 OO(이)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13. OO(이)가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행동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 우측의 스크롤 바를 이용해 아래의 모든 문항에 응답해 주세요.

<표준화 척도>이므로 비공개 문항임.

다음은 OO(이) 부모님의 기관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4. OO(이)의 어머니(또는 아버지나 보호자)는 전반적으로 학원에서의 OO(이) 생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 편입니까?
 ① 전혀 관심 없음 ② 별로 관심 없는 편 ③ 보통
 ④ 관심을 가지는 편 ⑤ 매우 관심이 큼
15. OO(이)의 어머니(또는 아버지나 보호자)는 다음의 학원에서 진행되는 부모참여 행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입니까? 올 한 해 (2012년 1월~현재) 동안 참여했던 행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유치원 행사	참여함	참여하지 않음	모르겠음	해당없음 (행사 미개최)
1) 오리엔테이션	①	②	▶원클릭	▶원클릭
2) 아동 행사 (운동회, 재롱잔치 등)	①	②	▶원클릭	▶원클릭
3) 자원봉사 (급식준비, 야외활동, 수업보조, 청소 등)	①	②	▶원클릭	▶원클릭
4) 부모교육 프로그램	①	②	▶원클릭	▶원클릭
5) 담임 상담	①	②	▶원클릭	▶원클릭
6) 가정통신에 대한 답장	①	②	▶원클릭	▶원클릭
7) 재정적 기여 (전체간식제공, 바자회 지원 등)	①	②	▶원클릭	▶원클릭
(na)				

다음은 선생님의 교사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16. 선생님의 현재 생각과 교사 생활을 가장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 우측의 스크롤 바를 이용해 아래의 모든 문항에 응답해 주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루기 어려운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지도할 경우 아이들의 학습의욕을 높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활동을 해야 할 경우 그 활동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활동을 잘 생각하도록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교육활동에 흥미가 적은 아이들을 지도할 경우, 그 아이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아이들이 협력하여 활동하도록 이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열악한 주변 환경이 아이들의 학습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아이에게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자주 상호작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아이의 요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아이와 다정하고 자상한 태도로서 대화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아이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독립적 행동을 격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긍정적인 지도 방법을 사용하여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우리 기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정되고 즐거운 상태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아이가 자유롭게 놀이나 다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자유로운 학습 환경을 마련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협동하기, 차례 지키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논하기 같은 아이의 친사회적 행동을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아이의 발달에 맞는 사회적 행동을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아이들이 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의견을 내놓으로써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선생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학원의 환경 및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입니다.

17. 현재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반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혼합연령반의 경우 해당 반에 있는 아동의 연령을 입력해 주세요.

17-1. 연령	① 단일연령반 ② 혼합연령반 (만__세 부터 만 __세 까지)
17-2. 선생님 반의 아동 수	남아 _____명, 여아 _____명
17-3. 선생님 반의 교사 수	① 주 담임 _____명 ② 부 담임 _____명 ③ 보조 교사 _____명

18.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원의 교실 환경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실 내의 공간은 (영)유아의 연령과 흥미,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교실 내의 자료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3) 교실 내에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영역의 자료가 골고루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교실 내에 (영)유아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자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선생님의 실 근무시간은 1일 평균 몇 시간입니까? 주중, 주말을 나누어 응답해주시시오.

19-1. 주중 근무시간	19-2. 주말 근무 일 수 ※ 1개월은 4주 기준(최대 8일)	19-3. 주말 근무시간
1일 평균 ____시간 ____분	1개월 평균 _____일	1일 평균 ____시간 ____분

20.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원의 교실에는 아이가 휴식을 취할 공간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21. 학원에 실외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③ 없지만 주변 놀이터 및 공원에서 실외놀이를 하고 있다

22. 학원 실내에 대근육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23. 다음은 OO(이)가 학원에서 받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학원의 정규 프로그램 외 특별활동

① 없음 → 24번 문항으로 ② 있음 → 23-1번 문항으로

※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은 그에 대한 비용을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거나 외부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만 포함됨

※ 통합 프로그램은 개별 교과목만 하는 것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예를 들어, 영어로 하는 발레, 노래로 하는 중국어 등 두 영역 이상의 활동을 반반 정도씩 하는 경우, 통합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수업 초반에 주의집중을 위해 노래로 도입활동을 하는 체육 프로그램 등은 통합프로그램에서 제외됨

특별활동	23-1. OO(이)가 이용하는 프로그램 수 (각 영역별)	23-2. OO(이)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일주일 총 이용 횟수(각 영역별)	23-3. OO(이)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일주일 총 이용 시간 (각 영역별)
1) 미술 (그림, 공작, 서예 등)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2) 음악 (피아노, 바이올린 등)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3) 체육 (발레, 수영, 태권도 등)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4) 과학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5) 수학 (숫자, 산수, 주산 등)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6) 국어 (한글, 동화구연, 웅변 등)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7) 컴퓨터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8) 교구 이용프로그램 (가베, 은물, 몬테소리, 레고 등)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9) 한자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10) 영어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11) 기타 외국어 (중국어 등)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12) 통합프로그램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13) 기타	_____개	총 _____회	총 _____분

다음은 학원간 선생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24.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원의 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영어 학원 (영어유치원) ② 놀이학교 ③ 미술학원
 ④ 태권도, 음악 등의 학원 ⑤ 기타 ()

25.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원의 현재 반 수와 총 재원 아동 수는 어떻게 됩니까?
 1) 학원의 **현재 반(학급) 수** _____ 개
 2) 학원의 **총 재원 아동 수** _____ 명

26. 선생님의 교사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근무기간이 15일 이상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0개월로 응답.

기관	재직 경험 유무 및 교사 경력
어린이집	① 없다 ② 있다()년 ()개월
유치원	① 없다 ② 있다()년 ()개월
반일제 이상 학원	① 없다 ② 있다()년 ()개월

27. 선생님의 교사 자격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되는 보기를 모두 골라 표 해주십시오.
 (중복응답)
 ① 없음
 ② 유치원 교사 자격증 (원감, 원장 자격 포함)
 ③ 보육교사 자격증 (시설장 자격 포함)
 ④ 초·중등교사 자격증

28. 선생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중퇴 및 수료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① 고등학교 졸업 ➡ **조사종료** ③ 전문대 (3년제 이하 기능대학) 졸업
 ② 전문대 (3년제 이하 기능대학) 재학 ⑤ 대학교 (4년제 이상) 졸업
 ④ 대학교 (4년제 이상) 재학 ⑥ 대학교 (4년제 이상) 졸업
 ⑦ 대학원 재학 ⑧ 대학원 졸업

29. 선생님의 전공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되는 보기를 한 가지만 골라 표 해주십시오.
 ① 유아교육 ② 보육학 ③ 아동학
 ④ 교육학 ⑤ 미술계열 (미술교육) ⑥ 음악계열 (음악교육)
 ⑦ 영문학 (영어교육) ⑧ 체육계열 (체육교육) ⑨ 기타(인문, 사회, 이공계열 등)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연구보고 2013-41

한국아동패널 2013

발행일 2013년 12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8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선우정보인쇄 02) 2272-6105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69-5 93330

